이것이 사주학(四柱學)이다.

저자: 이세원 (010-8769-6903 , 070-8688-0090)
http://cafe.daum.net/sewonsaju (다음카페 세원사주학회)

업데이트: 2012.10.5.

본 문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문서화 하거나, 책으로 출판하려면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목차>

1.서문
2.진리(眞理)의 3대 법칙(法則)
3.역학의 유래(제자백가)
4.동양오술
5.사주 명리학(四柱 命理學)이란?
6.시간과 간지
7.공간과 오행
8.오행의 생과 극
9.음양이론
10.방위표
11.지장간
12.사주명식
13.대운
14.음력달력과 절기
15.사주명식 뽑아보기
16.간지론
17.육친론
18.궁도
19.천간의 합(合)과 충(沖)
20.지지의 합(合),충(沖),파(破),형(刑),해(害),원진(怨嗔),삼합(三合)
21.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
22.음양오행과 의술
23.길흉
24.궁합

25.직업에 따른 사주의 유형
26.취업,입학,연애(결혼),승진,이사(부동산 매매),임신(출산),공부,출산택일 등
27.래정법(來定法)
28.혼란스런 손님
29.맺는말

1.서문(序文)

동양에는 고대로부터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사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까지 인류의 모든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어 문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서구의 과학문명에 밀려 미신적이고 구태의연한 사상이 되고 말았으며 이제는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한낱 점술의 이론적 근거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음양오행 사상은 유효하다.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일깨워줄 수 있다.

음양오행은 진부하다고?
아니다. 그것은 음양오행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음양오행사상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오히려 현대의 과학이 풀지 못하는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열쇠다.

음양오행은 미신이라고?
아니다. 귀신의 존재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것을 미신이라고 할 수 있나.
또한 대단히 객관적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보다 더한 학문도 없다.

음양오행은 단지 이해하기 어려워 포기하거나, 과학의 배타성 때문에 학문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양오행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변해가는 모습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작게는 개인의 미래를 유추할 수 있고, 크게는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문명이 어디로 향하는지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음양오행은 의학, 생물학, 물리학 등 과학의 원리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나는 사회학자, 의사, 과학자, 정치가에게 음양오행을 반드시 공부하라고 부탁한다.
사회학자에게 음양오행은 사회를 해석하는 대단히 훌륭한 모델을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인간의 생명과 생리작용을 이해하는 원리를 제공하며
과학자에게는 우주의 힘과 원리를 이해시켜주는 도구를 제공하고
정치가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닫게 해준다.

음양오행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며, 업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이 나아가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2.진리(眞理)의 3대 법칙(法則)

진리라는 것은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이며, 이 세상의 그 어떤 현상이나 존재도 진리를 위배할 수는 없다.
만약 아래의 법칙을 위배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1)변화(變化)의 법칙

이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불변의 영원한 것은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도 있듯이 영원할 것 같던 강도 물줄기가 변하고, 늘 그 자리에서 변할 것 같지 않던 산도 깎여 다른 모양이 된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듯이 언제나 똑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 잘 사는 사람도 영원히 잘 살수는 없을 것이며, 지금 못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잘사는 날이 올 것이다.
혹자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안변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다.
다이아몬드건 금이건 수 천년, 수 만년, 아니면 수 억년이 지나면 다 변한다.
학창시절에 풍화작용이란 것을 배웠는데 그러한 작용으로 물질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변한다.

2)인과(因果)의 법칙

어떤 현상(결과)에는 그것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보통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원인을 알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에서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일 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지지 않는가.

학문도 마찬가지다.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배워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귀신이나 신선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모르면 배워야 한다.

가끔 우주에는 어떤 곳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아놓은 창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가 실지로 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신(神)의 작용이다. 이를테면 어떤 지식을 가진 체 죽은 사람이 신(神)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 경우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뤄질 것이다.
지식이란 인류가 알아가는 것이다.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3)물질(物質)의 법칙

존재(存在)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이다.

영혼이나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물질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직 과학적으로 그들의 존재가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될 것이고, 과학으로 밝혀진다면 <고스트 버스터즈>의 영화처럼 귀신을 잡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3.역학의 유래(諸子百家)

역학을 말할 때 도교(道敎)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도교는 또한 제자백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역사상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가장 활발하게 꽃피웠던 시기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B.C. 770 ~ B.C. 221)였다.

당시는 주(周)나라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각 지방의 제후들 간의 세력다툼이 심했으며, 제후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학자들의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정치를 하던 시기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가들을 제자백가라고 부른다.

이들 사상가들이 주장한 사상은 주로 치세(治世)의 학문으로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역설하는 정치사상이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 도교 등도 이때의 사상으로서 본래 정치학(政治學)이다.
어떡하면 왕은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고 세상을 안정시켜 백성을 통치하는가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제자백가중의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유가(儒家)는 인(仁)과 예(禮)를 중심으로 통치하라 하고,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道家)는 무위지치(無爲之治)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고,
한비자로 대표되는 법가(法家)는 강력한 법(法)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다.
그 외 묵가(墨家), 병가(兵家), 명가(名家), 종횡가(縱橫家), 음양가(陰陽家), 신선가(神仙家) 등의 수많은 사상들이 있다.
진시황(秦始皇)은 법가의 사상을 받아드려 강력한 법으로 통치를 하고 결국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룩했다.

진(秦)나라가 망하고 한(漢)나라가 들어서면서 천하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법가는 유가에게 밀리게 된다. 천하가 혼란할 때는 강력한 법으로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었지만, 치세의 시절에는 백성을 교화하는데 중점을 둔 유가의 철학이 통치에 더욱 적합했기 때문이다.

한나라에 들어서면서 다양했던 제자백가의 사상은 크게 유가의 사상과 도가의 사상으로 모아지고 정리가 된다.

제자백가의 사상 중에 신선가, 음양가의 사상은 도교(道敎)로 편입된다.

본래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은 통치학적으로 '무위지치(無爲之治)'를 주장한다.
무위자연의 사상은 '인위적으로 자연을 변경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연을 변경시키면 자연의 조화가 깨져 결국 인간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고, 무위지치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왕이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것이다.
그냥 놔둬도 백성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 것이고 그로인해 천하는 태평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격양가(擊壤歌)' 가 있다. (반면에 유가의 사상은 백성은 어리

석어 교화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하는 어지러워 질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자백가의 신선가(神仙家)나 음양가(陰陽家)는 마땅히 갈 데가 없다.
이들의 사상은 본래 통치학과는 어울리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사라지자니 너무나 독창적인 사상이기에 아까운 것이다.

신선가는 불로장생을 추구하고 신선의 삶을 동경하는데, 이들은 개별적인 인간의 내적 수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대중적이지도 않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방으로 사람을 보낸 것은 신선가의 영향이다.)

음양가는 음양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고 미래의 일을 알고자하는 운명론자들이다.
왕이 개인적으로 운명론을 신봉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의 통치를 운명론에 따라 행 할 수는 없다.
운명론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신선가와 음양가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은밀하고 개인적인 수양이며, 또한 신비적이어서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공통점에 하나로 결합된다.

신선가와 음양가는 어렵지 않게 결합이 되는데, 도가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그것은 도가는 무위자연을 추구하므로 인위적으로 또는 억지로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신선이 되려는 수행도 도가의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 죽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거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음양가는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불행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도 도가의 입장에서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도교는 그렇게 무위자연의 사상, 신선사상, 음양오행의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데, 신선사상은 종교적으로 흐르기도 한다. 그래서 옥황상제(玉皇上帝)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神)을 추종한 것은 아니고, 한나라 때에 일부종파가 종교화시킨 것이다.

참고로 도가는 무력(武力)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무력이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인데, 자연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본래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니 무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반면에 유가는 인간세상을 힘으로써 지배하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며 인(仁)과 예(禮)로써 인간세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래 동양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절대유일의 신(神)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물주라는 것도 '이 세상을 만든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이란 전제하에서 생각하는 가상의 개념일 뿐이다. 그러나 귀신(鬼神)의 존재는 처음부터 인정해 왔다.

동양에는 처음부터 교(敎)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무술영화에 많이 나오는 전진교 등)
교(敎)는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을 추종하는 모임이다.

종교(宗敎)는 그러한 모임이 신(神)을 추종할 때 성립된다.
그 신(神)은 신(神)이 된 어떤 사람(神格化)이거나 귀신(鬼神)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유일의 창조주의 개념은 아니다.
참고로 당(黨)은 그러한 모임이 정치적일 경우에 부르는 말이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문(鸞郎碑序文)에 '유(儒), 불(佛), 선(仙)의 사상을 포함하는 풍류라는 것이 있다' 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중 왜 하필 도(道)가 아니라 선(仙)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땅에는 선교가 도교로 흡수되기 전의 명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역사학자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어쩌면 신선사상은 본래 우리 땅에서 성립한 것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 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단군은 신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도를 닦는 자는 '깨달음'을 구한다고 한다.
지금도 계룡산이나, 지리산에 가면 홀로 움막에서 도를 닦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데 모여 생활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면 도 닦는 사람이며, 깨달음을 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닦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도라고 하면 무위자연, 신선수행, 음양오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난데없이 '깨달음'이란 말이 나온다.

'깨달음'은 도(道)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선(禪)이다.
그리고 선은 불가의 수행법이다. 도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깨달음'이 마치 도교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도교가 그 뿌리도 알 수 없게 퇴색되었다는 이야기다.

요즘 대도시에는 '명상'수련을 하는 곳들이 있다. 많은 곳이 요가와 병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명상수련의 내용은 불가(佛家)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참선(參禪)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간판을 '참선수련'이라고 하면 종교적 색체 때문에 영업에 불편함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로 참선과 같은 의미지만 이름만 바꿔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치 인도에서 건너온 것으로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는 식의 영업상의 노하우(Know How) 일 뿐이다.

4.동양오술(東洋五術)

동양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5가지 술법(術法)이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도술(道術)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양과 다르게 신비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동양의 신비학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1)명(命)

명(命)이란 하늘의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하늘이 '너에게 명령을 내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한다.

명리학(命理學)은 명(命)의 이치(理)를 밝히는 학문(學文)이다.
학문이므로 그것에 관한 이론이 있으며, 공식에 의해서 점괘가 나오므로 누가 점을 치던 동일한 점괘가 나온다. 다만, 해석은 그것을 풀이하는 역술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명리학에는 사주명리학, 자미두수, 기문둔갑, 육임, 당사주 등이 있다.
이론이 있는 운명학이면 모두 명리학인 것이다.

2)복(卜)

복(卜)이란 명리학처럼 학문적 이론을 통하지 않고, 다분히 개인의 영적능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점을 치니 점괘도 다르며 해석도 다분히 주관적이다.
신점, 각종 잡다한 점(새점, 뽑기 등) 등
이론이 없는 점은 모두 복술에 해당하며, 이론이 없으므로 즉흥적으로 점괘가 뽑힌다.

참고로 역점(易占)은 복술(卜術)이다.
본래 역점의 이론적 근거인 주역(周易)은 학문으로서 음양학(陰陽學)에 관한 이론이지만, 막상 점을 치는 방식은 복술이다. 개인의 영감에 따라 점괘가 모두 다르게 나오며 이를 해석하는 방법도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3)상(相)

상(相)은 어떤 물체나, 대상의 형상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길흉을 판별하는 것으로 풍수지리, 관상, 수상 등이 이에 속한다.

상에도 어느 정도 이론이 있으므로 공부를 해야 한다.
종종 관상쟁이라고 하면서 얼굴을 보고 지난과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神)끼에 의한 것이다.
신끼를 가지고 있으면서 명리학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4)의(醫)

의(醫)는 동양의 전통의술로서 침구(鍼灸)를 사용하고 약(藥)을 통해 질병(疾病)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으며 언제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다.
병이 오면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병이 하나면 치료방법은 열 가지가 있다.
세상의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의사만 의사는 아니며 다만 살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어도 의사라 할 수 있다.

의사라는 용어는 보통 양의(洋醫師)나 한의(韓醫師)만을 의미하는데, 넓게는 의(醫)를 공부한 자를 의가(醫家)라고 부른다.

동양의 의술도 지극히 음양오행의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술을 행하는 자는 실상 음양오행을 잘 모른다. 대부분 경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한의학을 이루었고, 침과 뜸의 대가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치료한 선생님도 음양오행에 관해 물어보면 잘 모른다.
만약 그분들이 음양오행을 잘 안다면 신의(神醫)가 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5)산(山)

산(山)은 신선수행(神仙修行)을 하는 것인데, 보통 산에서 도 닦는다고 하면 산인 것이다.
신선수행의 방법으로는 내단(內丹), 외단(外丹), 방술(房術)이 있다.

내단(內丹)
내단은 호흡을 통해 단전에 기를 모으고 양신(陽身)을 구해서 시해선(屍解仙)을 통해 신선이 되는 법이다.
신선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비교적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외단(外丹)
외단은 약(藥)을 통해서 양신을 기르거나 불로장생을 이루는 것이다.
외단의 약은 실은 납(鈉)이며, 결국 납중독(鈉中毒)으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이다.
약은 매우 다양하다. 불로초(不老草)가 납일리는 없지 않은가.
요즘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효소'라고 불리는 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팔기도 하는데 그들의 궁극의 목적은 외단을 이루는 것이다.

요즘은 심지어 대기업의 제품으로 나와 팔리는 것도 있다.

방술(房術)

방술은 방중술(房中術)이라고도 하며 불로장생의 몸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신선'이라고 하면 보통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연상하지만, 간혹 젊은 몸을 가졌다고 하는 신선들이 있다. 그들은 방술 또는 외단으로 늙지 않은 것이다.
선녀(仙女)는 신선이 된 여자인데, 늙은 선녀가 있다는 말은 못 들어 보았다.
그들은 모두 외단이나 방술로서 선녀가 된 것이다.

도를 닦는 자는 무술(武術)로서 심신을 수련하고, 때로는 주문, 부적을 쓰기도 한다.
도사는 누구와 싸움을 할까?

도사가 사람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
도사는 귀신과 싸운다. 이때 귀신을 다스리는 방법이 주문(呪文)과 부적(符籍)인 것이다.
보통, 점집이나 무당집에 가면 부적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귀신을 다스리고자 함이고,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귀신이 간섭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은 현실세계와 너무나 동떨어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산에서 모여살기도 하고 그들만의 교류를 한다.

보통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을 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에도 도사님의 종류는 다양하다.
점을 잘 쳐 인간의 길흉화복을 맞추면 도사님이라고 불리고, 의술에 밝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도 도사님이라고 불린다.

요즘은 도를 수행하는 자를 도사라 하지 않고 도반(道伴)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도반이란 용어는 근래에 들어본 것 같다.
옛날에는 도를 닦으려면 산으로 들어가야만 했으나, 요즘은 사회문명의 발달로 불가피하게 도시생활 속에서도 도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남들과 많이 마주치게 되고 도를 닦는 도사라고 하면 "그럼 도술 부려봐!" 라는 요구에 시달릴까봐 스스로를 낮춰 '도반'이라 부르게 된 것 같다.
한편으로는 '도반'을 사전을 찾아보면 불가에서 도를 함께 닦는 친구라고도 하는데, 도는 철저히 홀로 수행하는 것이다. 도반이라는 말은 도가(道家)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동양오술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도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교의 사상에는 귀신은 존재하지만 절대유일신이나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를 행하는 자는 종교가 없는 무교여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의(醫)에는 종교인이 매우 많다. 특히 기독교, 천주교인이 매우 많다.

보통 음양오행이라고 하면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구태스럽고, 미신적 요소도 많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를 믿는 사람들은 거리감을 둔다.
다행히도 동양의 고전적 의술인 침, 뜸 등은 음양오행이 별로 보이지 않고, 어디가 아프면 어디에 침을 놓거나 어디에 뜸을 뜨라고만 나와 있다.
물론 경혈(經穴)이 있어 이론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다분히 경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동양의 의술은 인류의 오랜 경험에 근거한 치료법이지 미신적인 음양오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계통의 종교를 가진 사람도 크게 거리감을 두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술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의술은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 그 자체다.
그러면 왜 의술서에 음양오행이론이 거의 없는가 하면, 고대로부터 의술을 연구한 의가(醫家)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을 모르고 경험적으로 의술을 공부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일부 음양오행을 공부한 의가들이 있어 음양오행을 곁들여 의술서를 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도사와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무당(巫堂)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무당은 본래 무속인(巫俗人)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하대하는 말이 아니다.)

무당은 도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유사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즉, 수행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멀쩡하게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다가 어느 날 무당이 되어서는 배우지 않았던 악기를 다룬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도사는 배워서만이 익힐 수 있는데, 무당은 배우지 않고도 행하는 것이 도사와 무당의 큰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귀신의 능력인 것이다.
즉, 무당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귀신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라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무당이 되어서 삶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반대로 도사도 얼마든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

도사와 귀신은 도(道)의 양 날개 같은 존재이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으며,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 그가 도사인지, 무당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사주를 보면 명확히 가려낼 수 있다.

5.사주 명리학(四柱 命理學)이란?

사주(四柱)란 네 개의 기둥을 말하며, 하나의 기둥은 각각 간(干)과 지(支)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총 8개의 글자(년간/년지, 월간/월지, 일간/일지, 시간/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주를 팔자(八字)라고도 부른다.

시주(時柱)	일주(日柱)	월주(月柱)	년주(年柱)
시간(時干)	일간(日干)	월간(月干)	년간(年干)
시지(時支)	일지(日支)	월지(月支)	년지(年支)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는 명리학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즉,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사주도 그 명리학중에 하나란 뜻이다.

명(命)은 명령(命令)을 의미하며 이것은 “너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하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보통 운명(運命)이라고도 부른다.
리(理)는 이치라는 뜻으로 명리학은 ‘하늘의 명령’의 이치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다.

또한 명리학은 학문이므로 이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 점을 말하는 운명학에는 학문적 이론이 있는 운명학도 있고, 학문적 이론이 없는 순수한 개인의 영적 능력으로 점을 치는 분야도 있다.

사주명리학은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의미이다.
추명이란 말은 명을 추정한다는 뜻인데, 이는 사주가 인생을 살피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주는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다보면 인생이 달라지는 갈래 길에 접어드는데 그것은 보통 기회로서 그에게 다가온다.(사주학적으로는 그것은 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다.
잡는다면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달라진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이 그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사주학자(역술인)의 역할

사주학자는 사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그러한 인생의 관한 전체지도를 펴놓고 있는 것과 같다.

그가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 길로 가면 저렇게 될 것이고.. 모든 길을 다 보는 것이다.
그리고 손님은 그러한 갈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그가 이 길로 갈지, 아니면 저 길로 갈지는 모른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다.
다만 사주학자는 그가 가는 길의 전체지도를 보고 있으니 그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술은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풀이는 사건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러나 사주는 특정 사건의 풀이도 가능하지만 손님의 인생 전반에 걸친 이야기가 가능하다.
위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관한 지도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격, 취미, 적성, 직장운, 주택운, 배우자운 등 손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부분적인 문제와 인생전체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해줄 수 있다.

사주명리학과 도학(道學)의 관계

사주명리학의 이론은 음양오행의 이론으로부터 시작한다.
음양오행의 이론은 우주의 근본원리를 따지는 학문으로서 본래 도학의 영역이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인 이율곡, 이퇴계, 서화담 등은 그러한 도학을 공부하던 도학자다.
그러한 도학자가 우주의 원리에 관한 이론을 만들면 명리학자는 그 이론을 가져다가 운명학으로 활용해서 사주명리학 같은 학문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를 모르고 일부 역술인들이 자기 나름의 이론을 만들어 점술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주의 근본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점술을 만들어도 맞추지 못한다.
마치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으니 금방 무너지게 될 뿐이다.

역술인이 모두 도학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음양오행의 원리는 이미 정립되어 있으므로 그것에만 충실해도 모자람이 없다.

6.시간과 간지

역학(易學)이라는 글자를 풀이하면 역(易)자는 변한다는 뜻이다.
역학(易學)은 변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배우려는 사주는 역학(易學)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학문의 일부다.

우주는 변한다. 쉬지 않고 변화하는 존재다. 만약 우주가 변하지 않고 정지한다면 이세상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역학은 그러한 우주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한 학문인 것이다.
역학은 그 자체로 운명학은 아니다. 단지, 우주의 변화에 관한 이론일 뿐이다.

인간의 삶이 변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인간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역학은 그것에 관한 학문인 것이다.
그러한 역학의 이론을 태어난 연월일시(年月日時)라는 사주에 맞춰 인간의 운명을 예측해보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참신하고 기막힌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다.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이해가 필수이다.
우주는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변화를 알고자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모습을 알아야하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야만 한다. (우주와 자연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고, 자연은 우주라는 공간내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다)

시간은 저절로 흘러간다.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며 시간이 멈춘다면 이세상도 멈추는 것이며 존재는 의미를 잃게 된다.

시간의 흐름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자연의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도 가능한 것이다.

시간의 흐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다.
생각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시간의 흐름은 알 수 있겠는데,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을 측정하려면 항상 존재하며, 일정하게 변화하는 어떤 물체를 찾아 그것의 변화로부터 시간을 측정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물체가 일정한 주기(週期)를 가짐을 의미한다. 만약 주기가 없다면 변하는 것

은 알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시간은 측청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시간은 일정한 주기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물체를 찾으면 된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물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은 항상 존재하며, 일정하게 주기를 그리면서 변하고 있다.
따라서 해와 달의 주기로부터 시간을 측정하면 된다.

해는 아침에 떠서 낮에 머리위에 있고 저녁에 진다.
그러한 해의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움직임(週期)을 보고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를 만들었다.
즉, 하루라는 시간은 아침에 해가 떠서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지평선을 보면 매일매일 해가 뜨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지만 가장 북쪽에서 해가 뜰 때가 낮이 가장 길며 날씨는 덥다. 반대로 가장 남쪽에서 뜰 때는 낮이 가장 짧으며 날씨는 춥다.
이것을 매일같이 지켜보니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의 단위로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1년이라는 시간으로 정한다.

그래서 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간의 단위는 일(日), 년(年) 두 가지가 되었다.

해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체 매일같이 뜨고 진다.
해의 문제는 쳐다보고 있어도 뭔가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쳐다보기도 어렵지만)
하루와 일 년의 시간의 단위는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달은 다르다. 매일 모양이 바뀐다.
어떤 날은 둥근 모양이었는데 또 어떤 날은 일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다.
매일같이 모양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양의 변화가 일정한 주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달의 모양이 변화하는 한 번의 주기를 월(月)이라고 정한다.
달의 주기를 측정해보니 1년에 12번이 조금 넘는 반복 주기를 가진다.(약 12.25회/년)
4년이 지나면 거의 한 번의 주기를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4년마다 윤달이라는 달을 추가한다. (4년간 총 50회의 주기를 가지는 것이다)

1년이라는 해의 기간을 시간의 흐름이라는 달로 표시했으니(1년은 12개월) 하루라는 일의 기간도 시간의 흐름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12개의 시간의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이 시(時)다.

정리를 하면, 해는 일과 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며, 달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에 의한 변화는 시간이 흐름에 의해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 해와 달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니 그것을 어떻게 표시 할 것인가가 다음 과제다.

물건을 세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람은 물건을 셀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센다.
그런데 손가락은 10개뿐이어서 10개가 넘으면 다시 손가락을 접어 처음부터 다시 세야한다.
그래서 물건을 세는 단위는 10진법이다.

시간도 셀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물건을 세는 것과 다를 게 없으므로 10진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 시간은 갑(甲)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을(乙)이라고 하고 세 번째 시간 병(丙)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열 번째 시간은 계(癸)라고 하자.
순서대로 써보면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가 된다.
이것을 간(干)이라고 부른다.

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갑(甲)이라는 글자 자체에 어떤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시간을 갑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은 글자의 가운데 직선의 뾰족한 침이 있어서 사주에 甲자가 있으면 침술을 가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만약 세종대왕이 시간을 정의했다면 첫 번째 시간은 '가', 두 번째 시간은 '나', 세 번째 시간은 '다'.. 열 번째 시간은 '차' 라고 지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을 세는 것이 간(干)이라면 시간의 흐름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시간의 단위에는 12개의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 첫 번째 흐름을 자(子), 두 번째 흐름을 축(丑), 세 번째 흐름을 인(寅).. 마지막 열두 번째의 시간의 흐름을 해(亥)라고 부른다.
순서대로 써보면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가 된다.
이것을 지(支)라고 부른다.
간의 이름처럼 지의 이름 역시 글자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어 그것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다.

간과 지는 의미가 다르다.
간은 시간의 종류라는 의미가 있으며, 지는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간은 천간(天干)이라고도 하고, 지는 지지(地支)라고도 한다.
간을 천간이라 하는 이유는 본래 시간의 종류는 10가지가 있으며, 본래 그러하다는 것은 선천적이고 그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를 지지라 하는 것은 땅은 하늘의 뜻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고, 지가 변화를 의미하므로 그것에 부합되어 지를 지지라고 한 것이다.

결국, 천간은 하늘의 뜻이 되고, 지지는 그것에 따르는 땅의 움직임을 의미하게 된다.
예를 들면, 계절이 봄이면 하늘은 날씨로서 농부에게 농사지을 때임을 보여주고, 농부는 적당한 날을 잡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럼 이제 천간과 지지를 동원해서 완전한 시간을 표시해보자.(시간은 표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천간과 지지를 조합해서 시간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간이 10개이고, 지가 12개여서 가짓수는 총 120개가 된다.
예를 들면 갑자, 갑축, 갑인.. 갑해, 을자, 을축, 을인..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시간은 총 120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표시하면 문제가 생긴다.
갑 다음에는 을, 병, 정.. 계의 순으로 나열해야 시간을 차례대로 표시하는 것이 되는데, '갑' 다음에 또 '갑'이 오고 그 다음도 '갑'.. '갑'이 무려 10번이나 반복되어 버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갑자, 을자, 병자, 정자... 계자, 갑축, 을축, 병축.. 의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
그런데 그렇게 표시하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 다음의 변화가 '축'인데 무려 10번이나 '자'가 나타나니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의 표시는 시간의 종류와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나타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계해 라고 표시한다면?
그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표시하면 갑, 을, 병, 정.. 계의 시간의 종류를 차례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자, 축, 인, 묘...해 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시간의 종류와 시간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것은 그런 식의 표현뿐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마지막 표현인 '계해'가 끝나면 다시 '갑자'로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하다보니 천간과 지지의 조합은 본래 120개 인데 60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은 물건을 세는 것과 다르게 60진법이 된다.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자(子)	갑자(1)		병자(13)		무자(25)		경자(37)		임자(49)	
축(丑)		을축(2)		정축(14)		기축(26)		신축(38)		계축(50)
인(寅)	갑인(51)		병인(3)		무인(15)		경인(27)		임인(39)	
묘(卯)		을묘(52)		정묘(4)		기묘(16)		신묘(28)		계묘(40)
진(辰)	갑진(41)		병진(53)		무진(5)		경진(17)		임진(29)	
사(巳)		을사(42)		정사(54)		기사(6)		신사(18)		계사(30)
오(午)	갑오(31)		병오(43)		무오(55)		경오(7)		임오(19)	
미(未)		을미(32)		정미(44)		기미(56)		신미(8)		계미(20)
신(申)	갑신(21)		병신(33)		무신(45)		경신(57)		임신(9)	
유(酉)		을유(22)		정유(34)		기유(46)		신유(58)		계유(10)
술(戌)	갑술(11)		병술(23)		무술(35)		경술(47)		임술(59)	
해(亥)		을해(12)		정해(24)		기해(36)		신해(48)		계해(60)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가 비록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원리는 동양철학의 간지학에서 나온 것이다.
예전에 TV에서 사람의 띠와 관련해서 십이지지는 인도에서 유래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십이지지는 동양에서 역학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손목에 차는 시계는 스위스가 유명한데, 스위스 시계 장인에게 왜 시계는 12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냐고 물으면 모를 것이다. 그들이 동양의 역학을 알리가 있겠는가.
서양인이 시계는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시간의 원리가 동양의 역학의 원리에서 만들어졌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시간의 개념과 관련해서 고대 이집트나 혹은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졌다거나 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마라. 시간은 동양에서 만든 것이며 역학의 원리로부터 탄생한 것이다.

문명의 뿌리는 동양에서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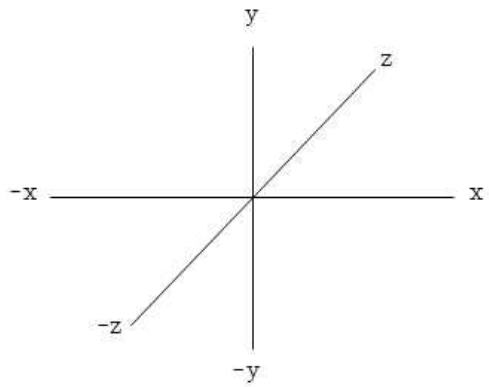
7.공간과 오행

세상에는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절로 일어나는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체가 움직여서 일어나는 변화도 있다. 이것은 움직임에 의한 변화를 말한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를 정적이고, 수동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움직여서 일어나는 변화는 동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의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된다. 시간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움직여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변화를 일으키지만 공간도 변화를 일으킨다.
공간의 변화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그 변화를 알기 위해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원리를 가지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이다. 수학적으로는 x,y,z의 축을 가진다.
(3차원이란 것은 3개의 직교좌표를 가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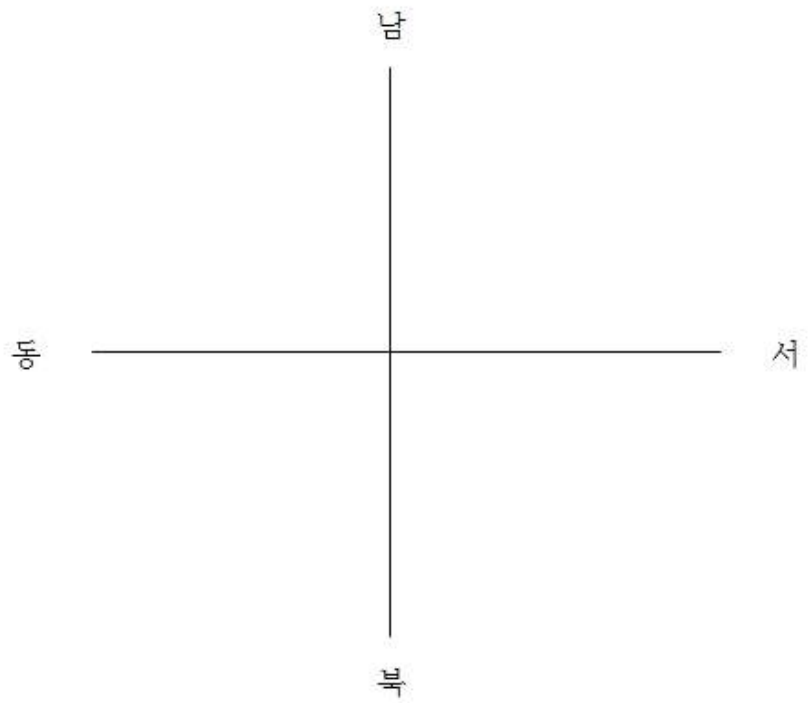
사람은 하늘이나 땅속에서는 살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무대는 땅위이므로 수직좌표인 y축은 필요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x축과 z축만 사용하게 된다.

본래 공간은 육면체이지만 위와 아래를 제외하고 4개의 방향을 그릴 수 있다.
즉, x방향, -x방향 , z방향, -z방향이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은 4개의 방향(아래서 이야기 하겠지만 동서남북의 4개의 방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4개의 방향에 이름을 붙여보자.
이름을 붙일 때도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 각각의 방향의 이름이 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보여 지는 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존재하며 늘 보여 지는 그런 존재가 있다. 바로 해와 달이다.
그런데 달은 뜨는 시각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떠서 보여 지는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기준이 될 수 없다. 어떤 때는 동쪽에서 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쪽에서 뜨기도 하지 않은가. 심지어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
반면에 해는 거의 일정하게 뜨는 시각과 뜨는 방향이 같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떠오른다.
따라서 이번에도 해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정하게 된다.

해가 뜨는 방향을 동(東)이라고 이름 짓는다.
해가 지는 방향은 서(西)라고 이름 짓는다.
위쪽은 남(南)이라고 이름 짓는다.
아래쪽은 북(北)이라고 이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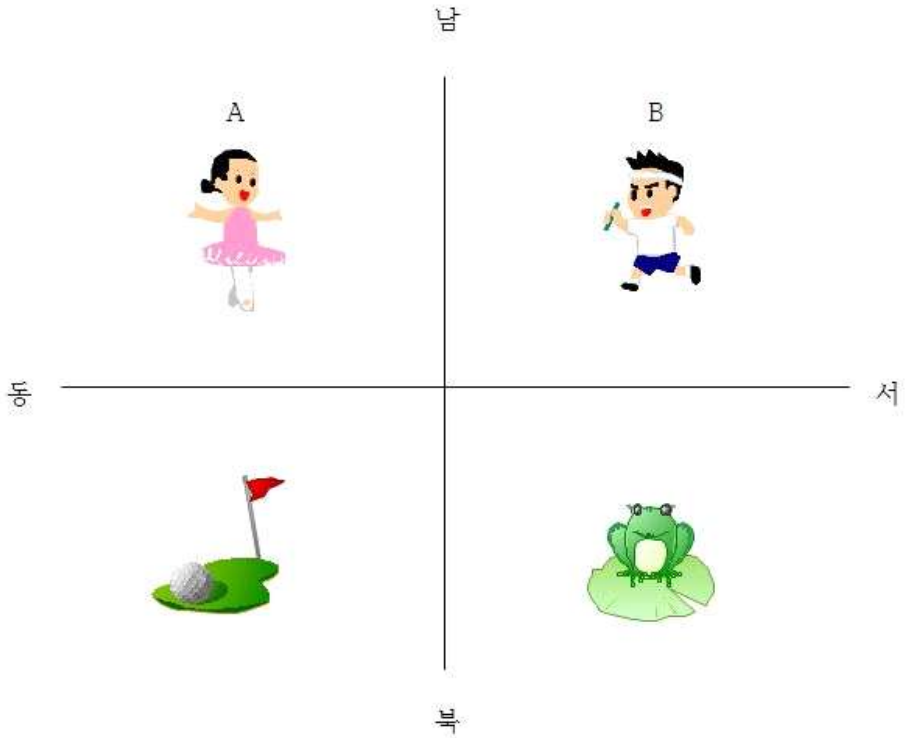
지금은 지도상으로 위쪽이 북쪽인데, 본래 전통적으로 방위를 표시할 때는 위쪽은 남쪽이다. 그러던 것이 근래에 들어 서구의 과학적인 관점에 의해 북쪽이 지도상에 위쪽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

역학에서는 반드시 위쪽을 남쪽방향으로 표시해야 한다.
일부 역학자나, 책에서 위쪽을 북쪽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역학을 공부할 때는 역학이 만들어졌을 때의 당시로 돌아가서 왜 그렇게 되었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의 시각으로만 역학을 이해하려한다면 오류를 일으키기 쉽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공간에서 실제의 방향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자.

어떤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친구인데 A는 동쪽에 살고 B는 서쪽에서 살고 있다.
동쪽에 사는 A가 서쪽의 B에게 “날씨도 따뜻해 졌는데 골프치러 가자. 북쪽으로 500m가면 골프장이 있거든. 내일 거기서 만나자”



서쪽의 친구 B는 다음날 북쪽으로 500m 가보니 거기에는 골프장이 없고 호수가 있었다.
어느 날 서쪽의 B가 동쪽이 친구 A에게 “남쪽으로 500m가면 우리 집이 있으니 내일 놀러와” 라고 말하였다. 다음날 동쪽의 A가 남쪽으로 500m를 가보니 거니는 숲속이었고 친구의 B의 집은 없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
왜 가라고 한 방향으로 갔는데도 다른 것이 있었을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었는데도 위치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위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즉, 공간에서 위치를 찾으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좌표가 있어야하는데, 방향만으로는 위치에 대한 좌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공간에서는 반드시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점이 필요하다.
즉 어떤 곳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위치를 표시한다면 누구나 정확히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결국, 공간에서 위치정보에 대해 필요한 것은 4개의 방향과 1개의 기준이다.
4개의 방향과 1개의 기준을 합하면 5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행(五行)이다.

동양의 각종 점술이나 신비학에는 오행(五行)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사주학에도 오행이란 용어가 수없이 등장하는데 오행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공간에서 나온 개념이다.

공간의 5가지 요소인 오행에는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中)에는 고유의 특성이 존재한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다.
해가 뜬다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하루의 시작도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던가.
또한 해를 보고 시간의 단위를 만들었으니 해가 뜬다는 것은 시간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를 보고 하루도 만들었고 일년도 만들었다.
그중 일년을 예로 들어 각 방위의 특성을 살펴보자.

동쪽은 봄을 가리킨다.
일년을 4계절로 나누면 봄이 계절의 시작이니 동쪽이 봄이 되는 것이다.
하루로 치면 동쪽은 하루의 시작이니 아침이 될 것이다.

봄이 일년의 시작인 이유는 농사를 예로 든다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 농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식물도 봄에 따뜻한 햇볕을 받아 싹이 트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의 시작이 아침인 것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년의 시작이 봄이고, 하루의 시작이 아침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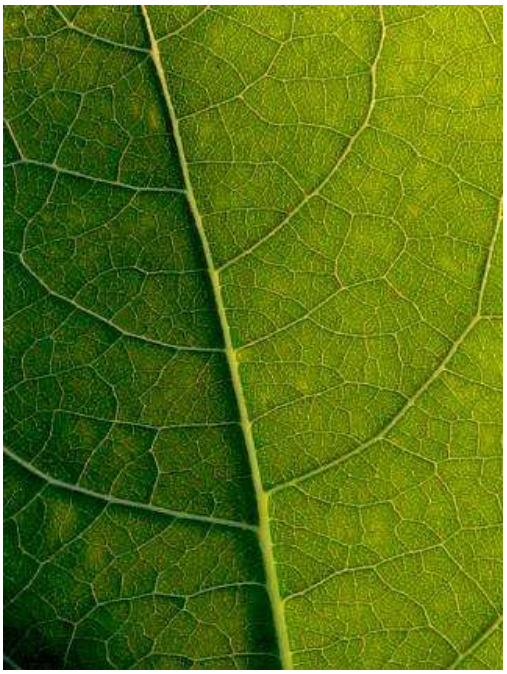
봄(春)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서 땅속의 씨앗이 싹이 터서 땅을 뚫고 위로 솟아오른다.
색깔로는 초록색이고, 그 방향은 하늘을 향해 뻗어 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봄의 특성을 목(木)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묘하게도 식물의 새싹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탄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발견된다.
발생학적으로 동물에서도 생명의 탄생과정을 살펴보면 맨 처음 신경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러한 모양을 그물맥이라고 하며 강(江)도 그물맥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로(道路)도

그물맥의 형태다. 그물맥은 일부가 막혀도 돌아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다. 생물학적으로도 혈액과 기타 물질을 이동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원리다. 그리고 인생도 그러한 그물맥의 형태다.)

<나뭇잎의 그물맥>



<지도상의 도로의 그물맥>

여름(夏)

봄 다음의 계절은 여름이다.
여름은 계절 중에서 가장 덥고 작물이 자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계절이다.
산이나 들의 나무도 잎이 무성해지고 풍성하게 보인다.
한여름의 뜨거운 볕은 작물을 기르기도 하지만 열매를 영글게 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햇볕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에 따라 결실이 얼마나 잘 열리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햇볕만이 농사의 결실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햇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름의 특성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火,불)라고 정의한다.

불은 뜨겁다.
그리고 불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열기는 위를 향해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산에 불이 나도 그 불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간다.
거실에서의 공기의 온도도 바닥 쪽의 공기의 온도보다 천장 쪽의 공기의 온도가 더 높다.
또한 불(火)는 밝고, 아름답고, 빛나고, 화려하다는 의미도 가진다.

방향은 남쪽이 될 것이다.
남쪽으로 가면 날씨가 덥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학이 만들어진 장소가 북반구의 온대지역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가을(秋)

여름 다음의 계절은 가을이다.
가을은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지나 날씨도 선선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일년 농사의 결실인 열매를 따는 수확(收穫)의 계절이기도 하다.
농사의 결실인 열매는 단단한 덩어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모든 열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을의 특성으로 해서 금(金)이라고 정의한다.

역술을 공부하는 거의 모든 학인들은 역학에서 말하는 금(金)을 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금은 쇠가 아니다.
역학을 만든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천 년 전 이상일 것이다.
당시에는 금속은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을 것인데 금을 쇠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역학에서 말하는 금은 단단한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다.
금이 쇠라서 단단하다고 하면 세상에는 쇠보다 단단한 다이아몬드라는 물질도 있으며, 금속이라고 해서 모두 단단한 것만도 아니다. 활석은 나무보다도 무르다. 심지어 수은은 화학적으로 금속이지만 물 같은 액체이기도 하다.

오행의 목,화,토,금,수는 목을 나무로 표현하지만 나무 그 자체는 아니다. 화 또한 불이라고 하지만 불 그 자체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오행은 성질을 말 할 뿐이지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혹자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서 가을이라는 계절이 생겨난 것이고, 그로인해 결실이 생긴다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역학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역학이 만들어진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 즉, 그 당시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그저 태양은 지구를 돌고 있을 뿐이고(이를테면 천동설), 태양에 의해 기후가 변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열매가 익어 수확하는 것이다.

만약 지구 밖의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었는데 그 별은 자전축이 0도여서 일년 내내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별은 열매가 익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경우 사람이 그별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인위적으로 날씨를 변화시켜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생장수장(生長收藏)의 변화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미래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모 방송국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김병만이 말하길 “정글은 의외로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보통 더운 정글에는 열대과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날씨로 따지면 정글은 여름이다.
여름은 성장은 강하게 하지만 결실을 맺기에는 약한 계절이다. 그래서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도 크지만 막상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적은 것이다.

방향으로는 서쪽이 가을의 성질이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며 농부는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겨울(冬)

가을 다음의 계절은 겨울이다.
겨울은 한해의 농사를 끝내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수확한 열매를 먹으며 조용히 지내는 시기다.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니 한편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농부뿐만이 아니라 작물을 길러낸 땅도 쉬어야 한다.
세상에 일만하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때로는 일을 하다보면 다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치료를 하면서 쉬는 것이다. 겨울은 그러는 시기다. 겨울은 만물이 쉬는 시기다.

가을에 수확한 열매를 겨울에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물을 그릇에 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은 사람이 쓰기위해서는 반드시 담아야 한다. 그릇에 담든, 항아리에 담든 아니면 둑을 쌓아 물을 가두던 어디에 담아 두고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땅에 흘러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보관하고 담아두는 성질이 물의 성질과 같아서 겨울의 특성은 수(水)라고 정의한다.

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
물은 높은 산의 옹달샘으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지 않던가.
또한 물은 불을 끄므로 불과 반대로 서늘한 성질을 가진다.
(물도 끓이면 뜨거운데, 끓인 물을 뜨겁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때는 화(火)의 성질이 된다)

방향으로는 북쪽이 겨울의 성질이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면 농부는 집에서 쉴 것이며 한해의 농사를 끝낸 농부는 겨울에는 저장한 열매를 먹으며 겨울을 조용히 나기 때문이다.

중(中)

동서남북 방향의 중앙은 일년의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다.
농부는 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농사를 짓는 주체가 되며 계절에 따라 농토와 작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봄이 되면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에 작물이 마르지 않게 물을 주며, 가을에는 열매를 따고, 겨울에는 휴식을 취하며 내년의 농사를 계획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앙은 땅과 같다. 땅이 있어야만 만물이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땅은 만물을 기르는 엄마와 같은 것이다. 아이를 기르는 엄마처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
땅이 만물을 기르므로 땅은 모든 생명체의 기반(基盤, 인프라(Infra))이 된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물은 토가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다.
토가 만물의 기반이라는 것이 반드시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이 살아가는 터전이므로 토가 되는 것이다.
근래에 집이나 공장에서 물로만 키우는 수경재배(水耕栽培)도 마찬가지다.
수경재배의 작물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때는 물이 토가 되는 것이다.

땅이란 움직이는 물체가 아니며, 생명체도 아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오고, 또한 언제 사라질지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존재다. (나무는 싹이 트고 죽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불도 피우고 끌 수 있으며, 덩어리도 산산이 부수고 다시 뭉칠 수 있으며, 물도 샘솟고 마를 수 있지만 땅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죽일 수도 없으며,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만물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죽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땅은 오로지 만물의 터전인 것이다.

방향으로는 중앙이며 성질로는 땅의 성질이니 토(土)라고 정의한다.

역술인중 일부는 방위에서 위쪽을 수(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의 역학책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보니 왼쪽은 금(金)이 되고 오른쪽은 목(木)이 된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표시한 역술인은 현대의 지도가 위쪽을 북쪽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에서도 위쪽을 북쪽으로 표시한 것 같다.

그런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위쪽이 수(水)면 아래가 화(火)가 되는데 화의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된다.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하실은 늘 습기로 축축해서 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수기운은 아래로 흐르니 지하실로 습기가 내려오는 것이다.
반대로 옥탑방은 늘 덥고 건조해서 코가 막히기 쉽다.
왜냐하면 열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옥탑방은 덥고 건조한 것이다.
빨래를 말려도 지하실보다 옥탑방이 훨씬 잘 마르지 않던가.

그러한 이유로 방위의 위쪽은 뜨거운 화(火)가 되어야 하고 아래는 차가운 수(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혹자는 수승화강(水昇火降)의 원리상 수가 하늘로 올라가고 화는 땅으로 떨어지니 위쪽이 수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다.

수승화강은 본래 음양학(陰陽學)에서 나온 말로서, 음양의 이치상 본래 하늘은 화기운이고 땅은 수기운이

다. 그런데 하늘의 화기운은 위로 올라가려하고, 땅의 수기운이어서 아래로 내려가려고만 하니 하늘과 땅(양과 음)이 만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주는 음양을 만나게 하기 위해 땅의 수기운은 위로 올려 보내고, 하늘의 화기운은 아래로 내려 보내니, 결국 하늘은 수기운으로 충만하고, 땅은 화기운으로 충만한다는 것이다.

수승화강은 음양을 만나게 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본래 자연의 모습은 하늘이 화(火)이고 땅은 수(水)다. 그래서 방위상으로도 위는 화(火)가 되고 아래는 수(水)가 된다.

참고로 음양학은 역학의 일부지만 점술학은 대부분 오행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주명리학도 음양학의 원리가 녹아있지만 거의 모든 부분은 오행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8.오행의 생(生)과 극(剋)

오행이 말하는 것은 우주는 다섯 가지 성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것들끼리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생과 극이다.

이 세상의 일은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만남으로 해서 시작된다.
그 존재는 자연 상의 존재를 말하므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며 사람은 단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공존할 뿐이다)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만나면 관계(關係)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는 절대로 대등하지 않으며, 누군가가 지휘자이면 누군가는 추종자가 된다. 즉, 주종(主從)관계가 반드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때 주인이 극(剋)을 하는 존재이며, 종은 극(剋)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쉽게 말하면 극(剋)이란 것은 주인이 종을 부리는 능력 또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은 <다스리다>, <좌지우지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극은 우주를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이다.

주종관계에서 종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주인하기에 딸렸다.
만약 주인이 지시를 잘 못했다든지, 어리석다면 종이 한 일도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주인이 현명하고 올바른 명령을 내렸다면, 종이 한 일의 결과도 좋게 나타날 것이다.

혹자는 친구끼리의 만남이나, 나라의 대통령끼리의 만남은 대등한 만남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둘 사이에는 반드시 이끄는 자가 있고 뒤따르는 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존재끼리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을 확장해도 마찬가지다.
물리학적으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가 같다고 해서 힘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2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중전안타를 맞았다.
이때 2루 주자는 홈까지 달려오는 중이고, 외야수는 홈으로 송구를 했다. 그리고 홈에서 포수가 볼을 받아 달려오는 주자와 부닥치게 되는데 부닥치는 충격은 포수가 더 크게 받는다.
물리학적으로는 속도는 상대적이어서 질량이 같으면 힘도 같아 충격이 같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내부의 진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홈으로 달려오는 주자의 내부진동이 더 크기 때문에 포수가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다른 예로 A라는 투수와 B라는 투수가 있는데 직구의 속도는 똑같이 시속 150킬로 다.
그런데 A라는 투수는 홈런을 잘 맞고, B라는 투수는 맞아도 공이 뻗어나가지 못해 뜬공으로 잡히는 일이 많다. 이러한 경우는 야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경우 해설자는 '볼 끝이 살아있네', '볼이 힘이 있네' 식으로 말하는데 아직 왜 그런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의 내부진동 때문이다.
A투수가 던지는 직구는 속도가 시속 150킬로로 던져도 공의 내부진동이 약해서 배트와 맞았을 때 배트를 밀고 들어가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맞으면 멀리 나간다.
반대로 B투수의 공은 A투수의 공과 같은 시속 150킬로지만 공 내부의 진동이 강해 배트가 맞았을 때 배트를 밀고 들어간다. 그러면 맞아도 뻗어나가지 않으며 때로는 배트가 부러지기도 한다.
아직 B투수의 공이 왜 내부진동이 강한지는 모른다. 그가 어떻게 던지기에 그런 공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른다.
실지로 내부진동이 강한 투수의 공은 포수미트에 꽂히면 포수미트가 뒤로 밀린다. 이때 포수는 '공이 미트를 밀고 들어온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맞아도 뻗지 않는 공의 이유를 회전력에서 찾고 있는데 공의 회전력과는 다른 문제다. 커브볼 같은 경우는 회전력이 가장 강한데 오히려 맞으면 쭉쭉 뻗어가서 홈런이 잘된다.

내부진동은 오행으로 금(金)의 성질이다. 따라서 내부진동이 큰 공은 금이 강한 공이 되는 것이다.

극관계는 두 개의 존재에 대한 관계를 말하며, 다자간의 관계에서는 극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연의 현상이나 이치는 다자간의 관계가 되는데 그것에 관한 이론(지장간)은 따로 있으며 자연의 현상을 극관계로 풀이하면 맞지 않는다.

흔히 역술인들이 운명을 감정할 때 생극(生剋)관계로 운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맞지 않는다.
인간의 운명은 자연의 이치나 현상에 관한 이론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그 해석은 오행의 생극관계와 매우 달라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생(生)은 한자로 날 생자인데, 이것은 태어나다, 시작하다, 만들어지다 등의 뜻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나고, 시작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저절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진리 제2법칙인 인과의 법칙을 위배하게 된다.
따라서 태어나고, 시작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생은 극을 당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며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극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 현상을 통해 원인(剋)을 찾을 수 있다.
생은 극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오행의 극관계는 우주의 기본적인 힘의 원리이지만 그렇다고 극하는 오행이 극 당하는 오행을 항상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보다 종의 힘이 더 강한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주인은 혼자인데 종이 수십 명이라면, 종은 위세를 부리고 오히려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보고 주눅이 든다. 종이 주인을 능멸하는 것이다. 심하면 종이 반란을 일으켜 주인을 몰아내고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주종관계의 역전현상(逆轉現象)이라고 한다.

주종관계의 역전현상이라는 것은 극관계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극을 못했으며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결과를 예측할 때는 어느 쪽 힘이 더 강한가도 따져봐야만 한다.

때로는 극하는 쪽과 극 당하는 쪽의 힘이 대등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늘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마찰이 빚어지기 쉽다.

1)목극토(木剋土)

목은 토를 다스린다, 목은 토를 좌지우지(左之右之) 한다.

봄에는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는 땅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땅을 갈아야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땅을 갈지 않고 맨땅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씨앗은 햇볕에 말라 죽고, 농사는 결국 짓지 못하게 된다.

땅을 갈고 씨앗을 땅속에 묻는 이유는, 강한 햇볕으로부터 씨앗이 마르는 것을 보호하고 땅속의 수분으로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이다.
이때 땅은 반드시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만 하며, 또한 땅은 온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수분이 없다면 씨앗은 서서히 말라죽고 만다.
이것은 건조한 모래사막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땅이 너무 차가워도 씨앗은 발아하지 않는다. 겨울에는 땅을 파고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그 이유는 땅에 온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분과 온기는 씨앗이 싹트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은 반드시 갈려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목극토인 것이다.
그리고 목(木)은 땅을 가는 도구가 된다.

혹자는 땅을 가는 쟁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구는 쇠로 만들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지금에야 농기구가 쇠이지만, 쇠가 인류의 도구로 쓰인 것은 인류역사에서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은 금속으로 된 제품도 많고 제품의 일부가 금속인 경우도 많고, 금속 없이는 인류가 살 아 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거의 모든 것은 나무로 제작되었다.
TV방송에 골동품의 가격을 매기는 프로가 있는데 쇠로 만든 골동품이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 않은가. 대부분은 나무로 만든 제품들이 나온다.

플라스틱은 더욱 최근에야 나온 것이다. 금속과 플라스틱이 없다면 아마도 인류는 원시시대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목과 토의 관계로 알 수 있는 것은, 땅은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엄마와 같은데, 땅이 그런 일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목으로 갈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목으로 땅을 갈지 않으면 땅은 만물을 생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목극토는 나무의 그물맥이 땅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물맥은 땅에서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물줄기가 되고, 그러한 물줄기를 통해 만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땅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身)이 되는데, 몸에 생기는 그물맥은 혈관이 되고 혈관을 따라 혈액과 각종 호르몬 등이 신체를 골고루 돌아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목이 토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목의 힘보다 토의 힘이 강할 때는 목은 어려움을 겪는다.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가는데 땅이 너무 단단하면 쟁기가 부러지기도 하지 않은가.
이를테면 연애할 적에 남자가 여자를 이끄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연상연하의 커플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여자가 리드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어린 남자가 무리해서 리드를 하려고 하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해 할 수 있는 것이다.

토생금(土生金)
토생금은 목극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무로 땅을 파는 것이 목극토인데, 나무로 땅을 파면 땅에서 금이 나온다.
나무로 땅을 판다는 것은 씨앗을 심기위해 땅을 가는 것을 말하는데, 땅을 갈다보면 잡석이나 돌덩이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잡석이나 돌덩이들이 바로 금이다.
농부는 그것을 밖으로 건져낸다.

잡석은 작물의 뿌리가 뻗어 내리는데 방해를 하고 뿌리를 상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작물을 잘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한다. 잡석이 많은 황무지가 비옥한 땅보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옥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에 걸쳐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무로 땅을 가는 이유는 열매를 캐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열매는 땅속에서 자라는데 그런 열매를 채취하려면 땅을 파야만 한다.
나무로 땅을 팠더니 그러한 열매들이 캐어지는 현상도 토생금에 해당한다.

2)금극목(金剋木)

금은 목을 다스린다, 금은 목을 좌지우지 한다.

나무는 목이어서 가지와 뿌리가 쭉쭉 뻗어나간다.

그런데 가지에 장애물이 걸리면 쭉쭉 뻗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된다.
예를 들면 분재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구리선을 감으면 가지는 직선으로 뻗지 못하고 구리선의 모양대로 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구리선이 금에 해당한다.
구리선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 나뭇가지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나무의 뿌리도 마찬가지다.
나무의 뿌리도 본래를 곧게 뻗어야 한다. 그런데 땅속에는 단단한 돌맹이들이 매우 많다.
뿌리는 그런 돌맹이를 만나면 꺾이게 되어 곧은 뿌리보다 구부러진 뿌리들이 훨씬 많은 것이다.

나무는 돌맹이가 많은 땅에서는 잘 자랄 수 없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으니 땅속의 양분을 섭취하기도 어렵고, 바람에도 버티기 어려워 잘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토질을 알 수 있다.
나무가 울창하다면 잡석이 없고 고운 흙이 많다는 것이고, 반대로 나무가 드물고 작다면 잡석이 많다는 뜻이다. 잡석은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으니 나무가 크게 성장 할 수 없다.

나무는 수분(水分)을 머금고 있는데, 나무가 울창한 숲은 수분이 많으므로 한여름에도 선선하다.
왜냐하면 수분은 수이고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열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나무가 없으면 그곳은 건조하고 덥다.

목은 땅의 그물맥이어서 수분을 통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도 했는데 이때 그 통로를 막을 수 있는 것이 금(金)이다. 이때의 금은 돌덩어리가 되어 통로를 막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은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 될 것이다.
어떤 이물질(金)이 혈관(木)을 흐르는 피(水)를 따라 둥둥 떠다니다 가는 혈관에서 막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을 들이부어 희석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금은 수에 의해 움직이므로 물이 많아지면 빠르게 사라진다.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이물질에 의해 혈관이 막혔다면 수액을 공급하거나 수혈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전통의술로는 그러한 혈류의 장애가 오면 방광경에 침이나 뜸을 써서 수기운을 강화시키면 된다)

금이 목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금의 힘보다 목의 힘이 강할 때는 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단단한 것이 항상 부드러운 것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 또한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도 한다.
북권(北券)계열의 무술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이를테면 운동에서 유연성을 기르는 이유는 다치게 되는 경우 유연성이 좋으면 부상도 적게 당하고 운동의 수명을 연장하는데도 매우 유리하다.

목생화(木生火)
목생화는 금극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극목에 의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땅속의 수분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결국 나무는 말라간다. 마른다는 것은 건조해 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목생화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무에서 불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나무뿐이라는 의미도 있다.
수(물), 금(돌맹이), 토(흙)는 불에 태울 수 없지 않은가.
불에 타는 것은 나무 이외에 종이, 섬유, 플라스틱, 기름 등인데 그것도 원료는 모두 나무(木)다.

그런데 나무가 아닌 것도 불에 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동물성 기름이나 양모(羊毛)는 나무가 아니지만 불에 탄다. 심지어 석탄은 돌인데도 불에 탄다.
그런 경우는 성질을 목(木)으로 보라는 뜻이다. 불에 타기 때문에 목이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물질을 오행으로는 어떤 성질인가를 알아야 할 경우에, 그 상황이 불에 태우는 상황이고 그리고 불에 탄다면 목(木)이 된다는 것이다.

3)화극금(火剋金)

화는 금을 다스린다, 화는 금을 좌지우지 한다.

금은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덩어리를 말하지만, 가을에 수확하는 열매를 말하기도 한다.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은 광범위하게 식재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불은 음식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음식은 불로 익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소화가 잘된다.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칼질을 잘하고, 양념을 잘 하고, 간을 잘 맞추는 데에 있지 않다.
불로 어느 정도 익히는가에 따라 음식의 진정한 맛은 결정된다.
그래서 불을 잘 다루는 요리사가 진정한 일류 요리사인 것이다.

화극금이 음식은 불로 익힌다는 것을 말하지만, 연탄불이나 가스불 등의 직접적인 화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열매가 나무에 달려 익으려면 적당한 양의 햇볕을 일정기간 받아야만 한다.
보통 그러한 것을 영근다고 말하는데, 열매가 나무에 달려서 영그는 과정도 익는 것이다.
잘 영글지 못하면 풋과일이라고 하고 그런 과일은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이유도 충분히 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햇볕은 그 자체로도 음식을 익히는 능력이 있다.
소고기 날것을 햇볕에 말리면 육포가 되고, 생선도 햇볕에 말리기만 해도 건어물이 되어 따로 불로 익히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또한 산이나 들에 나는 풀도 따서 햇볕에 말리면 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햇볕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익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햇볕은 그 자체로도 살균기능이 있어 세균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또한 수분을 증발시켜 수분 속에 녹아있는 세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혹자는 생선회는 날로 먹는 음식인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사람은 때로는 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뱃속에서의 소화(消化)라는 과정이 불로 익히는 것과 같다.
소화액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소화액에 문제가 일어나면 배탈이 난다.
사주에 화기운이 약한 사람이 그러한 일이 잘 일어나고 소화불량이 되어 똥이 묽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갓 잡은 생선회를 곧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정도 숙성해서 먹는다고 한다.
그러면 맛이 더 좋다고 한다. 12시간 숙성하는 것이 익히는 것이다.

불은 익히는 데만 쓰지 않고 살균과 치료하는데도 쓴다.
옛날에도 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칼을 불에 달궈서 썼다. 그 이유는 칼을 소독하기 위해서다.
불은 만물을 태워 죽이고 영원히 소멸시키는데, 세균도 당연히 불에 타 죽는 것이다.
이것은 수분을 증발시켜(건조) 서서히 죽이는 것과는 다르다. 태우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이고 소멸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다.

금은 화의 그러한 작용에서 살균과 치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금은 세균이거나 또는 병에 걸린 장기(臟器)나 환부(患部)가 된다.
금은 형태상으로 덩어리인데 이를테면 세균덩어리, 또는 암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불은 뜨거운 열도 나지만 빛도 난다.
빛도 살균과 치료의 기능을 한다.

햇볕은 빨래를 말리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살균도 된다.
미국에서는 마당에 빨래를 거는 행위가 미관상 보기 안 좋다 하여 법으로 금지한 곳도 있는데, 근래에 빨래를 햇볕에 말리는 것이 소독이 되고 건강에 좋다고 하여 마당에 빨랫줄을 메고 빨래를 거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것이 불법이어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TV뉴스도 있었다.

우리도 과거에 아파트 베렌다에 이불빨래를 거는 집들이 많았다.
그런데 아파트 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베렌다에 이불빨래를 걸면 빈민가처럼 보여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금지시킨 아파트가 많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빨래를 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미관상은 좋을지 몰라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 자연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햇볕뿐이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이용한 살균도 있다.
음식점에서 식기를 소독하는 기구는 그러한 빛의 살균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적외선을 이용한 살균기구들이 있으며,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이라는 빛을 이용한 살균이다.

불을 이용한 살균과 치료는 독(毒)과 약(藥)으로 다시 정의 할 수 있다.
살균을 한다는 것은 병균을 죽이는 것인데 죽이는 것은 독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병이 치료되면 약이다.
병을 죽이는 것은 독이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약이니, 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본래가 하나인 것이다. 문제는 병을 독으로 죽여야 하는데 사람을 독으로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약으로 살려야 하는데 독으로 죽일 수도 있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그러한 경우이고, 의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화가 금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화의 힘보다 금의 힘이 강할 때는 화는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음식은 위장에서 소화(消化)라는 익히는 과정을 통해 몸으로 흡수가 되는 것인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몸의 열을 빼앗기며 배탈이 난다.

금생수(金生水)
금생수는 화극금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금생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쇠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수많은 역학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데, 쇠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속의 바위로부터 샘물이 나온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기존의 역학자들이 금은 쇠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바위를 금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다시 금은 쇠라고 한다.)
그렇지만 땅속의 바위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것도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후라이펜에 음식을 볶으면(火剋金) 그 음식은 반드시 부피가 줄어든다.
후라이펜이 음식을 볶았는데 음식의 부피가 커졌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열에 의해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햇볕에 음식을 말려도(火剋金) 부피가 줄어든다.
강원도의 덕장에서 명태를 말리면 코다리도 되고, 북어도 되는데 코다리나 북어는 처음 말리기 시작한 명태보다 작기 마련이다. 오징어도 마찬가지다. 물오징어를 햇볕에 말리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렇게 부피가 줄어드는 이유는 몸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금생수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물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것은 수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도 뚱뚱하면 수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땀도 많이 흘린다.
반대로 마른 사람은 수분이 적으며 땀도 적게 흘린다. 그런 사람은 화기운이 강한 것이다.

음식점의 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다.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밖에 내놓으면 종종 쓰레기봉투가 찢어져 썩은 물이 밖으로 나와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쓰레기봉투에 썩은 물을 담지는 않았다. 음식물 찌꺼기를 담았을 뿐인데 썩은 물이 생겨난 것이다.
일단 물이 생겼으니 그것은 화극금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금생수한 것이 된다.
화극금은 익혔다는 것이거나 살균, 치료를 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익히는 것이었다면 수분은 증발로서 발생하지 물로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쓰레기봉투의 물이 흐르는 현상은 살균 또는 치료의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음식물을 살균 또는 치료를 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것은 세균이 증식해서 음식물찌꺼기가 썩은 것인데 세균이 증식한 것은 세균에게 독을 쓴 것이 아니라 약을 썼다는 것이다. 화극금이 그렇게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금생수하니 썩은 물이 생겨난 것이다.

세균에게 반드시 독만 쓰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좋은 세균도 있다.
그래서 좋은 세균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각종 젓갈류) 그리고 그 경우에는 물이 나오지 않던가.
매실을 담글 때도 설탕이라는 약을 쓰는데 몇 달이 지나면 매실로부터 물이 나와 아주 맛이 좋은 매실 액이 된다. 각종 효소들이 그렇게 설탕이라는 약을 써서 만드는 것이다.

어떤 병은 사람의 몸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복수(腹水)도 그런 경우인데 몸의 어딘가가 세균에 의해 썩어서 물이 생긴 것이다.
가장 급한 것은 일단 물을 빼내는 것인데, 물은 토가 막고 있으니 목으로 토를 터서 물을 빼야 한다.
그 다음의 방법은 화기운으로 물을 말리는 것이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찾아서 약을 써야 한다.

복수 외에도 몸에서 진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피부의 문제라면 별것 아니지만, 몸속의 병 또는 내장의 병으로도 물이 생겨 피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몸속의 어딘가가 썩은 것이니 원인을 찾아 약을 써야 한다. 진단은 양의(洋醫)가 장비가 좋으므로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다.

의술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진단이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다.
진단이란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인데, 원인을 못 찾으면 치료도 안 되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증상은 같은데 원인은 다른 병도 많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치료하다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병은 갈수록 깊어져 결국 죽는 사람도 많다. (그것이 사주 상으로는 편인 운에 걸렸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진단은 양의가 한의보다 장비가 좋으므로 빠르고 비교적 정확하다.

MRI니, CT니, Xray니 많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까지 양의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상에는 양의도 모르는 병이 수 없이 많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원인이 불명확하고 그래서 치료도 안 되는 병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의(전통의술)는 그렇지 않다.
인간도 음양오행의 원리로 작동하니 병의 증상이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만 알면 된다.
심지어 병명은 몰라도 된다.
증상에 따라 음양오행의 원리로 분석해 어떤 장기의 문제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에 맞게 약을 쓰면 된다.
단, 그런 경지의 의술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음양오행에 지극히 밝아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가(醫家)가 음양오행에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수극화(水剋火)

수는 화를 다스린다, 수는 화를 좌지우지 한다.

물은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근원적인 요소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나는 아직 물 없이도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물은 생명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요소라는 것으로서, 물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체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박테리아는 생명체가 아닌 것이다.
물을 가지고 있다고 다 생명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생명체가 아닌 것은 틀림하다.

고교시절에 생물선생님이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었다.
그분이 말하시길 생물학과에서 금기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하셨다. 그만큼 생명이란 오묘하고 신성한 것이므로 인간이 감히 생명을 말하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정의 할 수 있다.

물은 수기운 이므로 흐름을 의미한다.
물을 가지고 있는 개체라면 물을 이용해 물질을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물질은 생명체의 에너지가 되는 양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생명체다.
'생명활동'은 그러한 작용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지구도 생명체인가?
지구도 강과 바다라는 물이 있고 사람은 배를 만들어 강과 바다를 돌아다니고 그 물을 통해 빙하도 떠다닌다.

지구도 외부의 작용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부물질을 이동시키므로 생명체가 틀림없다.

다만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의식은 별개의 문제다.
아메바 같은 단세포동물도 생명체임에 틀림없는데 아메바가 의식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과 소통은 또 다른 문제다.
의식이 있어도 소통방법이 다르면 의사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막는 역할도 한다.
날씨가 더울 때는 물을 많이 마시고 찬 것을 찾는 이유가 더위를 막기 위함이다.
자동차는 엔진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냉각기라는 것이 있는데 냉각수를 넣어 엔진의 과열을 막는 것도 물이다.
여름에 더울 때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 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무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 열기를 막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은 열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작용이 수극화인 것이다.

수기운은 화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데, 화기운이 약이 될지 또는 독이 될지는 수기운에 딸린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약 또는 독을 만드는 재료는 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한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약이 될지 또는 독이 될지를 결정된다는 것이니 이때는 몸의 상태가 수가 된다.
즉, 병은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을 쓸 때는 먼저 수를 살펴야 한다. 수를 잘못 파악하면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화는 밝은 빛을 말하는데, 이를 테면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방법은 스크린에 빛을 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주위가 컴컴할수록 영화는 선명하게 잘 보일 것이다. 빛은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수다.

수기운은 화기운을 억누르는데 이것은 여자의 임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뿌릴 때는 먼저 땅을 간 다음 씨앗을 땅에 심고 흙을 덮는다.
이때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흙이 너무 차가우면 씨앗이 발아되지 않고 얼어 죽는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흙은 따뜻한 열기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교접은 농부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가는 것과 같으며, 남자가 여자의 자궁에 사정하는 것은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때 자궁이 차가우면 언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수태가 되지 않으며, 설령 수태가 되었다 해도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그러한 것을 냉증이라고 하며 여자에게 냉증이 있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소화기능을 떨어뜨리기도 쉽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열로써 소화를 시키는데, 수기운이 너무 강하면 화기운이 약해지고 소화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양분섭취 능력도 떨어지고 대변도 묽어진다.

수가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수의 힘보다 화의 힘이 강할 때는 수는 어려움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더위를 식히거나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을 사용하지만, 햇볕이 강한 여름에는 웅덩이의 물도 마르고 강물도 마른다. 물은 서늘함을 잃고 오히려 덥혀진다.

화생토(火生土)
화생토는 수극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은 물에 의해 꺼지고 나면 재가 되어 땅위에 덮이고 거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재는 토인 것이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들에 불을 지르고 불이 꺼지면 그곳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는 풍습이 있다.
그것을 화전농법(火田農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논밭이 귀한 강원도에서 근래까지 그렇게 농사를 지은 곳이 있다. 불에 탄 재는 좋은 거름이 되어 농작물도 잘 자란다.

화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재가 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것은 자원의 재활용이기도 하다.
자원의 재활용은 인간이 자원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원래 우주는 그렇게 물질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킬수록 공해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일으켜 지구를 죽인다고 하지만 그러한 공해나 쓰레기도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는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변환이 되어 다른 환경에서 다시 재활용이 될 것이다. 물론 그 환경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재가 되어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불교(佛敎)에서 말하는 윤회사상과도 통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공중목욕탕에 가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는 이슬이 맺혀있다.
이슬이 맺히는 이유는 목욕탕은 더운데 수도꼭지가 차므로 이슬이 맺히는 것이다.
이것도 수극화의 이치다. 그리고 이슬은 수도꼭지의 표면에 덮여 있다. 그 이슬이 화생토인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더운 여름에 컵에 차가운 물을 담으면 컵에 이슬이 맺히는 것도 같은 원리다.
대기의 공기는 더운데 컵이 차가우니 거기에 이슬이 맺히는 것이다.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액(液)이 맺히는데, 그 액은 토다.
토는 재가 땅에 덮이듯, 그렇게 덮이는 성질이 있다.

장마철이 되어 비가오고 습한 날씨가 몇 며칠이 계속되면 집안의 벽지에 곰팡이가 퍼렇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습한 날씨는 수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극화를 한다.(극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수극화가 일어나면 화생토가 발생하므로 재가 덮이는데 그것이 벽지의 곰팡이 인 것이다.

장마가 길어지면 고추나 오이 같은 농작물에도 피해가 오는데, 그때의 피해는 고추에 얼룩이 지고 오이에도 얼룩이 진다.(탄저병) 그러한 표면의 얼룩도 화생토 현상이다.

나는 군대에서 처음 무좀을 앓았다. 그 전에는 무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무좀은 발가락에 주로 생기는데 원인은 발가락이 습하기 때문이다.
습하면 수극화를 하고 그 결과 화생토가 일어나니 발가락 표면에 얼룩이 지고 그것이 무좀이라는 병인 것이다. 표면의 얼룩짐은 무조건 화생토 현상인 것이다.

인체에는 습한 부위가 있는데 주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다.
따라서 그곳의 병은 수극화에 의한 화생토 현상이고 표면에 피부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습하면 통풍을 잘 시켜 수극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바람은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기운이다.
그러나 바람도 덥거나 시원하거나에 따라 오행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

'우주는 기(氣)로 충만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이것은 바람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바람은 수기운이어서 바람이 불면 기는 흩어지고 만다.
그래서 기공(氣功)을 할 때 바람이 불면 방해를 받는 것이고, 기(氣)는 금(庚金)이라는 것이다.

5)토극수(土剋水)

토는 수를 다스린다, 토는 수를 좌지우지 한다.

옛말에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요즘에는 그다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요즘은 길이 시멘트, 아스팔트 도로가 많고, 집안에서도 방이며, 마루며 장판이 많아서 엎질러진 물도 잘 만하면 재빠르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래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은, 물이 땅에 떨어지면 아주 빠르게 땅에 스며들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담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물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빠져나가고 흘러버리는 성질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물을 그릇에 담아 쓰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만약 그릇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물을 저장하지도 못 할 것이니 늘 물가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냇물이나 강물은 그릇에 담겨 있지 않는데 사람이 농사에 쓰지 않냐 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냇물이나 강물에 말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도 그릇에 담지 않는 물인데 쓰지 않냐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냇물이나 강물에는 '둑'이라는 것이 있다.
둑에 의해 물은 마을이나 농경지로 넘어오지 못하고 가두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둑이 무너지면 물은 마을이나 농경지로 흘러들어와 물난리가 날것이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둑은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크게 보면 모든 냇물이나 강물도 가두어진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바다도 방파제로 둘러싸인 거대한 가두어진 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물을 가두는 것이 바로 토(土)다.
따라서 물을 담는 그릇이 스텐으로 만들어졌든, 사기로 만들어 졌든, 플라스틱 용기 던 간에 모두 토인 것이다. 오행은 역할과 성질로서 구분을 하는 것이지, 화학적 성분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토가 수를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토의 힘보다 수의 힘이 강할 때는 토는 어려움을 겪는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강물이 둑을 넘치고 심지어 둑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둑이 무너지면 강물이 대지를 휩쓸게 되니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고 땅은 다시 황폐해진다.

수생목(水生木)
수생목은 토극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토극수는 흐르는 물을 가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인물이 되는데, 고인물은 썩는다.
이를 테면 비가 많이 와서 웅덩이에 물이 차 들어온 경우, 날씨가 맑아지면 그 물은 고인물이 되고 이내 썩게 된다. 썩는다는 것은 그 물에 장구벌레도 생기고, 퍼렇게 이끼가 끼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장구벌레나 이끼는 새로운 생명체다.
즉, 썩은 물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수생목은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목은 새로운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여름에 무척 더웠고 거의 모든 강에 녹조현상이 일어났다.
녹조현상은 강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인데, 그 원인은 물속에 이끼류의 녹조식물이 급격히 번식해서 강물이 초록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그 원인을 두고 환경단체는 4대강 공사 때문에 강에 보를 만들어 유속이 느려져서 생긴 것이라고 했고, 정부는 여름에 더워서 수온이 올라가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해결방법으로 강바닥에 설치된 보를 철거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정부는 가을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고 수온이 내려가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토극수와 수생목을 이해한다면 녹조의 원인을 알 수 있으며 해결방법도 알 수 있다.

강에 보를 만들어 유속을 느리게 하는 것은 물을 가두는 것이다. 즉, 토극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속이 느려지면 고인물이 되고 그 물은 썩어 수생목 현상이 일어나니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

물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희석이다.
더 많은 양의 깨끗한 물을 들이부어 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물에 들어 있는 덩어리는 금(金)이다. 그리고 금이 많을수록 농도가 짙은 물이 된다.
그리고 금은 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데, 수가 많을수록 금은 빠르게 움직여 빠져나갈 수 있다.
금이 빠르게 움직여 빠져나간다는 것은 정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된 물은 희석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인 것이다.
녹조문제뿐만 아니라, 가끔 TV에 유독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 식수를 오염시키는 뉴스도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리 맑은 물로 희석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4대강 공사는 강물의 유속을 느리게 해서 결과적으로 물을 가둔 것이니, 여름만 되면 녹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해결방법은 보를 없애서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뿐이다.

한편으로, 여름의 더운 날씨는 녹조를 일으키는 조건이어서 정부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따뜻한 열기는 생명을 일으키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절대로 이끼가 끼지 않는다. 고인 물(癸水)에서만 이끼가 낀다.
흐르는 물(壬水)은 생명을 일으키지 않는다.

참고로 여름에 장마가 길어져 비가 많이 오면 모기가 적다.
그 이유를 TV뉴스에서 어떤 전문가는 비가 많이 오면 모기의 알이 빗물에 유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지로 그래서 모기가 적은지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비가 많이 오면 흐르는 물이 많아지는데 그것은 임수(壬水)이고 그러면 생명체가 일어날 수 없으니 모기가 덜 생긴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

9.음양이론(陰陽理論)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구조로부터 간지와 오행을 알아냈는데 우주에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
그것은 남녀(男女)의 법칙이라고 하는 음양이론이다.

음양이론은 세상을 극단적으로 이등분해서 음과 양으로 나누고 각각의 성질을 살피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하늘은 양, 땅은 음, 겉은 양, 속은 음, 밖은 양, 안은 음, 몸은 양, 마음은 음 등등.
대비되는 두 개의 존재나, 상태를 양 또는 음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때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대비되는 존재 또는 개체 또는 성질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주전자를 음과 양으로 나눌 수는 없다.
자동차와 주전자는 대비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양으로 세상을 나눌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어디서 얻었을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는데, 남녀의 역할과 능력에 차이가 있고, 그것을 자연으로까지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남자의 성질이나 역할과 같은 것을 양(陽)이라고 하고, 여자의 성질이나 역할과 같은 것을 음(陰)이라고 한 것이다.

어쩐 존재나, 성질에 관해 이것이 음인지, 아니면 양인지를 잘 구별하는 방법은 남녀를 생각하면 쉽다.
그것이 남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양, 여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음이 된다.
음양은 남녀의 성질을 근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음(陰)의 성질

땅, 여자, 머물다, 유지하다, 따르다, 안, 속, 끌어당기다, 정신, 안보이다(감추다), 어둡다 등

양(陽)의 성질

하늘, 남자, 움직이다. 창조/파괴하다, 이끌다, 밖, 겉, 밀어내다, 몸, 보이다(드러내다), 밝다 등

음과 양중에 누가 먼저 나왔을까?
정답은 음이 양보다 먼저 나왔다.
어둠에서 빛이 나왔나, 아니면 빛에서 어둠이 나왔겠나.
당연히 어둠속에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음이 양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양이 음보다 앞선다. 그 이유는 남자가 앞장서고 여자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음양의 성질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성질은 아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에도 음양의 성질이 있다.
심지어 간지도 음양으로 나눌 수 있고, 오행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음과 양은 남녀와 같아 서로를 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남녀도 본능적으로 서로를 끌어당기지 않은가.
그렇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합이라고 한다.

반대로 양과 양, 음과 음은 서로를 밀쳐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에서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만남은 서로 견제하고 투쟁하는 관계다.
그렇게 밀어내는 성질을 충이라고 한다.

합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충은 부딪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주가 늘 조화되고 균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발전도 없다.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충돌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면 현재에 안주하게 되고, 변화를 원치 않게 된다.
인간세상에서는 그것을 보수화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다른 세력에 의해 망한다.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야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음양은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이고 원리다.
오행은 상호간의 역학관계를 말하지만 그것이 실행되려면 음양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즉, 존재는 음양의 힘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은 오행의 역학관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남녀가 만나는 것도 음양의 힘에 의해 만나는 것이고, 만남의 결과는 오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오행에도 합과 충이 있다.
그러나 오행의 합과 충은 음양의 합과 충처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성질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거나 중단하는 의미를 가진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려면 음양이론에 밝아야 한다.
땅에 일어나는 자연재해(가뭄, 홍수, 지진, 화산 등)는 사실은 하늘이 일으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하면, 음은 양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는 땅에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대기(하늘)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땅에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로 동해에서 일어나는 용오름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도 처음에 하늘에서 시작한다.
구름이 땅에서 일어나 하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 땅으로 연결된다.
아직 기상학이 발달하지 않다 그것을 인간의 과학기술로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인류의 과학이 발달하면 그것을 알아낼 것이다.

오행이론은 역술(易術)로써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음양이론은 남녀의 이론이라 방술(房術)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음양이론을 깊이 공부하려면 방술을 공부해야 한다.

어떤 대상을 음양으로 나누려고 할 때는 그 대상을 한 덩어리로 보고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개를 음양으로 나눌 때는 '앞의 5개가 양, 뒤의 5개가 음'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홀수는 음양으로 나눌 수 없다.
예를 들어 3개는 음양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짝수 개만이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나누었으면 앞엣것이 양이 되고 뒤엣것이 음이 된다.
그 이유는 양이 앞장서고 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10.방위표(方位表)

방위표는 동서남북으로 공간을 나눈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오행의 이론이다.
거기에 시간을 넣어보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우주가 된다.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체다.
공간 없는 시간을 생각할 수 없고, 시간 없는 공간을 생각할 수 없다.
공간만 있는 우주가 있다든지, 반대로 시간만 있는 우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1)천간의 배치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다. 천간의 주기는 10이며 갑에서 시작해서 계로 끝난다.
천간을 오행으로 구분한 공간에 넣어 보자.

오행으로 구분한 공간은 봄, 여를, 가을, 겨울, 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천간 10개를 1년 안에 우겨 넣는 것이다.
그런데 공간은 5개 이므로 하나의 공간에는 두 개의 천간이 들어가게 된다.

천간 10개를 4계절의 흐름으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tr><td>갑(甲)</td><td>을(乙)</td><td>병(丙)</td><td>정(丁)</td><td>무(戊)</td><td>기(己)</td><td>경(庚)</td><td>신(辛)</td><td>임(壬)</td><td>계(癸)</td></tr>
<tr><td colspan="3">봄(春)</td><td colspan="3">여름(夏)</td><td colspan="3">가을(秋)</td><td colspan="2">겨울(冬)</td></tr>
<tr><td colspan="6">양(陽)</td><td colspan="4">음(陰)</td></tr>
</table>

4계절은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할 적에 봄과 여름은 양이 되고, 가을과 겨울은 음이 된다.
이때 무와 기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는 경계에 위치한다.
물론, 겨울의 계(季)와 봄의 갑(甲)도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경계에 위치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1년이란 주기를 논하기 때문에 주기의 시작인 갑에서부터 계까지를 잘라서 보는 것이다.

오행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면 목, 화는 양이고, 금, 수는 음이다. 그리고 토는 음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음양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간 10개를 음양으로 나누면 갑은 양, 을은 음, 병은 양, 정은 음... 임은 양, 계는 음이 된다. 순서를 물으면 양이 음에 앞서기 때문이다. 10개를 5개의 조합으로 나누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가 될 것이다. 이 5개의 조합을 이제 오행의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다.

천간의 10개의 시간 단위를 음양의 변화를 따져보면 갑, 을, 병, 정, 무는 양의 구간에 있을 것이고, 기, 경, 신, 임, 계는 음의 구간에 있게 된다. 갑은 양이 시작이고 무는 양의 끝이 될 것이고, 기는 음의 시작이고 계는 음의 끝이 될 것이다.

갑과 을을 동에 배치한다. 이때 갑은 양이 되고 을은 음이 된다. 양이 바깥이고, 음이 안쪽이다.
양과 음의 구간에서 글자를 채우는 순서는 양이 먼저다. 그 이유는 양이 앞서고 음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순서를 말할 때는 양 다음이 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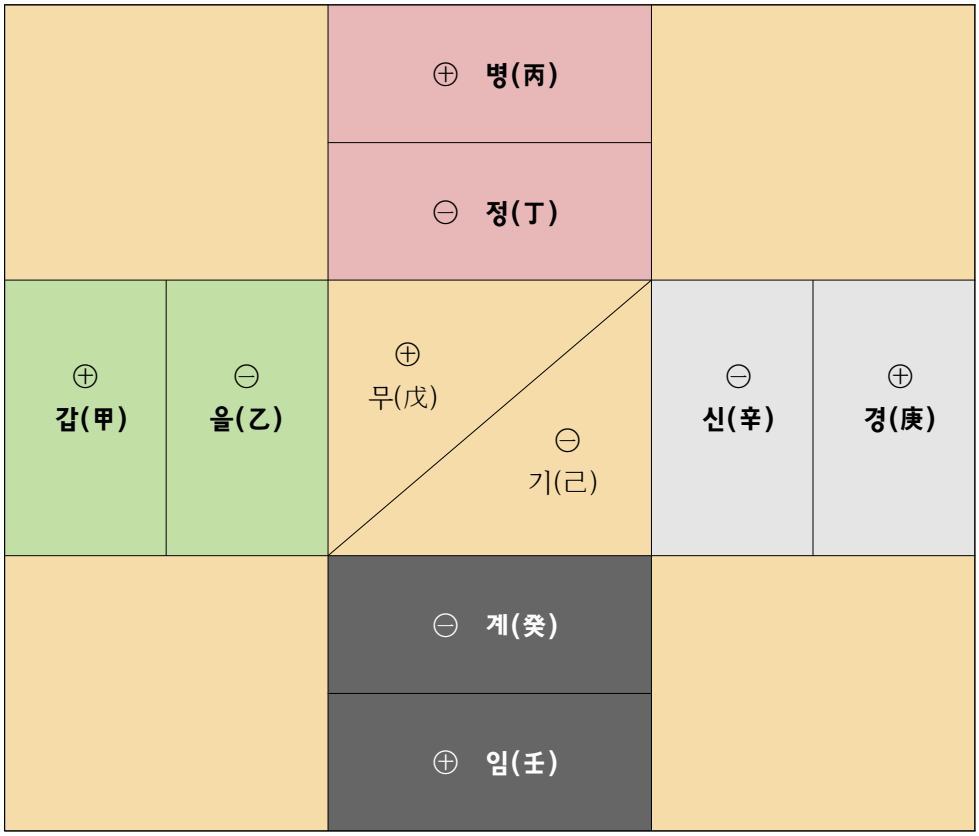
갑과 을을 동(東)에 배치하는 이유는 동쪽이 시작이기 때문이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해를 보고 하루를 만들었으니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다.
한 해의 시작도 봄부터 시작한다.

병과 정은 남에 배치한다. 이때 병은 양이 되고 정은 음이 된다. 양이 바깥이고, 음이 안쪽이다.
병과 정을 남에 배치하는 이유는 아침이 지나면 한낮이 되기 때문이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기 때문이다.

무와 기는 중앙에 배치한다.
무와 기를 중앙에 배치하는 이유는 천간에서 무와 기는 음과 양의 중간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경과 신은 서(西)에 배치한다. 이때 경은 양이 되고 을은 음이 된다. 양이 바깥이고, 음이 안쪽이다.
경과 신을 서에 배치하는 이유는 경과 신은 서쪽을 의미하고 하루중에는 저녁때를 의미하고 일년중에는 가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임과 계는 북(北)에 배치한다. 이때 임은 양이 되고 계는 음이 된다. 양이 바깥이고, 음이 안쪽이다.
임과 계를 북에 배치하는 이유는 임과 계는 하루중에는 한밤중이고 일년으로는 겨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지지의 배치

지지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해로서 나타내는 시간의 단위 안에서 실제적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다.
끝을 예정하지 않는 시작은 없고, 시작이 없이 끝나는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언제를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작이 자(子)인 것은 맞는데, 공간의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 가이다.

시작과 끝이라고 할 적에 이것은 보통 생명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생명체의 탄생이 시작일 것이고 죽음이 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생명체의 탄생은 어떤 때를 말하는가.

일년의 주기중에서 해의 길이를 가지고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여름은 양(陽)이 강한 계절이고, 겨울은 음(陰)이 강한 계절이 될 것이다.
여름중에서도 해가 가장 긴 하지는 양중에서도 가장 양이 강한 시기이니 이때를 극양(極陽)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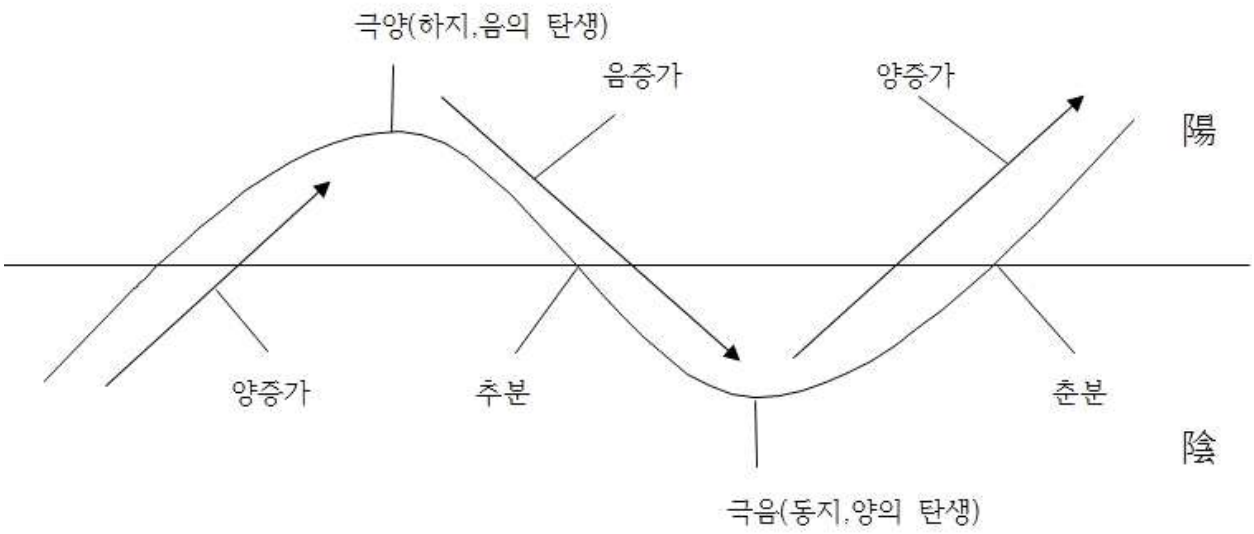
반대로 겨울중에서도 해가 가장 짧은 동지는 음중에서도 가장 음이 강한 시기이니 극음(極陰)이라고 한다.

봄은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춘분(春分)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가을은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마찬가지로 추분(秋分)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극양지점(夏至)은 양이 가장 강할 때지만 이제 해가 서서히 짧아지기 시작하니, 음이 탄생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극음지점(冬至)은 음기 가장 강할 때지만 이제 해가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하니, 양이 탄생하는 시기가 된다.

생명체는 양이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활동적이며, 보이기 때문이다.
(귀신은 음의 존재다. 귀신은 비활동적이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체는 극음에서 탄생한다.
극음은 1년의 기간에서 음이 가장 왕성한 동지(極陰)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생명의 시작인 자(子)가 시작된다.



사람의 탄생을 생각해보자.
사람의 아기는 엄마뱃속에서 10달간 태아로 자라다가 마침내 세상에 나온다.
그러면 세상에 나오는 시점을 아기가 시작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뱃속에서 잉태되는 시점을 아기가 시작했다고 할 것인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때 사람이다.
세상에 있어야만 그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으며 생활을 시작한다.
엄마뱃속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는 있지만(상속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는 태

어나 세상에 존재해야만 인격체가 된다.
예를 들면 태아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질 수 없다.
이름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는가.
또한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므로 설령 태아는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다.
비록 생명체인 것은 맞으나 아직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체로서의 시작은 다르다.
비록 엄마뱃속에 머물기는 하지만 생명의 시작임은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시작은 태어난 시점이고, 생명체로서의 시작은 잉태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다.
지지의 주기는 12이며 자에서 시작해서 해로 끝난다.
생명의 시작인 자를 극임인 동지에서부터 넣으면 된다.

그런데 동서남북과 중앙은 음양으로 나누어서 공간이 10개가 된 상태이다.
공간 10개에 지지 12개를 넣을 수는 없다.

계절은 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을로 넘어가지 않는다.
계절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이니 방향의 중간인 간방(間方)을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 지지를 넣는다. 다만, 간방은 음양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극음인 계(癸)의 자리에서부터 자(子)를 넣고 차례로 공간에 시간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colspan="2" rowspan="2">⊕ 진(辰)</td><td colspan="2">⊕ 병(丙) 사(巳)</td><td rowspan="2">⊖ 미(未)</td></tr>
<tr><td colspan="2">⊖ 정(丁) 오(午)</td></tr>
<tr><td>⊕
갑(甲)
인(寅)</td><td>⊖
을(乙)
묘(卯)</td><td>⊕
무(戊)

⊖
기(己)</td><td>⊖
신(辛)
유(酉)</td><td>⊕
경(庚)
신(申)</td></tr>
<tr><td colspan="2" rowspan="2">⊖ 축(丑)</td><td colspan="2">⊖ 계(癸) 자(子)</td><td rowspan="2">⊕ 술(戌)</td></tr>
<tr><td colspan="2">⊕ 임(壬) 해(亥)</td></tr>
</table>

이렇게 공간에 시간을 넣고, 지지 12개를 계절로 구분해보면
봄 => 인, 묘, 진
여름 => 사, 오, 미
가을 => 신, 유, 술
겨울 => 해, 자, 축
이 된다.

진, 미, 술, 축은 살펴보면 계절의 끝이다.
계절의 끝은 다음의 계절로 이어지는 길목이기도 하다.

많은 역학서에 지지의 자,인,진,오,신,술은 양이고, 축,묘,사,미,유,해는 음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것이다.
지지의 음양은 공간의 배속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자,축,묘,오,미,유는 음이고, 인,진,사,경,술,해는 양이다.

아마도 천간의 갑을병정무기경신이 양음양음양음.. 의 순서대로 번갈아 되어 있으니, 지지의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도 양음양음양음..의 식으로 번갈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참으로 어리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역학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올바른 역학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지지를 절기에 맞추면 다음과 같다.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대설	소한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입동
동지	대한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겨울(冬)		봄(春)			여름(夏)			가을(秋)			겨울
음(陰)		양(陽)						음(陰)			

12지지를 4계절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계절	생지(生地)	왕지(旺地)	사지(死地,庫地)
봄(春)	인(寅)	묘(卯)	진(辰)
여름(夏)	사(巳)	오(午)	미(未)
가을(秋)	신(申)	유(酉)	술(戌)
겨울(冬)	해(亥)	자(子)	축(丑)

계절이 시작되는 지지를 생지(生地)라고 하고, 계절의 가운데를 왕지(旺地)라고 하고, 계절의 끝을 사지(死地) 또는 고지(庫地)라고 한다.

생지는 기운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왕지는 기운이 순수한 시기이고, 사지 또는 고지는 기운이 사그라지는 시기를 말한다. (고지라는 이름은 토기운은 창고처럼 지장간이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생지, 왕지, 사지는 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퇴직자가 있어, 음식점 체인점을 새로이 창업한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가 생지가 되는데, 이때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한다.
왜냐하면 음식점 창업에 따르는 컨설팅도 해야 하고, 가게도 알아봐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재료도 구입하고, 종업원도 모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픈 쇼도 연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초기가 가장 바쁘고 왕성하게 움직이며, 미래에 대해 꿈을 가진다.
그래서 생지의 지지는 미래에 대한 천간이 들어온다.
이제 음식점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왕지다.
모든 것은 준비된 상태이고 단지 손님이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 음식을 내가기만 하면 된다.
손님이 많으면 바쁠 것이고, 손님이 적으면 한가할 뿐이다.
지금 닥친 일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왕지는 현재에 대한 천간이 들어온다.

음식장사가 끝났으면 결산을 해야 한다.
하루 중에는 영업마감시간이 될 것이고, 장사를 더 이상 안한다면 간판을 철거하고, 가게를 파는 등 사업 종료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벌었던 것에 대한 회계가 이루어지고,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회한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지는 과거에 대한 천간이 들어오게 된다.

11.지장간(支藏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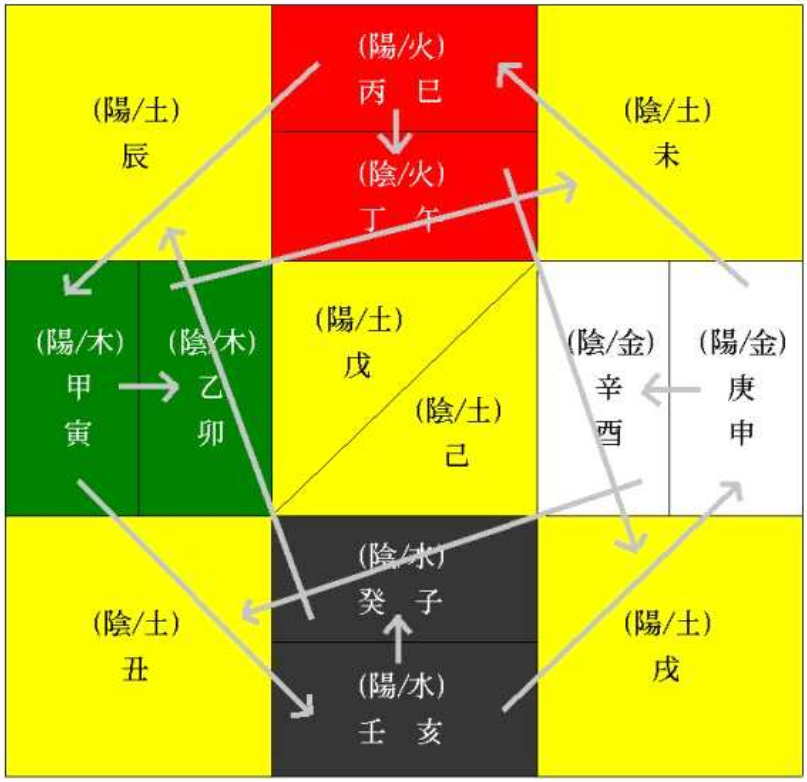
지지는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은 방위표상으로 시계방향으로 구획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지가 변할 때 해당 구간에서 천간을 만나게 된다. 즉, 지지가 변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천간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장간이다.

지지가 자에서 축으로 이동을 하면 축은 천간 계,신,기를 끌어당긴다.
지지가 축에서 인으로 이동을 하면 인은 천간 무,병,갑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인에서 묘로 이동을 하면 묘는 천간 갑,을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묘에서 진으로 이동을 하면 지는 천간 을,계,무를 끌어당긴다.
지지가 진에서 사로 이동을 하면 사는 천간 기,경,병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사에서 오로 이동을 하면 오는 천간 병,정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오에서 미로 이동을 하면 미는 천간 정,을,기를 끌어당긴다.
지지가 미에서 신로 이동을 하면 신는 천간 무,임,경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신에서 유로 이동을 하면 유는 천간 경,신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유에서 술로 이동을 하면 술는 천간 신,정,무를 끌어당긴다.
지지가 술에서 해로 이동을 하면 해는 천간 기,갑,임을 끌어당긴다.
지지가 해에서 자로 이동을 하면 자는 천간 임,계를 끌어당긴다.

이것은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땅은 오른쪽으로 도는 음양학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양의 지지를 말하고, 땅은 토의 지지를 말한다.
그리고 음의 지지는 밖에서 안으로 천간을 끌어당긴다.

그렇게 시간이 공간을 돌다보니
지지 자(子)는 천간 임(壬)과 계(癸)를 가지게 되고,
지지 축(丑)는 천간 계(癸)와 신(辛)과 기(己)를 가지게 되고,
지지 인(寅)는 천간 무(戊)와 병(丙)과 갑(甲)을 가지게 되고,
지지 묘(卯)는 천간 갑(甲)과 을(乙)을 가지게 되고,
지지 진(辰)는 천간 을(乙)과 계(癸)와 무(戊)를 가지게 되고,
지지 사(巳)는 천간 기(己)와 경(庚)과 병(丙)을 가지게 되고,
지지 오(午)는 천간 병(丙)과 정(丁)을 가지게 되고,
지지 미(未)는 천간 정(丁)과 을(乙)과 기(己)를 가지게 되고,
지지 신(申)는 천간 무(戊)와 임(壬)과 경(庚)을 가지게 되고,
지지 유(酉)는 천간 경(庚)과 신(辛)을 가지게 되고,
지지 술(戌)는 천간 신(辛)과 정(丁)과 무(戊)를 가지게 되고,
지지 해(亥)는 천간 기(己)와 갑(甲)과 임(壬)을 가지게 된다.

간지방위배속표



지지에 들어있는 천간을 지장간(地藏干)이라고 하는데, 이는 땅속에 숨어있는 천간이라는 뜻이 된다.
땅속에 천간이 숨은 이유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인데 음과 양은 만나야 하니 그 통로를 만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늘과 땅은 교감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본래 천간이 10개라는 것은 우주는 10가지의 성질로 되어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의 것은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반면에 주역에서 말하는 팔괘는 이 세상의 성질을 8개로 나눈 것이다.)

천간은 순수한 의미를 가지는 성질이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개체의 순수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면 천간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의 순순한 성질을 말하라고 한다면 갑목(甲木)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를 인목(寅木)이라고 하면 인목은 무,병,갑이라는 지장간을 가졌으므로 무,병,갑이라는 3가지의 복합적인 성질을 가진 나무를 말하게 되는 것이다.

지지가 2개 또는 3개의 지장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땅의 일은 순수하지 않으며 복잡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지 못하며 사회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복잡한 것이다. 지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각의 지지는 그렇게 천간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지지는 천간이 2개이기도 하고 어떤 지지는 천간이 3개이기도 하다.

지지의 지장간은 초기,중기,정기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천간이 3개인 지장간은 초기,중기,정기에 천간이 들어가며, 천간이 2개인 지장간은 초기와 정기에만 천간이 들어간다.

지지(地支)	초기(初氣,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本氣)
자(子) ㊀	임(壬) ㊉		계(癸) ㊀
축(丑) ㊀	계(癸) ㊀	신(辛) ㊉	기(己) ㊀
인(寅) ㊉	무(戊) ㊉	병(丙) ㊉	갑(甲) ㊉
묘(卯) ㊀	갑(甲) ㊉		을(乙) ㊀
진(辰) ㊉	을(乙) ㊀	계(癸) ㊀	무(戊) ㊉
사(巳) ㊉	기(己) ㊀	경(庚) ㊉	병(丙) ㊉
오(午) ㊀	병(丙) ㊉		정(丁) ㊀
미(未) ㊀	정(丁) ㊀	을(乙) ㊀	기(己) ㊀
신(申) ㊉	무(戊) ㊉	임(壬) ㊉	경(庚) ㊉
유(酉) ㊀	경(庚) ㊉		신(辛) ㊀
술(戌) ㊉	신(辛) ㊀	정(丁) ㊀	무(戊) ㊉
해(亥) ㊉	기(己) ㊀	갑(甲) ㊉	임(壬) ㊉

12.대운

대운은 사주원국, 지장간과 더불어 사주의 3대 요소이다.
대운이란 인생이라는 긴 세월의 변화를 운으로써 알아보는 것이다.
대운에 따라 사람은 환경 및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한 변화는 월주를 기준으로 하여 10년간 운의 변화로써 일어난다.

대운에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떤 식으로 사는가, 또 어떤 일이 잘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운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순행과 역행이 있다.

1)대운순행(大運順行)

대운순행이란 남자가 양년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음년에 태어나면 대운이 순행하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남자이고 월주가 갑인이라면 대운은 갑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을묘,병진,정사,무오.. 순으로 대운이 흐른다. 즉 대운은 간지의 순서대로 흐르는 것이다.
여자인데 월주가 신묘라면 대운은 신묘로부터 시작해서 임진,계사,갑오,을미,별신,정유.. 순으로 대운은 흐른다.

2)대운역행(大運逆行)

대운역행이란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양년에 태어나면 대운이 역행하는 법칙이다.

예를 들어, 남자이고 월주가 기사이라면 대운은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무진,정묘,병인,을축,갑자,계해,.. 순으로 대운이 흐른다. 즉, 대운은 간지의 역순으로 흐르는 것이다.
여자인데 월주가 갑인이라면 대운은 갑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축, 임자, 신해, 경술.. 순으로 대운이 흐른다.

3)대운수(大運數)

대운수는 대운의 흐름이 몇 세부터 시작되는가를 따지는 법칙으로서 대운이 순행이면 생일의 직후 절입일까지의 날짜를 3으로 나눈 몫이고, 대운이 역행이면 생일의 직전 절입일까지의 날짜를 3으로 나눈 몫이다,
예를 들어 대운이 순행이고 생일이 양력 8월 21일이라면, 생일 다음의 절입일이 9월 7일이라고 할 때 9월 7일에서 8월 21일까지의 날짜수는 16이고 16을 3으로 나눈 몫이 5이니 대운수는 5가 된다.
반대로 대운이 역행이고 생일이 양력 8월 21일이라면, 생일 직전의 절입일이 8월 21일이라고 할때 8월 8

일에서 8월 21일까지의 날짜수는 12일이고 12을 3으로 나눈 몫이 4이니 대운수는 4가 된다.
만약 나머지가 1일이면 대운수는 변함이 없으나, 나머지가 2이면 대운수가 1이 커진다.

예를 들어 대운수가 3이면 3세부터 대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음번 대운이 시작된다.

대운의 나이는 한국나이를 사용한다.
한국은 태어나면 곧바로 1살이 시작되고, 설날이 되면 한 살을 더 먹는데, 그러한 나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한다. 즉,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을 더 먹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이와 관련한 문제는 사실 기준의 문제다. 인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연을 기준으로 하느냐 인 것이다. 인간이 기준이면 서양식의 만나이가 맞다 고 볼 수 있으며, 자연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과 함께 인간도 나이를 먹어야 하므로 한국식 나이가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니 한국식의 나이는 자연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나이를 치게 되면 0세가 존재한다. 즉, 다음년도의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1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동양에는 본래 0의 개념이 없다.
모든 숫자는 1부터 시작한다. 즉, 없다가 생기면 1이 되는 것이다.
(10이 마지막 숫자다. 10은 마지막이므로 신(神)의 숫자이고, 인간의 마지막 숫자는 9가 된다. 그래서 바둑도 9단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까지 오른 단계가 되고, 무술도 9단이 사람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도 태어나면 1살을 먹어야 한다. 없다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 1살을 더 먹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대운의 나이는 한국식의 나이가 사용된다.

또한 생일이 지나야 대운의 지배를 받게 되는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 한해의 시작은 입춘이다.
입춘이 되면 새로운 운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입춘이 되면 사람은 일률적으로 1살을 더 먹으며, 대운도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대운도 뽑아보자.
대운의 시작은 월주가 된다. 월주가 甲申이므로 甲申다음부터 대운이 시작한다.
甲申다음의 간지는 乙酉가 되는데, 남자가 陰年인 乙년에 태어났으므로 대운은 역행한다.
따라서 癸未,壬午,辛巳,庚辰,己卯,戊寅,丁丑,丙子,乙亥,甲戌의 순으로 대운은 진행한다.
대운수는 생일인 1975년의 8월 12일은 최근의 절입일인 1975년 8월 8일인 입추로부터 4일 떨어져 있다.
대운수는 이 떨어진 4의 날짜를 3으로 나눈 몫이므로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다. 따라서 대운수는 1이 된다. 따라서 대운은 다음과 같다.

81	71	61	51	41	31	21	11	1	-9	나이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천간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지지

대운의 10년은 어떤 운을 살피기에는 너무나 긴 기간인데, 이기간은 짧게 나눌 수 있다.
그것의 근거는 지장간이다.
대운도 간지로 되어 있고 대운의 지지는 지장간을 가진다. 따라서 대운도 지장간까지 써주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한 대운은 다음과 같다.

기간	81	71	61	51	41	31	21	11	1	-9	나이
5년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천간
5년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지지
(1년)	己	壬	癸	戊	甲	乙	己	丙	丁	戊	초기
(2년)	甲		辛	丙		癸	庚		乙	壬	중기
(2년)	任	癸	己	甲	乙	戊	丙	丁	己	庚	본기

10년의 대운은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기간을 세분화해서 운을 살펴볼 수도 있다.
대운의 간지 하나는 10년의 시간을 가리키는데 간지는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으므로 천간 5년, 지지 5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지는 지장간을 시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초기 1년, 중기 2년, 본기 2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운을 살펴도 잘 맞는다.

지장간이 2개인 지지(子,卯,午,酉)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초기의 기간은 2년으로 보고, 본기의 기간은 3년으로 본다.

사주원국은 태어날 때 정해지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정해져서 변치 않는 것 이라면 그 사람에게서 변치 않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성격, 취미, 적성, 재능 등 그 사람에게서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될 것이다.

대운은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따라서 이것은 그 사람의 변치 않은 성품이나, 적성은 아니다. (물론 성품이나 적성도 때로는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대운은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수험생활을 하는지, 누구들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은둔중인지.. 등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해운은 매년 바뀐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매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어떤 모습이기 보다도 조금 구체화된 사건으로서의 일이 된다.

월운은 매달 바뀐다.
해운보다도 더 짧게 바뀌는 일이다.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일운은 매일 바뀐다.
이것은 하루의 일로서 오늘 겪는 당장의 일을 말한다.
보통 일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주원국(평생)	대운(10년)	해운(1년)	월운(1달)	일운(하루)
성품, 재능	삶의 모습	삶의 모습, 사건	사건	사건, 행동

사주는 사주원국, 대운, 해운, 월운, 일운으로 갈수록 인생이 구체화 되는 것이다.
하루의 운은 한 달의 운을 이길 수 없고, 한 달의 운은 일 년의 운을 이길 수 없으며, 일 년의 운은 10년의 대운을 이길 수 없고, 10년의 대운은 평생의 운인 사주원국을 이길 수 없다.

사주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은 사주원국 > 대운 > 해운 > 월운 > 일운의 순이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때는 사주원국이 잘 맞아 들어가게 된다.

사람의 일에는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어떤 일은 하루 안에 시작해서 끝나고 다음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운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와의 만남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는 오늘 채무자에게 돈 받으러 간다면 돈이 제대로 들어오겠는가?
하는 일은 오늘 안에 시작 되서 끝나는 일이다. 그러한 일은 일운을 봐야 한다.

하루를 넘어 한 달 이내에 끝나는 일이라면 월운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 휴가를 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하루이상 걸리는 일이다.
또한 양복을 맞추는 일도 며칠씩 걸리는 일이므로 그러한 일은 월운을 봐야 한다.

한 달을 넘어 일 년 이내에 끝나는 일은 해운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창업 또는 폐업의 일은 한달 안에 결정하지 않는다. 몇 달간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다.
이사나 이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몇 달에 걸쳐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면서 진행이 되므로 해운을 봐야 한다.

일 년을 넘어 10년 이내에 끝나는 일은 대운으로 봐야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 같은 일은 일 년 안에 결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통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박사학위나 사법시험, 자격증 시험 같은 공부도 일 년 안에 시작해서 끝내는 일이 아니다.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일은 대운을 봐야 한다.

10년을 넘어 평생에 걸치는 일이라면 사주원국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이나 직장의 문제는 10년을 넘겨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부모, 배우자, 자식의 일도 10년을 넘겨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고유한 성격, 취미, 소질 등도 평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
그러한 일은 사주 원국의 운에 해당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길 “아무게가 개과천선 했네” 하는 이야기들은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다.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행여 일어난다면 해운이나 대운의 영향으로 잠시 그럴 수 있을 뿐이다.
그 운이 지나가고 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13.사주명식(四柱命式)

사주는 년,월,일,시라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데 그것을 먼저 표로 만들고, 일정한 풀이공식에 의해 풀이를 하는 것이다. 사주명식은 그것을 하기 위한 일정 양식의 표(表)다.

사주명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월일시를 간지로 뽑는 것 이외에 육친론과 대운도 알아야 한다.

육친론은 사주학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이론이다.
세상에는 많은 명리학이 있고 각각 저마다 고유한 이론들이 있는데, 사주학에는 육친론이 다른 운명학과 다른 고유한 이론인 것이다.

음양오행은 순수한 자연의 이치를 말한다.
하지만 운명학은 사람의 운명을 알고자하는 것이다.
인간의 운명을 알고자함에 출발은 자연의 이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곧바로 사람의 일에 대응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갑목(甲木)은 우뚝 선 나무인데, 사람에게 갑목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의 이치를 사람의 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육친론인 것이다.

육친론은 음양오행의 성질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일은 사회와 관련지어지고 그 속에서 대인관계도 발생한다.

육친론은 음양오행의 성질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봄에 갑목(甲木)이라는 새싹이 뜨거운 햇볕(丙火)을 받아 땅을 뚫고 올라왔다면, '어린 아기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육친론은 사주의 천간과 지지를 일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5가지의 새로운 성질로 구분한다.
5가지의 성질은 관성(官星), 식상(食傷), 인성(印星), 재성(財星), 비겁(比劫) 이다.

이것은 오행의 극과 생의 성질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기준은 일간이 된다.
즉, 일간의 오행이 무엇인가에 따라 사주의 다른 오행의 육친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동적인데, 오행의 목이 육친으로는 관성이 될 수도 있으며, 인성이 될 수도 있다. 또 재성도 될 수 있고, 비겁도 될 수 있으며, 식상도 될 수 있다.

육친의 5가지 성질은 일간의 음양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관성은 편관(偏官)과 정관(正官)으로 나뉘고 식상은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으로 나뉘고, 인성은 편인(偏印)과 정인(正印)으로 나뉘고, 재성은 편재(偏財)와 정재(正財)로 나뉘고, 비겁은 비견(比肩)과 겁재(劫財)로 나뉜다.

육친(六親)	생극 관계	십신(十神)	구분 조건
관성(官星)	일간을 극하는 오행	편관(偏官)	일간과 음양이 같다
		정관(正官)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식상(食傷)	일간이 생하는 오행	식신(食神)	일간과 음양이 같다
		상관(傷官)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인성(印星)	일간을 생하는 오행	편인(偏印)	일간과 음양이 같다
		정인(正印)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재성(財星)	일간이 극하는 오행	편재(偏財)	일간과 음양이 같다
		정재(正財)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비겁(比劫)	일간과 같은 오행	비견(比肩)	일간과 음양이 같다
		겁재(劫財)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이렇게 육친은 총 10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명칭을 보면 음양에 따라 정(正)자와 편(偏)자가 붙는 것이 있는가 하면(관성, 인성, 재성),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이름(식상, 비겁)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름이 유사하면 성질도 비슷하고, 이름이 전혀 다르면 성질도 전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름에 따른 차이점은 거의 없다.

이름은 단지 사주학자가 나름의 연구를 통해 붙인 것일 뿐이다. (학문은 신이 만들어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착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후학은 전해지는 학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학문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은 더욱 발전해서 궁극의 진리로 향하는 것이다)
모두 저마다 고유의 성질과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임술년, 정미월, 신유일, 경인시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는 다음과 같다.

시간(時干)	일간(日干)	월간(月干)	년간(年干)
陽金 경(庚) 겁재(劫財)	陰金 신(辛)	陰火 정(丁) 편관(偏官)	陽水 임(壬) 상관(傷官)
陽木 인(寅) 정재(正財)	陰金 유(酉) 비견(比肩)	陰土 미(未) 편인(偏印)	陽土 술(戌) 정인(正印)
시지(時支)	일지(日支)	월지(月支)	년지(年支)

일간이 금이면 금이 생하는 수는 식상이 되는데 이때 일간이 양(陽)이고 수(水)가 양(陽)이면 식신이 되고, 수(水)가 음(陰)이면 상관이 된다.

일간이 금이고 금이 극하는 목은 재성이 된다. 이때 일간이 양(陽)이고 목이 양(陽)이면 편재가 되고, 목이 음(陰)이면 정재가 된다.

일간이 금이고 금을 생하는 토는 인성이 된다. 이때 일간이 양(陽)이고 토가 양(陽)이면 편인이 되고, 토가 음(陰)이면 정인이 된다.

일간이 금이고 금을 극하는 화는 관성이 된다. 이때 일간이 양(陽)이고 화가 양(陽)이면 편관이 되고, 토가 음(陰)이면 정관이 된다.

일간이 금이고 일간과 같은 금의 오행이 있으면 비겁이 된다. 이때 일간이 양(陽)이고 금이 양(陽)이면 비견이 되고, 금이 음(陰)이면 겁재가 된다.

년간(年干)의 육친

이 사주에서 년간의 임수는 오행으로는 수이고 음양으로는 음이다.
일간인 신과 년간의 임의 관계는 일간의 오행인 금이 년간의 오행인 수를 생하는 관계이므로 임은 식상이 되는데 일간의 신이 음이고 년간의 임은 양이므로 임은 상관이 된다.

년지(年支)의 육친

년지의 술토는 오행으로는 토이고 음양으로는 양이다.
일간인 신과 년지의 술의 관계는 년지의 오행인 토가 일간의 오행인 금을 생하는 관계이므로 술은 인성이 된다. 이때 일간의 신이 음이고 년지의 술이 양이므로 술은 정인이 된다.

월간(月干)의 육친

월간의 정은 오행으로는 화이고 음양으로는 음이다.

일간인 신과 월간의 정의 관계는 월간의 정이 일간의 금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정은 관성이 된다. 이때 일간의 신이 음이고 월간의 정도 음이므로 정은 편관이 된다.

월지(月支)의 육친

월지의 미는 오행으로는 토이고 음양으로는 음이다.

일간인 신과 월지의 미와의 관계는 월지의 미가 일간의 신을 생하는 관계이므로 미는 인성이 된다, 이때 일간의 신이 음이고 월지의 미도 음이므로 미는 편인이 된다.

일간(日干)의 육친

일간은 육친론의 기준이어서 나(我)가 되며 육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간이외의 간지 중에 나와 음양오행이 같으면 비견이라고 한다.

일지(日支)의 육친

일지의 유는 오행으로는 금이고 음양으로는 음이다.

일간인 신과 일지의 유와의 관계는 오행이 같으므로 비겁이 된다, 이때 일간의 신이 음이고 일지의 유도 음이므로 유는 비견이 된다.

시간(時干)의 육친

시간의 경은 오행으로는 금이고 음양으로는 양이다.

일간인 신과 시간의 경과의 관계는 오행이 같으므로 비겁이 된다. 이때 일간의 신이 음이고 시간의 경은 양이므로 경은 겁재가 된다.

시지(時支)의 육친

시지의 인은 오행으로는 목이고 음양으로는 양이다.

일간인 신과 시지의 인과 관계는 일간의 금이 시지의 목을 극하는 관계이므로 인은 재성이 된다. 이때 일간의 신이 음이고 시지의 인은 양이므로 인은 정재가 된다.

육친의 개별적인 특성에 관해서는 뒷부분의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사주의 개수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나타내는 사주는 60의 주기를 가진 시간의 표현인 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다.

년주에 간지 60개중 하나가 온다.

월주는 년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 년간이 갑(甲) 또는 기(己)이면 월주는 인월부터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순으로 결정되므로 12가지가 정해진다.

일주는 월과 월의 사이에 있는 간지이므로 대략 30개중 하나가 선택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주도 일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갑일이면 자시부터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식으로 해서 12개가 선택된다.
따라서 사주의 총 개수는 60 × 12 × 30 × 12 = 259,200개가 된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풀어야 하므로 259,200 × 2 = 518,400 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개수는 아니다. 왜냐면 달(月)과 달(月)사이는 30개가 될 수도 있고 31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달이 30일인 경우도 있고 31일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략 518,400개가 되는 것이다.

1년 중 사주는 몇 개가 생성될까?
하루는 60갑자 중에 12개가 선택되고 1년은 365일이므로 12 × 365 = 4,380개의 다른 사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 1년에 4,380개의 사주가 60년 동안 나온다고 하면 4,380 × 60 = 262,800 개의 사주가 만들어진다.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사주의 개수와의 오차는 1달이 30일인가 아니면 31일인가에 따른 오차이다.

사주 세우는 방법
사주는 태어난 년도의 간지, 태어난 월의 간지, 태어난 일의 간지, 태어난 시의 간지로서 세우게 된다.
예를 들어 양력 1975년 8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태어났다고 하면

1975년은 을묘년(乙卯年)이고, 8월은 갑신월(甲申月), 12일은 경인일(庚寅日), 오후 2시 20분은 계미시(癸未時)다. 따라서 사주를 쓰면 아래와 같다. 이것을 사주 원국(原局)이라고도 부른다.

시	일	월	년
癸	庚	甲	乙
未	寅	申	卯

보통 사주라하면 생일을 음력으로 말하기 쉬운데, 사주는 실제로는 양력을 쓴다.
사주에서 말하는 월(月)은 음력(陰曆)에서 말하는 월(月)과 다르기 때문이다.
사주에서 월을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라 태양의 24절기다.
그래서 음력에서 말하는 달과 날짜에서 오차가 있다.
이를테면 음력에서 정월(正月) 초하루는 음력 1월 1일이고 인월(寅月)인데, 사주에서는 정월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며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立春, 보통 양력 2월 4일)일이 지나면 인월(寅月)이다.
24절기의 양력 날짜는 매년 비슷하다.

사주의 지지에는 지장간이 있으며 사주를 표시할 때는 지장간까지 써야 한다.

년지 卯의 지장간은 갑, 을이다.
월지 申의 지장간은 무, 임, 경이다.
일지 寅의 지장간은 무, 병, 갑이다.
시지 未의 지장간은 정, 을, 기다.
따라서 사주원국과 지장간을 합치면 아래와 같다.

시	일	월	년
癸	庚	甲	乙
未	寅	申	卯
丁	戊	戊	甲
乙	丙	壬	
己	甲	庚	乙

14.음력달력과 절기

시간은 본래 해를 기준으로 만들어 졌지만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했다.
음력을 사용한 이유는 달을 보면 오늘이 언제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해는 항상 동그랗기 때문에 봐서는 오늘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실지로는 쳐다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음력은 기후와는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 기후는 태양과 더 밀접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후를 알 수 있게 하는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24절기>

寅月	입춘(立春)	양력 2월 4일경 (음력 正月, 寅月의 시작)
	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경
卯月	경칩(驚蟄)	양력 3월 6일경 (음력 2月, 卯月의 시작)
	춘분(春分)	양력 3월 21일경
辰月	청명(淸明)	양력 4월 5일경 (음력 3月, 辰月의 시작)
	곡우(穀雨)	양력 4월 20일경
巳月	입하(立夏)	양력 5월 5일경 (음력 4月, 巳月의 시작)
	소만(小滿)	양력 5월 21일경
午月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경 (음력 5月, 午月의 시작)
	하지(夏至)	양력 6월 21일경
未月	소서(小暑)	양력 7월 7일경 (음력 6月, 未月의 시작)
	대서(大暑)	양력 7월 23일경
申月	입추(立秋)	양력 8월 6일경 (음력 7月, 申月의 시작)
	처서(處暑)	양력 8월 23일경
酉月	백로(白露)	양력 9월 9일경 (음력 8月, 酉月의 시작)
	추분(秋分)	양력 9월 23일경
戌月	한로(寒露)	양력 10월 8일경 (음력 9月, 戌月의 시작)
	상강(霜降)	양력 10월 23일경
亥月	입동(立冬)	양력 11월 7일경 (음력 10月, 亥月의 시작)
	소설(小雪)	양력11월 23, 24일경
子月	대설(大雪)	양력 12월 7일경 (음력 11月, 子月의 시작)
	동지(冬至)	양력 12월 22일경
丑月	소한(小寒)	양력 1월 5일경 (음력 12月, 丑月의 시작)
	대한(大寒)	양력 1월 20일경

그런데 사주는 절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음력날짜와 사주에서 사용하는 날짜에는 오차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정(설날)이라는 명절이 있다.
새해를 맞아 조상에게 제를 올리고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명절이다.

전통적으로는 이때가 한해의 시작인데, 사주상으로는 이때는 한해의 시작이 아니다.
사주상으로 한해의 시작은 입춘이다.
입춘은 양력으로 치면 2월 4일(드물게 2월 5일인 경우도 있다)인데 음력으로는 12월(섯달)일 때도 있고, 혹은 이미 구정이 지난 정월일 경우도 있다.

만약 누군가 띠를 물어본다면, 띠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나이이므로 음력으로 말해야 한다.
따라서 생일이 입춘이 지났더라도 아직 구정이 지나지 않았다면 작년의 띠를 말해야 한다.

사주에서 한해의 시작은 입춘일로부터 시작한다.
입춘이 되면 인월이 시작되고 비로소 한해의 간지가 바뀌는 것이다.
그 이유는 봄은 일 년의 시작이고 인월부터 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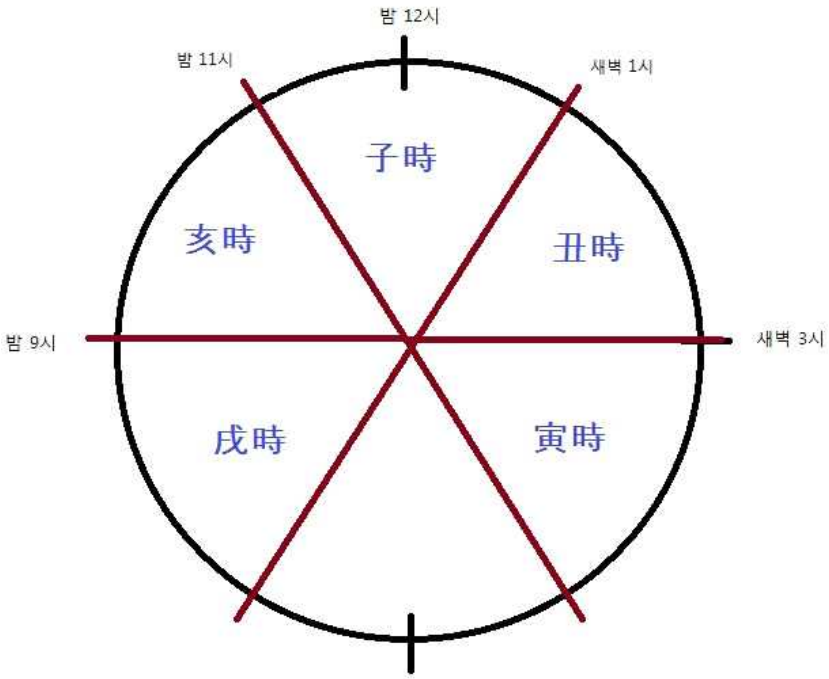
그렇다면 하루의 시작은 언제일까?

상식적으로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각자 저마다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가.
학생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은 출근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가.

그런데 묘하게도 잠이 드는 12시에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은 날짜가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한밤중인 12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는 지구촌시대라 많은 나라에서 이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역학에서 이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루가 밤 12시에 시작을 하니 그때가 자시가 된다.
그래서 자시에 다음날로 넘어가니 일주를 바꾸게 된다.



본래 자(子)는 음중(陰中)의 음인 극음(極陰)이니 시간으로 치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그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거의 모든 역술인들이 날짜가 바뀌니까, 자시를 날짜가 바뀌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시각이 밤 11시~새벽 1시 사이라면 일주를 바꾸고 사주를 뽑게 된다.
그렇데 되니 사주가 올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운명을 맞추지도 못한다.

야자시(夜子時)와 조자시(朝子時)

일부 역술인들은 '야자시(夜子時)', '조자시(朝子時)'라는 해괴한 이론을 만들기도 했다.
밤 12시면 날짜가 바뀌니, 밤 11시~밤 12시 사이에 태어나면 날짜(일주)는 바꾸지 말고(야자시),
밤 12시~ 새벽 1시에 태어나면 그때 날짜(일주)를 바꾸자(조자시)고 하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밤 12시에 날짜가 바뀌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다.
지금에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밤 12시에 날짜를 바꾸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니 미국은 내일부터 아침 6시에 날짜를 바꾼다" 라고 한다면 전 세계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날짜가 바뀌는 시간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국가마다 달랐다고 한다.
어떤 나라는 실지로 아침에 날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므로 그 나라에서 정하기 나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서구에서 밤 12시에 날짜를 바꾸었고, 세계는 지구촌이 되다보니 그것에 맞추게 된 것이다.

조자시, 야자시를 만든 역술인은 하루가 아침 6시에 시작한다면 아마도 이번에는 야묘시, 조묘시 이론을 만들지 않을까 한다. 야묘시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전날의 일간을 사용하고, 조묘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니 오늘의 일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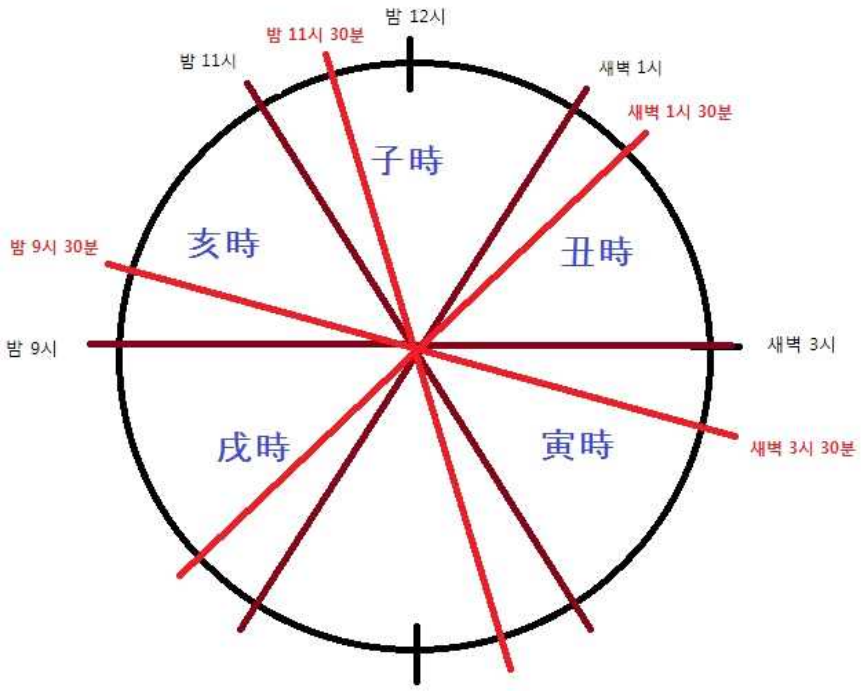
올바른 하루의 시작은 인시다. (寅時入日)
인시는 새벽 3시 ~ 5시 사이인데 이때 동쪽이 훤해지고 날이 밝는다.
아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는 관계없는 자연의 이치이며 불변의 진리다.

표준시의 보정

그런데 시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정오(正午)' 는 오시의 정 가운데인데, 우리는 그때를 '낮 12시' 라고 한다.

정오란 해가 머리위에 떴을 때를 말한다. 즉,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가 정오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낮 12시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까?

일본의 도쿄는 그렇다.
그러나 한국의 서울은 그렇지 않다. 서울은 낮 12시 30분이 되어야 해가 가장 높이 떠있다.
태양과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은 표준시를 일본의 동경시(東京時)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30분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30분 먼저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의 보정도 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를 뽑을 때는 시간을 30분 늦추어야 한다.

<올바른 시간>

자시(子時)	밤 11시 30분 ~ 새벽 1시 29분 59초
축시(丑時)	새벽 1시 30분 ~ 새벽 3시 29분 59초
인시(寅時)	새벽 3시 30분 ~ 새벽 5시 29분 59초
묘시(卯時)	아침 5시 30분 ~ 아침 7시 29분 59초
진시(辰時)	아침 7시 30분 ~아침 9시 29분 59초
사시(巳時)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29분 59초
오시(午時)	오전 11시 30분 ~ 낮 1시 29분 59초
미시(未時)	낮 1시 30분 ~ 낮 3시 29분 59초
신시(申時)	오후 3시 30분 ~ 오후 5시 29분 59초
유시(酉時)	오후 5시 30분 ~ 저녁 7시 29분 59초
술시(戌時)	저녁 7시 30분 ~ 저녁 9시 29분 59초
해시(亥時)	밤 9시 30분 ~ 반 11시 29분 59초

엄밀히 말하면 지역에 따른 편차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울릉도에서 태어난 사람과 백령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도 태양의 위치가 다르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바뀌는 경계시점에 태어났다면 두 사람은 사주가 달라야 한다. 하지만 그것까지 보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국의 표준시>

표준 자오선	사용 기간	관련 법령
동경 127도 30분	1908년 4월 1일 - 1911년 12월 31일	관보 제 3994호(칙령 제5호)
동경 135도	1912년 1월 1일 - 1954년 3월 20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367호(고시 제338호)
동경 127도 30분	1954년 3월 21일 - 1961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876호(1954년 3월 17일)
동경 135도	1961년 8월 10일 - 현재	법률 제676호(1961년 8월 7일)

		법률 제3919호(1986년 12월 31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잠시 서울 표준시를 썼던 때도 있으나 지금은 동경표준시를 쓰고 있다.
이 문제도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사주를 제대로 풀려면 사주부터 정확히 뽑아야 한다.
표준시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썸머타임(Summertime)
시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썸머타임이다.

썸머타임은 일광절약시간이라고 해서 낮이 긴 여름에 여가시간을 늘려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본래 썸머타임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과거에 시행된 때가 많이 있었다.

연도	시작	종료
1948년	5월 31일 23시	9월 13일 0시
1949년	4월 2일 23시	9월 11일 0시
1950년	3월 31일 23시	9월 10일 0시
1951년	5월 6일 23시	9월 9일 0시
1955년	5월 5일 0시	9월 9일 1시
1956년	5월 20일 0시	9월 30일 1시
1957년	5월 5일 0시	9월 22일 1시
1958년	5월 4일 0시	9월 21일 1시
1959년	5월 3일 0시	9월 20일 1시
1960년	5월 1일 0시	9월 18일 1시
1987년	5월 10일 02시	10월 11일 03시
1988년	5월 8일 02시	10월 9일 03시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시계바늘을 한 시간 앞당기고, 썸머타임이 끝나면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미룬다.
예를 들어, 1987년 5월 10일 02시에 썸머타임이 되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 새벽 2시

인데 새벽 3시로 맞추십시오.” 라고 했다.
그리고 1987년 10월 11일 03시에 썸머타임이 해제되었는데, 다시 라디오에서 “국민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인데 새벽 2시로 맞추십시오.” 라고 했다.

이렇게 썸머타임이 시작되면 국가의 표준시가 바뀌는 것이므로 모든 관공서, 병원, 회사 등은 시간을 바꿔야하고 개인도 손목시계를 차고 있다면 시간을 바꿔야 한다.
나는 지금도 썸머타임이 끝나는 날의 어느 방송의 저녁뉴스멘트가 생각난다.
“국민 여러분 한 시간 더 자서 좋으셨죠?”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날은 1시간 덜 자는 것이 되고, 썸머타임이 해제되면 1시간 더 자는 꼴이 된다.

이렇게 인간사회는 시간이나 날짜를 제도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시간은 불변이다. 물론 자연의 시간이 진리다.

따라서 썸머타임에 태어난 사람은 미래로 한 시간 당겨서 태어난 것이므로 과거로 다시 한 시간 미뤄서 본래의 시간으로 맞추어 사주를 뽑아야만 한다.

사주의 월간지(月干支)는 년간지(年干支)에 의해 결정되는데, 시간지(時干支)도 일간지(日干支)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만세력에는 <월간지 조견표>가 있는데 그 표를 시간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시주조견표>

일간지 / 시간	甲/己 日	乙/庚 日	丙/申 日	丁/壬 日	戊/癸 日
새벽 3:30~5:29	병인시	무인시	경인시	임인시	갑인시
아침 5:30~7:29	정묘시	기묘시	신묘시	계묘시	을묘시
아침 7:30~9:29	무진시	경진시	임진시	갑진시	병진시
오전 9:30~11:29	기사시	신사시	계사시	을사시	정사시
낮 11:30~1:29	경오시	임오시	갑오시	병오시	무오시
낮 1:30~3:29	신미시	계미시	을미시	정미시	기미시
낮 3:30~5:29	임신시	갑신시	병신시	무신시	경신시
저녁 5:30~7:29	계유시	을유시	정유시	기유시	신유시
저녁 7:30~9:29	갑술시	병술시	무술시	경술시	임술시
밤 9:30~11:29	을해시	정해시	기해시	신해시	계해시
밤 11:30~1:29	병자시	무자시	경자시	임자시	갑자시

밤 1:30~3:29	정축시	기축시	신축시	계축시	을축시

15.사주명식 뽑아보기

요즘은 컴퓨터로 사주를 뽑기도 하지만 간혹 컴퓨터로 뽑은 사주명식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다양하다. 프로그램의 오류일수도 있고, 절입시각이 틀리는 경우도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만세력으로 직접 뽑는 것이다.
역술인은 그래서 늘 만세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래의 생년월일시로 사주명식을 뽑아보자.
점차 어려워지며 모두 맞추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1. 여자. 음력. 1977.6.5. 오전 8시 17분.
2. 남자. 양력. 1981.6.5. 오후 2시.
3, 여자, 음력, 1979.5.14. 새벽 2시 58분.
4. 남자. 양력. 1985.11.7. 저녁 8시.
5. 여자. 양력. 1988.8.18. 새벽 4시 13분.
6. 남자. 음력. 1982.1.11. 오전 6시 30분.
7. 여자. 양력. 1984.2.5. 오전 1시 28분.

<정답>
사주는 태양의 절입일이 기준이다. 따라서 양력으로 뽑는 것이 기본이다.
보통 만세력에는 음력, 양력 모두 기제 되어있다.

1. 여자. 음력. 1977.6.5. 오전 8시 17분.
음력 1977년은 신해년이다. 따라서 년주는 신해가 된다.
음력 6월은 을미월이다. 따라서 월주는 을미가 된다.
5일은 임자일이다. 따라서 일주는 임자가 된다.
태어난 시간은 오전 8시 17분이니 진시다.
시주는 일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데 일간이 암날이니 임날의 진시에 태어난 것이 된다.
따라서 시주조견표에서 찾아보면 갑진시가 된다.

다음은 사주의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해의 지장간은 기,갑,임이다.
월지 미의 지장간은 정,을,기다.
일지 자의 지장간은 임,계다.
시지 진의 지장간은 을,계,무다

다음은 대운을 뽑는다.
시중의 만세력에는 보통 대운이 나와 있다.(만세력에 대운이 없는 것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니 대운까지

나와 있는 만세력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대운은 월주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남자가 양년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음년에 태어나면 순행이고, 남자가 음년에 태어나거나, 여자가 양년에 태어나면 역행을 한다.
남녀에 따라 순행과 역행이 나뉘어지니 남녀의 사주는 대운에서 차이가 난다.

만세력에 보면 음력 1977년 6월 5일의 여자 대운수는 4다. 따라서 4대운이다.
대운의 진행방향은 여자이고 음년(辛)에 태어났으므로 순행이다.

대운은 월지인 을미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방향은 순행이니 병신, 정유, 무술, 기해의 순으로 진행된다.
4대운이니 병신대운이 4살부터 시작해서 정유대운은 14세, 무술대운은 24세, 기해대운은 34세.. 로 진행된다.

대운 역시 지장간을 뽑는다.
대운도 간지이니 지지에 지장간이 있다. 반드시 써주어야 한다.
지장간은 운을 알아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니 지장간을 빼먹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육친을 뽑는다.
보통 사주를 뽑을 때는 육친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육친이 충분히 숙달 되었다면 생략해도 좋다.
육친은 일간의 오행이 기준이 되고 그것의 생극원리에 따라 육친이 결정된다.

년간 신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수를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 된다.
년지 해는 오행으로 수이고 일간과 오행이 같으니 비겁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비견이 된다.
월간 을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수로부터 생을 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월지 미는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수를 극하므로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일지 자는 오행으로 수이고 일간과 오행이 같으니 비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겁재가 된다.
시간 갑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수로부터 생을 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 된다.
시지 진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수를 극하는 오행이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지장간의 육친도 당연히 뽑을 수 있는데 생략한다.
대운의 지장간도 사주원국처럼 오행으로 생극관계를 살펴서 뽑으면 된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食神	我	傷官	正印
甲	壬	乙	辛
辰	子	未	亥
偏官	劫財	正官	比肩
乙	壬	丁	己
癸		乙	甲
戊	癸	己	壬

<대운>

74	64	54	44	34	24	14	4	-6
劫財	比肩	正印	偏印	正官	偏官	正財	偏財	傷官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卯	寅	丑	子	亥	戌	酉	辛	未
傷官	食神	正官	劫財	比肩	偏官	正印	偏印	正官
甲	戊	癸	壬	己	辛	庚	戊	丁
	丙	辛		甲	丁		壬	乙
乙	甲	己	癸	壬	戊	辛	庚	己

2. 남자. 양력. 1981.6.5. 오후 2시.
1981년은 신묘년이다. 따라서 년주는 신묘가 된다.
양력 6월은 갑오월이다. 따라서 월주는 갑오가 된다.
5일은 갑인일이다. 따라서 일주는 갑인이 된다.

그런데 양력 6월 5일이 절입일(망종)이다. 절입시각을 보니 오전 3시 53분이다.
만약 태어난 시간이 오전 3시 53분 이전이라면 갑오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후 2시에 태어났으므로 갑오월이 맞다.
오후 2시에 태어났으므로 미시에 태어났다. 시주는 일간에 따라 결정되어지니 갑날의 미시에 태어난 것이 된다., 시주조견표에서 찾아보면 신미시가 된다.

사주 8글자는 뽑았으니 이제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묘의 지장간은 경,신이다.
월지 오의 지장간은 병,정이다.
일지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이다.
시지 미의 지장간은 정,을,기다

다음은 대운을 뽑아보자.

이 사람은 남자이고 만세력에서 대운을 찾아보니 10대운이다.
그리고 년간 신(辛)이 음이니 대운은 역행을 한다.
대운의 시작은 월중인 갑오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대운이 역행이니 계사,임진,신묘,경인... 의 순서가 된다.
대운수는 10대운이니 갑오 다음부터 1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사(10), 임진(20), 신묘(30).. 이 된다.

갑오대운부터 지장간을 써준다,
오의 지장간은 병,정, 사의 지장간은 기,경,병, 진의 지장간은 을,계,무...
마지막으로 대운에도 육친을 써준다.

육친은 일간의 오행이 기준이 되고 그것의 생극원리에 따라 육친이 결정된다.

년간 신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목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년지 유는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목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월간 갑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목과 오행이 같으니 비겁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비견이 된다.
월지 오는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목이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일지 인는 오행으로 목고 일간과 오행이 같으니 비겁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비견이 된다.
시간 신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목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시지 미는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 극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가 된다.

대운도 사주원국과 마찬가지로 육친을 써준다.
육친은 운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지만 보고 금방 알 수 있게 숙달되어야 한다.

사주원국과 대운의 지장도 쓸 수 있으나 생략한다.
운을 볼 때는 필요하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정관	我	비견	정관
辛	甲	甲	辛
未	寅	午	酉
정재	비견	상관	정관
丁	戊	丙	庚
乙	丙		
己	甲	丁	辛

<대운>

80	70	60	50	40	30	20	10	0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비견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편재	편인	정인	정재	비견	비견	편재	식신	상관
辛	己	壬	癸	戊	甲	乙	己	丙
丁	甲		辛	丙		癸	庚	
戊	壬	癸	己	甲	乙	戊	丙	丁

3, 여자, 음력, 1979.5.14. 새벽 2시 58분.

음력 1979년은 기미년이다. 따라서 년주는 기미가 된다.
음력 5월은 경오월이다. 따라서 월주는 경오가 된다.
14일은 신사일이다. 따라서 일주는 병오가 된다.
그런데 태어난 시간이 새벽 2시58분이다. 그 시간은 축시인데 축시는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시각이다. 하루의 시작은 인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일주가 병오가 아니라 하루 전날인 을사가 된다.
그리고 시주는 을날의 축시이니 시주조견표에서 찾아보면 기축시가 된다.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년주, 월주는 같고 일주는 병오이고 시주는 신축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주를 풀면 운을 맞추지 못한다.

그런데 역술인은 잘못 푼 사주를 가지고도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도 있다.
이를 테면 역술인이 손님에게 “남편이 일요일만 되면 집에 있지 않고 친구들하고 산으로 놀러 다니지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줘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남자가 그러하다. 일요일에 집안일 도와주는 남편은 별로 없지 않은가.
그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면 그건 그냥 역술인이 손님의 푸념을 들어주는 카운셀링 수준이 된다.
물론 역술인에게 카운셀링은 중요하다. 하지만 역술을 한다면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족집게처럼 맞추지는 못해도 적어도 미래에 대한 설계는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사주원국을 뽑았으니 이제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미의 지장간은 정,을,기다.
월지 오의 지장간은 병,정이다.
일지 사의 지장간은 기,경,병이다.
시지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다.

이제 대운을 뽑아보자.
만세력에서 위 생년월일의 여자 대운을 찾아보면 대운수는 10이다.
또한 여자이고 음년에 태어났으므로 대운은 순행이다. 따라서 월주 경오로부터 신미(10), 임신(20), 계유(30), 갑술(40).. 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운의 지장간도 뽑는다.

마지막으로 육친을 뽑는다.

년간 기는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년지 미는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월간 경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목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월지 오는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목으로부터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 된다.
일지 사는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목으로부터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시간 기는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시지 축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과, 대운의 지장간도 육친을 쓸 수 있으나 생략한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편재	我	정관	편재
己	乙	庚	己
丑	巳	午	未
편재	상관	식신	편재
癸	己	丙	丁
辛	庚		乙
己	丙	丁	己

<대운>

80	70	60	50	40	30	20	10	0
정재	식신	상관	비견	겁재	편인	정인	편관	정관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겁재	편재	편인	정인	정재	비견	정관	편재	식신
戊	癸	壬	己	辛	庚	戊	丁	丙
丙	辛		甲	丁		壬	乙	
甲	己	癸	壬	戊	辛	庚	己	丁

4. 남자. 양력. 1985.11.7. 저녁 8시.
양력 1985년은 을축년이다. 따라서 년주는 을축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어난 날짜가 11월 7일인데 그날이 입동일이다.
그리고 입동의 절입시각은 20시 29분이다.(오후 8시 29분)
만약 절입시각이 지나서 태어났으면 정해월이 되고, 절입시각 전에 태어났으면 병술월이 된다.
이 사람의 태어난 시각은 저녁 8시니 입동전에 태어났다. 따라서 월주는 정해가 된다.
11월 7일은 경술일이다. 따라서 일주는 경술이 된다. (월지는 절입시각의 문제로 바뀌었지만 일주는 상관없다)
태어난 시각이 8시니 술시인데 경날의 술시이니 조견표에서 찾으면 병술시가 된다. 따라서 시주는 병술이 된다.

사주원국을 뽑았으니 이제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다.
월지 술의 지장간은 신,정,무다
일지, 시지도 모두 술이니 지장간이 월지와 같은 신,정,무다.

이제 대운을 뽑아보자.

만세력에서 위 생년월일의 남자 대운을 찾아보면 대운수는 10이다.
또한 남자이고 음년에 태어났으므로 대운은 역행이다. 따라서 월주 병술로부터 을유(10), 갑신(20), 계미(30), 임오(40).. 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운의 지장간도 뽑는다.

마지막으로 육친을 뽑는다.

년간 을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금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가 된다.
년지 축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금을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 된다.
월간 병은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금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월지 술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금을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 된다.
일지 술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금을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 된다.
시간 병은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금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시지 술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금을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 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과, 대운의 지장간도 육친을 쓸 수 있으나 생략한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편관	我	편관	정재
丙	庚	丙	乙
戌	戌	戌	丑
편인	편인	편인	정인
辛	辛	辛	癸
丁	丁	丁	辛
戊	戊	戊	己

<대운>

80	70	60	50	40	30	20	10	0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寅	卯	辰	巳	午	未	辛	酉	戌
편재	정재	편인	편관	정관	정인	비견	겁재	편인
戊	甲	乙	己	丙	丁	戊	庚	辛
丙		癸	庚		乙	壬		丁
甲	乙	戊	丙	丁	己	庚	辛	戊

5. 여자. 양력. 1988.8.18. 새벽 4시 13분.
양력 1988년은 무진년이다. 따라서 년주는 무진이 된다.

8월은 경신월이다. 따라서 월주는 경신이 된다.
18일은 을사일이다. 따라서 일주는 을사가 된다.
태어난 시간은 새벽 4시 13분 이므로 인시다. 따라서 을날의 인시는 무인시다. 따라서 시주는 무인이 된다.

그런데.. 1988년은 썸머타임이 있었던 해다.

썸머타임이 적용될 때 태어났다면 태어난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뤄야 한다.
따라서 실제의 태어난 시간은 새벽 3시 13분이 된다.
그러면 인시가 아니다. 축시다.
태어난 시간이 축시라면 하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 일주도 전날의 일주가 된다.
따라서 일주가 을사일이 아니라 갑진일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주도 달라진다. 을날의 축시가 아니라 갑날의 축시가 되니 시주도 정축시가 된다.
썸머타임 때문에 사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러한 경우들이 사주를 못 맞추게 하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주를 뽑아보면
년주는 무진, 월주는 경신, 일주는 갑진, 시주는 정축이 된다.

사주원국을 뽑았으니 이제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진의 지장간은 을,계,무다.
월지 신의 지장간은 무,임,경이다.
일지 진의 지장간은 을,계,무다.
시지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다.

이제 대운을 뽑아보자.

만세력에서 위 생년월일의 여자 대운을 찾아보면 대운수는 4이다.
그런데 사주상으로는 8월 17일에 태어난 것이므로 8월 17일의 대운수는 3이다.
또한 여자이고 양년에 태어났으므로 대운은 역행이다. 따라서 월주 경신으로부터 기미(3), 무오(13), 정사(23), 병진(33).. 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운의 지장간도 뽑는다.

마지막으로 육친을 뽑는다.

년간 무는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년지 진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월간 경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목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월지 신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목을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일지 진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가 된다.

시간 정은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목으로부터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시지 축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목에게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가 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과, 대운의 지장간도 육친을 쓸 수 있으나 생략한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상관	我	편관	편재
丁	甲	庚	戊
丑	辰	申	辰
정재	편재	편관	편재
癸	乙	戊	乙
辛	癸	壬	癸
己	戊	庚	戊

<대운>

73	63	53	43	33	23	13	3	-7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비견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정인	정재	비견	겁재	편재	식신	상관	정재	편관
壬	癸	戊	甲	乙	己	丙	丁	戊
	辛	丙		癸	庚		乙	壬
癸	己	甲	乙	戊	丙	丁	己	庚

6. 남자. 음력. 1982.1.11. 오전 6시 30분.
1982년은 임술년이다. 따라서 년간은 임술이 된다.
그런데 음력 1월은 11일은 입춘일이다.
생일이 절입일이면 절입시각을 찾아봐서 절입시각 이전에 태어났나, 아니면 이후에 태어났나를 따져야 한다.
1982년의 입춘은 양력 2월 4일(음력 1월 11일) 12시 45분이다.
위 사람은 오전 6시 30분에 태어났으므로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아 임술생이 아니라 신유생이다.
따라서 년주는 신유가 된다.
그리고 입춘이 시작되면 인월이 되는데 입춘절입시각 이전에 태어났으므로 아직 인월이 아니므로 축월생이다. 따라서 신축월에 태어난 것이니 월주는 신축이 된다.

음력 1.11일은 무오일이니 일주는 무오가 된다.
오전 6시 30분에 태어난 것은 묘시이니 무날에 묘시에 태어난 것이다. 이것을 시지조견표에서 찾으면 을묘시가 된다. 따라서 시주는 을묘가 된다.

사주원국을 뽑았으니 이제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유의 지장간은 경,신이다.

월지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다.
일지 오의 지장간은 병,정이다.
시지 묘의 지장간은 갑,을이다.

이제 대운을 뽑아보자.

만세력에서 위 생년월일의 남자 대운을 찾아보면 대운수는 10이다.
또한 남자이고 음년에 태어났으므로 대운은 역행이다. 따라서 월주 신축으로부터 경자(10), 기해(20), 무술(30), 정유(40).. 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운의 지장간도 뽑는다.

마지막으로 육친을 뽑는다.

년간 신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토로부터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년지 유는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토로부터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월간 신은 오행으로 금이고 일간 토로부터 생하니 식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 된다.
월지 축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토와 오행이 같으니 비겁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겁재가 된다.
일지 오는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토를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 된다.
시간 을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토를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시지 묘는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토를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 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과, 대운의 지장간도 육친을 쓸 수 있으나 생략한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정관	我	상관	상관
乙	戊	辛	辛
卯	午	丑	酉
정관	정인	겁재	상관
甲	丙	癸	庚
		辛	
乙	丁	己	辛

<대운>

80	70	60	50	40	30	20	10	0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편인	정인	겁재	식신	상관	비견	편재	정재	겁재
己	丙	丁	戊	庚	辛	己	壬	癸
庚		乙	壬		丁	甲		辛
丙	丁	己	庚	辛	戊	壬	癸	己

7. 여자. 양력. 1984.2.5. 오전 1시 28분.
양력 1984년은 갑자년이다. 따라서 년주는 갑자가 된다.
그런데 2월 5일은 입춘일이다.
절입일은 항상 절입시각을 따져서 절입시각 이전에 태어났나, 아니면 절입시각 이후에 태어났나를 살펴야 한다.
1984년 2월 5일 입춘일의 절입시각은 0시 19분이다. 따라서 위 사람은 절입시각 이후에 태어났으므로 갑자생이 맞다.
그리고 입춘일에 태어났으므로 병인월생이다. 따라서 월지는 병인이 된다.
2월 5일은 기사일이다. 그러나 오전 1시 28분은 자시다. 따라서 아직 2월 5일이 안되었으니 2월 4일의 일주를 써야하니 일주는 무진이 된다.
태어난 시간은 자시인데 무날의 자시가 된다. 시주조견표에서 찾아보면 갑자시가 된다. 따라서 시주는 갑자가 된다.

사주원국을 뽑았으니 이제 지장간을 뽑는다.
년지 자의 지장간은 임,계다.
월지 인의 지장간은 무,병,갑이다.
일지 진의 지장간은 을,계,무다.
시지 자의 지장간은 임,계다.

이제 대운을 뽑아보자.

만세력에서 위 생년월일의 여자 대운을 찾아보면 대운수는 10이다.
또한 여자이고 양년에 태어났으므로 대운은 역행이다. 따라서 월주 병인으로부터 을축(10), 갑자(20), 계해(30), 임술(40).. 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운의 지장간도 뽑는다.

마지막으로 육친을 뽑는다.

년간 갑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토를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년지 자는 오행으로 수이고 일간 토로부터 극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가 된다.
월간 병은 오행으로 화이고 일간 토를 생하니 인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 된다.
월지 인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토를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일지 진은 오행으로 토이고 일간 토와 오행이 같으니 비겁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비견이 된다.
시간 갑은 오행으로 목이고 일간 토를 극하니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 된다.
시지 자는 오행으로 수이고 일간 토로부터 긍을 당하니 재성인데, 음양이 같으므로 정재가 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과, 대운의 지장간도 육친을 쓸 수 있으나 생략한다.

<사주원국>

시주	일주	월주	년주
편관	我	편인	편관
甲	戊	丙	甲
子	辰	寅	子
정재	비견	편관	정재
壬	乙	戊	壬
	癸	丙	
癸	戊	甲	癸

<대운>

80	70	60	50	40	30	20	10	0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정인	겁재	식신	상관	비견	편재	정재	겁재	편관
丙	丁	戊	庚	辛	己	壬	癸	戊
	乙	壬		丁	甲		辛	丙
丁	己	庚	辛	戊	壬	癸	己	甲

16.간지론(干支論)

간지론은 간지학(干支學)이라고도 한다.
간지는 천간과 간지를 일컫는 말인데, 이것은 사주학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지금도 음력 달력은 간지로서 날짜를 표기한다.

간지는 간과 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그리고 간은 천간이라고 부르고 지는 지지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하늘에는 간이 있고 땅에는 지가 있다는 뜻이다.
즉, 간은 하늘의 뜻을 말하며, 지는 땅의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다.

간지론은 천간과 지지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간지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은 지장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支藏干은 지지속에 천간이 숨었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다.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地藏干	壬	癸	戊	甲	乙	己	丙	丁	戊	庚	辛	己
		辛	丙		癸	庚		乙	壬		丁	甲
	癸	己	甲	乙	戊	丙	丁	己	庚	辛	戊	壬

예를 들어 子밑에는 壬,癸가 있는데 子라는 지지는 壬,癸라는 천간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왜 子는 壬과 癸를 숨기고 있을까? 甲이나 乙을 숨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장간이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방위표에 있다. 방위표에 의해 지장간의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지지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처음에 자로부터 시작해서 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로 끝나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가 시작이라면 해는 끝을 의미한다. 시작이 있는 것은 끝도 있지 않겠는가.

왜 시간은 자부터 시작하는가?
이것은 음양학으로부터 알 수 있다.

계절을 음양으로 나누면 여름은 해가 길고 겨울은 해가 짧다.
따라서 여름은 양이 되고 겨울은 음이 된다.
여름중에서 해가 가장 긴 하지가 양의 절정이 될 것이다. 이것을 極陽(또는 純陽)이라고 한다.
겨울중에는 해가 가장 짧은 동지가 음의 절정이 될 것이다. 이것을 極陰(또는 純陰)이라고 한다.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한 상태이고 하지가 지나면 양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한다.

양이 약해진다는 것은 음이 시작되어 서서히 강해진다는 뜻이다.
즉, 양의 절정에서 음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지는 음의 절정이고 동지가 지나면 음이 서서히 약해지고 양이 강해지기 시작한다.
결국 음도 절정이 되면 양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연의 존재들 특히 생명체는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면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언젠가 끝날 것 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작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
눈에 보여 지고 만져지는 개체는 양(陽)이다.
그럼 양은 언제 시작되는가? 바로 음의 절정에서 시작된다.

방위표에서 음의 정절에 해당하는 지지가 바로 子다.
그래서 지지는 자(子)로부터 시작하고 해(亥)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는 과정이고 지지는 생명체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고 또한 사물이 변해가는 과정이다.

지지	子
지장간	壬
	癸

자는 계절로는 한겨울이다. 양력으로 치면 12월이다.
지장간은 임,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는 음의 절정에 위치해 있고 음의 절정은 양의 시작이니, 자는 곧 양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양의 시작이지만 양이 곧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 시작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기 전에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자동차라는 물건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기 위해서는 자동차라는 물건을 구상하고 설계를 해야 하며 조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준비기간에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완성되어야 보이는 것이다.

'창조(創造)'라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짠~' 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창조를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자에는 임과 계라는 지장간이 있다.
자의 지장간이 임과 계라는 것은 자 속에 임과 계가 있다는 것이고, 자는 임과 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면 시작은 임과 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드시 생명의 시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물과 무생물은 그저 자연의 일부분이고 생물과 무생물은 여러 가지 작용이나 모습에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는 생명체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
무엇으로서 생명체와 무생물체를 구분하는 것인가?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생물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다.
생물학과에서 금기시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었다고 한다.
이 말은 생명은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영역(신의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감히 생명에 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생명의 작용이 오묘하기는 하지만 답을 내릴 수 있다.

생명체는 반드시 물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물을 품고 있지 않은 생명체를 본적이 있는가?
이것은 모든 생물학자가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심지어 지구 밖의 외계에서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의 존재여부를 먼저 확인 한다.
만약 어떤 별에 물이 있다면 그 별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물의 작용은 무엇인가?

물이 있으면 물질의 이동이 가능하다. 물질은 물을 타고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물은 물질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생명체의 영양분은 모두 물을 타고서 흘러 다니며 요소요소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물은 생명체를 이루는 근본요소이고 생명활동을 가능케 하는 근본이라는 것이다.

만약 생명체에 물이 없어진다면?
물질을 이동할 수 없는 것이고, 양분공급도 중단될 것이다. 그것은 생명체에게는 죽음을 말한다.

이제 생명체의 정의를 내려 볼 수 있다.
생명체란 물을 이용해 개체 내부에서 물질을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다.
그리고 생명활동이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생명이란 그러한 작용을 말한다.

짚신벌레는 생명체다.
내부에 물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양분 등 내부의 물질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박테리아는 생명체가 아니다.
박테리아는 내부에 물을 가지고 않으며 따라서 스스로 내부의 물질을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구는 생명체일까?
그렇다. 지구내부에는 바다와 강이라는 물이 있으며 빙산도 떠다니고, 바다나 강을 통해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생명체에서 의식은 별개의 문제다.
생명을 논함에 있어 의식이 없어도 생명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의식은 자신을 깨달으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시 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에는 임과 계가 있는데, 임과 계는 오행으로서 水에 해당한다.
즉, 수는 생명을 이루는 근원이며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렇다고 수는 반드시 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의 성질은 흐르는 것인데, 물만이 흐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흐름'의 개념이 水인 것이다.
공기도 흐르면 수가 될 수 있고, 기름도 흐르면 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癸水는 陰이고, 壬水는 양이다.
음의 성질은 수동적이고 정적이며, 양의 성질은 능동적이고 동적이다.

癸水는 陰水이므로 정적인 물이므로 고인 물이다. 산속의 샘물이나, 우물물이 계수인 것이다.
壬水는 陽水이므로 동적인 물이므로 흐르는 물이다. 냇물, 강물 등이 흐르는 물이니 임수인 것이다.
냇물이나, 강물은 산속의 샘물로부터 시작하니 계수가 물의 근원이고 물은 계수로부터 시작해서 임수가 되는 것이다.

통상의 역학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溪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차가운 공기가 癸水다.
그 차가운 공기가 땅의 열기를 만나 액(液)으로 변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빗물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만나면 빗물을 계수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의 기운(精氣)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빗물 자체는 흐르는 물이므로 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늘의 빗물이 땅의 작물을 키우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한다면 그 경우에는 빗물을 계수라고 할 수 있다.

농사에 물은 필수다.
물이 있어야만 작물이 자라고, 동물들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비가 몇 달 동안 오지 않아 가뭄이 지속되면 냇물도 줄어 들도 강물도 줄어든다.
그러면 우물을 판다. 우물물로 밭에 물을 줘서 작물을 기르고 사람도 마셔야 한다.
가뭄이 들면 시골에서 지하수를 퍼 올리는 작업은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가뭄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우물도 마른다.
그러면 결국 대지는 황폐화되고 그러한 땅이 사막인 것이다.
사막에서는 작물도 자랄 수 없고 생물도 살아갈 수 없다. (물론 실제로는 사막생물도 존재하지만 그들도 물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가뭄으로 물 부족을 해소하는 길은 비가 오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몸이 허약해져서 몸보신을 한다고 아무리 보약을 먹고 건강하게 유지하려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잘 먹는 길이다.
그래서 위장이 튼튼한 자가 장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장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비가 내려 대지를 기름지게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비는 만물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기르게 하는 근본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바로 癸水인 것이다.
생명에너지를 다른 말로 정(精)이라고도 한다.

사람에게는 정(精),기(氣),신(神)이 있는데 정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천간으로는 계(癸)며, 따라서 계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정(精)은 생명의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여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남자와 달리 여자는 임신이라는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자궁(子宮)이다.
따라서 자궁이라는 기관은 여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에게 있어서 생명작용은 생명의 씨앗을 만드는 역할이다.
남자는 정액을 만들고 그것을 여자에게 줌으로서 여자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남자에게는 그것과 관련한 기관이 신장이다.
직접적으로는 정액을 만드는 기관은 음낭이지만 그것을 관장하고 조절하는 역할은 신장이 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은 부신이라는 기관으로서 부신의 피질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다.

임(壬)은 흐르는 물이고 인체의 장기로는 오줌을 저장하는 방광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임수는 흐르는 물을 뜻하므로 인체에서 흐름에 관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이유로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중에 방광경은 인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흐르고 있다.
뭔가 막히는 질병이 있다면 방광경을 통한 치료를 한다.

자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한 원리와 같은 이야기이지만, 탄생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탄생이라는 말은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예를 들면 아기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옴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한 수태가 이루어지고 태아로서 열 달을 성장한 연후에 아기로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태아로서 있는 시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도 자동차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의 구상이 필요하고 설계를 하고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子의 시기가 바로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단계다.
이시기는 아직 실체화 되지 않은 단계를 의미한다.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강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뉴스에 보도되는 시점이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강도범은 강도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고 죄를 저지른다.
자는 그러한 사건에서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를 뜻한다.
또 다른 예로, 이를 테면 연예인 탈세사건이 뉴스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예인에게 탈세했음을 고지할까? 그렇지 않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뒷조사가 이루어지고 탈세혐의가 충분하면 해당 연예인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해당 연예인도 자신이 탈세로 뒷조사를 받고 있음은 모른다.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사건도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이고 충분히 숙성하면 밖으로 드러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오랫동안 싸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사(內査)를 경찰의 영역인지, 아니면 검찰의 영역인지를 두고 다투는 문제다.

그것을 왜 다투는가하면 내사가 경찰의 영역이면 감찰에 보고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면 된다.
그러나 내사가 검찰의 영역이면 내사도 검찰에 보고를 하고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의 독립을 주장하는데 있어 내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내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직 겉으로 들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사건으로서 의심스럽기 때문에 뒷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뒷조사 결과 그것이 범죄의 사실로 판명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비로소 사건이 되는 것이다.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 그것이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
그러면 검찰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기소를 한다.
그런 통상적인 경우에는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혐의자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때로는 경찰이 어떤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경찰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

고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피의자는 자신이 조사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뒷조사를 당하는 것이다. 내사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내사는 경찰의 영역일까? 아니면 검찰의 영역일까?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내사가 경찰의 영역인지, 검찰의 영역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쪽 말을 들어보면 경찰쪽 말이 맞는 것 같고, 검찰쪽 말을 들어보면 검찰쪽 말이 맞는 것 같다.
심지어 판검사는 물론이고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도 어느 쪽이 맞다 고 결론을 내리기 힘든 문제다.

그러나 역학을 공부하면 아주 쉽게 정답을 알 수 있다.

사건이란 겉으로 드러난 일이다.
물론 음모만으로도 죄가 되는 범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뒷조사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사건인지, 사건이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이 되면 공식적으로 사건번호가 매겨지고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알리고 소환을 하게 된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1.내사는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2.검찰은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므로 겉으로 드러난 사건을 다룬다.

내사가 경찰의 영역인지 아니면 검찰의 영역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건화 되어 겉으로 드러나 피의자가 아는지, 아니면 아직 사건화 되지 않아 피의자가 모르는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피의자가 모르면 그것은 경찰의 영역이고, 피의자가 안다면 그것은 검찰의 영역이다.
따라서 내사는 경찰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내사는 지지에서 자(子) 또는 축(丑)의 단계에 머문 것이고, 그것이 사건화 되어 겉으로 드러났으면 인(寅) 이후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다.
가끔 TV에 연예인이 탈세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든지, 세금을 추징당했다든지 하는 뉴스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해당 연예인에게 “탈세했으니 고발한다.” 거나 “탈세했으니 벌금 내라.”고 통보하지 않는다. 적어도 세무서에서 몇 달 전에 혐의를 잡고 비밀리에 세무조사를 한다.
그동안 해당 연예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활동을 하다가 사건을 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비밀리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지지에서 자(子) 또는 축(丑)의 단계에 머문 것이고, 그것이 사건이 되어 만천하에 드러났으면 인(寅) 이후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지	丑
지장간	癸
	辛
	己

축은 계절로는 늦겨울이다. 양력으로 치면 1월이다.
지장간은 계,신,기로 이루어져 있다.

자는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축은 시작되어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의 준비과정을 말한다.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없다.
(그것은 심지어 귀신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귀신이 되어 사람 눈에 띄기 위해서는 나름의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에서 생명이 부여되었으면 이제 생명체로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축은 생명체로서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임신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생명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어떤 차를 만들까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단계가 자에 해당하고, 설계가 끝나면 작종 부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명체를 키워가는 과정이 축인 것이다.

생명체는 그러한 과정이 모체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을 임신이라고 한다.
즉, 임신은 어떤 생명체를 엄마뱃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면 조립하는 과정과 같다는 것이다.

축의 지장간은 계,신,기다.
자의 의미가 시작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계와 임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같이, 축은 조립 또는 생성과정이며 이것은 계와 신과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계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생명의 씨앗을 의미한다.
즉, 임신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자라서 생명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계는 정(精)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엄마가 태아에게 자신의 정을 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태아는 엄마의 정을 받아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태아가 엄마에게 받는 정을 원정(元精)이라고 한다.

엄마는 태아에게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정을 주게 되므로 본인의 정이 부족해지고, 이것은 정이 손상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낳으면 정이 부족해서 정을 보충해야만 한다.
이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질병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의 근원이다.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정신과 신체에 어느 정도 손상이 오게 되게 마련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다.

계가 생명의 씨앗이라고 했을 때, 이세상의 모든 씨앗은 껍질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껍질 없는 씨앗을 본적 있는가?
신은 바로 씨앗의 껍질이고 껍질은 씨앗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씨앗은 정(精)이고 정은 수기운 이므로 흐르기 때문에 만약 껍질이 깨진다면 정은 밖으로 흘러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완성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유산이 된다.

껍질은 보호막의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생명체는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신(辛)의 작용이다.

껍질은 생물체의 표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피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피부의 문제는 신(辛)의 문제로 나타나고 인체의 장기로는 폐(肺)에 해당한다.
피부는 공기와 바람이 닿게 되고 폐는 숨을 쉬게 해서 공기를 드나들게 하기 때문이다.

기는 토인데 토는 몸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의 지장간 계,신,기는 여자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는 임산부의 모습이다.
또한 사물로 치자면 제품의 조립과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으로 제품이라는 것은 완성되어야 세상에 내놓으니 축은 미완성의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기는 음토이니 대지를 의미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땅위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땅은 모든 생명체의 살아가는 기반이기도 하다.
하늘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는 없다.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땅에 내려와서 잠을 자고 새끼를 까는 일도 땅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새도 여전히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인 것이다.

그렇다면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강이나 바다가 그들에게는 토인 것이다.
강이나 바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기반이고 삶의 기반은 토이기 때문이다.
토라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오행은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 형체를 가진 구체화된 물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마시는 물도 반드시 水인 것만은 아니다.
물이 뜨겁다면 뜨거운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행은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 형태나 특정 물체 또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토는 삶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모든 생물이 땅에서 자라니 기른다(養育)는 성질을 가진다.
사람에게 그러한 작용을 하는 장기는 비장(脾臟)이다.

비장은 사람이 음식물을 먹으면 먹은 음식물로부터 양분을 뽑아 사람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이유로 비장이 고장 나면 영양실조에 걸려 마르거나 그것과 관련한 병이 걸린다.

현대의학에서는 비장뿐만이 아니라 위장, 췌장, 간, 쓸개, 소장 등 많은 기관으로부터 소화액이 분비되고 그것으로 인해 음식을 소화해서 양분을 섭취한다고 하는데 역학에서 말하는 것과 현대의학에 말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
역학의 관점에서는 단지 소화와 관련한 장애나 병이 생겼다면 비장만 다스리면 된다.
생리학적인 구체적인 작용에 관해서는 몰라도 좋다.
어차피 현대의학도 발전할수록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수정이 되니, 고정된 지식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학적 관점에서 역학의 원리에 따라 병을 해석하면 결국 맞게 된다.
역학은 과학과 다르게 이미 이론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단지 과학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해석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리이다.

지지	寅
지장간	戊
	丙
	甲

인은 계절로는 초봄이다. 양력으로 치면 2월이다.
지장간은 무,병,갑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에 의해 생명이 만들어지고, 축에 의해 형체가 이루어지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탄생이다.

인은 그러한 탄생을 의미하며,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어 실질적인 존재(存在)로서 인정받게 된다.

자 와 축의 기간은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에 자 와 축에 해당하는 것은 태아(胎兒)다.
태아는 장래에 인간이 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만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어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서 태아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태아가 부동산을 가진다든지, 주식을 소유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름도 없는 태아가 등기부나 권리증서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단 한 가지 상속권은 인정받는다.
그래서 왕조시대에는 왕의 씨를 가진 여인은 특별하게 보호를 하며, 복중의 아기는 상속권자로서 그 권리

를 인정한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부잣집에서 상속문제가 일어날 때는 태아는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상속은 자연의 법칙은 아니다.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다.

인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간난 아기다.
이제 인간으로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의 모습이다. 인은 시작한다는 것이다.
자와 축이 생명체로서 만들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면 인에 이르러서 그 모습을 드러내니 진정한 시작은 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인은 양목으로서 방위로서는 동쪽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봄을 의미한다.
우리가 계절을 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농사를 시작하는 계절이 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년의 시작도 봄부터 하는 것이다.

목의 방위가 동쪽인 이유는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이다.
하루는 해가 뜨면 시작한다.
해가 뜨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가.
따라서 인이 목이고 그래서 시작점이 된다.

子가 시작이라고 했는데 寅도 시작이라고 하니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지지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해로 끝난다.
이것은 생명체에게는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자와 축은 생명의 맺어짐과 탄생의 준비과정이고 인에서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다.
자는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 생명체로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체로서 시작하는 것은 생명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인(寅)부터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역학에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역학에서 일년의 시작은 寅月에서 시작하고, 하루는 子時에서 시작하는 문제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일년의 시작은 인월이고 하루의 시작도 인시여야 한다.
시간의 기준은 해이고 인시가 해가 뜨는 시작이니 인시가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자시와 축시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으므로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인시가 되어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일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자시와 축시는 전날 일간을 써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 문제는 시계 때문이다.
시계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들은 밤 12시가 되면 날짜를 다음날로 바꾼다.
그런데 밤 12시는 동양의 시간으로는 자시가 된다.

해가 가장 밑에 있고 음이 가장 강한 시간이 자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양인들이 하루를 아침 6시에 시작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던 국가도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정하면 되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이 아침 6시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고 날짜를 바꾸면, 전 세계는 거기에 맞춰 날짜의 시작시간을 변경할 것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할 것 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꾸지는 않겠지만 아침 6시는 잠을 깨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니 더 합리적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사주를 풀 때 그렇게 풀면 정확하다. 이것 또한 사주가 맞지 않아서 수많은 역술인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다.

寅은 사람으로 치면 갓난아이다.
갓난아이는 작물로 치면 새싹이다. 농사를 지음에 있어 봄이 되면 새싹이 땅을 뚫고 밖으로 머리를 내민 것과 같은 형상이다. 그것이 甲이다.
갑은 목기운으로서 일년의 시작으로서 봄을 의미하고 봄에 싹을 띄운 씨앗인 것이다.

간난아이는 세상이 두렵다. 엄마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라고 있다가 낯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물론 엄마가 간난아이를 보살피고 기르지만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과 다르다.
세상에는 수많은 병균도 있어 병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춥고 더운 날씨가 아기에게 환경의 변화로 다가와 스스로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한마디로 갓 태어난 아기에겐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인 것이다.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이 없다면 아기는 살아남기 힘든 것이 세상인 것이다.

작물도 마찬가지다.
봄에 새싹이 돋았는데 이때 꽃샘추위가 닥쳐 눈이라도 오면 새싹은 추위에 얼어 죽게 될 것이고, 또 꽃이 피어 가을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면 갑자기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꽃이 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새싹에게 봄의 추위와 비바람은 시련인 것이다.

그러한 시련이 戊다.
새싹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짓밟는 것이다. '싹을 밟아버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실제로 새싹은 밟으면 죽는다. 새싹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다.
무는 갑에게는 시련이고 갑을 위협하는 존재다.

무는 짓밟고 부수는 작용을 하는데, 인체에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는 위장(胃腸)이다.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는 위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으깨지 않던가.
그것이 위장의 기능이고 위장은 소화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소화기능을 하는 것은 비장(脾臟)이고 그것은 기(己)의 작용이다.

그런데 보통 역술인은 목극토(木剋土) 하니 목이 토를 이긴다고 생각하여 戊가 甲을 위협하는 존재임을 알기 어렵다.
오행의 생극은 자연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두 가지 기운의 역학관계만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의 현상은 오생의 생극과는 다르다.

무토는 갑목의 시련이다.
새싹은 연약하다. 그러한 새싹을 돌보는 것이 바로 병화(丙火)다.
갑목은 병화의 도움으로 무토를 극복하는 것이다.

병화는 양화로써 강한 햇빛이다.
이불이나 옷을 빨고 햇볕에 말리는 이유는 햇볕에 의해 빨래가 마를 뿐 아니라 강한 자외선으로 소독까지 된다. 병균들이 죽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한때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빨래를 마당에 내다 거는 행위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했는데, 햇볕의 살균작용을 이용해 마당에 빨래를 거는 집이 많아졌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다.
그렇게 병화는 병균을 죽이고 치료를 하는 약이 되는 것이다.

갑목인 어린 아기는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 질병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건소, 소아과 등에서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도 바로 병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병화로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도 빛에 의한 치료이고, 모기나 벌에 물렸을 때, 물린 자리에 담뱃불을 가까이 대고 뜨겁게 지지는 경우도 그러한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를 약(藥)이라고 한다.
그런데 약도 잘못 쓰면 독(毒)이 되고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병화는 약이기도 하지만 독이기도 한 것이다.
실지로 약을 남용하면 병을 더 위중하게 만드는 독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병화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쓰는 사람의 지혜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독(毒)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보통 화공약품 또는 화공제품이다.
그것은 인체에 대단히 해로워서 약간의 섭취만으로 치명적인 독이 된다.
그래서 사주에 병화(丙火)가 많으면 의료분야에 종사하거나 약품 또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약과 독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사람이 세균으로 인한 병이 들었을 때 그 세균을 죽이는 것은 독이다.
즉, 세균에게 독을 투입해서 죽인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병이 나았다면 세균에게 투입했던 독은 그것은 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물 중에 말(馬)은 질병에 강하다고 한다.
웬만해서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과학자들이 말의 체온이 사람보다 높다는데서 원인을 찾았다.
온도가 높으면 세균을 죽일 수 있고 질병에 강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암도 높은 온도에 약하다고 한다.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암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병은 인체의 장기로 치면 소장(小腸)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분쇄하고, 비장에서 양분을 빨아들인 후 소장으로 내려 보낸다.
소장은 병화이므로 열을 낸다.
위장으로부터 내려온 음식물로서 열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은 사람의 체온을 유지시킨다.
밤에 잠잘 적에 배는 꼭 이불로 덮어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가 차가워지고 탈이 나기 때문이다. 소장은 인체의 열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니 그곳이 차가워지면 탈이 나는 것이다.
병(病)을 치료하는 것은 丙인데 병은 열(熱)을 의미하니 몸이 차가워지면 병도 드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몸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병에 걸리지 않는다.

지지	卯
지장간	甲
	乙

묘은 계절로는 봄의 한가운데다. 양력으로 치면 3월이다.
지장간은 갑,을로 이루어져 있다.

계절로 치면 인이 초봄이라고 한다면 묘는 봄의 중심에 있다.
묘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나무와 같다.
한창 성장하는 나무(甲木)는 하늘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고 있으며, 그러한 나무는 대지에 우뚝 서 있다.
그러한 나무는 멀리서도 보인다.
그것이 곧 자존심이다.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닿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늘은 땅에 사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고, 신비롭고, 신성한 곳이다.

그곳이 바로 도(道)의 세계다.
갑목이 향하는 곳은 바로 도의 세계다.
그래서 갑목은 하늘의 이치를 알고자 하고, 그곳을 향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람으로 치자면 묘는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질병의 위협으로 벗어나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 가지와 뿌리가 뻗어나간다.
그것이 을(乙)이다.
을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뻗는 가지와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

가지와 뿌리는 나무줄기와 다르게 구부러져 있다.
가지는 다른 가지에 부딪치기도 하고 바람에 꺾이기도 하고, 뿌리는 땅속의 돌멩이 때문에 곧게 자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가지는 나무를 풍성하게 만들고, 뿌리는 흙을 움켜잡아 바람에 나무를 지탱한다.
을(乙)은 그러한 나무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비바람이 강해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내는 인내는 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인함이 아닌가.

지지	辰
지장간	乙
	癸
	戊

진은 계절로는 늦봄이다. 양력으로 치면 4월이다.
지장간은 을,계,무로 이루어져 있다.

을은 나무의 뿌리다. 그런데 을 밑에 계가 있다.
계는 생명을 만드는 정(精)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시 계가 나타났다.

계절로 치면 여름은 나무로 치면 가장 크고 무성함을 뽐내는 시기이다.
그러한 여름을 앞두고 있는 시기가 늦봄인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여름은 체격 적으로도 가장 크고 혈기왕성한 시기다. 보통 그러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고, 청년이 되기 전을 청소년 시기라고 한다.
진이 나타내는 늦봄이 사람으로 치면 청소년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청소년기에 癸가 나타난 것이다.

계는 정이고 정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을 만드는 힘이다.
생명은 계로 인해 태어났으며, 그 생명은 자라서 다시 생명을 만들어 종족을 보전해야 한다.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람에게서 자신이 생명을 만드는 힘을 가지는 시기가 바로 진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바로 청소년기이며 그때 나타난 계가 바로 남자에게는 정액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자에게는 생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생물에게 있어 번식능력은 성체가 되기 전에 먼저 완성된다는 것이다.)

진은 계절로는 늦봄인데, 이제 머지않아 여름이 시작될 것이다.
여름은 햇볕이 강하고 열기도 강해져 더워지는 시기이다.

열기는 수분을 증발시킨다.
따라서 여름이 되기 전에 나무는 충분한 양의 물기를 머금어야만 한다.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을(乙)이다.

을은 나무의 뿌리다.
뿌리가 하는 일은 나무를 지탱하는 일도 하지만 나무가 필요한 물을 빨아들이는 역할도 한다.
을은 또한 나무의 가지를 말하는데 나무의 가지는 잎을 달고 있다.
나무는 잎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 낸다.
을 밑의 계는 나무의 뿌리와 잎사귀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을은 인체의 장기(臟器)로는 간을 의미한다.
간은 장기로서 크기가 매우 크다. 사람의 손바닥만 하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이유가 뭘까?
현대의학에서는 간은 인체의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위장은 음식물을 담아두고 분쇄하는 역할을 하고, 소장은 소화를 시키고, 심장은 혈액을 돌게 하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고 등등 인체의 장기는 저마다 뚜렷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간은 '해독작용을 한다'라고 한다. 뭔가 어색하지 않은가?
해독작용이라는 것은 눈에 띄는 명백한 기능도 아니다. 다른 장기가 타 장기와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명백한 역할을 하는데 비해 간은 그런 명확한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해독작용만을 하기에는 너무 커 보이기도 하다.

을이라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물과 양분을 흡수한다는 것은, 인체로 치면 간(肝)이 정(精)을 흡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간의 역할이다.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아니다. (해독이라고 한다면 병(丙)의 역할이지 간은 乙이므로 해독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간이 손상되면 인체에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사람이 마른다.
또한 정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생명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정은 생명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지므로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워지며 성욕도 감퇴된다.

지지	巳
지장간	己
	庚
	丙

사는 계절로는 초여름이다. 양력으로 치면 5월이다.
지장간은 기,경,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화는 계절로는 초여름이다.
여름이 되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성장도 최고조에 이른 시기라 크기도 가장 크다.

초여름의 햇볕은 강하고 뜨겁다.
그래야만 나무도 더 크고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햇살이 강해도 하늘에 구름이 끼면 땅에 내려오는 햇볕은 약해진다.
구름은 강한 햇볕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인 것이다.

필자가 학교에 다닐 적에 교실에서 슬라이드 영사기로 학습을 하던 때가 생각난다.
교실에서 슬라이드 영사기를 키려면 먼저 교실내부를 어둡게 해야만 해서 반드시 커튼을 쳤다.
그래야만 스크린에 화면이 잘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척 당연한 일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교실을 어둡게 하려면 커튼을 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한 햇볕이라도 커튼을 치면 햇볕은 가려지고 말기 때문이다. 즉, 빛은 커튼 앞에서는 꼼작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은 그와 같이 햇볕을 막아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기(己)는 빛(丙)을 막는 구름과 같다.
기는 음토(陰土)로써 만물을 기르는 엄마와 같지만, 한편으로는 덮개, 장막의 역할도 한다.
이것은 신금과는 다른 것이다. 신금은 내부를 둘러싼 껍질을 말하지만 기토는 내부를 둘러싸는 의미는 없고 단지 이불처럼 덮거나, 가리는 장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화전농법이라는 것이 있다.
잡초가 우거진 들에 불을 질러 잡초를 제거하고 그곳에 작물을 기르는 농법이다.
그렇게 하면 밭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잡초가 탄 재가 거름이 되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작물이 잘 자라기 때문이다. 이때 잡초가 타고난 재는 불이 꺼지면 땅에 덮이게 된다.
재는 땅과 다르지 않다. 땅위에 덮이기는 하나 그것을 따로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농사를 짓는 땅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재가 바로 기토이다.

기와 병과의 관계는 빛은 커튼으로 가리면 꼼짝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빛이 강해도 장막으로 가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창에는 커튼이 달려있지 아니한가.
이때 병화는 경금으로서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금은 무엇으로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가.
어떻게 병화를 도움으로써 빛이 장막을 뚫고 나가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폭발이다.
불은 폭발을 함으로써 자신을 가려 막는 장막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핵폭발 같은 폭발은 강력한 방사선을 일으켜 시멘트벽도 뚫고 들어가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연료와는 다른 것이다.
불은 연료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연료가 소모되어 없어지면 불은 꺼지고 마는데, 경금은 연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이 더 강하게 훨훨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기폭제를 말하는 것이다.

불은 연료만 주입되면 타오를 수 있다.
그런데 기폭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강하게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대장간에서 불을 사용해 쇠를 담금질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풀무질이다.
풀무질을 해야 더 강한 불을 얻을 수 있고 그 강한 불로 쇠를 달군다.
산에 불이 났는데,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그 불은 이산 저산으로 마구 번져 나가고 진화가 매우 어렵다.
경금은 바로 바람이다.
불은 바람이라는 기폭제가 있으면 크게 번져나가는 것이다.

산불이 나면 어떻게 불을 끌까?
불은 물로써 끄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산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
가까운 저수지나 강이 있어 물을 퍼다 불을 끄면 되겠지만, 산은 강과 저수지가 가까이 있지 않다.
그래서 산불이 나면 진화인력은 삽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삽으로 흙을 떠서 산불을 끈다는 것이다.
이때의 불을 끄는 흙이 또한 기토다.

자연은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음양은 서로 만남으로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으니 만날 수 없고,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한다.

이때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바로 바람이 있다.
천지는 바람이 있어 비로소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경금이 바로 바람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氣)다.
우주는 기로 충만해 있는데 기를 간지로 표현하면 경금인 것이다.

기는 힘의 근원이다.
힘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에는 그러한 힘이 가득 퍼져 있는 것이다.

경금은 인체의 장기로는 대장(大腸)에 해당한다.

종종 힘을 쓸 적에 아랫배에 힘을 빡 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랫배는 대장이 위치해 있고 그곳에 힘을 줘야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기를 다루는 기공에 있어서도 아랫배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수련을 하게 되면 기는 아랫배로 모이고 그 부위를 단전(丹田)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아랫배에 대장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단전은 혈(穴)의 위치는 아니다. 다만 기가 모이는 부위를 대강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사람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아랫배가 중요하다.
만약 아랫배를 다치거나 충격을 받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복싱에서 잘 드러난다. 복부공격을 당하면 스텝이 느려지고 펀치의 강도가 약해진다. 그 이유는 역시 힘과 움직임은 대장에서 나오는데 복부공격을 받으면 대장의 기능이 약해져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

<table>
<tr><td>지지</td><td>午</td></tr>
<tr><td rowspan="3">지장간</td><td>丙</td></tr>
<tr><td></td></tr>
<tr><td>丁</td></tr>
</table>

오는 계절로는 한여름이다. 양력으로 치면 6월이다.
지장간은 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계절을 생각하기를 양력으로 3,4,5월이 봄이고, 6,7,8월은 여름이며, 9,10,11월은 가을이고, 12,1,2월은 겨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절을 절기로서 나누면 봄은 2,3,4월이고, 여름은 5,6,7월이고, 가을은 8,9,10월이며, 겨울은 11,12,1월이 된다.

음력으로는 1월 1일이 구정(舊正,설날)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정월(正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학에서는 시간의 기준이 태양이므로 입춘날을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고 인월(寅月)이라고 한다.
태양은 늘 일정하므로 입춘날(양력 2월 4일)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력은 달(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날짜에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구정이 양력으로는 매년 조금씩 다르다.

역학에서 양력 2월을 봄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양력 2월은 여전히 춥다. 간혹 이상기후로서 따뜻한 때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춥다.

춥고 덥고 하는 날씨는 무엇이 결정할까?

보통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역학을 공부하는 자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그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역학에 재능이 있고 없고는 그러한 의문을 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역학에 재능이 없으면 책에서 말하거나 또는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별 의심을 갖지 않고 받아드린다. 그리고는 앵무새처럼 남들에게 읊조린다.

날씨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다.
아무리 햇볕이 강한 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면 덥게 느끼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훈훈한 바람이 불면 춥지 않은 것이다.
햇볕의 강도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동안 거기에 맞춰 일정하다. 이것은 태양계라고 부르는 천체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늘 일정한 것이다. 그런데 더운 공기와 찬공기의 움직임에 따른 바람이 붊으로써 날씨가 변하는 것이다.

양력 2월은 한 해가 시작하고 계절의 봄이 시작하지만, 아직 차가운 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추운 것이다. 그러나 햇볕은 서서히 강해져가고 있으며 땅에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찬 공기가 새로운 생명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강한 햇볕을 통해 생명은 그것을 극복하고 피어난다는 것이 寅의 지장간이 말하는 戊,丙,甲인 것이다.

午월은 양력으로 6월이다.
계절로는 여름이며 해는 매우 강해져 있고 더운 계절이다.
나무는 이때가 가장 무성하게 잎이 돋아나며 가장 왕성한 성장을 하는 때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용을 한껏 뽐내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오(午)는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꽃을 피우는 것이다. (식물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식물마다 다르지만, 사람은 꽃을 아름답고 화려함의 절정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꽃의 생물학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午의 지장간은 丙,丁이다.
음양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이다.
양이 가장 강할 때 병와도 있고 정화도 있다.

병화(丙火)는 양화(陽火)로서 빛을 의미하고, 빛은 치료를 하는 능력이 있어 약이 되고, 또한 살균작용을 하니 한편으로는 독(毒)이 된다.
또한 강한 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열은 경금에 의해 폭발을 하기도 한다.

생명은 근본적으로 양이고,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시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생명이 아닌 것은 음이고,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시작할 것이다.
생명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귀신(鬼神)이다. 귀신은 극양(極陽)에서 시작한다.

정화(丁火)는 음화(陰火)이다.

화기운 이지만 음화다.
음화란 무엇일까?
양화가 강한 빛이고 뜨거운 열이라면, 음화는 부드러운 빛이고, 따뜻한 열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성의 아름다움이다.

정이 부드러운 빛이라고 할 때 우리는 촛불을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촛불은 언제 켤까?
바로 기도할 때 켠다.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이다. 신에게 기도할 때, 또는 신이 아니어도 어딘가 기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촛불을 켠다. (예를 들어 제삿상에 촛불을 켜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정은 간절한 마음의 발로인 것이다.

지지	未
지장간	丁
	乙
	己

미는 계절로는 늦여름이다. 양력으로 치면 7월이다.
지장간은 정,을,기로 이루어져 있다.

7월의 되면 햇볕은 따갑기보다 무덥다. 그늘에 앉아도 무더우니 더위를 피하기 어렵다.
이때의 더위를 찜통더위라고 표현하는데 찜통은 음식을 익히는 통이니 이제 결실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나무도 무성함을 뒤로하고 이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결실에는 종족보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은 대표적인 식물의 종족보전수단이다.
본래는 식물이 종족보전을 하려고 만든 것을 인간이 채취해서 음식으로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또한 자연의 법칙이다.

우리가 열매로서 먹는 과일은 잘 익은 것이다.
익지 않은 과일을 풋과일이라고 부르며, 풋과일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맛이 없거나 해서 먹지 못한다.

익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처음에는 강한 불로 시작해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약한 불로 바꾼다.
뜸을 들일 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강한불로 밥을 지으면 나중에는 타서 먹을 수 없게 된다.

밥이 익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약한 불로 뜸을 들여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음식은 반드시 불로 익혀 먹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정(丁)인 것이다.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불을 반드시 써서 익혀야만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선을 날로 먹는 회는 음식이지만 불로 익히지는 않지 않냐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종류의 햄은 불로 익히지 않고 소금 속에 몇 년을 파묻어두면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을 안 쓰지 않냐고 할 수 있다.

익힌다는 것은 반드시 불(火)로만 가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먹을 수 있게 숙성 시킨다면 그것은 정화(丁火)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금 속에 묻어두고 숙성시키는 햄은 그 과정이 정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생선을 날로 회로 떠서 먹는 것은 익혀먹는 것이 아니므로 정화를 쓰지 않고 먹는 것이 맞다.
그러나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액에 의해 소화가 되면 소화액이 정화로서 익히는 과정이 된다.
생선회는 그것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풋과일은 소화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된다. (엄밀히 말하면 위장에서 소화액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나 풋과일에서 독이 나와 그로인해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을 회를 쳐서 얼른 먹지만, 일본에서는 생선회를 12시간 숙성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맛이 더 연하고 좋다고 한다. 사실 그것이 더 자연의 이치에 맞게 먹는 것이다.

술에 약초를 넣거나 과일을 넣어 만드는 술도 약효가 나거나 좋은 향을 얻고자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숙성시켜야 한다. 숙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불로써만 익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은 정(丁)인 것이다.

정화가 음식을 익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처음에 강한불로 물을 끓게 하는 것부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음식을 익히는 데는 물을 끓이지 않아도 뜸 들이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미의 지장간인 을은 바로 그러한 인내를 말한다.
숙성이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갑이 나무의 줄기라면 을은 나무의 가지나 뿌리를 말한다.
가지와 뿌리는 줄기와 다르게 구부러져있다. 구부러져 있음은 유연함을 말하는 것이다.
유연함은 곧 인내력을 뜻한다.
꼿꼿하면 부러진다는 것은 참지 못하고 맞서다가 꺾인다는 것이고, 구부러짐은 참고 인내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주에 을이 많으면 인내력이 강하다. 반대로 사주에 갑이 많으면 뻣뻣해서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한 음식을 익히는 숙성의 과정은 엄마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미의 지장간 기는 음식을 익히는 있는 엄마인 것이다.

미월은 열매를 맺는 형상인데, 을목은 정화에 의해 말라가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나무의 줄기와 뿌리가 말라가는 것을 말한다.
본래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 있던 수분은 다음 달인 신월의 열매속으로 들어간다.

지지	申
지장간	戊
	壬
	庚

신은 계절로는 초가을이다. 양력으로 치면 8월이다.
지장간은 무,임,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봄에 씩을 틔우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수확을 한다. 그래서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인 것이다.
나무나 작물의 결실은 열매로 맺어지는데, 열매에는 나무나 작물의 역량을 한군데 모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장의 결과 또는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열매는 단단한 덩어리의 형태로 맺어진다.
중요한 것은 덩어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보통, 역학에서 금(金)이라고 하면 쇠를 생각하기 쉬운데 금은 쇠가 아니다.
역학의 역사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오천년 전쯤이라고 본다.
그런데 오천년 전에 쇠가 있었겠는가?
인류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그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데 청동도 쇠이기는 하나 지금 같은 스텐레스도 아닐뿐더러 청동 자체도 귀했던 시기다. 왕이나 귀족의 장식이나 제사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백성들의 일상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다.
초창기의 농사도구도 모두 목재였으며(그래서 토를 극하는 것이 목인 이유다) 금속이 농사도구로 사용된 것은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역학을 공부하는 자는 과거의 역학자가 역학의 이론을 만들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거 그들이 바라본 세상은 어땠으며, 그들에게 보이는 자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역학을 해석하면 틀리기 쉬우며, 특히 오행의 금(金)을 단지 단단하니까 금속이라고 생각해서는 않된다. 단단한 것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쇠보다 더 단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쇠가 아니라 돌이므로 다이아몬드를 토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금이 맞다. 그 이유는 금은 단단한 덩어리를 말하고 다이아몬드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물이 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오행은 사물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지, 형태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나무는 단단한가? 단단하지 않은가? 그것은 상대적이다, 쇠에 비교하면 단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스펀지보다는 단단하다. 그런 이유로 나무를 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은 계절로는 초가을이다. 열매가 맺어진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 지장간은 무,임,경인데 따라서 열매는 무임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열매는 단단한 덩어리 인데, 열매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또한 열매는 내부에 수분을 가지고 있다. 만약 수분이 없다면 너무나 딱딱해서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열매의 수분이 임(壬)이다.
임수는 양수(陽水)다. 양수는 흐르는 물을 뜻한다.
수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것을 말한다. 물은 흐르는 것의 대표적인 성질을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유로 바람을 수라고 볼 수도 있다.
흐른다는 것은 물체의 이동을 말한다. 흐름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질은 이동을 해야만 한다.
이동하지 않는 물질이란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하면 변화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도 지구에게는 물질이며,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물질이다. 또한 생명체는 생명체 내부에 수많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피도 물질이고, 호르몬도 물질이고 각종 영양분도 모두 물질이다. 또한 남자의 정자도 물질이고 그것이 난자에게로 이동하지 않으면 생명체를 만들 수 없고, 모든 생명활동이 불가능한 것이다.

열매가 맺으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야만 한다.
세상에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새싹이 돋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열매는 맺어지면 땅에 떨어지고자 한다.
그런데 열매의 꼭지는 가지에 붙어있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무(戊)다.
무는 寅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싹을 짓밟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붙잡는 역할도 한다.
그런 경우에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방법은 크기가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면 가지가 열매를 붙잡고 있는 힘보다 중력이 커져서 결국 열매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매는 수분을 얻어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진다.
그것이 바로 壬水의 도움으로 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임수는 가지를 통해서 전달된다.

사람 중에는 뚱뚱한 사람도 많다.
그런데 뚱뚱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따지고 보면 수분이 많다는 것이다.
즉, 사물의 부피를 결정하는 것은 수(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수분이 많다는 것은 부피를 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수분이 많으면 수기운이 강하다는 것이고 서늘함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수분이 적으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보통 말랐다는 것과 같다.

금은 수를 만나면 움직인다.
그러한 예가 돌무더기가 많은 산에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는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지	酉
지장간	庚
	辛

유는 계절로는 가을의 한가운데다. 양력으로 치면 9월이다.
지장간은 경,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월은 열매가 완전히 맺힌 모양이고, 유월은 양력 9월로서 땅에 떨어진 열매이거나, 또는 사람들이 수확해 놓은 작물과 같은 것이다.

땅에 떨어진 열매는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마르게 된다. 유(酉)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마르게 된다는 것은 수분이 빠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피가 줄어든다.

후라이팬에 음식을 볶는 것을 생각해보자.
뜨거운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식재료를 볶으면, 식재료가 익으면서 부피가 줄어든다.
후라이팬에 볶으면 부피가 커진다는 식재료는 세상에 없다. 100% 부피가 줄어든다.
그 이유는 식재료 안의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고, 수분이 증발하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람도 뚱뚱하다는 것은 수분이 많다는 것이고 수분이 많으면 부피도 커지니 그것이 뚱뚱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비만이 다른 것이 아니다. 오행으로 따지면 수기운이 풍부한 것이다. 비만으로 인해 병이 걸렸다면 그 사람은 수기운이 넘쳐서 잘못된 것이다. 수기운을 뺀다면 비만이 사라질 것이고 그로인한 병도 사라질 것이다.

곶감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곶감은 감을 깎고 줄에 매달아 그늘에 말리는데, 그늘에서 마르게 되면 오그라들면서 표면에 흰 분이 올라온다. 그것 역시 수분이 증발하면서 부피가 줄어든 것이다.
수분이 증발되는 것은 반드시 열로써 가열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분이 증발되어 부피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화의 작용인 것이다.

비슷한 예로 겨울에 명태를 말려 코다리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겨울에 무슨 열이 있어 수분을 증

발시키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분이 증말하는 과정은 화기운에 의한 것이고 가열을 해야만 화기운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징어를 말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오징어를 말리면 부피가 줄어든다. 수기운이 빠져나가면 모든 물체는 부피가 줄어든다. 그리고 수기운을 말리는 것은 인위적인 가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저절로 증발하는 것도 화기운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수분이 항상 자연적으로라도 증발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극히 추운 곳은 그렇지 않다.
히말라야의 만년설, 남극의 만년설이나 빙하는 자연증발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너무나 춥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펴 보건데 증발은 빛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열이 일으킨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지지	戌
지장간	辛
	丁
	戊

술은 계절로는 늦가을이다. 양력으로 치면 10월이다.
지장간은 신,정,무로 이루어져 있다.

수확의 계절도 다 끝나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며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다.
싹이 튼다는 것은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인데, 그것에는 열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겨울은 너무 추워서 열기가 없으니 생명이 싹틀 수 없는 것이다.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작물도 자라지 않으니 먹을 것을 구하지도 못한다.
가을에 수확한 작물을 먹으며 추운 겨울을 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창고다.
가을에 수확한 작물을 창고에 저장했다가 겨울에 하나씩 꺼내먹으며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다.

신은 마른 작물을 뜻한다.
수확한 작물은 수분이 증발해서 마르기 때문이다.

수분이 증발했다는 것은 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땅속에 묻는 것이다.
술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겨울에 들어가기 앞서 화기운을 보존해야 한다.
진월이 여름에 들어가기앞서 충분히 물을 보충해야 하는 것 처럼 술월은 겨울에 들어가기 앞서 열을 잘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지 않겠는가.

나무도 여름의 성장에는 수기운이 필요했지만 이젠 결실도 모두 맺었고 수기운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나무에 물기가 부족해지니 나무도 말라간다.
늦가을이 되면 여름의 풀들이 말라서 건초가 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것이 술의 지장간 정화가 의미하는 바이다.

나무가 마르면 껍질이 두꺼워지는데 이것은 신이다.
신은 축에서 껍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는데, 나무가 말라 껍질이 두꺼워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사람도 늙으면 가죽이 두꺼워지지 않던가.

술은 바로 노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늙으면 수분이 부족해지고, 그것은 반대로 화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이며 그로인해 가죽은 거칠고 두꺼지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노화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노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토이다.
기토는 엄마로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무토는 아버지로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생명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때는 추운 겨울로 들어감에 있어 화기를 보존해야 하는데 화기운은 무토에 숨음으로써 보존된다.(냉기는 열기를 사라지게 때문이다)
반대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진월에는 수기운을 보존해야 한다. 진의 지장간이 을계무인데 수기운인 계는 무토에 숨는 것이다.(열기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이다)
무토는 그렇게 열기와 수분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에는 지금도 가을에 땅에 구덩이를 파고 가을에 수확한 무,감자 등을 묻고서 겨우내 하나씩 꺼내먹는 무구덩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땅은 열기와 수분을 보존함으로써 마치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다른 예로 겨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담그고 땅을 파서 김장독을 묻고 그곳에 김치를 보존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기토는 생명을 기르는 역할을 하고, 무토는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지	亥
지장간	己
	甲
	壬

해는 계절로는 초겨울이다. 양력으로 치면 11월이다.
지장간은 기,갑,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는 지의 마지막이다.
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자는 시작이며 해는 마지막이고 따라서 생명체에게는 해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주는 영원한데 죽음으로 끝을 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한다.
세상에 앞면만 있고 뒷면은 없는 동전은 없지 않은가?
그렇듯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창조와 파괴도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무언가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창조할 수 없으며, 창조가 되면 반드시 무엇인가는 파괴되는 것이다.

해는 그래서 끝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시작과 탄생을 알리는 것이 바로 생물에게는 생명을 만드는 행위로서 곧 교접을 뜻한다.
해는 바로 그러한 모습(교접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남녀의 교접에는 즐거움이 따른다.
교접의 근본목적은 종족보전에 있는데, 종족보전을 함에 있어 고통스럽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교접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 즐거움이 해의 지장간 임(壬)이다.

농사를 지음에 있어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논과 밭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는가.
물을 논밭에 대는 작업이 바로 해의 지장간 갑(甲)이다.

본래 물은 둑으로 막고 있다.

물이 범람하면 큰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둑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논밭에 물을 공급하려면 오히려 물을 끌어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농부는 수로를 파거나 관을 뭍어서 물을 끌어온다.
그러한 작업이 갑인 것이다.
갑은 본래 땅을 파는 나무이니 갑을 통해 땅을 파서 물을 대는 것이다.

기토는 만물을 키우는 엄마와 같은데 교접에서는 여자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는가.
그러면 갑목은 남자의 성기가 된다.
그래서 해의 지장간 기갑임은 남녀의 교접과 그것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생명은 수기운에 의지하는데,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화기운에 의해서이다.
즉, 화기운에 의해 순간적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기운이 생명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때 화기운이 생명을 만드는 짧은 순간을 풀어낸 것이 바로 해의 모습인 것이다.

임은 양수로서 흐르는 물이다.
흐르는 물은 강, 냇물, 바다 등을 뜻한다.
반면에 호수나, 연못 등의 흐르지 않은 물은 계수가 된다.
바다도 호숫물처럼 잔잔하고 흐름이 없다면 계수가 될 것이다.
임수인가 계수인가 하는 것은 흐름의 상태에 따른 분류가 되는 것이다.

흐르는 물은 쓸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은 물이 땅에 쏟아지면 금새 땅속으로 스며들어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릇에 물을 담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로 밥도 짓고, 세수도 하고 생활에 이용한다.

그런데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강가로 말을 끌고 가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또한 논밭에 물을 대는 경우에 냇물이나 강물을 끌어대는데 그것은 그릇에 담아두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직접 공급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강물이든, 냇물이든 물이 흐르는 줄기는 반드시 '둑'이라는 것이 있다.
둑은 물이 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은 한다. 즉, 물을 통제하는 수단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릇과 같은 것이다.

기토는 둑으로서 흐르는 물을 통제하는 것이다.

계절로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양력 11월이다.
겨울은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다.
싹이 트려면 따뜻한 열기가 있어야 하나 겨울에는 햇볕도 약하고 땅도 차가워서 싹이 트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나 열매를 창고에서 꺼내 먹으며 추운 겨울을 조용히 지내는 것이다.

해는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임수는 죽임을 나타낸다.
임수는 흐르는 물이고 그것을 막는 것은 기토다.
즉, 기토는 임수를 가로막아서 임수의 침범을 막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을 막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임수가 기토를 넘어서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임수가 기토를 넘어서는 방법이 바로 갑목인 것이다.
갑목은 우뚝서다는 뜻이다.
2004년도 12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20만이 넘는 사람이 죽은 적이 있다.
쓰나미라는 것은 파도가 아주 거대해서져 방파제를 넘어 뭍으로 밀어닥치는 거대한 물결이다.
방파제를 넘으려면 파도가 우뚝선 만큼 높아져야만 한다.
일본에서 2011년 3월 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닥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지지의 변화는 생명체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생장수장(生長收藏)이라고도 말한다. 즉, 12지지는 생장수장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생장수장의 원리는 기후와는 근본적으로 무관하다.
다만, 기후가 생장수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름만 있는 열대지방의 기후는 장(長)이 강하니 커나가기만 할뿐, 열매를 맺기가 어렵고,
겨울만 있는 극지방의 기후는 생(生)도 어려우니 자라기조차도 힘든 것이다.

조후(調候)

조후란 한난조습(寒暖燥濕)으로 말할 수 있는 기후를 묻는다는 의미로서
추운날씨에 태어났다면 따뜻한 열기를 필요로 할 것이며, 건조한 날씨에 태어났다면 습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생장수장의 법칙을 기준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의 가감을 논하는 분야이다.

절기는 태양에 의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생장수장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싹이 트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건조해야 한다.

문제는 날씨다.
봄에 햇볕을 받아야 싹이 트는데, 구름이 잔뜩 끼고 날씨가 추우면 싹이 트지 못한다.
또한 늦여름에는 덥고 건조해야 열매가 익는데, 비가 와서 습하면 오히려 싹이 터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
즉, 날씨가 기후에 영향을 미쳐 생장수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만 있는 열대지방의 날씨는 늘 덥다.
그러한 날씨가 생장수장(生長收藏)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생(生)과 장(長)은 크게 일어나지만 수(收)와 장(藏)은 작게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자라기만 많이 자랄 뿐,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극지방처럼 겨울만 있는 곳은 너무 추워 생장수장이 일어나지 못한고, 반대로 매우 덥고 건조한 사막에서는 습기가 없어 생장수장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하니 날씨라는 가변적인 요소는 생장수장을 일으키는 기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난조습(寒暖燥濕)은 기후의 4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한(寒)은 차갑고, 난(暖)은 따뜻하고, 조(燥)는 건조하고, 습(濕)은 축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절기에 따라 결정되는 기후에 자리 잡고 있다.

봄(春)-인,묘,진

봄은 생명이 싹트는 시절이다.
싹이 트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하며, 싹이 튼 연후에도 여전히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만 한다.

여름(夏)-사,오,미

여름은 생명이 크게 자라는 시절이다.
강한 햇볕은 생명을 크게 성장시키지만, 뜨거우므로 물이 증발해버리면 생명은 말라죽고 만다.
그래서 많은 물이 있어야만 한다.

여름의 미월은 열매를 맺는다.

이때는 나무의 수분이 열매로 들어가고 나무의 줄기와 뿌리는 말라간다.
따라서 미월은 건조해야만 한다.
만약 미월에 습하면 나무의 줄기와 뿌리에 수분이 넘쳐흐르게 되어 다시 싹이 트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을(秋)-신,유,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수분은 모두 열매 속에 감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 시절은 건조하다.(燥)
만약, 가을에 비가 온다면 아직 따뜻한 열기에 의해 싹이 틀 것이며, 자라는 시절에 날씨가 추워져 결국 얼어 죽을 것이다.

겨울(冬)-해,자,축
겨울은 한해의 농사를 짓느라 수고했으니 쉬는 시절이다.
쉰다는 것은 싹이 트고 자라서는 안 되는 것이니, 한(寒) 해야만 한다.
습(濕)은 중요하지 않다. 열기가 없으면 생명은 어차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계절로 치면 겨울인 것이다.
겨울의 날씨는 너무 추워 생명이 자랄 수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 그저 조용히 보내야만 한다.

요즘에는 겨울에도 농사를 지어 수입을 올리는 농가가 많은데, 겨울에도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따뜻한 열기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난방을 해서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생장수장의 원리에 의해 태어나 자라고 죽을 뿐이지, 기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기후를 조절해서 생장수장의 원리를 맞춰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생명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17.육친론

육친론은 음양오행의 성질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육친에는 관성(官星),식상(食傷),인성(印星),재성(財星),비겁(比劫)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다섯 가지는 다시 각각 두 개로 나뉘어 총 10가지가 되고 그것을 십신(十神) 또는 십성(十星)이라고 부른다.

오행이 간지(干支)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육친은 일간(日干)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오행으로 목(木)이 관성이 될 수도 있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비겁이 될 수도 있다.
오행은 절대적인데 반해 육친은 상대적인 것이다.

육친론은 사회적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사회적의미라는 것은 남들과 부딪치는 관계 속에서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주에 관성이 강하다고 하면 남을 지배하거나 남에게 지배를 당하는 특성이지, 자신이 자신에게 뭘 어떻게 해보는 특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순수한 개인적의 특성은 오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과 부딪치지 않을 수 없으며, 홀로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세상에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산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지극히 드물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운명학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사주학에서 육친론의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음양오행에 밝다 해도 음양오행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일 뿐,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시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행위까지 밝혀낼 수는 없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육친론을 만들게 되었고, 육친론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의 사회적 지위와 행위를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행의 생극관계에 따라 육친도 생극관계를 가진다.

관성은 비겁을 극하고, 비겁은 식상을 생한다. (관극아생식,官剋我生食)
식상은 관성을 극하고, 관성은 인성을 생한다. (식극관생인,食剋官生印)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한다. (인극식생재,印剋食生財)
재성은 인성을 극하고, 인성은 나를 생한다. (재극인생아,財剋印生我)
비겁은 재성을 극하고, 재성은 관성을 생한다. (아극재생관,我剋財生官)

이 원리는 오행의 생극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일간)이 토이면 목은 관성이 된다.
오행의 성질에서 목은 토를 극하니 관성이 나(비겁)을 극하는 것이다.
또한 나(일간)이 토이면 토생금하니 금은 식상이고 내(비겁)가 식상을 생하는 것이다.
육친론은 오행에 육친을 매핑(Mapping)시킨 것이다.

이제 각각의 육친의 성질에 관해 자세한 공부를 시작해보자.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으니, 세상에 나아가면 제갈량이 될 수 있다.

1)관성(官星)

관성은 일간인 나를 극(剋)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며, 육친론을 이해하는 기본개념이다.
관성은 편관(偏官)과 정관(正官)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일간의 음양과 같은 오행을 편관이라고 하고, 일간의 음양과 다른 오행을 정관이라고 한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식의 문제 등등.
제아무리 태평해 보이는 사람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게 마련이다.
인생은 그 자체로 고해(苦海,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그러한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보자.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사회를 만든 이유는, (사람보다 강한) 다른 동물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이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혼자 대항하기 보다는 단체로 맞서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무리활동이 보다 조직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사회활동이다.

그렇게 시작된 사회는 본래의 목적인 자신들의 보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부수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그것이 문명이다.
사주학에서 인류의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겠지만, 사주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사회의 참모습을 알아야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의 참모습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이 사회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다보니 사회로부터 얻는 이익(조직 활동과 분업으로부터 얻는 높은 생산성)도 있지만, 반대로 사회로부터 많은 제약도 받는다.
그 제약은 주로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아야 함에서 오는 제약이 될 것이다.

만약, 사회가 분열되고 파괴되면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사회는 본능적으로 분열을 방지하는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주로 도덕과 윤리이다.
도덕과 윤리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분열방지'다.
우리가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도덕적, 반윤리적 행위는 따지고 보면 모두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다. 그리고 사회는 보다 강력한 사회유지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질서를 유지해야만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는 집단 간의 경쟁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킨다.
경쟁의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은 문명은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문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작동한다.

잠깐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주학을 잘 하려면 사회를 아주 잘 이해해야 한다.
만약, 사회학자가 사주학을 공부한다면 정말로 족집게 점쟁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학자가 사주학을 공부할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앞으로는 해주길 바란다.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사회라는 조직 내지는 무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작게는 가정이라는 조직에 있으며, 그보다 조금 더 큰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 가장 큰 조직인 국가에 소속 되어 진다.

사람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회생활 속에서 오지 않던가!
그래서 사회(가정, 직장, 국가)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억압하는 존재가 된다.
그 사회가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든, 이슬람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사회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것이다.

만약, 사회로부터의 억압이 싫다면 사회를 떠나면 된다.
이를테면 무인도로 떠난다든지, 산속에서 홀로 생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사회로부터 떠나면 사회로 부터의 얻게 되는 이익도 모두 포기해야한 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극소수이고, 학문은 그런 극소수를 변수에 놓고 이론을 만들지는 않는다. 학문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현상을 전제로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고통이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부터 생겨났다고 할 적에 사람은 두부류로 나눌 수 있다.
1.고통을 참고, 고통을 주는 존재에 대항해 싸우려는 사람.
2,고통에 항복하고, 차라리 그 고통을 주는 존재에 순응하고 그 존재의 편에 서는 사람.

1의 사람이 편관이고, 2의 사람이 정관이다.
물론 고통에 대처하는 1,2의 구분이 곧바로 선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선악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르는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존재인데,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관,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된다.
자석이 음양이 같으면 밀쳐내고, 음양이 다르면 결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억압하는 존재에 맞서는 것은 음양이 같으므로 밀쳐내는 것이고, 나를 억압하는 존재에 순응하는 것은 음양이 달라서 결합하는 것이다.

편관과 정관은 모두 관성인데, 이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사회학의 두 가지 큰 이론인 갈등론(葛藤論)과 기능론(機能論)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론이 허구임도 증명할 수 있다.

본래 기능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학의 학문상 불가능하다.
왜냐면 사회학은 물리학이 아니므로 사회현상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주학을 통해서 사회현상을 증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놀랍지 않은가? 사회현상을 증명할 수 있다니..
세상의 모든 인문학 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주학은 가능케 한다.
또한 사주학으로 사회현상을 증명하면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여기서 철학으로 들어가면 도사의 길로 빠지고, 정치에 입문하면 제갈량이 될 수 있다.

사회의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나누면 지배자(가진자)와 피지배자(못가진자)로 나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만이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 않은가.
그만큼 투쟁으로 얼룩진 것이 인류의 역사다.
물론,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설령 그런 시기가 있다하더라도 그건 잠시뿐이다.
인간은 왜 가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간단하다.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을 추적해보자.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후 의지가 생긴다.
의지는 뜻만 가지고 있을 뿐 목적이나 방향은 없다.
그리고 의지는 욕망으로 발전한다.
욕망은 아직 의식은 없다. 목적은 없으나 방향은 가지고 있다.
욕망은 의식으로 발전한다.
의식은 목적도 있고 방향도 가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지력을 만드나 아직 사고능력은 없다.
의식은 이성으로 발전한다.
이성이 생기면 사람으로서의 사고능력이 가능하다.
즉, 인간의 사고는 '의지 > 욕망 > 의식 > 이성'의 순서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욕심은 욕망에서 나온다.
욕망은 식욕, 성욕 등 이성적 사고 이전의 본능적 사고이다. 이것은 사고이기 보다는 감정이다.
종교에서 말하길 늘 욕심을 버리라고 하고, 모든 재앙은 욕심에서 온다고 말하는데 욕심이 그리 쉽게 버려지겠는가. 욕망이라는 본능에 뿌리를 둔 것인데..
이것은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보통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욕심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사회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을 어찌 인간이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사회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가.

아무튼 사회를 극단적으로 나누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눠지는 것이고, 이들 간에는 어쩔 수 없는 치열한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사회학의 갈등론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며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반면에 사회학에는 기능론이란 것도 있는데, 사회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직업이나 역할에 따른 기능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적으로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는 항상 통합을 추구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각 부분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발휘함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사회의 각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회는 통합과 안정이 깨어지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혼란은 문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기능론은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변화를 원치 않는 쪽의 대변이다.
즉,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논리다.
반대로 갈등론은 변화를 원하는 계층의 논리이고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논리다.
과연 어느 쪽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사주학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오행상으로 일간을 극하는 것이 관성인데, 관성은 편관 또는 정관으로 나누어진다.
편관인지 또는 정관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음양의 합(合)과 충(沖)이다.

음양의 합(合)은 남녀가 만나는 것과 같아 서로 좋아서 순응하며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졌다.
반대로 음양의 충(沖)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처럼 서로 대항하고 다투는 성질이라 그래서 밀어내는 성질을 가졌다.

사주의 관성에 대해 관성의 음양과 일간이 음양이 같으면 편관이 되고 관성의 음양과 일간의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된다.
예를 들어, 일간이 신(辛)이고 관성이 정(丁)인 사주에서, 음양으로 따졌을 때 신(辛)은 음이고, 정(丁)도 음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정(丁)은 편관이 된다. 반대로 병(丙)은 양이므로 정관이 된다.

사주의 관성이란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말하는데, 정관은 사회라는 관성에 순응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편관은 사회에 대항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뜻이다.
정관이 왜 그런가 하면 관성은 일간인 자신을 극하지만 음양으로 합이면 거부하지 못하고 따른다는 의미고, 반대로 편관은 음양으로 충이어서 대항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사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통을 준다.
이에 사주에 정관을 가진 사람은 사회가 비록 고통을 주지만 이에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편관을 가진 사람은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지배층와 피지배층으로 나누어질 때, 정관이 지배층이 될까? 아니면 편관이 지배층이 될까?

정답은 정관이다.
왜냐면 정관을 가진 자는 사회에 순응하고 따르는 자이므로 지배층이 된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순응하고 적응을 잘하는 자가 그 조직 내에서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관을 가진 자가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산다.
반대로 편관을 가진 자는 조직에 순응하지 못하고 조직에 대항하려고 하니 그 조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편관은 피지배층이 된다.

이는 정치적 성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관은 우파이며 보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되고, 편관은 좌파이고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 정치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은 거의 편관에서 나온다.
간혹, 정치인 중에서 중간에 정치적 신념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소위 철새 정치인) 그런 경우는 사주에 정관과 편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관성이 없는 경우다.
아주 드물게 정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를 테면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진보주의 정당에 있거나 반대로 편관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주의 정당에 몸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줄을 잘못 선 경우이고, 그래서 종종 정치적 소신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론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해 소속정당과 동료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다,(소위 반란표)

정관은 지배층, 편관은 피지배층이 되는데 그렇다고 사주에 정관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지배층이 되고 편관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피지배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주에는 관성 이외에도 다른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많고 현재 자신의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사회적 지위) 조금 달라진다.
하지만 잘사는 사람 중에는 정관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사주상담으로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편관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사주 상담뿐이 아니다. 사주가 아닌 일반적인 카운셀링을 원하는 사람들도 편관이 더 많다.
이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편관이 더 겪기 때문이다.

정관은 이 사회의 지배층이고 보수주의자다.
그 이유는 지배층은 가진 자이며 가진 자는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변화를 원치 않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반대로 피지배층은 진보주의자다.
피지배층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변화가 일어나면 현재보다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정답은 10번 싸우면 9번은 보수가 이긴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진자와 못가진자가 싸우면 가진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진보가 한 번 이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혁이라는 것도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힘의 우위가 뒤집혔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강한 자가 늘 이기고 약한 자가 늘 진다면 변혁은 없는 것이다.

정관은 보수주의인데 보수주의는 계급 즉, 수직적인 서열을 중시하고 좋아한다.
기득권을 지키려면 사회는 평등해서는 안 되고 수직적 계급으로 서열화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평등해야 한다면 기득권이 유지되지 못하고 가진 것을 내놔야 하지 않겠는가.

수직적 계급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法)이다.
법은 물수(水)변에 갈 거(去)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법이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법은 수직적인 계급질서를 대표하는 글자다.
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질서유지이고 질서유지란 변화의 반대개념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관은 법과 질서를 대단히 강조한다.

편관은 정관과 정 반대다.
편관을 가진 사람은 수평적 평등주의를 좋아하고, 계급질서를 싫어한다.
우리가 말하는 진보주의가 바로 편관의 성질과 같다.
현대의 민주주가 수평적인 평등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한다.
언 듯 들으면 현대의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 진보좌파에서 나온 것이라면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양성과 획일성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보수주의는 수직적 획일주의를 좋아하므로 전체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
그래서 일사 분란한 사회의 통치 구조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지양하며 전체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를 선호한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수평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므로 거기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나온다.
진보주의에서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 매우 다양한 정치적 이념이 생겨나게 된다.

정관은 수직적 계급을 좋아하고, 편관은 수평적 평등을 좋아한다.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편관이 있는 사람은 평지나 바다를 좋아한다.
이것은 정치인들에게서 재미있는 현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정관이 있는 정치인들은 등산회(산악회)를 조직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단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현상은 보수주의 당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한편, 진보주의 당에서 친목모임을 한다면 아마도 낚시회가 잘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낚시회라고 하면 왠지 할 일없는 한가한 사람들의 모임일 것 같고, 살생을 도모하는 모임인 것도 같으니 만들기가 곤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치인들 취미를 조사한다면 보수당 정치인들은 등산이 많을 것이고, 진보당 정치인들은 낚시가 많을 것이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정관은 수직적 계급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관료다.
관료라고 해서 반드시 직업공무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크면 사람이 많다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보수화)
그리고 서열이 매주 중요해진다.
그러한 곳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이 해당한다.
하여튼 규모가 커지면 그 조직은 관료화되고 그러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적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곳은 조직이 작다보니 의사결정도 빠르고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으며 서열이 중시되지 않는다.(직원이 적으니 신입사원이 사장과 맞대면도 가능하다.)
편관은 그러한 조직에서 근무하는 적성을 가지게 된다.

정관은 관료적이어서 소위 펜대를 굴리는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편관은 그 반대이니 관료에 대비되는 직업은 기술직이다.
기술직이라 함은 단순한 엔지니어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학자, 의사, 예술인, 종교인 등도 편관에 해당한다.

편관이 왜 기술자가 되는가 하면 편관은 고통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고통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 기술이라는 것이다. 기술로써 사회의 역경을 헤쳐 나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관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라는 고통에 직면하면 죽거나, 고통을 주는 편에 서서 함께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정관을 사회에 기생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강자에 기생해야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성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관과 편관 중 누가 남자이고, 누가 여자가 될까?
정답은 편관이 남자이고, 정관이 여자가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을 따져보면 남자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존재가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생하는 존재가 된다. 정관과 편관의 원리가 그렇다.

편관은 강자를 만나면 강자와 싸우고, 정관은 강자를 만나면 강자에게 아부하는 속성을 가졌다.
또한 편관이 약자를 만나면 약자를 돕는 반면에 정관은 약자를 만나면 착취하는 속성을 가졌다.
이것은 편관과 정관의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다.

정관이 편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정관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재산도 가진 기득권자다.
반대로 편관은 사회적 지위도 낮고 재산도 없다.

정관이 편관을 만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보면 도적(盜賊)으로 생각한다.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으면 자신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강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불안하다. 조금만 움직여 자신에게 다가오면 도둑질을 의심하고 때려잡으려고 한다. 이것은 마치 겁많은 개가 먼저 요란하게 짖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의 결과 자신의 확고한 지위에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 정관이 편관으로의 지위변동이나 수평적 신분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
편관은 수평적 변화이니 수평적 신분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편관이 정관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편관 입장에서는 정관은 지배층이고 기득권자이며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다.
편관은 이에 맞서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싸움은 지배층이 되고 기득권을 얻는 싸움이 된다.
이것은 편관이 정관으로서의 지위변동이니 수직적 신분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맞이하게 된다.
정관은 수직적 변화이니 수직적 신분변화가 되는 것이다.

정관과 편관은 서로 만나면 싸울 일이 일어나지만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는 전혀 다르게 상황을 인식한다.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남한과 북한을 정관, 편관으로 생각해보자.
그리되면 남한은 정관, 북한은 편관이 된다.
왜냐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살며, 계급이 강한 사회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에 비해 못살고 계급사회를 부정한다. (공산주의는 사회적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관료사회는 계급사회이고 공산주의는 이를 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가난에 초점이 맞춰진다.
심하게 말하면 북한은 거지소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을 착취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사는 거지 때에 군림하는 못된 왕초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타도해야할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본다.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와 같으니 그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정치적 대상인 것이다.
실로 엄청난 견해차이다. 놀랍지 않은가.

통일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한다.
남한은 북한을 거지라고 생각하므로 거지를 먹여 살리고 싶지 않다.
거지를 먹여 살리려면 먹을 것도 줘야하고, 돈도 줘야하니 자기의 재물이 축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그냥 스스로 망해서 힘들이지 않고 평양으로 무혈 입성하는 점령군이 되고 싶어 한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싸워서 이기고 싶어 한다.
왜냐면 편관은 정관이 이념적인 정치적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 남한의 재물을 빼앗고 싶어 한다.
전쟁에서 이기면 패자의 재물은 승자의 전리품이 아니던가.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이 남한에게 공격적으로, 남한은 북한에게 방어적으로 상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 이다.
물론 이것은 남한과 북한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창조와 파괴는 언 듯 보기에 다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창조와 파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창조는 파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파괴는 창조를 전제로 하지 않은가.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분리할 수 없는 성질인 것이다.
결국, 창조와 파괴는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와 파괴'와 대비되는 성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유지'다.
현재의 상태를 변화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창조와 파괴'의 반대 성질이 되는 것이다.

음양으로 따졌을 때 '창조와 파괴'는 양(陽)이고, '유지'는 음(陰)이다.
양의 성질은 동(動)적이고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반면에 음은 정(靜)적이고 유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창조와 파괴'는 편관이 되고, '유지'는 정관이 된다.

선후 관계로 따졌을 때 '창조와 파괴' 와 '유지'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
정답은 '유지'다. 움직임이란 정지상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빛'과 '어둠' 중에 무엇이 먼저인가와 같은 질문이다.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로 '어둠'이 먼저다.
어둠속에서 빛이 나왔나 빛에서 어둠이 나왔나.
따라서 음양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음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양이 나온 것이다.

‘창조와 파괴’는 중요한 속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폭력이다.
‘창조와 파괴’를 일으키려면 물리력이 동원된다.
움직임으로부터 폭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편관은 폭력을 수반한다.
그렇다고 편관이 언제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비폭력도 편관에서 나온다.
폭력은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폭력과 비폭력은 변화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힘의 변화일 뿐인 것이다. 즉 정관의 억압에 대항하는 편관의 방법에는 폭력도 있으며 비폭력도 있다는 것이다.
폭력은 편관에서 나오고 평화는 정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정관은 관료가 많이 된다.
관료의 대표적인 직업군은 공무원이다. 각종 공사,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조직이 크면 관료화되고 계급주의가 강해지고 서열을 중시하니 각종 공사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정관이 강한 사람들이다.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경찰, 군인, 검사 등은 편관이라고 단정하는 그것은 틀린 말이다.
경찰, 군인, 검사는 오히려 정관이 강한 사람들이다.
거대조직에 몸담고 있다면 편관보다는 정관인 것이다.
특히 경찰, 군인, 검사는 권력을 가지는 직업이고, 정관은 권력 지형적이기 때문이다.
경찰, 검사가 시민의 지팡이이고 정의의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에 아부하는 권력의 하수인이다. 그것이 정관의 본질이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두려움 때문이고 그래서 그랬으면 하는 바램 인 것이다.
세상은 냉혹하다. 약자가 어찌 권력을 가진 강자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권력을 가진 자 역시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약자에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까불면 혼 날줄 알아’ 하는 것이다.

편관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관료조직인 공직이나 대기업에도 근무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술직이다.
공무원 중에는 기술직 공무원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기 쉽고, 대기업에서도 전문 기술분야에서 종사하게 된다. 일반적인 사무직은 아니라는 것이다.(물론 편관을 가진 사람 중에도 일반적인 관료로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대운이나 해운에서 잠시 그런 기회가 와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들 들어 방송국 PD등도 편관이다. 그들도 전문 기술 분야이고, 일반적인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편관은 관료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려우므로 조직에서 승진하기 어렵다,
관료조직에서 기술파트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보통 호봉만 올라갈 뿐이지 승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면 편관이 강한 사람은 관료나 권력조직에 몸담으면서 고급관료로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 조직의 특성이 편관성이라면 고급관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야가 군(軍)이다.
편관이 상관을 가지면 조사, 검사, 감시, 관찰의 능력을 가지는데 공직에서는 세무, 감사, 검찰 분야가 그런 분야이다.
그 좋은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는 편관에 상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안사 출신이 아닌가. 그리고 겁재운에서 쿠테타를 일으켰다. 그리해서 권력을 잡은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는 편관출신인데 세상에는 그가 보수파(우파)인 것처럼 되어 있다.
사실 그의 정책을 살펴보면 진보주의적 색채가 분명히 드러난다.
집권하자마자 성 개방정책으로 온갖 음란 비디오가 판을 쳤으며, 스트립쇼를 하는 술집이 넘쳐났었다.
또한 두발자유화, 해외여행자유화(박정희 시대에는 일반인은 함부로 외국에 나가지 못했다)등을 비롯해서 사회가 진보주의적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
80년대 초반에 TV 드라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야해서 여배우가 브라자만 입은 체 옷을 갈아입기도 했으며 어떤 쑈 프로에서는 북한을 극화한 내용인데 여자배우가 남자배우에게 가슴을 가리키며 '이게 젖가리게라는 고이야' 라는 내용도 있었다. 나의 기억만으로도 그러하다.
지금 TV에 그런 방송내용이 나오면 난리가 날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사회는 그때보다 보수화 된 것이다.
그럼에도 훗날 그는 보수주의의 한 축이 되었고 이를 승계한 것이 한나라당이 되었기 때문에 우파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는 아주 명명백백한 좌파다.
그리고 좌파인 편관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의 정치다.
폭력 앞에 정관(기득권층)은 그에게 아부한 것이고, 정관은 편관이 집권해도 여전히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만약 편관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다.
이론적으로는 이상향을 추구했지만 현실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편관은 폭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운에서도 편관이 걸리면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기 쉽다.

정관은 지배자이고, 지배자는 권력과 재물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관은 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편관과 달리 뾰족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
정관에게는 그저 돈과 권력을 추종하며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사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이며 정신적인 삶보다는 물질적인 삶을 살아간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편관은 정관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을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편관은 권력과 재물보다는 종교, 예술, 사상적인 면을 추구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뾰족한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굶어죽지는 않는다.
재물에 큰 욕심이 없으므로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다.

정관은 재물을 추구하는 인생이지만 뾰족한 기술이 없으므로 사회에서 낙오하면 삶이 궁핍해진다.
즉, 정관도 역시 경쟁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정관은 경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보통, 사회의 계층을 그리는 사회의 분포도가 피라미드형(삼각형)일 때 상위와 하위는 정관이 차지하고, 중간은 편관이 차지하는 것이 된다.
정관은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정치학, 사회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사주학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파는 정관이고 좌파는 편관이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부자계층과 가난한계층이 우파라는 것이다.
중산층은 좌파가 된다.
그래서 보수당이 말하길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해야 유리하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도시노동자층을 보통 가난한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가난하지만 보수주의자다.
가난하면 좌파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파인 것이다.

놀라운가?
더 놀라운 것을 알려주겠다.

2008년 봄~여름은 서울은 광우병 때문에 데모가 엄청나게 심했다.
이명박 정부는 나라도 어려워 먹고살기도 힘든데 데모질이나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데모한 것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데모는 좌파가 한 것이고 좌파는 편관이라 중산층이다.
그 이야기는 편관은 나라가 더 어려워져도 어느 정도 먹고는 사는 사람이라 심지어 나라가 거덜이 날 때까지도 데모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데모를 가난한자들이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은 편관을 가난하고 헐벗은 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보수주의자들의 머리로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역시 정관을 가진 사람에게 이 문제를 이해시켜보려 했으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편관의 편에서 편관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이해를 한 것은 아니다. 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중립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정관과 편관 중 누가 더 싸움을 잘할까?

보통은 편관이 이긴다.
왜냐면 편관은 늘 억압받는 존재이므로 투쟁에 익숙해 있다.
투쟁에 익숙해 있으니 근력도 강하고, 투쟁심도 강하다.

단체로 싸움을 한다면?
단체의 싸움은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팀웍이 잘 되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그러한 싸움에는 정관이 유리하다.
왜냐면 정관은 조직에 순응하고 명령에 복종하므로 단결이 잘된다.
반면에 편관은 조직을 싫어하고 명령을 싫어하므로 단결이 안 된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도 잘 나타나는데
개인종목의 경기에선 편관이 강하고, 단체종목의 경기에서는 정관이 강하다.
(즉, 개인종목일 경우에는 편관이 강한 사주로 선수를 구성하고, 단체종목일 경우에는 정관이 강한 사주로 선수를 구성하면 유리하다는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은 관점의 문제이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사업주와 투쟁을 하는 경우에 정관이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고, 편관이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점상들도 데모를 하고 요즘은 방송사의 기자들이나 PD들도 데모를 한다.
이런 경우에 그들의 투쟁성향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생각해보자.

돈 문제로 투쟁을 한다면 정관의 문제다.
반면에 복지나 정치적인 문제로 투쟁을 한다면 편관의 문제가 된다.

투쟁이 정관의 문제라면 해결법은 간단하다. 돈만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돈이 없으면 매로 다스려도 어느 정도 해결 된다.
왜냐면 정관은 맞아서 아프면 바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나 정치적인 문제라면 간단치가 않다.
이는 이념, 사상의 문제가 되므로 돈으로 해결도 잘 안되고 폭력으로 진압하면 더 저항한다.
왜냐면 편관은 원래가 투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매로 잘 안 다스려진다.

결론은, 싸움이 편관의 문제라면 잘 달래고 구슬러야 하고, 정관의 문제라면 돈으로 해결하거나 매로 다스리면 된다.
옛말에 '배운 놈은 줘 패고, 무식한 놈은 달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기존의 명리학적 학설로는 학자는 정관에서 많이 나온다고 본다.
좋은건 대게 길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명리학계에서는 육친을 길신과 흉신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길신은 정관, 정/편재, 정인, 식신, 비겁이고, 흉신은 편관, 편인, 상관, 겁재다.
길신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들이고, 흉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을 한다.

명리학의 고전을 분석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밝히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 생략하지만

명리학도 사람들이 연구한 학문인지라 얼마든지 착오,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옛 고전을 오로지 진실인 것처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책이란 것도 사람이 지은 것인데 사람이 언제나 올바른 것이 아닌 것처럼, 책도 얼마든지 잘못 쓸 수 있다. 이것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관계없이 진실이 아닌 것이 책에 기록될 수 있으며 훗날 이것이 진리인 양 얼마든지 잘못 받아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자' 라고 하면 선망의 대상이니 길신에서 나오고 따라서 정관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오다.

(60년대 '몬도가네'란 영화가 있었다. 거기에 보면 파푸아뉴기니에 사는 원시부족이 나온다.
멀리서 찍은 영상인데 돌창, 돌화살을 쓰는 완전한 석기문명의 부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명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개화시켰기 때문이다.
문명자의 눈에는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어리석은 백성이어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쳐들어가서 그들의 생활풍습을 바꾸어 놓았다.
수많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원시부족이 그렇게 강재로 개화가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개화된 부족이 정말로 나중에 행복해 졌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풍습을 버리고 결국 도시로 흘러가 도시 부랑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잠시 이야기가 딴 곳으로 흘러갔는데..
80년대 이후에 인류학자들은 완전한 석기문명을 가진 원시부족이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통탄했다. 인류의 진화와 역사를 연구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현재의 인류의 선/악, 정의/불의 등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야 할 이야기는 많으나 사주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도 하니 그만하겠다.)

여기서 기존의 명리학이 틀린 것이 또 발견되는데, 학문이란 자유로움이 보장되는 곳에서 발전되는 것이다. 어디 한곳에 가둬두고 연구하라 치면 제대로 된 학문이 나올 수 가 없다.
학자는 조직과 어울리지 않는다. 계급적이지도 못하다. 물론, 학자들은 권위적이지만 그것은 학문의 배타적 우월성에서 나오는 성질인 것이지 학문을 하는 마음의 본질은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론은 학자는 편관에서 나온다.

편관은 뭔가 한 가지를 깊이 파는 것이기도 하므로 학문도 그런 종류라고 볼 수 있고 또한 학문은 사회라는 억압으로부터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여튼, 돈과 권력이 아니고 뭔가 뚜렷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모두 편관에서 나오는 재능인 것이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관성이 없어도 재능이 많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더 많은 것을 논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차원에서의 이야기이고 자세한 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자.)

정관도 재능이 있기는 있다.
그것은 사람 다루는 재능이다.
하지만 그 재능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재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정관의 직업을 알아보자.
정관은 뾰족한 기술은 없다고 했다.
그랬을 경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까?
기술 분야가 아니므로 대략 생각을 해보면 관리부서, 단순 노동, 무직, 가사 등이 될 것이다.
관리부서의 경우는 보통 관공서의 대부분의 일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직이 아니면 보통 관리직에 해당한다.
반면에 단순노동에 해당하는 분야는 매우 많다.
일용직 노동자나, 폐휴지 수집상, 농사 등등..
일반적인 장사(식당포함)도 여기에 포함된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장사는 업체에서 꾸며주고 재료도 대주고 인력도 대주니 주인은 관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사다.

무직은 경쟁에서 밀렸을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처음부터 무직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편관의 경우에도 경쟁은 있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딜 가서도 자기의 일을 한다.
그러나 정관은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다.
정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 없이 사무직에 있다가 명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경우 거의 장사에 뛰어든다.

여자에게 정관과 편관은 무엇인가?
음양오행으로는 순수한 자연의 성질을 따지므로 갑과 을, 병과 정, 무와 기 .. 으로 남녀의 차이를 따지지만 육친론에서는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는 사회 그 자체를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로 간주하지만, 여자는 거기에 남자를 추가한다.
즉, 여자는 사회가 자신을 억압하고 남자도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자는 사회적 역할에서 남자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봉건적인 시대보다는 여권이 신장되어서 법적으로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고유한 여자의 역할이 여전히 남아있고 법보다는 도덕적으로 여자의 사회적 대우는 여전히 과거의 풍습이 많이 남아있어 크게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자에게도 정관과 편관의 기본적인 성격은 같다.
거기에 대상을 남자만 추가시키면 된다.
여자정관은 사회를 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자도 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자편관은 사회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자에게도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정관이면 남자에게 순종적이고 잘 보이려고 한다.
반면에 여자가 편관일 경우에는 남자에게 투쟁하며 인내한다.

외모도 남자에게 잘 보이려니 정관이 더 낫다.
(물론 외모를 좌우하는 것은 그것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많다)
비유를 한다면 정관의 여자는 여우같은 마누라가 되고 편관의 여자는 곰 같은 마누라가 된다.

남자를 위하는 방법도 다르다.
예를 들어 남자가 직장인이라면 정관의 여자는 상사의 부인을 찾아가 아부를 한다면, 편관의 여자는 묵묵하게 내조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남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정관의 여자는 친정에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편관의 여자는 자신이 나가서 벌이를 한다.
정관의 여자는 몸이 힘든 걸 잘 참지 못하기 때문이고 수단을 내서 남편을 돕는다.

부부가 싸우는 모습도 다르다.
정관의 여자는 잔소리를 치다가 언제 그랬냐고 금방 풀어지지만, 편관의 여자는 꾹꾹 참는다. 그러나 그것이 누적되면 폭발한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위와 같은 양상이라는 것은 아니다.

정관은 계급을 추종하므로 줄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서기 같은 것 말이다.
그래서 정관이 집권하면(우파가 집권하면) 줄을 잘 세운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좌파정권이고 편관이어서 수직보다는 수평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일렬로 줄 세우는 정책을 펴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평등사회를 지향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했다.
사회의 각 집단을 서열화 시키는 정책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그만큼 능력위주의 사회를 지향하게 만든다.
만약 능력이 안 되면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개인이 사회에 희생당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보다도 사회를 중시여기는 전체주의와 비슷하다,
전체주의면 공산주의와 비슷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얼마든지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라고 할 적에 다양성은 편관에서 나온다.
편관은 수평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에 정관은 수직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단일화, 획일화를 추구한다.
(그렇게 보면 60년대의 박정희 시대는 정관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민주주의는 편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다.

'개벽' 이란 말이 있다.

조선 말기에 최제우는 서학에 맞서 동학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개벽을 주장했다.
개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개벽의 의미가 모호하기도 한데 사주학적으로 역사에 접근하면 정관에서 편관으로 넘어가는 것이 개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 적에 권력이 왕에서 백성으로 넘어오는 것이 개벽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편관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잠시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정관과 편관은 이렇듯 다르다.
거기에 나머지 육친의 요소가 결합되면 훨씬 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정관이지만 편관 같은 행동도 나오고 그 반대의 행동도 나온다.

정관과 편관이 이렇듯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관성' 이라고 하면 정관과 편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다른 육친과 대비하여서는 관성은 '정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주에 관성이 매우 강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반대로 매우 약하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관성이 정신을 의미하는 이유는 사회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삶의 자세, 목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다.
나는 이렇게 살겠어, 저렇게 살겠어 하는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람은 정신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관성이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머리가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다만 머리를 쓰는 일을 하니 평균적으로는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다.

정관은 '악날하다, 치졸하다.', 편관은 '호탕하다, 대범하다.'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다.
현실의 정치문제를 예로 든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는 반정부 시위자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대해 끝까지 잡아서 처벌한다는 주의였다.
과거의 정부에서는 시간이 좀 흐르거나 하면 대충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좀 다르다.
물론, 과거정부에 비해 상대적인 강도가 좀 더 강하다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사실은 전형적인 정관의 특성이기도 하다.
역대의 정권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정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권이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은 가난한집 출신이어서 약자를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부자의 편이었다. 지극히 정관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관과 편관의 기질적 차이의 근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그럴만한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다.
음양으로 구분하면 정관은 음이고, 편관은 양이 되는데
음은 양을 따르고 양에 기생하는 존재가 되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악날하고 치졸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

인 듯하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대범하지 못하다든지, 악날하고, 치졸하다든지..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또 그런 이야기냐고 펄쩍 뛰겠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닌가.

사담이지만 과거 8,90년대에 여권 신장론자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서구의 여성들보다 사회적 차별이 더 심하고 그것의 증거가 여성의 사회진출도 라고 공공연하게 떠들던 때가 있었다.
한국여성의 사회진출도가 서구의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유의 진실은 다른데 있었던 것이다.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여자들이 사회에 더 나아가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여자들의 사회진출도가 높은 것이지 여권신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진출도를 비교해서 한국여성이 서구여성보다 사회적 차별을 더 받는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할 것이다.

여자가 집안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쓰기만 하면 더 편한 삶이 아닌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세월이 수 십 년이 지나 과거에 있었던 사회현상들을 분석해보면 그런 것이 아주 많다.

정관은 질서를 중시하는데 질서에는 법이 포함된다.
법(法)은 물이 가는 것과 같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명령도 법의 일종인데, 명령 또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가.
결국 법, 명령, 질서 그러한 것은 정관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수단인 것이다.
그것이 법의 본질이다.

그러면 편관은 법과는 어떤 관계인가?
정관이 기득권자, 주류라서 법을 따르라고 강요를 한다고 했을 때 편관은 반기득권자(기득권의 반대말은 미득권인가?), 비주류라서 법을 따르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편관은 비주류(재야)의 학자라고 했고, 비주류의 학문이 주류의 학문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것이 편관과 정인이 만나는 경우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는가?
바로 법을 만든다.

창조와 파괴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파괴는 곧 창조로 이어진다.
그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는 편관이 일으킨다.
따라서 창조와 파괴는 편관의 일이다.
법을 만드는 것도 편관, 법을 폐지하는 것도 편관이다.

정관은 편관이 만들어놓은 법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관이 법을 이용해 편관을 다스린다면
편관은 법을 만들어 정관을 누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편관은 법위에 있다는 것이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편관이 권력을 가지는 방법이다.

국정원, 경찰, 검사 등 권력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 도/감청 등을 영장 없이도 마음대로 하는 경우이다. 법적으로는 따진다면 불법이지만)
예를 들어 고문하는 경찰관을 살펴보면
과거 1970~80년대에도 고문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법을 깨고 무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의 파괴행위가 되니 편관이 이를 행한 것이 된다.

또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편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 중에는 정관(여당)도 있고, 편관(야당)도 있지만 언제나 입법의 키는 야당이 가지지 않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편관이다.
법을 폐지하니 편관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판검사 중 편관을 가진 판검사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관은 편관과 같은 창조나 파괴적인 일을 언제나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운에서 편관 운이 들어오면 창조적인 일이나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진보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반대로 편관도 정관 운이 들어오면 보수적으로 변하고 기득권 유지에 안간힘을 쓴다.

관성이 나를 극한다는 것은 나를 지배한다는 것과 같다.(극은 지배하다, 다스리다, 좌지우지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주종관계에서 주인의 역할이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사회이며,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 관청, 공무원이다.
국가는 관념적인 개념이고, 관청은 국가의 행위를 하는 곳이며,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관성은 국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명령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왕)나 관청, 공무원(관리)이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나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데, 명령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영화를 보면 사형수나 곧 죽을 사람에게 구덩이를 파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죽어서 묻힐 구덩이를 파는 것이다.
그리고는 구덩이 앞에서 눈을 가리고 서게 한다.
그리고 총살을 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구덩이를 파지 말고 달려들어 싸우는 것은 안 될까?
물론 희박하겠지만 싸워서 이긴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집단총살 장면이라면 단체로 달려들다 보면 누군가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살아 도망도 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잠시 후 죽을 목숨이라도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혹시..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사형집행을 중지하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다.
'만약 달려들어 싸우면 정말 죽을 수도 있자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싸움이 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죽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 돌격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에서 소대장이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죽는 것보다는 앞으로 돌격하다보면 운 좋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체는 생명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명령이다.
명령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관인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명령으로 다스린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내라고 할 때 고지서가 오는데 그것이 명령인 것이다.
또한 소송이 걸려 출두 하라고 할 때도 명령을 내린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내린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국가만이 가능하다.

회사가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직원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형벌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내린다.
이론상 국적을 포기하면 국가가 형벌을 내리지 못하지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국적포기를 하지 못한다.

국가는 강제로 국민을 잡아두고 있다.(그래서 관문을 두고 출입을 감시한다)

그 이유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국민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국가는 스스로의 방어기전에 의해 국민을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나라를 다스린 유명한 사람이 삼국지의 '유비'다.
반대로 명령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조조'가 될 것이다.
삼국지의 유비와 조조는 나라를 다스리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명령으로 나라를 다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은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천하가 혼란할 때는 명령이 더 효과적이고, 반대로 천하가 태평할 때는 자비가 더 효과적이다.
천하가 혼란한지, 태평한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혼란하려면 최소한 변란이 있어야 한다.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는 또 다른 예는 종교다.
지금도 종교가 통치의 수단이 되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국가가 그러한 예다.
국민이 어떤 종교에 깊은 신앙심을 가진 나라가 있다면, 그러한 나라는 명령보다 종교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역사적으로는 서구의 중세시기도 마찬가지다. 교황의 힘이 왕보다 더 강했다.

그렇게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법을 초월한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삼국시대 '소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소도는 죄인이 도망쳐 들어와도 잡지 못하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는 종교가 법을 이기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도 절이나 성당에서 정치적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종교건물이나 땅이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전통적인 풍습인 것이다.

간혹 종교적인 신념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일도 가능하다.

정관은 세속의 세계이고, 편관은 다른 세상을 의미한다.
명령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세속이 아니던가.
반면에 편관은 종교적인 세계이므로 현실의 세상이 아닌 저세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상향일 수도 있고, 저승일 수도 있는 것이다.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관이 강할수록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편관이 강할수록 비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정관(正官)	편관(偏官)
유지	창조 / 파괴
법, 질서를 유지(중시)한다.	법, 질서를 창조(무시)한다.
서열(계급)을 중시한다.	서열(계급)을 무시한다.
산을 좋아한다.	바다, 평지를 좋아한다.
지배층, 기득권층	피지배층
관료 지향적	기술, 예술, 의술, 학문, 철학 지향
관리직 취업	기술관료. 기능직 취업
강자에게 아부한다.	강자에게 맞서 싸운다.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단계적 지위상승	창업, 낙하산 취임.
대기업, 공사, 공무원 선호	전문직, 기술직 선호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뒤끝 있음)	한번 싸우고 끝낸다.(뒤끝 없음)
보수주의(변화를 원치 않음)	진보주의(변화추구)
정통관료로 승진(고위직)	권력직으로 승진(하위직)
투쟁의 방법은 중상모략	투쟁의 방법은 육체적 싸움
중앙집권 선호	권력분산 선호
보기에는 의젓하지만 악날, 치졸	보기에는 험악해도 대범, 호탕
주류인생	비주류 인생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명사/부자)	역경을 이겨낸 자(위인/달인)

2)식상(食傷)

식상은 관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오행이다.
식상은 일간의 오행이 생(生)하는 오행을 말한다.
식상은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일간의 음양과 같은 오행을 식신이라고 하고, 일간의 음양과 다른 오행을 상관이라고 한다.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에 일간과 음양이 같은 오행을 식신이라고 하는데 식신의 한자는 의미가 흥미롭다.
식신(食神)은 먹는 귀신이란 뜻인데 식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아마도 식신운이 들어온 사람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강함이 요구되는 것이니, 이는 힘을 쓰는 것을 말하고 또한 싸워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또한 먹는 것은 맛을 의미하기도 하니 식신이 강한 사람은 요리를 잘하거나 미식가인 경우도 많다.

관성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회이고 이를 구체화시키면 국가가 되는데, 국가는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진 막강한 조직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보다 강력하며 최상위에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러한 관성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식상이다. 국가도 식상에게는 꼼짝 못한다는 것이다.

식상이 관성을 극한다 함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고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국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국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감히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변란이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나라도 변란에 의해 망할 수 있고, 망해가는 나라도 변란에 의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변란이 일어나면 국가의 지배층이 바뀌고,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도 바뀌며 국가를 지탱하는 공무원들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역사에 나오는 모든 반란, 혁명, 전쟁 등이 모두 식상인 것이다.
그런 것에 의해 국가가 요동치고 지배세력의 교체가 일어나며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그에 따르는 제도, 법률 등이 모두 급격한 변화를 맞는 것이다.
식상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을 가졌다.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식상은 역사적으로 큰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에도 늘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현대에는 그렇게 선거에 의해 국가의 권력층이 바뀌고, 국가의 이념이 바뀌고, 제도가 바뀐다.
선거는 단지 피를 보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

공무원은 정관이어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다.
관청에 가면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자이고, 법은 백성을 단속하는 근거이고 수단인데 그러한 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무원은 지극히 권위적이고 백성을 힘으로 누르는 자가 맞다.
사회적 지위가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도 꼼짝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거다.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선거인 것이다.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자기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 심지어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 구청장만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이다.
선거철이 되면 공무원들은 삼삼오오모여 '이번에 누가 될 것 같냐?'며 수군대는 일이 많다.

상관은 정관을 극하고, 식신은 편관을 극한다.(극한다함은 다스리고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관성이 관료라고 할 때 정관은 문신(文臣)이라 할 수 있고, 편관은 무신(武臣)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을 극하는 것은 상관이고, 편관을 극하는 것은 식신이 된다.

정관을 극한다 함은 문신를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싸움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문신은 머리로 싸움을 하고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 당쟁 같은 당파싸움이 그러한 싸움이다.
그래서 상관은 머리로 하는 싸움이고 그것이 중상모략이다.

반면에 편관을 극하는 식신의 싸움은 몸싸움을 말한다.
장수가 들판에서 머리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는가. 장수의 싸움은 칼싸움이다.
그래서 식신은 몸으로 하는 싸움이고, 피를 보는 싸움인 것이다.

역사에서 보면 문신들은 중상모략을 통한 당파싸움을 하고 이기면 정권을 잡고, 지면 귀향을 간다.
귀향이란 일종의 벌로써 먼 곳의 한적인 시골에서 외로이 갇혀 지내는 것을 말한다.
사극에서 귀향을 가게 되면 외딴 초가집에 울타리가 쳐져있고, 그곳에서 감시받으며 외부와 소통이 단절된 체로 몇 년을 지낸다. 주인공은 이제나 저제나 다시 왕의 부름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이 또한 상관의 모습이다.

상관은 은둔을 하려는 성질을 가진다.
은둔이란 한적한 곳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모습을 말한다.
산속이나 시골에서 조용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주의 상관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은둔을 하는 사람은 세속의 것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

상관은 중상모략이어서 권력을 잡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다 정치인은 아니다.
그런 경우 머리싸움에 능하니, 송사를 말하기도 한다.
송사는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지만, 아주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송사가 있다고 친다면, 보통 송사는 맞고소도 많다.
서로가 자신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주장한다.
이때 판사는 사건의 당사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제 3자다.
따라서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판사는 오로지 문서로서만 사건을 파악하고, 문서로서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할 뿐이다.
따라서 누가 판사를 잘 속이는가가 재판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유능한 변호사란 판사를 잘 속여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다.
반면에 무능한 변호사는 그러한 일을 잘 못하는 변호사다.

대형로펌에 있는 변호사라고 다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혼자 영업하는 변호사 중에서도 그러한 일을 잘하는 변호사도 많다.

본래가 진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진실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싸움이 송사인 것이다.

가끔 송사의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호소하지만 송사가 불리해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싸움의 승패는 운에서 결정 나는 것이지, 정의(正義)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은 무심(無心)하다.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약한 인간일 뿐이다.

식신은 몸으로 하는 싸움인데 그러한 싸움은 보통 운동선수의 싸움이다.
각종 스포츠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몸으로 부닥쳐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던가.
그리고 그러한 운동에는 기술이 있다.
씨름도 그저 상대방의 샅바를 잡고 넘겨 쓰러뜨리는 단순한 경기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 십 가지의 기술이 들어있다. 따라서 식신은 육체적 강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의미도 있다.

기술은 전통적으로는 손기술을 기술이라고 한다.
기술자 하면 손재주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주에 식신이 강하면 손재주가 좋아서 뭘 잘 만든다. 손으로 하는 일에는 강점이 있다.
종이접기라든지, 목공기술, 뜨개질, 그림 그리기 등 손으로 하는 것은 다 잘한다.
자전거 수리, 전기공사, 배관공사, 옷 수선, 미용사 등등.. 보통 기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식신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살다보니 일거리가 없어 노는 사람이 드물다.
세상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대단히 많지 않은가?
가장 왕성한 활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생활력이 강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어딜 가도 일자리가 없어서 논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강하니 육체노동에서도 강점이 있다.

식신이 강하면 특히 근력이 강하다.
삐쩍 마른 체구를 가졌다 해도 힘쓰는 일은 주저하지 않으며 보기보다 많은 힘을 쓴다.
그리고 그러한 재주로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기술 분야의 자격증은 대단히 많다.
식신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기술로 충분히 먹고살아가는 능력이 있으니 어딜 가서도 굶지는 않는다.
식신(食神)이라는 뜻이 먹는 귀신 아니던가.

반면에 상관은 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연구를 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잘 살펴보고 연구를 잘해 발명을 한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특허로 이어진다.
발명특허, 의장등록, 실용신안 등 특허와 관련된 재능은 모두 상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변리사다. 세상에 상관없는 변리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리사 자체가 연구개발능력이 있기 보다는 그러한 일을 취급하기 때문이다.)
조사, 연구의 재능으로 살아가는 직업이 연구원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적하고 외딴곳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이 연구소다.
연구라는 것이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보다는 조용하고 외딴곳에서 잘 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 은둔과 같다.
또한 식신이 손을 써서 만들어내는 행위라면 상관은 머리로서 그려내는 것이니, 설계, 디자인 같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건축설계나 디자인분야에서는 상관인 필수다.
디자이너 중에 상관없는 디자이너 없다.

상관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인데, 머리 쓰는 일에 자격증을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는 한 번에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술이라면 자격증이 있으므로 기술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이유로 보통 학력을 따져보는 것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머리가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다.
만약 기술자를 구하는 모집에서 학력을 따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기술자를 뽑는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식신은 장수의 싸움인데 그래서 칼싸움을 말하니 격한 투쟁을 의미한다.
폭력배의 싸움도 그러한 싸움이고 그것을 제압하는 형사의 싸움도 그러한 싸움이다.
그래서 폭력배나 형사나 모두 식신이 있어 격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식신이라는 측면에서는 폭력배나 형사나 같지만 다만, 형사는 관운이 있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폭력배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다.

식신은 칼로 하는 싸움이니 식신이 있으면 칼을 잡을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의사도 칼을 사용한다.
의사는 수술할 일도 많고 사람의 몸을 칼로 째로 꿰매고 하는 혐오스런 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의사의 사주에는 식신이 있다.
만약 식신이 없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이며,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된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칼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니 푸줏간 주인은 식신을 가진다.
그 외에 요리사도 칼을 만지므로 요리사가 되려면 식신이 있어야 한다.
간혹 음식점에서 직접 칼을 잡지는 않고 맛만 내는 요리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식신이 없을 수 있다.

식신이 칼로 싸우는 자라면 상관은 펜으로 싸우는 자다.
펜으로 싸운다는 것은 글로써 싸우는 것이고 그러한 대표적인 자가 바로 기자(記者)다.
기자의 임무는 단순히 빠른 소식을 전해오는 정보의 전달자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 정보를 분석하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담는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써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기도 한다.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신문의 사설이나 TV뉴스에 시사 논평을 하는 정치평론가들도 기자출신이 많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상관은 근본이 중상모략이다.
기자는 상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중상모략이 발동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기자를 하면서 비리를 탐지하고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광고를 강매하기도 하고 사적(私的)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기자는 그러한 일을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성공하면 정관(正官)을 얻어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겠지만 실패하면 정관을 잃어 직업을 잃고, 명예가 손상되며 외국으로 피신하거나 감옥에서 쓸쓸히 지내기도 쉽다.

식신과 상관은 이동수로도 나타난다.
장수가 싸움을 하는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는 멀리 떠나지 않는가.
또한 문신이 당쟁에 패해서 귀향지로 가는 것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식신과 상관은 떠남에 있어서도 의미가 다르다.
식신의 떠남은 목표를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상관의 떠남은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귀향을 감에 있어 처자식, 살림살이를 가지고 떠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식신은 몸으로 하는 행위이니 이것이 곧 수행이다.
수행은 심신을 수련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도사(道士)다.
보통 도사들은 도사들끼리 모여 노닥거리는 것을 좋아하는데(도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니 세속의 이야기보다는 신변잡기를 더 즐긴다) 도사들은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온갖 재주가 많다. 한마디로 재주꾼들이다. 그러한 이유가 식신 때문이다.

식신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사는 끊임없이 배우다보니 온갖 것을 다 배워 할 줄 아는 게 많다. 박학다식의 표본이다.

그러면 도(道)는 언제 이루나?
도를 이룬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충분히 깨달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데 안타깝게도 도사는 깨우침 적다. 배우기만 열심히 배우는 게 바로 도사인 것이다.
그래서 도사라고 하면 많이 깨우친 자 같지만 실은 배우기만 열심히 배우는 자다.
그러다 보니 스승도 많다.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 스승도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스승이 많다는 이야기는 스승을 잘 바꾼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승을 잘 바꾼다는 것은 잘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를 많이 따져본다는 것이고, 못 가르치면 새로운 스승을 찾아 다시 떠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도사는 깨우침보다 배우는 일로 더 바쁘다.

도사가 수행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인데 반해 상관은 수행하지 않아도 깨우친다.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종종 사람의 몸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무당이다.
그러나 무당만이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당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보통 빙의되었다고 말한다.
귀신이 들어오면 어느 날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무술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무술을 하게 된다든지, 평소 춤을 못 추던 몸치가 춤을 기가 막히게 춘다든지, 배우지 않은 악기도 능숙하게 다룬다든지, TV에 종종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되었다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인 것이다.
그렇게 상관은 배우지 않아도 귀신의 능력으로 마치 배운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익힌 능력이 아니므로 귀신이 떠나면 그 능력은 다시 사라지고 만다.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생겨났나?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도 있을 것이다.
진리 2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다.
세상에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은 없으며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귀신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수행을 하던 도사가 죽어서 영혼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다.
때로는 도사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다. 종류는 아주 많다.
생명체가 죽으면 영혼도 잠들어야 하는데 잠들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도사와 귀신은 적대적이다.
도사가 사람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
도사는 귀신과 싸우는 것이다.
하지만 도사와 귀신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는 아니다.
도(道)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보완하는 두개의 날개이듯, 도사와 귀신도 서로를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이니 서로 균형을 잡아야만 한다.

그리고 도사와 귀신은 편관(偏官)의 세계에 존재한다.
이세상과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식신이 있어 도사가 되고, 상관이 있어 신끼가 있다 해도 편관이 있어야만 진정한 수행으로 도사와 무당이 될 수 있다. 정관이 있다면 그저 흉내만 낼 뿐이다.
정관은 세속을 버릴 수 없으니 어찌 도사(道士)와 신(神)을 이해 할 수 있겠는가.
정관은 지극히 세속적인 인간의 삶이다.

식상은 관성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압하거나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럴 경우 식신은 편관을 제압하는 것이고, 상관은 정관을 제압한다.
편관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비(慈悲)와 덕(德)이다.
자비와 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므로 마음으로부터 따르게 만든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하다. 대신 죽어주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는가?
이때 자비와 덕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자비와 덕을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베푸는 것이다. 이를 테면 기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식신이 강하면 남에게 잘 베푼다. '기부천사'는 식신이 강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무자비(無慈悲)라고 한다. 무자비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다.
식신으로 무자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화가 나면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순하던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서운 것이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은 화가 나도 그리 무섭지 않다.
그러나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이 화가 나면 무섭다. 폭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바로 자비에서 무자비로 변하기 때문인 것이다.
식신이 강한 사람은 잘 베푸는 사람이지만 화가 나면 주먹을 날린다.

정관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명령이다.
명령의 수단은 법이다.
즉, 정관은 법으로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때 법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이 상관이다.
법을 무력화 한다는 것은 편법을 통해 법치를 피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TV뉴스에 불법퇴폐업소의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기자는 잠입취재를 하고 나중에 단속 경찰에게 왜 단속을 하지 않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경찰은 신종영업이므로 단속근거가 없다고 한다.
경찰은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관이 정관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명령(無命令)이라고 한다.
편관은 잘못되면 무자비가 되어 폭력이 난무하지만 정관은 잘못되어도 무명령에 그친다.

상관은 이렇게 정관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법을 농단할 수 있으며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면 사기죄가 된다.(사기는 가진자에게 치는 것이다) 반대로 식신이 편관을 제압하는 것이 범죄로 나타나면 폭행, 상해 죄가 된다.(폭력은 자비로운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식상은 자식의 일을 말하기도 한다.
식상이 자식인 이유는 관성이 나를 극하니 그 결과로서 내가 식상을 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자식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것이다.
그러나 식신이 조금 더 자식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면 나는 비견이고 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이다.
(극과 생은 음양이 같은 경우가 연관성이 더 강하다)
그런 이유로 식상이 강하면 자식의 일이 많이 일어난다.

자식이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하고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고 떠받들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성인임에도 유치해 보이기도 한다.
식상이 강하면 성격은 늘 명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동심에 젖어있다.
그러한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어린아이는 세상물정에 어두우니 남에게 이용당하기도 쉬운 것이다.

식상이 어린아이처럼 대우를 받으니, 식상이 강하면 어린 시절 부유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철부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남의 꾐에 잘 넘어가 몰락하기 쉽다.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은 배우는 일이다. 뭘 가르쳐주면 금방 습득한다.
이때의 배우는 것은 학문을 익히는 것은 아니다.
학문은 근본적으로는 깨우침을 위한 마음의 수양이다. 단순하게 배우고 익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린아이가 배우는 것은 그러한 고차원적인 학문이기 보다는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생존수단과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이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인생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 학창시절에 대체로 공부를 잘한다. 특히 대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오면 더욱 그렇다.
상관은 궁리를 하는 일에 능하니 수학, 과학 과목에 재능을 보인다.

식신은 이동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장수는 싸워 이기기 위해(전공을 세워 명예를 얻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 나가지 않는가.
즉, 식신은 관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상관도 이동수를 말하기는 하나 식신과 달리 상관은 목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죄를 짓고(명예를 잃고) 귀향지로 가야하니 살던 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즉, 상관은 관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식신이 중단되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는 것이고, 상관이 중단되면 벗어나고자하나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관성은 여자에게 남자를 뜻하는데 식상이 관성을 좌지우지 하니 여자는 식상으로 남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상이 강할수록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강하고 이것을 보통 남자를 휘어잡는다고 한다.
이때 식신은 몸이나 행동으로서 적극성을 띠게 되며, 상관은 계략을 써서 적극성을 띠는 것이다.

식상이 강한 여자일수록 남자에게 접근하는 능력도 강하고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가 남자를 사귀는 것은 사실 매우 쉽다. 먼저 여자 쪽에서 적극성을 띤다면 어렵지 않게 여자는 남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자에게 식신은 남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되고, 상관은 반대로 남자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된다.
그래서 식신이 강한 여자는 남자를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상관이 강한 여자는 남자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관은 궁리를 의미하니 때로는 여자가 머리를 써서 남자를 잡으려한다면 그것은 상관의 능력이다.

식상은 자식을 의미하는데, 여자에게 관성은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자는 자식이 남자(남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여자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그것으로 인해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또한 뱃속의 아이는 남자의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자는 권력, 명예, 부를 얻기도 한다.

상속권은 전통적으로 남자집안의 대를 잇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왕조시대에는 왕의 아이를 가지면 그 여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아이는 태어나서 왕의 계보를 잇는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왕의 아이를 가지면 권력, 명예, 부를 얻게 된다. 여자가 식상으로 관성을 얻는 좋은 예다.

상속의 문제는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재벌 집에 혼외자식이라도 생긴다면 나중에 큰 재산을 물려주어야만 한다.
만약 혼외자식 외에 본처에게서는 자식이 없다면 혼외자식이라도 가업(家業)을 고스란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핏줄이라는 것이 때로는 대단한 힘을 가진다.

식상은 여자에게 결혼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애가 딸린 이혼녀나 과부가 재혼을 하려면 자식(식상)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것을 합(合)이라고 한다)
만약 자식이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면 여자는 재혼하지 못한다.
그러나 남자는 다르다.
남자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재혼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주위사람의 동의를 구하거나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겁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식상은 이동수라고 했는데 본래 여자에게 이동수는 고달픈 일이다.
왜냐하면 이동이란 움직이는 것인데,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본래 정적인 존재다.
그러한 존재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이 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덜 움직이고, 같은 거리를 움직여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다.
식신은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는 움직임인데 만약 거리가 멀면 여자는 그만큼 힘들어 한다.
그래서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야지, 여자가 남자에게로 가면 그 만남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그러한 이유로 서로 사귀던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먼 곳으로 떠나면 여자는 매우 불안해한다.
일단 자기가 남자에게 가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남자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더 바래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멀리 간 남자는 자주 찾아오지 않고 새로운 남자가 자꾸 찾아오면 새로운 남자에게 넘어가기 쉽다.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라고 한 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늘 '짠!' 하고 나타나주기 바라며 설령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넘어가게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식신 때문인 것이다.
'남자가 군대에 가면 여자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도 같은 이치다.
여자는 이동에 취약하다. 먼 지방으로 군대 간 남자친구의 면회를 가는 것은 여자에겐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군대 간 애인은 쉽게 헤어지게 마련이다.

남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 성사된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남자는 서울에 살고, 여자는 춘천에 살았는데 남자가 주말마다 춘천으로 가서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국 결혼했다고 하는 커플이 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당히 먼 거리에 여자가 살아도 그 여자가 좋다면 남자는 달려간다.
하지만 그 반대는 성사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남자가 멀리 산다면 여자는 포기하게 되고, 쉽게 자기 앞에 나타나주는 남자를 선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또한 스토킹에서도 마찬가지다. 여자를 쫓아다니는 남자스토커가 있다면 그 여자는 멀리 이사를 가도 남자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남자를 쫓는 여자 스토커가 있다면 남자는 멀리 이사 가면 쉽게 여자를 뗄 수 있다.

상관	식신
은둔을 위한 이동(버리고 떠나다)	활동을 위한 이동
은둔	
궁리(연구/중상모략)	행위(육체적 움직임), 기술
정신적 방황	
귀신	도사
남자(남편)과 멀어지다.	남자를 향해 달려가다.
머릿속의 설계(디자인/작곡)	보여주는 행위(미술)
머리싸움(소송/모략)	몸싸움(형사사건)
	사고(신체적 사고/혐오스런 일)
감시, 조사, 연구	칼(권력)

3)인성(印星)

인성의 인(印)자는 도장을 의미한다.
과거에 사주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나를 생하는 오행의 이름을 지을 적에 인성이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인성의 운에는 도장을 많이 찍어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도장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도장은 보통 문서에 찍는다.
그런데 왜 도장을 찍을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그 문서의 내용을 썼거나, 또는 읽었거나 해서 확인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떤 문서에 내 도장이 찍혀있다면 그 문서는 내가 모르는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재판에서 내 도장이 들어간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는 내가 부정하지 못한다.
(물론 도장을 위조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
만약 잘못되어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나는 그것에 관해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랬다 해도 그것은 본인이 부주의했을 뿐이고 전적으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장이 들어간 문서는 재판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누가 증인으로 나서서 도움의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혹자는 도장이 없는 서양에서는 어떡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도장이 없는 서양에선 싸인(Sign,署名)이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우리도 요즘에는 도장보다 서명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매번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또 도장이라고 위조가 안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도장은 인정(認定)의 문제다.
또한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남들도 도장 찍은 본인이 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보증(保證)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인이 나서서 확인을 해주지 않아도 그 도장을 보고 제 3자가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도장은 책임(責任)의 문제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만약 잘못되면 도장 찍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본래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무는 것인데, 도장이 찍혀있으니 그 행위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까지 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돈에는 '한국은행총재' 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만약 그 돈이 잘못되면 한국은행총재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보증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은행총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은행총재는 국가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반면에 어음이나 수표는 해당 금융기관의 장의 도장이 찍혀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도장은 허가(許可) 또는 승인(承認)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도장 맡아야 돼' 라는 말을 종종 한다.
도장을 맡으면 '~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한 것이 바로 허가 또는 승인인 것이다.

도장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도장을 찍는데, 도장은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가진다. 즉, 도장을 찍어야만 비로소 문서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은 뭔가를 만들어 내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형태를 가진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관념상의 것일 수도 있다.

이를 테면 회사를 설립할 때도 도장을 찍는데, 회사란 것은 관념상의 존재이지 실체로서의 물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도 같은 관념상의 회사일 뿐이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는 '유령회사'라고 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가짜회사다.

인성이 만들어 내는 것일 때 정인은 안쪽을 향하고, 편인은 바깥쪽을 향한다.
그 이유는 음은 안으로 향하고 양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편관,식신,편인,편재,비견은 양이고, 정관,상관,정인,정재,겁재는 음이다.)

정인이 안쪽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내적인 수양을 뜻한다.
내적인 수양은 학문을 닦는 것이다. (학문은 마음을 닦는 수양이 아니던가)
편인이 바깥쪽을 행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남을 돌보는(Care) 것을 말한다.

또한 인성이 만들어 내는 것일 때 그것은 양육을 말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정인은 어머니를 의미한다.
나를 만들고 기른 것은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육친상으로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일 수도 있다.
진화론적, 인류학적으로 살펴보면 자식을 기르는 것은 어미의 역할이다. 애비는 단지 씨만 뿌릴 뿐이다.
지금도 그러한 사회가 존재하며 그런 사회를 모계사회(母系社會)라고 부른다.
한때는 모계사회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여자의 힘이 강해서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집안에서도 엄마의 권위가 강하고, 사회적으로도 남녀평등이 잘 되어 잇는 사회가 모계사회인가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모계사회는 남자의 대(代)를 잇지 않는 사회가 모계사회다.

모계사회에는 일부일처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결혼은 사회가 만든 제도다)
남녀는 동물처럼 그냥 짝짓기만 할 뿐이고, 아이가 생기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양육한다.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면 아이를 부모에게 빼앗아 사회의 책임아래 마을에서 아이를 길러주는데, 그런 제도는 어린이는 사회의 소유라는 개념이며 모계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런 식의 짝짓기를 하므로 당연히 엄마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인류는 문명이 발달하기 전까지 그러한 풍습을 지녔는데, 문명의 발달과 함께 가부장제도가 형성되면서 일부일처제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아이에게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주게 된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수 백 만년이라고 할 때,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어 아버지의 성씨를 자식에게 따르게 한 것은 불과 만년이나 되었을까 모르겠다.
아직도 인류에게는 과거의 원시부족의 풍습이 남아 있다.
특히 도덕에서 금기하는 불문율이나 제도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장애물인 경우가 많다.
문명은 인류가 깨닫지 못하는 영역에서 인류를 지배하는 마치 고등생명체와 같은 존재다.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엄마의 역할은 강하지만 아빠의 역할은 미미하다.

육친론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지로도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아빠의 역할보다 훨씬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빠는 그저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는 기계와 같은 존재다.

근본적으로 남자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의 방어도 해야 하고 때로는 전쟁으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한다.
반면에 여자의 사회적 역할은 생산수단이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장만해야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종족을 보전하는 것이 그 역할인 것이다.
보통 농사는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농사는 여자의 몫이다.
시골에서 밭일하는 사람을 보라. 남자가 더 많은가? 아니면 여자가 더 많은가? 여자가 더 많다.
가끔 TV에서 아프리카나 남미의 원주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곳에도 여자들이 밭에 나가서 풀뿌리를 캐고 밭을 일군다. 남자는 그저 사냥만 할 뿐이다.

정인이 안으로 향해서 내면을 기르는 문제라면, 편인은 밖으로 향해 남을 돌보는 문제다.
남을 돌본다는 것은 영어로 치면 'CARE'다.
편인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한글보다는 영어로 'CARE'다.

한글의 문제점이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양하지 않고 함축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편인의 의미를 한글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뜻은 없고, 영어로는 놀랍게도 완전하게 표현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CARE' 인 것이다. 'CARE'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나마 '돌보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 편인이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편인이고, 비서가 되어 사장님을 보좌 하는 것도 편인이고,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것도 편인이고, 건물을 청소하는 것도 편인이다.
영어로는 모두 'CARE' 인데 한글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한글에는 대단한 장점이 있다.

인류의 문명은 곧 중국의 역사인데, 한자(漢字)는 기계화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인류의 문명을 이끌고 있는 것이 컴퓨터다.
그런데 컴퓨터의 입력수단은 키보드이고, 키보드는 영어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중국이 비록 15세기까지 인류문명을 이끌어왔지만, 서양에서 컴퓨터라는 기계를 만들어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대단한 인류문명을 쌓아왔지만 더 이상 그들의 방법으로 문명을 이끌지는 못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글이 영어처럼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즉, 한글은 기계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때 중국에서 한글을 빌어서 쓸까 고민했다고도 한다.
한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은 아주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한글을 입력할 수 있다. 심지어 영어보다도 빠르다.
핸드폰에 한글을 입력하는 것은 영어보다도 빠르고 쉽지 않은가.
이것은 대단한 강점이다.
문명을 이끄는 수단인 컴퓨터와 가장 친한 것이 바로 한글이니, 한글을 쓰는 민족은 문명에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자손들의 미래를 밝혀준 것에 정말로 고마워해야 한다.
한글은 그렇게 위대한 것이다. 인류문명의 최대의 업적이자 유산이라 할 만 하다.

인성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은 편인이다.
바깥으로 향한다는 것은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것과 같다.
즉,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허가나 승인은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편인은 허가, 승인을 요청하는 의미이고 또한 자격에 관한 문제를 뜻한다.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지원(Apply)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나는 ~할 능력이 있다. 그러니 하게 해 달라' 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바로 계약서이다.
그래서 편인은 계약 또는 계약서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계약서는 경력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편인은 이 부분에서 다양한 의미가 나온다.
지원하다, 계약하다, 자격, 경력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다.

정인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편인은 남에게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당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인이 강한 사람은 당첨이 잘되니 뽑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잘 뽑힌다.
잘 뽑힌다는 것은 예쁘게 보인다는 것과도 같다.
자신은 별로 치장을 한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쁘게 보이니 옷맵시도 좋고, 스타일리쉬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뭘 만들어도 만든 것이 예뻐 보인다.
예쁘게 꾸미는데 재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장도 아주 잘한다.
그래서 신부화장이나 실내인테리어나 선물포장 등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편인이 강한 사람은 예쁘게 꾸미는데 별로 관심도 없을뿐더러 뭘 만들어도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예술과는 별로 관계는 없다.
예술작품은 반드시 예뻐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상화나, 전위적인 작품은 그다지 예쁘지는 않아도 충분히 예술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능력은 좋으니, 표현력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소설, 시, 희곡 등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한다.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는 편인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말도 아주 설득력이 있게 잘 한다.
영업사원의 일이라면 아주 잘하는 것이 바로 편인이다.
정인이 당첨이 잘되는 반면 편인은 당첨이 전혀 안 된다.
예를 들어 제비뽑기를 하면 정인은 좋은걸 아주 잘 뽑지만, 이상하게도 편인은 못 뽑는다.
복권이나, 상품권, 또는 사은품행사에서 당첨되는 것은 정인의 특권이다.

정인은 글을 아주 예쁘게 쓴다.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많고 보기가 좋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정인이 쓰는 이력서는 매우 훌륭하다.
또한 보고서도 아주 잘 쓴다.
그런데 글로써만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능력은 없지만 글만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능력은 좋은데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다.
정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정인은 가만히 있어도 예뻐 보이는 사람인데, 그것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인은 능력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우수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익을 본다.
회사에서 승진이 잘되는 것도 정인 때문이다.
정인이 있으면 남녀불문하고 예뻐 보이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때깔도 희고 외견상 좋아 보인다.
그것 때문에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출세의 기회를 쉽게 가지는 것이다.
거기에 정관까지 가지고 있어 아부를 잘하고 성격이 보수적이면 출세하는 데는 금상첨화다.

정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남에게 인정을 쉽게 받는 것이 과하면 오해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인정이 과하면 찍힘도 잘 당한다. 그래서 왕따를 잘 당하기도 하고, 질투나 시기를 잘 받는다.
부부간에 일어나는 의처증, 의부증은 모두 정인이 과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입술에 루주라도 칠하면 남편은 부인이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범인이 아닌데도 경찰에서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기도 쉬운 것이다.

반대로 편인은 예쁘게 꾸미는데 재주가 없다.
이력서나 보고서도 예쁘게 쓰지 못할뿐더러, 외모도 그다지 준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윗사람의 눈에 띌 수가 없으니 '나 능력 있어요!' 라고 자꾸 들이미는 것이다.(이 부분의 한글 표현이 적당하지가 않다. 영어로는 Apply라는 의미가 정확하다. 굳이 우리말로 말하라면 '들이밀다' 가 가장 적당하다)
사실은 편인이 능력자가 맞다.
다만 예쁘게 꾸밀 줄을 모르니 타인에게나 또는 윗사람에게 예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게 바로 세상인 것이다.

편인은 능력을 보여도 인정받기 어렵다. 인정받는 것은 정인의 몫이 아니던가.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편인이다.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따진다는 것이고 눈이 높다는 것이다.
편인은 그래서 조건이 까다롭다. 이런저런 말이 많다.
'그냥 주면 주는 데로 먹지 뭔 말이 많아..'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편인이다.
그래서 여자가 편인 많으면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자도 여자를 보는 눈이 높아서 연애가 쉽지 않다.

반대로 정인은 눈이 높지 않고, 조그마한 기쁨에 만족한다.
TV에 한때 유행했던 '만원의 행복'은 정인의 이야기다.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정인이다.
그리고 정인의 입에는 정말로 감이 떨어진다.
하지만 자기가 먹고자하는 감은 따먹지 못하니 떨어지는 감만 받아먹을 수 있을 뿐이다.

편인은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도 감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감을 따 먹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을 견딘다면 크고 맛좋은 감을 따 먹을 수 있다.

편인은 상대방에 대한 어플라이(Apply)와 캐어(Care)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게 된다.
편인이 지나치면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거나, 정치인으로서 강한 정치적 신념으로 대중을 이끌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개념인 '민주주의'를 종교적 신념화 했던 정치인이었다.
어떤 사고나 사상을 '신념화'해서 목숨과도 바꾸는 사람은 모두 편인이 강한 사람들이다.
종교적 신념이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종교는 편관인데 그 둘이 결합(편인+편관)하면 죽음도 불사한다.
때로는 그러한 신념이 징크스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버릇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는 그래야만 타격이 잘 된다고 믿는 것이다.

정인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므로 이것이 학문이고 공부가 된다.
학문이란 마음의 수양이지 않은가. 그리고 학문을 쌓는 것을 공부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정인이 강해야 학문이 닦인다.
종종 정인이 없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식신이 강한 것이고, 그는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마음을 닦는 면은 부족한 것이다.

정인이 강해야 선생님을 할 수 있다.
선생님은 인격수양을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선생님은 초, 중, 고등학교의 선생님을 말한다.
정인은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므로 정규직선생님을 말하기 때문이다.
종종 학교선생님인데 편인을 가진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계약직 선생님인데 요즘은 학교에도 계약직 선생님이 있는 경우가 많다.

편인은 남을 가꿔주는 것이므로 자신의 인격수양과는 거리가 멀다.
즉, 사회에서 필요하거나 써먹기 위한 공부가 된다.
그러한 공부는 자격시험, 입학시험, 학위를 위한 시험, 승진을 위한 시험 등 학문을 탐구하는 공부보다는 사회활동에 필요한 공부를 말한다.

편인이 강해도 선생님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선생님은 학원선생님이다.
학원선생님은 인격을 길러주거나 마음을 수양시켜주는 선생님이기보다는 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편인은 계약서를 말하므로 계약직 선생님이 된다.
학원선생님은 계약직 아니던가.
만약 학원선생님이더라도 정인을 가지고 있다면 무기한계약(無期限契約)을 하거나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선생님이다.

세상에는 허가증,면허증,자격증,계약서,보증서,인증서,학위증 등 각종 증서가 많다.
이러한 것을 보통 문서라고 하는데 문서는 정인과 편인으로 구분된다.

정인의 문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문서이니 외부에서 나를 인정한 문서가 된다.
나를 인정했다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내가 당첨되는 경우다.
그러한 경우가 허가이므로 허가증이 된다.
예를 들면 관급공사가 있어 나는 관청에 견적서를 넣고 도급을 신청하면 관청은 심사를 한 연후에 내가 적합하면 나에게 허가를 내준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시험을 보고 그것에 대한 자격을 획득한다면 그것은 자격증이다.
자격증의 경우는 심사하는 쪽에서는 나를 모른다.
나는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기만 했을 뿐이고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나에게 무조건 자격을 부여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증서의 종류는 이렇게 딱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허가증이니, 면허증이니, 자격증이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의 증서가 있다.

의사는 면허증을 주는데 사실은 자격증이라고 해야 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의사나 변호사를 그 사람을 알아서 뽑지는 않는다.
일정 요건(의대나 로스쿨)을 갖추었으므로 그냥 발급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와 변호사를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 면허증이라는 용어는 자격증이란 용어보다 격(格)이 높아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학위증은 정인이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증은 자격증은 아니다. 자격증은 뭘 하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얻는 증서인데, 박사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증서이지 박사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박사학위증 소지자만 입사가 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일에 관해서 편인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허가를 맡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일종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영업을 하려면 가게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요건의 충족이만 말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청에서 유흥업소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운에서 정인이 나타나면 허가사항이고, 편인이 나타나면 자격사항이기 때문이다.

용어는 비록 면허증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격의 문제일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상이 어디로 가는 것을 의미할 때 인성은 식상을 극하니,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즉,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는 인성에 딸린 일이라는 것이다.
어딜 가는 것에 대해 갈지 못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KTX를 타고 간다고 할 적에 이것이 없으면 못 간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자 할 때도 이것이 없으면 못 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티켓이다.
제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설령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어도 이동허가서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관문에서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동허가)은 사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국가의 법이다.
국가는 원초적으로 영역에 관해 울타리를 치고 있다.
이것은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근본인 백성이 국가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즉, 어떤 영역에 들어오거나 나가려면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다.
만약 허가를 얻지 못한 체 들어가면 영역침범이 되는 것이고 즉시 싸움이 일어난다.
그것이 국가간의 전쟁이다.
지금이야 여행이 자유이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본래 국가는 백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관문마다 병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반드시 입출의 목적을 확인한다.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은 신분과 이동의 목적을 확인하고 승인받은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이다.
바로 그 승인이 인성인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인의 여권을 빼앗는 일이다.
그래야만 부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씁쓸한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식상이 자식을 의미할 때 인성은 그 자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자식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자식이 올바로 성장해서 훌륭한 인격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제멋대로 자라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해 사회에 부적응자가 되거나 반사회적인 인격체로 성장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엄마이고, 교육이고, 가정이다.

인성이 자식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자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못 가질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녀의 결합이 필요하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는가.
인성은 그것을 말하기도 한다. 즉, 인성은 남녀의 애정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식상이 기술을 의미할 때 식상은 기술이나 재주를 의미하고, 상관은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인성이 기술이나 재주, 아이디어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술이나 재주, 아이디어는 반드시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남이 인정하지 않는 기술이나 재주, 아이디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이나 재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는 문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이나 재주에는 자격증, 허가증이 필요한 것이고 아이디어는 특허증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 지원자가 수 십 명 몰렸다고 하자.
이때 사장님은 누가 미용기술자인지 모른다.(물론 머리를 깎게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국가에서 기술을 인정을 해주는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믿고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지로 모든 기술에는 자격증이 있다. 자격증 없는 기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물론 불법기술이나 반사회적 기술에는 자격증이 없다. 예를 들면 소매치기나 도박도 일종의 기술인데 그런 기술에는 자격증이 없다.

종교인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다.
이를 테면 특정 종교를 포교하는데 필요한 허가증이나, 특정 종교인임을 인정하는 자격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격증이나 허가증은 국가에서 발행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만약 잘못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종교인에게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발행하면 그 종교의 교리에 관해서도 보증을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이를테면 신이 있는 것을 보증해 주거나 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국가는 종교에 대해 그 어떤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는 본질적으로 무허가 무면허다.
혹자는 종교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종교는 본질적으로 무허가, 무면허이므로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
‘종교인에게 발생하는 금전도 수입이므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돈이 생겼다고 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논리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생기면 세금을 내라’는 근거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뭔가를 해주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세금을 낸다면 그것에 대한 국가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세금을 내라’는 반대급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그냥 갈취일 뿐이다.
종교행위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헌법에서 종교행위를 보장하므로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행위는 경제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본질적으

로 종교(편관)와 통치(정관)는 적대적이므로 통치자가 종교와 싸움을 하지 않는 한 종교인의 과세는 이루어질 수 없다.

식상이 싸움을 의미할 때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병사를 모아야하며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왕은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을 붙인다.
'변방의 외적이 침입해서 백성이 땀 흘려 농사지은 것을 모두 약탈해갔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약탈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들을 물리쳐 백성을 지키고 백성의 곡식을 보호하자. 15세 이상 장정들을 모두 모여라'
그러한 방을 보고 백성들은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을 붙였다.
'왕이 오전에 사냥터에서 꿩을 잡았는데 변방의 외적이 꿩을 낚아채 도망갔다. 백성들은 왕이 잡은 꿩을 되찾기 위해 전쟁터로 모여라.'
그러한 방을 붙이면 백성들은 오히려 왕을 비난할 것이다.
백성들의 안위보다도 왕이 놀이로 잡은 꿩을 되찾기 위해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하면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한 싸움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결국 전쟁을 수행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싸움에 이기는 것은 불가하다. 병사를 모으지도 못한다.
병사를 모으고 싸움에 대해 지지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이 바로 대의명분이다.
싸움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그 싸움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대의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다.
인성은 그 싸움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정인은 인정이 내부로 향하니 자책감을 가지기 쉽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편인은 타인에게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책임도 요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편인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
계약서라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보다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다.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문서는 주로 각서(覺書)다. 그래서 각서는 정인이다.

정인은 인정이 내부로 향하니 쉽게 믿어버린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기 쉽다.
하지만 누군가 또 다른 말을 하면 그것에도 잘 넘어간다. 한마디로 귀가 얇은 것이다.
반대로 편인은 이런저런 것을 많이 따지고 자신이 확신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설득당하면 정인보다 더 강하게 믿고 그것이 옳다고 확고한 신념에 차게 된다.

여자에게 식신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상관은 남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인성은 그것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애정이다.
애정이 생기면 남자에게 다가갈 것이고, 애정이 식으면 남자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는가.

편인은 식신을 일으키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구애를 하는 것이고, 정인은 상관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어떡하면 남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것이다.

인성은 남자와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것은 살림살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때 정인은 안으로 내는 살림이 될 것이고, 편인은 밖으로 내는 살림이 될 것이다.
안으로 내는 살림은 나의 가정을 돌본다는 의미가 되고, 밖으로나 내는 살림은 남의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니 이것은 가정부나, 요양보호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인은 내면의 애정이라면 편인은 외면의 애정이 될 것이다.
내면의 애정이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을 말하고, 편인은 몸으로 나누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인보다 편인이 강한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

식상이 학습을 말하는데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성이 된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성은 가르치는 일이고 선생님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선생님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성적이 잘 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유명학원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스카웃까지도 한다.
또한 정인은 내면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니 인성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되고, 편인은 실제로 사회에서 써먹는 학문을 가르치니 인성교육보다는 학문의 전수라고 볼 수 있다.

정인은 허가받는 선생님이니 초중고 선생님이다.
편인은 계약서를 쓰는 선생님이니 학원선생님, 과외 선생님 또는 학교에서 계약서를 쓰는 계약직 선생님이 된다.
대학의 교수는 조금 다른데 정인이면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될 것이고, 편인이면 계약직 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학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계약직 교수가 매우 많다.

인성은 식상이라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니 이것은 제도와 규칙, 법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급박하고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해 사전에 행동에 관한 지침을 내려놓은 행동 매뉴얼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제도와 규칙, 법 등이 내부자를 위한 것이면 국내법이 될 것이고, 외부인과 관련한 것이라면 외국과 맺은 조약이 될 것이다.

정인(正印)	편인(偏印)
내면의 수양(인격의 수양)	남을 돌보다.
책임지다	책임을 지우다
엄마	엄마역할을 하는 고모,이모,할머니
명분(내부조건)	명분(외부조건)
인정받다.(허가받다)	인정을 요구하다.(계약하다)
인증서,허가서,면허증	계약서,자격증
학문적인 공부를 하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다.
예쁘게 꾸미다(결함을 감추다)	수리하다
실내인테리어	
글을 잘 쓰다.	말을 잘하다(설득력이 좋다)
발탁되다(스카우트되다)	구직하다(입학지원하다)
설립하다(창립하다)	
도덕,윤리,합법,질서를 주장하다.	종교적 신념/주장을 펴다
자존심	자격지심
마음으로 나누는 애정	몸으로 나누는 애정, 짜릿한 애정
살림살이	혼외 살림살이
초중고 학교 정규직 선생님	학원, 과외 선생님, 계약직 학교 선생님
제도,법,규칙	조약(외국과의 협상으로 맺은 법규)

4)재성(財星)

재성은 인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재성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보통 재성의 재(財)자가 재물 재자라서 재성을 재물의 운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사주에 재성이 좋으면 재물운이 좋고 재성이 나쁘면 재물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재성은 재성(在星)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옛사람의 생각에는 재성운이 들어오면 재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재물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군가가 그냥 주는 걸까?
그렇지 않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는가. 뭔가 일을 해야만 재물이 생긴다.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판다든지, 또는 그릇을 만들어 판다든지 해서 재물을 모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은 내가 만든 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나는 그로부터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벌자는 목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계가 바로 모임이다.

모임은 목적이 같다.
뜻이 맞으니 만나서 모임을 결성하는 것 아니겠는가.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모임이 있다.
정치활동을 위한 모임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친목모임도 있고, 돈을 벌자고 하는 모임도 있다.
정치활동을 위한 모임은 정당이 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은 화단이 되고, 친목모임은 보통 계모임이 되고, 돈을 벌자고 하는 모임은 회사가 된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어떤 동일한 목적이 있어서이다.
남녀의 만남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더러는 결혼이 목적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같은 목적 때문에 만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친구가 만나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지, 오다가다 우연히 만나는 경우는 없다.
하다못해 밥을 같이 먹든지, 술을 같이 마시던지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사회적동물이기 때문에 모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결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결과적으로 부를 축적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한다면 물물교환도 불가능하고 문명을 발전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물물교환도 같은 목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이다)
즉, 재성이란 결국 사회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재성이 강하면 모임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을 것이고, 반대로 재성이 약하면 모임이 적고 사회활동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재성(財星)을 재성(在星)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있을 재(在)는 그가 있는 자리를 말하고 모임은 그러한 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성은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역을 뜻한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은 나의 영역이 되고 그것은 정재가 된다.
내가 속해있지 않은 모임은 나의 바깥 영역이 되고 그것은 편재가 된다.

정재는 나의 안정된 자리가 될 것이니 편할 것이고, 편재는 불안정한 자리가 될 것이고 불편할 것이다.

그러하니 정재에서의 수익은 안정된 수익이 될 것이고, 편재에서의 수익은 불안정한 수익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수익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된 수익이란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익을 말하는 것인데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예정된 수익이다. 그러나 편재의 수익은 불안정하게 일어나는 수익인데 불안정하다는 것은 수익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수익이다. 큰 수익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큰 수익은 편재에서 일어난다.

정재는 내가 속해있는 모임에서 하는 일이니 나의 본업이다.
반면에 편재는 내가 속해있지 않는 모임에서 하는 일이니 부업과 같으며 임시적인 일이다.

정재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니 내가 늘 해오던 분야이다.
그래서 정재는 편안하고 익숙하다.
반면에 편재는 내가 몸담지 않은 곳이니 내가 해보지 않던 새로운 분야가 된다.
그래서 정재는 불편하고 새롭다.

모임은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뜻하기도 하는데, 정재는 늘 내가 편하고 익숙하게 일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반대로 편재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게 일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재성은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장소란 공간(Space)을 의미한다.
이때 정재는 익숙한 공간이 될 것이고, 편재는 낯선 공간이 될 것이다.
집은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니 정재가 될 것이고, 여관이나 시골의 별정이나 논, 밭 등은 편재가 된다.
시골의 별장은 편안한 휴식공간이어서 정재가 될 수도 있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박 4일이라면 편할 수도 있다. 오랫동안 머물러도 편안한 곳은 오로지 집뿐이다.
하지만 때로는 낯선 곳도 오랫동안 머물다보면 집처럼 편해질 수 있고, 결국 그곳에 눌러 앉으면 집이 되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그곳은 처음에는 편재였지만 나중에는 정재가 되는 것이다.

남자에게 재성이란 여자를 뜻한다.
여자는 남자에게는 머무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라는 노래처럼 남자는 양(陽)적인 존재여서 동(動)적이니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이고, 여자는 반대로 음(陰)적인 존재이니 멈추어서 기다리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마치 배(남자)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항구(여자)에서 잠시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찾아서 떠도는 것이고, 여자는 찾아온 남자가 떠날까 늘 두려운 것이다. 그것이 남녀의 깊고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인류역사에서 사회가 지금과 같은 제도와 법을 가진 건 불과 수 천 년 밖에 되지 않았다.
수 십 만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본능은 깊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남자에게 정재는 부인이다. 그 이유는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애인은 편재다. 그 이유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애인이 부인보다 더 편한 존재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애인에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함부로 대하다가는 도망간다. 하지만 부인은 함부로 해도 도망가지 못한다. 물론 이혼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출을 하는 부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애인은 법적으로 아무

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떠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잘 대우해주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애인이다.
또한 부인인 정재는 집과 같아서 오래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애인인 편재는 별장과 같아서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애인은 오랫동안 사귀기 어려우며 바뀌기도 잘 한다.
그러나 애인과의 애정은 편하지는 않지만 스릴이 넘치는 짜릿한 애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그러한 짜릿한 애정 때문이기도 하지 않은가.

사주를 공부하다보면 세상의 이치가 아주 명확해진다.
살다보면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하는 문제도 많은데 그러한 것을 사주학을 통해 정답을 얻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에 지혜를 가져다준다.

박사학위는 어떤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가 있을 경우에 얻게 되는데, 그 분야는 재성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한 사람들이 심사를 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역사분야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고, 그것에 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을 경우에 역사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지, 전기분야나 화학분야에서 학위를 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실에 관한 인정은 같은 계통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말지를 결정하는데, 같은 계통은 정재가 되고, 다른 계통은 편재가 된다.
그래서 박사학위는 정재가 합(合)을 이루어야 성사된다.

자격증은 박사학위와는 다르게 특정한 분야에서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 분야(미용협회)에서만 활동하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자격증의 목적이 해당분야의 기술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함이지 해당분야(미용협회)에서만 활동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당분야(미용협회)에서만 활동하면 그것은 정재로만 쓰이는 것이고, 일반적인 영업활동이면 편재의 영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격증은 편재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격증은 편재가 합(合)을 이루어야 성사된다.

경제활동을 위해 무엇을 만드는 것은 혼자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분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모여서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소속을 가지면 그것의 소속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이종격투기라는 경기가 있다.
이종격투기는 상대방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싸움을 하고 승자를 가려내는 경기로서, 경기 내내 상대방을 치고 때리고 꺾고 하는 폭력이 난무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이종격투기는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장 경찰이 출동해서 선수들을 잡아가야 한다. 또한 주최측도 폭력을 조장하고, 그것을 볼거리로 이용해서 돈벌이까지 하고 있으니 대단히 위험한 반사회적 행위로서 당장 중지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다. 폭력이 정당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격투기의 폭력은 정당방위도 아니므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는 이종격투기의 선수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장소에 따른 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법은 장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아무데서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장소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다른 예로 정치적인 문제로 시위를 한 시위대가 종교단체인 교회나 절로 피신하는 경우에도 공권력이 그들을 잡으러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이것과 관계된 것이다. (신성한 영역은 법이 미치지 않는다)
법이나 규칙이 받아드려질 것인지 또는 거부될 것인지는 영역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법이나 규칙은 인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역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법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인성은 재성에 의해 지배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통 그러한 것을 '속지주의' 라고 한다.
그런데 '속인주의'라는 것이 있다.
속인주의는 혈통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속지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송환해서 처벌할 수도 있다.
속인주의에서 따지는 혈통도 계통이라는 재성에 의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종격투기선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인정의 문제다.
다시 말해 이종격투기는 스포츠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따라서 다수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법의 정당성이 결정된다.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법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이 되고 따라서 그 법은 법이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이 사문화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법은 다수가 인정하지 않으니 폐지해야 옳은 것이다.
하지만 죽은 법을 다시 살려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법을 악용하는 하나의 예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고 했다.(사실 그 말은 후대인이 지어낸 말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틀린 것이다. 그는 법의 본질을 모르고 한 말이다.
세상에는 거짓도 진실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 반대로 진실도 거짓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다.
'세상은 요지경'인 것이다.

인성은 애정문제를 말 할 때는 남녀 간의 교접을 의미한다.
그러한 남녀 간의 애정문제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장소(재성)다.
남녀 간의 교접은 아무데서나 할 수 없다. 장소를 가리는 것이다.
만약 재성이 허락되지 않으면 애정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애정을 나눌 때 아무데서나 하지 않고 장소의 분위기를 많이 따진다.

또한 재성은 자기가 속한 모임이나 조직을 말하는데, 일 때문에 바빠서 또는 직장이 먼 문제로 인해 교접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부분은 아이를 낳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직장이나 일 때문에 출산계획을 못 잡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애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여자(재성)에게 딸린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남녀의 결합의 문제인데, 남녀의 결합은 여자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남자가 여자와 결합을 하려고 해도 여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와 결합을 할 수 없다.
반대로 여자는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남자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것은 어려워도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것은 매우 쉽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 이제 둘이 살림(인성)을 내려고 한다.
이때 살림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집이다. 집이 없으면 살림을 낼 수 없는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는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만약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남자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재성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여자는 살림을 내는데 있어 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도 된다. 만약 결혼해서 살집이 형편없다면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공부(인성)는 어디서(재성) 하는가가 중요하다.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장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서울의 강남이 교육여건이 좋은 이유로 해서 땅값이 오르는 것도 이같이 이유가 된다.)
보통 교육은 단지가 조성된다. 지역적으로 학원이 밀집한 곳이 생기기 마련이다.
'맹모삼천지교' 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공부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공부가 안 되는 자녀가 있다면 장소를 바꾸면 효과가 있다. 장소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해당된다.

선생님(인성)이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그의 소속(재성)이 중요하다.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문적 소신이 있고, 가르침에 열정이 있어 학교가 어떻듯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것 같은데 사주학상으로는 재극인(財剋印)이어서 소속 학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가 좋은 곳이면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또한 선생님은 일반 직장인과 달라 상사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가르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주학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재성(학교)에게 굴복당하기 때문에 학교의 방침이라든지, 자기의 소속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학교선생님이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든지, 배경이 있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다.

직업의 성질이 인성(애정)인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애정을 제공하는 일이 직업이라고 할 때 그러한 직업은 조직에 속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조직이 이를테면 룸싸롱, 보도방 같은 곳이다.
즉, 애정을 제공하는 일을 직업으로 할 경우에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전화방에 전화 거는 여성은 혼자서 일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직업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엔조이를 하거나, 짬이 나서 잠시 그러는 것일 뿐이다.

일을 잘 못하다보면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책임을 지는 것은 정인이다.
따라서 책임을 지게 할 경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정재가 된다.
즉,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소속원 이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속이 다른 사람이면 설령 그가 잘못을 해서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간혹 타 부서의 직원이 파견을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일을 잘 못 해서 그로인한 책임을 물을 경우에, 원 소속의 부서에서만 그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길에 차를 주차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가 주차위반의 딱지를 떼는 경우가 있다.
주차위반의 딱지는 정인이다. 따라서 정재가 딱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주학적으로 풀이하면 정재는 주차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이 된다. 이것도 재성이 인성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인성은 가정의 의미가 있는데, 인성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재성이므로,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부인이라는 뜻이 된다.
이것은 여자만이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즉, 남자는 혼자서 가정을 꾸밀 수 없다는 것인데, 남자는 양(陽)이니 떠돌이와 같아 한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미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자는 혼자 살아도 그것이 가정인 것이다.
또한 가정의 성패여부도 여자가 결정한다는 의미도 된다.
즉, 그 가정이 잘 꾸려져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도 여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이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인성은 엄마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결혼한 여자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때 재극인은 시어머니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며느리라는 뜻이 된다.
즉, 고부간의 갈등은 재극인인 것이다.
따라서 고부간의 문제는 며느리에게 딸린 문제가 된다.
며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부간에 사이가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사주학적으로 해석하면 며느리에게 책임이 있다.
종종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주는 결과로서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정재	편재
안정적 직장생활	불안정한 직장생활, 임시직
부인	애인
집	임시 거주지, 부동산, 상가
예상되는 일정한 수입	부수입, 예상 밖의 횡재
편안함	불편함
익숙한 분야	새로운 분야

5)비겁(比劫)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결국 문명에 관한 내용들이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문명이란 것은 그렇게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문명은 외길이며, 인간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어떤 존재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은 사회를 만들어 문명이라는 외길을 걷게 되고 결국 그 존재에게 다가가는..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법한 이야기이지만..

인간은 사회를 만들어 산다는 것은 혼자 살지 않고 무리를 지어 산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은 필연적으로 남과의 교류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데 쟁기가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빌리기도 하고, 옆집에서 우물을 파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물물을 함께 쓰기도 한다.

사냥도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고, 그러면 눈이 좋은 사람은 높은 나무에 올라 사냥감을 찾고,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은 먼 곳의 사냥감에게 돌을 던지고, 힘이 센 사람은 다가가서 사냥감을 몽둥이로 때려잡을 것이고, 칼을 잘 쓰는 사람은 가죽을 벗기고 살을 도려낼 것이다.
그리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감을 어께에 메고 마을로 돌아와 골고루 나누게 된다.
모두 맡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 결과로 사냥을 많이 했으니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원시인의 사냥이야기를 했는데, 원시인들이 사냥을 하고 난 후에 사냥감을 골고루 나눈다는 것은 처음에는 몰랐다.
원시인들은 야만인이어서 추장이나 힘 센 놈이 독차지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세계의 각지에 퍼져있는 오지의 원시부족이 사냥을 끝내고 사냥감을 나누는 것을 보고, 원시인

들은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냉전시대였고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만을 했던 시대라서 충격이었다. 인류의 원시시대 경제체제가 공산주의 일 줄이야..
물론 냉전시대의 공산주의와 원시시대의 공산주의는 다르다. 하지만 당시에는 흑백논리적인 이념적 접근을 하다 보니 다소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대결을 하는 냉전시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은 사회속에서 살아가다보면 남과의 교류는 필연이고 그렇다보면 내가 가진 것을 남과 함께 쓰게 되고, 반대로 남의 것도 내가 쓰게 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 하다.
그것을 공유(共有)라고 한다.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사는 한 공유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세상에는 공유가 대단히 많다. 사람이 다니는 길도 공유다. 혼자만 다니는 길은 없지 않은가.
학교도 공유다.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가. 사무실도 공유다. 직원들이 함께 사용한다.
집도 공유다.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며 활용하지 않는가.
심지어 집안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의 공유가 될 것이다.

물론 세상에는 소유권이 있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개인물건도 있다. 그리고 개인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본질적으로는 공유에 해당한다. 다만 처분권은 소유자에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것을 비겁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주학의 육친론에 나오는 비겁은 공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공유는 물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생각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의견을 여러 명이 가진다면 그 의견은 공유가 된다.
또한 보편적인 사상이나 가치관은 모두가 가지는 것이니 그것 또한 공유가 된다.

그래서 비겁이 강하면 공유도 많아서 남과 함께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이다.
내 것, 네 것을 별로 따지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데 없으면 남의 것을 잘 빌리고, 남이 필요하다면 내 것을 잘 빌려준다.

반대로 비겁이 약하면 남들과 함께 할 것이 많지 않으며, 그 반대의 의미로서 자연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많게 된다. 그래서 내 것, 네 것의 개념이 분명하고 잘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으며 잘 빌려주지도 않는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공유의 개념은 실제의 삶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비겁이 많으면 남에게 집도 잘 빌려주는 것이니 세를 놓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겁이 많으면 배우자도 공유할 수 있으니 바람을 피우기 쉬우며,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일간은 나이고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이니 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나와 같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오행이 같다는 것은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것이니 형제, 자매, 동기간, 친구, 동료를 의미한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겁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 이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대신할 사람이 많으면 나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대로 비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할 수 없으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만 한다.
작게는 내 한 몸 건사하는 것 부터해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어깨의 많은 짐을 져야만 한다.

비겁이 많으면 남의 재능도 빌려올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한 우물을 파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기도 한다.
반대로 비겁이 없으면 한 가지 재능에만 열중을 하니 한 우물을 파며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재능만을 가지면 한 가지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에서 일하기 쉽다.

비겁은 공유를 말하고 사람을 의미하니 이것은 인간관계의 일을 말하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의리 아니면 배신이다.
인간은 의리 따라 행동하고, 또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보통 가족, 친구들 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의리다.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의리 때문 아니겠는가.

의리는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를 도와주는데 이익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을 돕다가 손해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도 라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의리 때문인 것이다.
의리는 금전적 이해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견(比肩)이다.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비견이라고 하면 '어깨를 겨룬다'는 의미에서 경쟁자라고 보는데, 실지로는 그렇게 의리로서 나를 돕는 경우가 더 많다.(경쟁자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달리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업상 만날 일이 없잖은가.
그런데 사람은 때때로 가족과 친구를 배신하기도 한다.

배신은 왜 일어날까?

바로 이익 때문이다.
이를 테면 가난한 직원이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경쟁업체에 팔아먹는 사건은 뉴스에도 종종 나오지 않던가.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군을 고발하고, 체포하는 일들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의 이익 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겁재(劫財)다.
기존의 사주학에서는 겁재라고 하면 재물을 빼앗는 흉신이라고 하는데, 실지로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도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의리 지켜서 부자 됐다는 이야기가 많은가?
아니면 배신해서 부자 됐다는 이야기가 많은가?
나는 의리 지켜서 부자 됐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의리 지키다 가난해졌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봤다.

겁재는 돈을 의미한다.
사주학에서 '돈은 무엇인가' 는 아주 큰 의문이다.
점보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문제로 찾아오고, 또한 돈은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던가.
그렇게 큰 관심사인 돈이 사주학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기존의 사주학은 알지 못했다.
'재성이 재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재성이 돈은 아닌 것 같고..' 한마디로 사주에서 미스테리 같은 존재였다.
그렇다고 겁재가 강하다고 돈복이 많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돈을 만지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이니 돈을 만질 일이 많지 않겠는가.
(사주는 길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말할 뿐이다)
돈을 많이 만지다 보면 돈을 벌기도 쉽지만 반대로 돈을 쓰기도 쉽다.
사주에 겁재가 많다함은 그러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비견이 많으면 의리가 많으니 돈에는 인연이 없다. 그래서 돈을 만질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내가 가난하면 남이 의리로서 나를 도우니 끼니를 거르지는 않는다.
또한 남이 가난하면 내가 도와주니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게 된다.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비견이 강한사람은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반대로 겁재가 강하면 이익에 민감하니 손해 볼 일은 하지 않으며, 이익을 좇아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니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부자가 저절로 되었겠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아!
남의 머리위에 오른 것은, 누구의 머리를 밟고 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밟힌 자의 피눈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비겁은 재성을 극한다.
그것은 여자(재성)를 다스리는 것은 비겁이라는 것이다.
이때 비견은 편재를 다스리게 되고, 겁재는 정재를 다스리게 된다.
편재는 애인을 말하는데, 애인을 비견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애인은 의리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이다.
반면에 정재는 부인을 말하는데, 부인을 겁재로 다스린다는 것은 부인은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뜻이다.

보통 생각하기를 남자가 돈이 있어야 술집에 가서 여자도 만나고, 집도 구해서 첩살이도 시키고 하는 바람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그런 경우 남자에게 돈이 떨어지면 애인도 저절로 떨어진다. 애인도 마찬가지로 돈을 바라고 만나는 것이며, 남자가 돈이 떨어지면 헌신짝처럼 버리게 된다. 그런 사랑은 의리와 정으로 사귀는 사랑이 아니니 부인은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부녀가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린다.
어떻길레 남편과 자식까지 버리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돈이 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로지 돈 때문에 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사랑이 소위 말하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은 돈은 필요 없다.

남자에게 부인과의 사랑은 어떠할까?
위에서 말한 그런 절대적인 사랑일까?
부부 100쌍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부부가 다 그렇지 뭐. 연애할 때나 좋은 거지. 결혼하면 애 키우고 먹고살기 바쁜데 사랑은 무슨..” 거의 100쌍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연애할 때의 사랑과 결혼 후의 사랑은 다르다.
이것은 남녀 모두 같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부부사이가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집을 나간다든지 가정에 변화가 온다.

결혼 후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데에 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다.
혹자는 세상에 돈이 필요하고 중요한 때는 대단히 많은데, 이를 테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뇌물로서도 돈이 필요한데, 꼭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데만 필요한 것이냐고 할 수 도 있지만 부부관계이외에 돈이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돈이 사용되지만 부부관계의 돈은 그것과 관계없이 늘 필요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정은 남편이 벌어다오는 수입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유지는 어쨌거나 돈이 필요한데, 부인이 벌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돈과 남편과 부인 관계를 지배하는 돈과는 다른 것이다.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가 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주종관계(主從關係)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남편은 지배자가 되고, 부인은 이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남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직장과 직원의 관계와 비슷하다.
남편은 부인에게 돈을 줌으로서 집안에서 권위를 가지게 되고 부인에게 편안한 봉사도 받을 수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부인이 남편 씻는 물을 대야에 담아 안방으로 가져오면 남편은 세수하고 발을 씻고 하던 집들이 많았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한 봉사를 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정재는 편안하다는 의미가 있듯이 남편은 부인이 그래서 편안한 것이다.
이렇게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는 겁재가 정재를 극하는 관계인 것이다.

반대로 남편과 애인은 비견이 편재를 극하는 관계인데, 이것은 애인은 돈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돈으로 묶여지면 복종해야 하는데 애인은 복종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돈을 꺼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애인과의 관계가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관계였다면, 부인과 남자애인과의 관계는 관성이 비겁을 극하는 관계다. 왜냐면 여자에게는 남자가 관성이기 때문이다.
이때 부인에게 남편은 정관이고, 애인은 편관이 된다.

정관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다.
따라서 남편은 부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남자가 된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의 말을 따르고 복종해야만 한다.
이것은 여자 쪽에서 보면 돈이 매개(媒介)인 관계는 아니다. 무조건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관계인 것이다.

편관은 나에게 자비와 덕을 베푸는 존재다.
따라서 남편은 애인에게 사랑을 주는 남자가 된다.
이것은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존재는 남편이 아니라 애인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간혹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는 부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정관보다 나에게 사랑을 주는 편관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녀가 사귀는데 있어 그것을 이루게 하는 방식은 다르다.
남자는 주변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통 남자는 여자를 사귀면 주변에 이를 알리고 다닌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모임에 사귀는 여자를 데리고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일종의 경고다. 이를테면 “내 여자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뿌리가 깊은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자손을 만들려고 하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귀는 초기에 주변에 알리고 다니는데, 이때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흔들린다. 예를 들어 “그 여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또는 “그 여자는 평판이 좋지 않아”라는 충고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나 집안의 반대에 부닥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비겁이 재성을 극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겁은 경쟁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여자가 마음에 들어 사귀려고 하는데 이미 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기하기도 쉬움을 뜻한다.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주학적으로 풀이를 하면 그러하다. 또한 이 부분은 여자와는 전혀 다른 부분이다.

여자는 주변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귈 때 같은 친구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경우가 드물며 또한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다. 또한 집안에서의 반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 있다.(반면에 남자가 여자 때문에 가출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다)
여자의 경우에는 다른 여자와의 삼각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여자에게는 비겁이 재성을 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자는 식상이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고 또 거리가 멀어도 이를 감내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자식이 있는 여자는 남자를 사귀려면 자식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식이 반대하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자에게 남자는 관성인데 관성을 얻으려면 식상이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자는 여자를 사귀는 데에 자식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주변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재성이 집이라고 할 때, 비겁이 재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집을 매매하려면 반드시 임자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땅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무주지(無主地)는 선점(先占)하면 임자다. 여자도 임자가 없는 여자는 선점하면 임자가 된다.
이때 땅이나 여자는 임자를 가리지 못한다.
비록 임자에 하자가 있어도 임자를 거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재성은 비겁에 극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먼저 찍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있지 아니한가.
남자가 신체상에 장애가 있거나 설령 산적(山賊)이라고 할지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종종 외모가 예쁘거나 학식이 높은 여자가 그에 걸맞지 않는 남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해 할 수도 있겠으나 사주학적으로 그렇게 나오니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은 누군가의 소개로 이루어진다. 재성(직장)은 비겁(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시험을 보고 취업을 하는 직장은 전체 직장은 1% 도 안될 것이다.
대부분의 직장은 시험 없이 소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직장은 좋은 직장이다. 그것은 편인의 능력이다. 사주에 편인이 좋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조직을 다스리는데 있어, 그 조직이 어떤 성격의 조직인가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진다.
어떤 조직은 의리를 중시하는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은 돈을 중시하는 조직일 수도 있다.
만약 의리를 중시하는 조직이라면 자비로서 다스려야 하고, 돈을 중시하는 조직은 명령으로 다스려야 한다.
의리를 중시하는 조직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동창회, 취미 동호회 등이다.

반면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은 일반적인 회사, 낙찰계모임 등이 된다.
한편으로는 조직을 창설할 때, 창설자의 성격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테면 정치인의 사조직도 그러한 경우다. 이를 테면 돈 많은 국회의원이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은 정재가 되고, 돈 없는 국회의원이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은 편재가 된다.
돈 많은 국회의원이 만든 조직은 명령으로 조직을 관리하게 되고, 돈 없는 국회의원이 만든 조직은 의리로서 조직을 관리하게 된다.

돈으로 만든 조직은 정재이니 안정되고 꾸준한 일자리가 된다.
보수당이 만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자리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자신들을 거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관료적이다.
반면에 의리로 만든 조직은 편재이니 일시적인 일자리가 된다.
진보당에서 만든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쳐 모여를 반복하는 자리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재성이 모임, 조직일 때, 어떤 모임이나 조직의 구성은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간의 화합이 될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가 잘되려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고, 회사가 안 되려면 사람이 잘못 들어온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인력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함은 물론이고, 또한 인력 간에 화합이 잘되어야만 회사가 잘 돌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모임이나 조직은 회사이거나, 친목계, 동창회 등이고 정당(政堂)도 모임이나 조직이다.
이것도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는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我剋財)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는 것은 비겁이 재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성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비겁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만든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동일한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목적이 달라지면 그 모임은 깨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여행모임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다음 달 여행을 A라는 사람은 제주도로 가자고 하고, B라는 사람은 울릉도로 가자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A를 따라서 제주도가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B를 따라서 울릉도가 좋겠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들 의견이 분분해지더니 패가 갈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치고 박고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는 결국 모임은 해체되었다.

모임이 망하는 것은 모임이 해체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분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모임이나 조직을 해체시키려면 그 조직원들을 이간시켜서 조직을 분열시켜야 한다.
보통 대기업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면 노조원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는데 그 띠에는 '단결' 이라고 쓰여 있

다. 그 이유는 사측에서 노조원들을 이간질해 노조를 분열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측의 전략이다.
노조는 분열되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쟁의는 실패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정당도 정권을 잡는다는 목적의 모임인데, 정치인들 간의 파벌이 나뉘어서 정당이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당해산명령'에 의해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해 해산되는 것이 아니다. 즉 정관에 의해 정재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당이라는 모임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정인이며 정인이 정재보다 강한 경우에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재극인에 의해 재성이 인성을 다스리지만 인성이 재성보다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인성에 의해 재성이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어난다.

비겁은 공유를 뜻하니 민족의 개념에도 공유개념을 도입 할 수 있다.
본래 '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형성된 개념으로 학문적으로 민족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육친론의 비겁을 응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다.

피를 공유하게 되면 민족에서 혈연이 되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면 연대의식이 된다.
또는 언어나 역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민족을 정의 할 수도 있다.
만약 같은 민족일지라도 공유가 없어진다면 결국 다른 민속이 되며, 반대로 다른 민족일지라도 공유가 이루어지면 같은 민족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비겁이 민족이라고 할 때 비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관성이다.
관성으로서 같은 민족이냐, 아니면 다른 민족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성은 명령권을 말하는데 만약 명령권이 다르면 다른 민족이 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와 남으로 구분이 되어 편이 갈리는 것이고, 편이 갈린다는 것은 재성의 문제가 된다.
내가 속한 편은 정재가 되고, 그 외는 편재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도 가능하다.
재성은 인성을 결정하는데, 인성은 제도와 법을 말한다.
따라서 결국에는 제도와 법도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대성도 사라진다.

겁재(劫財)	비견(比肩)
이익을 추구하다.	의리를 지키다.
배신	의리,정(情)
돈을 만지다	나눠주다(가난해지다)
사업적으로 만나는 동료	친분으로 도와주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동기간, 친구	의리를 추구하는 동기간, 친구

18.궁도(宮圖)

사주는 태어난 년, 월, 일, 시의 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년, 월, 일, 시의 간지는 그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고유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같은 간지라 해도 그 간지가 년에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월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일의 위치에 있는지, 또는 시의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년주(年柱)

년주는 태어난 해의 간지를 말한다.
해의 주기로 시간의 단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주기의 단위가 1년이다. 따라서 년은 가장 큰 범위의 일을 말하는 것이 된다.
세상의 일은 나의 일,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일, 그리고 조직과 조직이 모여 있는 사회나 국가의 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년의 일은 가장 규모가 큰 사회나 국가의 일이 된다.

국가나 사회의 일은 개인의 역량이 미칠 수 없는 범위 일이다.
예를 들어 농부가 올해는 사과농사를 시작한다고 봄에 밭을 갈고 나무를 들여와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다. 봄에 병에 걸리지 않게 농약도 치고, 여름에 새들이나 벌래가 날아와 사과를 파먹지 못하게 봉지도 씌우고 많은 정성을 기울여 마침내 가을에 알이 탐스럽게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잘 익은 사과를 딸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탐스러운 사과가 모두 바람에 떨어져 멍들고 부서지고 말았다.
일 년의 농사가 단 하루의 태풍으로 모두 날아간 것이다. 이 경우 농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저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회적인 변화나 국가의 일로해서 어떤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 경우의 일이 바로 년의 일이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나약한 존재이기에 사회나 국가의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안 좋은 경우의 예 가 되겠지만 때로는 사회나 국가의 변화가 개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국에 1997년 말에 'IMF 위기' 라고 불리는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치킨집을 열어 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IMF 위기' 때문에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망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치킨집 주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치킨집 주인이 'IMF 위기'를 일으킨 것도 아니다. 그냥 어느 날 국가적 위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반면에 'IMF 위기' 가 대단한 호기가 되어 떼돈을 번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이민을 가려고 가진 전 재산을 '미화($)'로 바꾸었는데 'IMF 위기'가 터지자 '미화($)'가 두 배로 뛰었다. 한 달 사이에 재산이 두 배가 된 것이다.
부동산으로 큰돈을 번 사람도 많다.

빌딩이나 골프장이 불과 수입 억에 매물로 나와서 헐값에 샀는데 3년 후 가격이 10배로 뛴 경우도 있었다.

2)월주(月柱)

월주는 태어난 달의 간지다.
가장 큰 해의 주기에는 달의 주기가 12번 들어가 있다.
1년의 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데 월은 그 변화를 12개로 나누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월이란 것은 변화의 단위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인월의 일과 묘월의 일은 각기 다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월은 내가 속해있는 조직의 규모이다.
그것은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이 될 수도 있다.
국가보다는 작지만 역시 나를 지배하는 환경이다.

3)일주(日柱)

일주는 태어난 날의 간지다.
날이란 시간의 측정 단위인 해의 가장 작은 주기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지니 하루에 시작과 끝을 모두 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일이 된다.
하루에 일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것은 나의 일이 된다.

따라서 일간은 나의 개인적인 일을 말한다.
내가 속해 있는 국가나 조직에 관련이 없는 사적(私的)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개인적인 취미나, 적성, 재능을 의미한다.

4)시주(時柱)

시주는 태어난 시간의 간지다.
태어난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시간이 흐름을 나타내는 일이니 나의 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비밀스러운 일을 의미하고 외부에서는 눈치 채기 어려운 일을 말한다.
또한 나에 관한 일이니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을 직접 지칭하기도 한다.

19.천간의 합(合)과 충(沖)

천간과 지지는 각기 저마다의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한 변화는 간지가 만남으로 해서 일어난다.
변화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흉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 하늘은 본래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늘은 본래가 무심(無心)하다.

1)천간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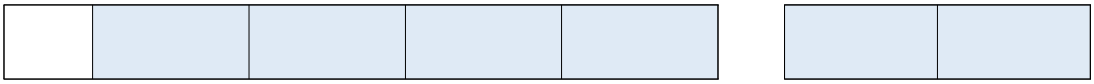
천간합은 천간 열개가 두 개가 한 쌍이 되어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5개의 천간합이 존재한다.

天干合	관련성
갑(甲, 陽木) + 기(己, 陰土)	양토(陽土, 戊)
을(乙, 陰木) + 경(庚, 陽金)	양금(陽金, 庚)
병(丙, 陽火) + 신(辛, 陰金)	양수(陽水, 壬)
정(丁, 陰火) + 임(壬, 陽水)	양목(陽木, 甲)
무(戊, 陽土) + 계(癸, 陰水)	양화(陽火, 丙)

주의할 점은 '갑목과 기토가 만나 무토를 이룬다'거나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무토가 된다' 가 아니라
갑목은 기토를 만나려고 하는데 무토 때문에, 또는 무토를 위해서 만난다는 것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을목과 경금이 만나는 것은 경금 때문이다.
병화와 심금이 만나는 것은 임수 때문이다.
정화와 임수가 만나는 것은 갑목 때문이다.
무토와 계수가 만나는 것은 병화 때문이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戊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歲運	
癸	丙



무계합이다.
사주원국의 천간 무(戊)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천간 계(癸)을 만나면 합(合)이 이루어진다.
이때 무와 계가 만나는 것은 병(丙)을 이루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戊)가 편관이고, 계(癸)가 겁재이고, 병(丙)이 편재라면 무와 계가 만나는 것은 병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부동산(丙)을 매입하기 위해 돈(癸)을 들고 시골(戊)로 가는 것이다.

2)천간충

천간충은 천간 열개가 두 개가 한 쌍이 되어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무와 기는 천간충이 되지 않으므로 천간충은 네 개가 존재한다.

天干沖	관련성
갑(甲, 陽木) + 경(庚, 陽金)	갑 또는 경이 중단됨
을(乙, 陰木) + 신(辛 陰金)	을 또는 신이 중단됨
병(丙, 陽火) + 임(壬, 陽水)	병 또는 임이 중단됨
정(丁, 陰火) + 계(癸, 陰水)	정 또는 계가 중단됨

천간충은 천간합과 다르게 네 개 뿐이다.
천간합이나 천간충은 오행의 극관계와 음양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토기운끼리는 극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토의 천간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충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천간충의 의미는 해당 간지나 육친의 상태가 쭉 이어져 오다가 끊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갑이 경을 만나 충이 이루어지면 쭉 이어오던 갑의 상태가 끊기게 된다.
거꾸로 경이 갑을 만나도 충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쭉 이어오던 경의 상태가 끊기게 된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丁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歲運	
癸	

정계충이다.
사주원국의 천간 정(丁)이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천간 계(癸)을 만나면 충(沖)이 이루어진다.
충이 걸리면 사주원국의 천간의 정(丁)은 하던 역할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정(丁)이 육친으로 식신이라면 식신의 역할이 중단되니 가던 길이 막히거나, 기술이 중단되는 것이다. 즉, 학생이면 진로가 막히거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기술을 더 이상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20.지지의 합(合),충(沖),파(破),형(刑),해(害),원진(怨嗔),삼합(三合)

천간 10개는 각각 하나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반면, 지지 12개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땅의 일은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지는 천간처럼 오행이 극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지지의 변화는 단순하게 음양이나 극관계로 설명 할 수는 없다.

지지의 변화에는 합(合), 충(沖), 파(破), 형(刑), 해(害), 원진(怨嗔), 삼함(三合) 이 있다.

1.합(合)

지지는 총 12개가 있는데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6개의 합을 이룬다.
합은 이루어주거나 성사시키거나 새로이 얻게 해준다.

ㄱ) 자축 합(子丑 合)
ㄴ) 인해 합(寅亥 合)
ㄷ) 묘술 합(卯戌 合)
ㄹ) 진유 합(辰酉 合)
ㅁ) 사신 합(巳辛 合)
ㅂ) 오미 합(午未 合)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子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壬	
			癸	

歲運	
丑	
癸	
辛	
己	

자축합이다.
사주원국의 지지 자(子)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축(丑)을 만나면 합(合)이 이루어지는데, 합이

이루어지면 자(子)가 극하는 오행을 이루어주거나 성사시키거나 얻게 해준다.
자(子)는 수이고 수가 극하는 오행은 화인데, 양은 양을 극하고 음은 음을 극한다. 따라서 음화인 정(丁)을 이루어주거나 성사시키거나 얻게 해준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면 정관을 얻어야 하는데 나에게 정관이 정(丁)이면 축년 또는 축월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친구를 얻고 싶다면 남자친구는 정관이고 나에게 정관이 정(丁)이면 축년 또는 축월을 만나면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이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대상은 사주원국이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이 아니다.
사주원국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2.충(沖)

지지의 12개가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6개의 충을 이룬다.
충은 하던 것을 중단시키거나, 계속 되어 오던 상태가 중단되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잃게 한다.

ㄱ) 자오 충(子午 沖)
ㄴ) 축미 충(丑未 沖)
ㄷ) 인신 충(寅辛 沖)
ㄹ) 묘유 충(卯酉 沖)
ㅁ) 진술 충(辰戌 沖)
ㅂ) 사해 충(巳亥 沖)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乙		
		癸		
		戊		

歲運	
戌	
辛	
丁	
戊	

진술충이다.

사주원국의 지지 진(辰)이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술(戌)을 만나면 충(沖)이 이루어지는데, 충이 이루어지면 진(辰)이 중단되거나, 진의 상태가 중단되거나, 진을 잃게 된다.

진이 육친으로 비견이었다면 비견이 충을 맞은 것이 되고 비견이 충을 맞으면 내가 공유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하게 되거나, 남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조직을 이탈하게 되니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일이 일어난다.

3.파(破)

지지의 12개가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6개의 파를 이룬다.
파는 파헤치는 것이다.

ㄱ) 자유 파(子酉 破)
ㄴ) 축진 파(丑辰 破)
ㄷ) 인해 파(寅亥 破)
ㄹ) 묘오 파(卯午 破)
ㅁ) 사신 파(巳申 破)
ㅂ) 미술 파(未戌 破)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寅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戊			
	丙			
	甲			

歲運	
亥	
己	
甲	
壬	

4.형(刑)

형은 삼형(三刑), 자형(自刑), 형(刑)으로 다시 세분화 되는데, 삼형과 형은 부서지는 것이다.

부서지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자형은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스스로 형벌을 주는 것인데, 자형이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ㄱ) 삼형(三刑)

a.신인사(申寅巳) 삼형(三刑)

1.신인 형(申寅 刑)

2.신사 형(申巳 刑)

3.인사 형(寅巳 刑)

b.축미술(丑未戌) 삼형(三刑)

1.축미 형(丑未 刑)

2.축술 형(丑戌 刑)

3.미술 형(未戌 刑)

ㄴ)자형(自刑)

a.진지 자형(辰辰 自刑)

b.오오 자형(午午 自刑)

c.유유 자형(酉酉 自刑)

d.해해 자형(亥亥 自刑)

ㄷ)형(刑)

a.자묘형(子卯 刑)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巳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己
				庚
				丙

歲運	
寅	
戊	
丙	
甲	

인사형이다.

사주원국의 년지 사(巳)는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인(寅)으로부터 형(刑)을 받는다.
이때 사가 정관이면 정관이 부서지는 것인데, 그것은 명령권, 독점, 권위 등의 정관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다. 부서진다는 것은 타격을 받는 다는 의미도 된다.
만약 사가 겁재라면 겁재가 부서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돈이 부서진다는 것이니,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부서진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불완전한 상태이니 100%의 상태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丑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癸		
		辛		
		己		

歲運	
戌	
辛	
丁	
戊	

축술형이다.

사주원국의 일지 축(丑)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술(戌)로부터 형(刑)을 받는다.
이때 축이 비견이면 공유가 부서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보통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유가 부서진다는 것은 내가 남과 공유하고 있던 장소나 물건, 사상 등이 깨져 공유가 불완전해진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남과 다투는 문제가 주로 발생한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乙			
	癸			
	戊			

歲運	
辰	
乙	
癸	
戊	

진진자형이다.
사주원국의 시지 진(辰)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진(辰)로부터 자형(自刑)을 받는다.
자형은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진이 육친으로 정인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가정, 애정, 엄마, 학문적 업적, 내가 만들고 있는 것 등 정인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작용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甲
				乙

歲運	
子	
壬	
癸	

자묘형이다.

사주원국의 년지 묘(卯)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자(子)로부터 형(刑)을 받는다.

이때 묘가 식신이면 식신이 부서지는 것인데, 식신은 몸을 말하기도 하니, 몸이 부서진다면 기능이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반드시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잠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뻣뻣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해당한다.

또한 식신이면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기술이 불완전해지니 내가 가진 기술을 100%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도한 식신이 자식을 말할 수도 있는데 자식이 불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자식이 자식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무엇이 자식역할인가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5.해(害)

지지의 12개가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6개의 해를 이룬다.

해는 쪼개지고, 분리되는 것이다.

ㄱ) 자미 해(子未 害)
ㄴ) 축오 해(丑午 害)
ㄷ) 인사 해(寅巳 害)
ㄹ) 묘진 해(卯辰 害)
ㅁ) 신해 해(申亥 害)
ㅂ) 유술 해(酉戌 害)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戌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辛	
			丁	
			戊	

歲運	
酉	
庚	
辛	

유술해이다.
사주원국의 지지 술(戌)이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유(酉)를 만나면 해(害)가 이루어지는데, 해가 이루어지면 술(戌)이 쪼개지고, 분리되는 것이다.
술이 육친으로 정재일 경우에는 정재가 쪼개지고 분리된다는 것인데, 내가 사장이라면 매장이 분리되고 쪼개진다는 것은 분점을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직원이라면 분점이나 출장소로 발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정재가 집이면 집을 쪼개고 나눈다는 것인데, 이는 집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원진(怨嗔)

지지의 12개가 2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 6개의 원진을 이룬다.
원진은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남편이 밉고 원망스런 부인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혼을 하면 그 후로는 부인이 벌어서 먹고살아야 한다.
부인은 뾰족한 기술도 없고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고 남편을 받아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원진이다.
원진은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합이다.

ㄱ) 자미 원진(子未 怨嗔)
ㄴ) 축오 원진(丑午 怨嗔)
ㄷ) 인유 원진(寅酉 怨嗔)
ㄹ) 묘신 원진(卯申 怨嗔)
ㅁ) 진해 원진(辰亥 怨嗔)
ㅅ) 사술 원진(巳戌 怨嗔)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巳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己			
	庚			
	丙			

歲運	
戌	
辛	
丁	
戊	

사술원진이다.
사주원국의 지지 사(巳)가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술(戌)을 만나면 원진(怨嗔)이 이루어지는데, 원진이 이루어지면 사가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 그리고 사는 양화이므로 양금인 경(庚)을 이루어주거나 성사시키거나 얻게 해준다.
사가 육친으로 식신이면 자식이 된다. 원진은 해당 육친이 미우므로 자식이 밉다. 하지만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편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라면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만 하는 부모의 심정이 될 것이다.

7.삼합(三合)

삼합은 지지 12개가 3개가 한 쌍으로 묶이는 것으로 4가지의 삼합이 나온다.

ㄱ) 신자진 삼합(申子辰 三合)
ㄴ) 사유축 삼합(巳酉丑 三合)
ㄷ) 인오술 삼합(寅午戌 三合)
ㄹ) 해묘미 삼합(亥卯未 三合)

예를 들면
1. 사주원국 지지에 사(巳)가 있을 경우,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에서 유(酉)가 오면 새로이 축(丑)이 들어와 삼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2. 어떤 사주는 사주원국에 사(巳)와 유(酉)가 있고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에서 축(丑)이 오면 삼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3. 또 어떤 사주는 사주원국에 사(巳)와 유(酉)와 축(丑)이 모두 있는 경우도 있다.

가장 눈여겨 볼 것은 1번처럼 삼합이 되어 새로운 지지가 들어오는 경우다.

만약 사주에 축(丑)이 없는 경우에 삼합으로서 축(丑)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은 운에서 매우 긴요하게 쓰일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없는 축(丑)의 능력이나 자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地支		戌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辛		
		丁		
		戊		

歲運	
午	寅
丙	戊
	丙
丁	甲

인오술 삼합이다.
사주원국의 지지 술(戌)이 해운이나 월운 또는 일운의 지지 오(午)을 만나면 인(寅)이 새로이 들어와 삼합이 이루어 진다. 또는 운에서 인(寅)이 들어오면 오(午)가 새로이 들어와 삼합이 이루어진다.
이때 새로이 들어온 인(寅)은 본래 사주원국에 없는 것인데 들어오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자의 사주에서 인(寅)이 정관인데 사주에 인(寅)이 없음으로 해서 남자가 좀처럼 안 생기는 여자가 있다. 그런데 오(午)년에는 삼함으로 인(寅)이 들어오고 정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午)년이 오면 남자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자식이 없는 여자이고 인(寅)이 식신이면 오(午)년에 자식이 생기는 것이다. 삼합은 이러한 방법으로 나에게 없는 어떤 능력이나 자원이 생기니 매우 요긴한 것이다.

사람의 일은 스스로 일으키기보다 운이 다가옴으로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삼합은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삼합이 일어나는 해는 다른 때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세 가지 지지의 의미가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오술 삼합에서 인(寅)은 식신이고, 오(午)는 정재고, 술(戌)은 편관일 때 인(寅)은 이동수를 나타내고, 오(午)는 집을 나타내고, 술은 관할 관청의 문제가 된다.
이것은 이동수와 집, 관청의 일이니 이사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의미로 나타날 수도 있다)

21.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

사주원국은 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으로 구성된다.

1.하늘과 땅의 소통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다.
지장간은 하늘의 뜻이 땅속에 숨은 것이니 보이지 않는 능력이다.(잠재된 능력)

하늘과 땅은 서로 소통이 되어야 뜻을 이룰 수 있으니, 천간은 땅속의 지장간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또한 땅속의 지장간도 하늘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것을 '소통의 끈'이라고 한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남녀도 만나야만 뜻(자손)을 이룰 수 있지 아니한가.

천간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천간이 뿌리를 내렸다'고 말한다.
반대로 지장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를 '천간에 투출했다'고 말한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丁	乙	丙	癸
地支	亥	巳	辰	巳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己	己	乙	己
	甲	庚	癸	庚
	壬	丙	戊	丙

위의 사주명식(四柱命式)에서 년간(年干) 계(癸)를 지장간에서 찾아본다.
월지의 진(辰) 밑에 지장간으로 계(癸)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를 천간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렸다고 말한다.
또한 월지 진의 지장간 계가 천간에 있으니 투출했다고 말한다.
즉, 계는 천간과 지장간에 동시에 존재하므로 하늘과 땅이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다.

다음은 월간 병(丙)을 지장간에서 찾아본다.
월간 병은 년지의 지장간에도 있고, 일지의 지장간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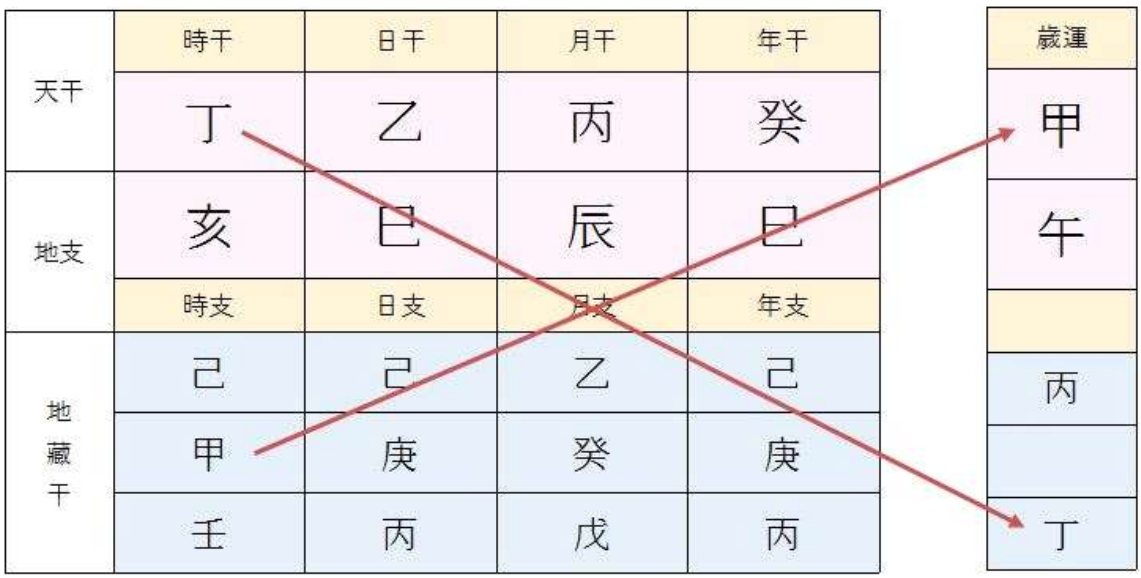
병(丙)은 계(癸)와 마찬가지로 천간과 지장간 모두에 존재하니 하늘과 땅이 소통되어 있는 상태다.

다음은 일간 을(乙)을 지장간에서 찾아본다.
일간 을은 월지의 지장간에 있다.
을(乙)은 병(丙), 계(癸)와 마찬가지로 천간과 지장간 모두에 존재하니 하늘과 땅이 소통되어 있는 상태다.

다음은 시간 정(丁)을 지장간에서 찾아본다.
시간 정은 년, 월, 일, 시의 어떤 지장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丁)은 천간에만 존재하고 지장간에 존재하지 않으니(지장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는 운에서 지장간으로 오면 그때 비로소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며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사주원국에서 천간은 년간, 월간, 일간, 시간이므로 최대 4개의 서로 다른 천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단 한가지의 천간만 존재할 수도 있다.

지장간에는 사주원국에 존재하지 않는 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위의 사주를 예로 든다면 기(己)는 년지, 일지, 시지의 지장간에 모두 존재하지만 천간에는 오르지 못했다.
또한 갑(甲), 경(庚), 임(壬), 무(戊)도 마찬가지로 자장간에만 존재할 뿐 천간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천간에 못오른 지장간은 운에서 천간으로 오면 그때 비로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며 하늘과 땅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갑오년이 되면 시주원국의 시간(時干)의 정(丁)은 운에 지장간 정(丁)이 있으므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
또한 사주원국의 시지(時支)의 지장간 갑(甲)은 운의 천간이 갑(甲)이므로 천간에 투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주원국의 천간이 하늘과 땅에 소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歲運	
天干	乙	戊	乙	丁	癸	
地支	卯	寅	巳	巳	亥	未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甲	戊	己	己	己	丁
		丙	庚	庚	甲	乙
	乙	甲	丙	丙	壬	己

위의 경우는 해묘미 삼합의 운으로 미(未)가 들어온 경우인데 미(未)의 지장간에 丁이 있으므로 사주원국의 년간 정이 소통할 수 있다.

사주원국과 대운에서의 천간과 지장간의 소통도 마찬가지다.

사주원국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丁	乙	丙	癸
地支	亥	巳	辰	巳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己	己	乙	己
	甲	庚	癸	庚
	壬	丙	戊	丙

대운

74	64	54	44	34	24	14	4	-6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壬	己	辛	庚	戊	丁	丙	己	乙
	甲	丁		壬	乙		庚	癸
癸	壬	戊	辛	庚	己	丁	丙	戊

사주원국의 시간(時干)의 정(丁)은 14세 무오대운의 지장간의 정(丁), 24세 기미대운의 지장간의 정(丁), 54세 술대운의 지장간의 정(丁)에 의해 뿌리를 내린다.
사주원국의 지장간 기(己)는 24세 기미대운에서 천간에 투출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 갑(甲)은 74세 갑자대운에서 천간에 투출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 임(壬)은 54세 임술대운에서 천간에 투출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 경(庚)은 34세 경신대운에서 천간에 투출한다.
사주원국의 지장간 무(戊)는 14세 무오대운에서 천간에 투출한다.

천간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거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하면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것인데, 이것은 처분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편재가 소통되면 편재에 관해 처분권한을 가지니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한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다.
그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융통이 되지 않아 시골의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 이때 편재가 천간과 지장간에 소통되는 운이 오면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리고 운에서 비겁이 합이 들면 그때 비로소 땅이 팔린다.

천간의 소통은 사주원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주원국에 없는 천간이 운에서 들어와 소통되는 경우도 일어난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庚	戊	丁	庚
地支	申	戌	亥	申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戊	辛	己	戊
	壬	丁	甲	壬
	庚	戊	壬	庚

歲運	
乙	
未	卯
丁	甲
乙	
己	乙

위의 사주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 을(乙)이 없다.
그런데 을미년에 운의 천간으로 을(을)이 들어오며 운의 지장간으로도 을(을)이 들어온다.
이런 경우에는 나에게 없던 을(을)의 능력이 생겨나며 천간과 지장간으로도 소통이 되는 것이다.

2.천간과 지지 그리고 지장간의 의미

天干	天(때)
地支	人(행동)
地藏干	地(능력)

천간

천간은 하늘의 뜻이고, 때를 말하는 것이다.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은 현재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으며 '대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주원국의 천간의 내용은 현재 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항상 내가 겪으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한다.

천간이 지장간으로 뿌리를 내리면 나는 그것(천간)에 대한 처분권한이 생기며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의 것이 된다.

천간이 지장간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나는 그것(천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니 나는 그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에게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가상의 것이 된다.

지지

지지는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땅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주원국의 지지는 그 사람의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서의 행동방식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사주원국의 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장간

지장간은 천간이 땅에 내려와 숨은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한다.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되었으면 그 능력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투출되지 못했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으니 잠재된 능력이 된다.

운에서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한다면 잠재된 능력이 때를 만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능력발휘)

<천간의 편관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편관	
			辛	
지지	亥	申	辰	未
	정인	정관	정재	편재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己	戊	乙	丁
	甲	壬	癸	乙
	壬	庚	戊	己

위의 사주원국에서 월간 신(辛)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신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신의 육친은 편관인데, 편관은 외국관련의 일을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으로 외국관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편관은 자비를 말하기도 하니, 자비를 베풀 적에도 형식적으로만 베푸는 사람이 된다.

여자의 경우에 편관은 애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애인은 형식적인 애인이 된다.
즉, 실제로는 가져보지도 못하면서 늘 백마 탄 왕자님을 꿈꾸는 타입 인 것이다.
설령 애인을 가져본다고 해도 그 애인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늘 동경과 애증의 대상이 된다.

<천간의 정관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정관
				甲
지지	申	戌	午	子
	상관	겁재	편인	편재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戊	辛	丙	壬
	壬	丁		
	庚	戊	丁	癸

위의 사주원국에서 년간 갑(甲)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갑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갑의 육친은 정관인데, 정관은 명령권을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명령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남자를 보통 바지사장이라 부르고, 여자라면 얼굴마담이라고 부른다.
즉, 위 사람은 어딜 가도 사장 또는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못하며, 단지 서류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만 사장 또는 책임자를 하는 것이다.

여자의 경우에 정관은 남편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남편은 형식적인 남편이 된다.
즉,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며 남편이 있으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천간에 있으므로 늘 곁에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천간의 식신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식신			
	丙			
지지	亥	戌	未	卯
	편인	편재	정재	겁재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己	辛	丁	甲
	甲	丁	乙	
	壬	戊	己	乙

위의 사주원국에서 시간 병(丙)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병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병의 육친은 식신인데, 식신은 행동력을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행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행동가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뒤로 빠진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체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식신은 기술을 뜻하니 겉으로는 기술자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기술자가 아닌 것이다.

식신은 자식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자식은 형식적인 자식이 된다.
즉, 자식이 늘 곁에 있으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 속 썩기 쉽다.
보통 이러한 경우를 불효자를 두는 사주라고 한다.

<천간의 상관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상관
				己
지지	申	酉	子	卯
	편재	정재	정관	정인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戊	庚	壬	甲
	壬			
	庚	辛	癸	乙

위의 사주원국에서 년간 기(己)는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기는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기의 육친은 상관인데, 상관은 조사/관찰/연구를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조사/관찰/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통 과학자인 경우가 많은데, 실지로는 과학자가 아니다.
또한 상관은 궁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는 겉으로만 약은 경우가 된다. 속으로는 그다지 약지 않다.

여자의 경우에 상관은 남편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형식적으로 멀어지는 것도 어차피 멀어짐을 피할 수는 없다. 여자에게 상관은 천간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건 못 내리건 남편과의 인연은 희박하다.

<천간의 편인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편인	
			丙	
지지	卯	戌	申	辰
	정관	비견	식신	비견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甲	辛	戊	乙
		丁	壬	癸
	乙	戊	庚	戊

위의 사주원국에서 월간 병(甲)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병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병의 육친은 편인인데, 편인은 자격증을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자격증을 가졌어도 그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고 걸어만 두는 것이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활용하는 것이니 해당하지 않는다.)

편인은 경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의 경력은 형식적이라는 뜻이다.
겉으로는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도 실지로는 그러하지 않음이다.

편인은 남을 돌보는 것인데 그러한 행위는 형식적이라는 뜻이다.
실지로는 남을 돌보는 행위를 잘하지 못함이다.

편인이 어떤 일을 할 적에 확신을 가지는 것인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착오가 된다.
근거가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천간의 정인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정인			
	丁			
지지	酉	亥	丑	卯
	상관	편재	겁재	정관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庚	己	癸	甲
		甲	辛	
	辛	壬	己	乙

위의 사주원국에서 시간 정(丁)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정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정의 육친은 정인인데, 정인은 엄마를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엄마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엄마는 본인에게 간섭만 할 뿐이고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는 일이 많다.

정인은 학문을 뜻하니 그의 학문은 형식적인 학문인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하는 학자로 보이지만 실지로는 학문적 소양이나 깊이는 부족한 것이다.

정인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실지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인은 가정을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가정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
가정불화가 많거나 이혼을 해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많이 보이는 경우다.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정인은 애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애정은 단지 형식적이다.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인은 인정을 의미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근거가 없는 인정인 것이다.
즉, 맹목적인 인정. 근거 없는 합리화가 되는 것이다.

<천간의 편재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편재	
			壬	
지지	寅	午	辰	巳
	편관	정인	비견	편인
	시지	일지	월지	
지장간	戊	丙	乙	己
	丙		癸	庚
	甲	丁	戊	丙

위의 사주원국에서 월간 임(壬)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임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임의 육친은 편재인데, 편재는 자리를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자리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갈 곳이 많고, 오라는 데도 많지만, 막상 가면 자리만 있을 뿐 역할은 없다.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어색하기만 하다.

또한 편재는 부동산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의 처분권은 나에게 없으니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편재는 남자에게는 애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애인은 가상의 애인이니 연예인이나 상상속의 여자를 꿈꾸기 쉽다.

<천간의 정재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정재			
	甲			
지지	申	巳	丑	子
	겁재	정관	편인	식신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戊	己	癸	壬
	壬	庚	辛	
	庚	丙	己	癸

위의 사주원국에서 시간 갑(甲)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갑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갑의 육친은 정재인데, 정재는 직장을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으로만 직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근은 하지 않는다든지, 직장을 다닌다고는 하는데 딱히 직장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남자의 경우에 정재는 부인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부인은 형식적인 부인이 된다.
즉,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며 부인이 있으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천간에 있으므로 늘 곁에 있어 떨어지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에 정재는 며느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며느리 역할을 못하는 며느리가 된다.
고부갈등이 심한 며느리에게서 쉽게 볼 수 있다.

<천간의 비견(我)이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我		
		庚		
지지	未	午	寅	戌
	정인	정관	편재	편인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丁	丙	戊	辛
	乙		丙	丁
	己	丁	甲	戊

위의 사주원국에서 일간 경(庚)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경은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경의 육친은 비견인데, 일간의 위치에 있으니 나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내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을 두게 되는데 흔히 비서나 친구를 대리고 다는 경우가 많다.
또는 그 누군가는 가족이나 친척 중의 한명일 수도 있다.

위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데 대신에 누군가가 내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군가는 귀신(鬼神)일 수도 있다.
빙의는 귀신이 날아다니다 위 사주의 사람에게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무당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천간의 겁재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린 경우>

	시간	일간	월간	년간
천간			겁재	
			戊	
지지	申	卯	午	子
	상관	편관	편인	편재
	시지	일지	월지	년지
지장간	戊	甲	丙	壬
	壬			
	庚	乙	丁	癸

위의 사주원국에서 월간 무(戊)은 지장간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 무는 가상의, 형식적인 것이 된다.

무의 육친은 겁재인데, 겁재는 돈을 뜻하니 위 사람은 형식적인 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나는 돈의 처분권이 없으므로 내 돈이 아니다. 단지 내손을 거쳐 갈 뿐이다.

겁재는 동기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동기간은 돈 달라는 동기간이거나 돈 많은 동기간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 돈 문제로 동기간에 의가 상하기 쉽다.

또한 겁재는 친구이기도 하는데 돈을 가진 친구이니 사업상 파트너인 경우가 된다.
하지만 위 사람은 그를 다룰 권한이 없으니 그의 처분에 따라야만 한다.

22.음양오행과 의술

잠시 눈을 돌려 바깥을 내다보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과 땅이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땅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으며 만물이 자라고, 사람도 살아간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다.

戊/己

땅에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물이 있기 때문이다.
논밭도 물을 쉽게 대기 위해 냇가와 강가에 자리하지 않던가.
사람이 물가에 모여 사는 것도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나중에 그릇을 만들어 물을 저장함으로 해서 물가로부터 떨어져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원시시대의 인간의 유적지가 모두 강가에 있는 이유는 바로 물때문인 것이다.

농사를 짓는 데에도 물이 필요한데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하면 어떡할까?
우물을 판다.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농사를 짓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뭄이 들면 논밭에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 결국 우물도 마르게 된다.
우물도 마르면 결국 농사는 실패하고 사람도 물을 찾아 땅을 떠나게 된다.
사막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농작을 이 자라지 못하며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비(雨)다.
결국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만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가뭄이 들어 땅이 만물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가뭄에 우물을 파는 것은, 치료를 위해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과 같다.
하지만 가뭄이 길어지면 결국 우물도 마르니, 결국 비가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침을 놓고 뜸을 뜨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결국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하듯 스스로 생명의 힘을 길러낼 수 있어야만 완전한 치료가 되는 것이다.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것처럼, 사람도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음식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얻는 것이다.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위장과 비장이다. 위장과 비장은 음식물로부터 생명의 기운(精)을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장수하려면 우선 위장과 비장이 튼튼해야만 한다.

사람이 늙어 노인이 되면 마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체의 여러 장기가 노화되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위장도 늙으면 음식물로부터 생명의 기운인 정(精)을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약을 먹기도 하지만 약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영구히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늘 먹는 음식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섭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치료할 때도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보아가면서 치료를 해야만 한다.
건강이 매우 안 좋으면 약도 독이 될 수 있다.
독(毒)과 약(藥)은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건강에 따라 약으로 섰지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은 먼저 입에서 분쇄된다.
그리고 위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위운동에 의해 분쇄된다.
이 과정이 무(戊)다.
인(寅)의 지장간이 戊,丙,甲 인데 갑목을 짓밟는 것이 무이기 때문에 무는 밟고 으깨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음식이 위장에서 분쇄되면서 비장에서는 소화액이 나오고 영양분을 흡수한다.
음식으로부터 나온 영양분은 몸을 기르고 쌀지게 한다.
그것이 기(己)다.
기는 만물을 키우는 대지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장기(臟器)도 따라서 늙어가고 기능은 점점 떨어진다.
노인이 되어 마르는 이유는 정(精)이 마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식물로부터 정(精)을 뽑아내는 기능이 약해지는 것인데, 직접적으로는 위장과 비장이 약해져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에는 반주(飯酒)가 좋다.
술은 몸 안에서 열을 내므로 화기운으로 작용하고 밥과 함께 먹으면 열로써 소화를 돕기 때문에 위장과 비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평소에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반주를 함으로써 소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다.

乙

땅이 만물을 키워내지만 만물을 키워내려면 물이 필요하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니던가.
그것을 정(精)이라고 하는데(천간으로는 표현하면 癸水가 된다) 음식물을 소화하면서 정을 빨아드리는 것이 간(肝)이다.
땅은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비를 받아야만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간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을 가리키는 것이 을(乙)이다.
진(辰)의 지장간이 乙,癸,戊 인데 을이 계(癸)를 빨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간은 해독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독작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모호하지 않은가?
사람의 몸에 어떤 독이 있으며 그 독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도 간은 크기가 매우 크다. 거의 손바닥만 하다.

그렇게 크면 뭔가 하는 일도 클 것인데, 솔직히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누군가가 해독작용을 한다고 말하니 지금까지도 그런가보다 한 것 같다.

간에서 정(精)을 빨아드리면 그것은 신장(腎臟)에 저장된다.
그래서 신장은 계(癸)로 정의된다.
계(癸)는 정(精)을 뜻하기 때문에 생명의 작용을 일으킨다.
생명의 작용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전반적인 활동으로 나타난다.

기본적인 생식작용은 말할 것도 없으며 여자에게는 특히 임신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
여자는 생명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자만이 자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정(精)의 소모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 쉽고 잔병치레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몸조리를 잘 해서 손상된 정을 보충해 주어야만 한다.

사람의 장기는 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오장육부 이외에도 중요한 기관들이 있다.
뇌도 그러한 부분인데 사람의 몸에 뇌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고 이것은 계(癸)로 표시할 수 있다.

뇌는 사람의 머리에 위치해 있고 인간에게 머리는 하늘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음양학의 원리상 본래 하늘은 양(陽)이고 화(火)의 영역이며, 땅은 음(陰)이고 수(水)의 영역이다.
그런데 자연이 변화를 일으키려면 화(火)는 아래에 있고, 수(水)는 위에 있어야 하므로 수승화강(水昇火降)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하늘은 수기운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계수(癸水)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뇌가 하늘에 해당하므로 뇌가 계수가 되는 것이다.

사람도 머리는 차야하고, 손발은 따뜻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의 모습에 부합한다.
만약 머리가 뜨겁고 손발이 차다면 그것은 자연의 모습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 어렵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은 자연의 조화로서 그러한 것이고, 인간도 자연처럼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면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머리는 차게 하고 손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것이다.

뇌는 등의 척추를 통해 온몸으로 신경을 연결하고 있다.
사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로부터 연결된 신경의 작용인 것이다.
만약 몸을 움직이는데 장애가 있다면 근육이나 뼈의 장애이기보다는 신경의 문제일 경우가 많으며 그러하다면 뇌와 관련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풍(風)이 그러한 병이다.
지금은 풍을 뇌졸중(腦卒中)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풍이 뇌의 병인 줄 몰랐을 것이다.
요즘에 풍이 뇌로부터 나오는 신경의 장애인 것을 알고서 이름을 뇌졸중으로 붙이지 않았을까 한다.

사실 병중에는 뇌와 관련한 병이 대단히 많다.

인간의 병중에 절반은 뇌와 관련한 병이 아닌가 싶다.
뇌가 그만큼 사람에게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 병도 그만큼 많지 않겠는가.

나무도 오래되면 껍질이 두꺼워지고 마르며 결국에는 죽는다.
그런데 고목나무도 꽃이 피는 경우가 있다.
사람도 간혹 노인에게서 '回春'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회춘은 생명의 근원인 정(精)이 보충되어 짧게나마 다시 젊어지는 현상인데 그것의 증거로서 검은 머리가 난다. 여자의 경우에는 생리현상도 몇 달간 일어난다.
만약 사람에게서 생명의 기운인 정(精)이 마르지 않는다면 늙지 않으며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정(精)은 오행으로 따지면 수기운(癸水)인데 노인이 마른다는 것은 수기운이 말라가는 것과 같으니, 노인이되어도 마르지 않는다면 정(精)을 잃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늙어서도 마르지 않는 몸집을 유지한다면 장수할 수 있다.

丙

위장과 비장을 통해 소화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넘어간다.
소장은 천간으로 병(丙)이다.
병은 열을 말하는데 이것은 소장이 열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어른들의 말에 '잠잘 때는 배를 꼭 이불로 덮고 자라' 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배를 차갑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때의 배는 윗배 즉, 소장이 위치해 있는 부위인데 이 부분이 차갑게 되면 몸의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해부학은 위장보다 소장이 더 많은 소화기능을 담당 한다는 분위기인데, 현대의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새로운 연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과학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양오행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庚

음식물이 소장을 지나면 대장에 이르게 되는데 대장은 천간으로 경(庚)이다.
경은 힘, 진동, 움직임을 뜻한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을 써야 할 때 아랫배에 힘주라고 한다.
아랫배는 대장이 있는 위치다. 대장이 힘을 내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단전호흡시에 기(氣)를 아랫배에 쌓으라고 한다.
기는 천간으로 경(庚)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가 힘의 근원이며, 아랫배에 쌓이는 것은 대장이 또한 경(庚)이기 때문이다.

복싱에서 복부타격은 상대방의 스텝을 느리게 하고 힘을 못 쓰게 한다.
스텝을 느리게 한다는 것은 경(庚)은 움직임을 말하는데 이곳이 타격을 받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힘을 못 쓰게 하는 것도 경(庚)이 힘을 의미하는데 이곳이 타격을 받으면 힘을 못 쓰는 것이다.

남자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기력(氣力)이 떨어지고, 여자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정신(精神)이 혼미해진다.
그 이유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精)을 소모하게 되는데, 남자는 사정(射精)으로서 정을 소모하고, 여자는 생리(生理)로서 정을 소모한다.

남자에게만 쓰는 말로 정력(精力)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자의 정(精)은 힘이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힘의 근원인 기(氣)가 정액(精液)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는 교접(交接)시 사정을 하면 힘이 많이 빠진다. 보통 속된말로 100m 달리기 한번 한 것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여자는 생리(生理)라는 것을 한다.
생리는 임신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생리혈(生理血)이 나온다.
여자는 생리혈에 정(精)이 녹아 있고, 그로인해 정이 조금씩 빠져 나가는 것이다.
정(精)은 계(癸)이고 계는 뇌(腦)이기 때문에 여자는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다.

선도(仙道)에서는 여자가 선녀(仙女)가 되려면 생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생리를 끊어야 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리를 끊으면 여자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유방도 작아져 남자처럼 되어 버린다.

선도의 또 다른 방법인 방술(房術)은 생각이 다르다.
방술은 적극적으로 정(精)을 구하면 정이 소모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으며 오히려 늙지 않는 불로장생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방술로서 선녀가 되면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다.
100년을 넘게 산다면 부모형제는 남아 있을 수 없으며, 자손이 있다 해도 자손과 함께 살 수는 없을 것이다.

壬

생명이란 어떤 개체가 독자적으로 내부의 물질을 이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임(壬)이다. 임은 정확하게 말하면 흐름을 뜻하고 그 흐름을 통해 각종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 물질(庚)은 각종 양분, 호르몬 등이 될 것인데 그것은 보통 피에 의해 이동이 된다.
임(壬)과 경(庚)의 차이점은 임은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경은 알갱이(물질)를 말한다. 그러니까 경이라는 알갱이가 임이라는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다. 임이 없다면 경은 움직일 수 없다.

사람의 몸에서 흐름과 관련한 장기는 방광(膀胱)이다.
방광은 오줌을 담아두는 장기인데 오줌은 결국 몸 밖으로 배출해야하는 흐르는 물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인체에는 흐름에 관한 것들은 대단히 많다.
피도 흐르고, 신경도 흐르고, 심지어 음식물도 입으로부터 흘러 흘러 대장에 이르고 결국 변으로 배출된

다. 보통 병원에서 순환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임(壬)에 해당하는 질병이 된다.
그래서 경락(經絡) 중에서도 방광경은 온몸을 돌고 돌아 매우 크고 길다. 혈(穴)자리도 매우 많다.

수기운은 토기운에 의해 막히는데, 만약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흐름이 막힌 것이니 토기운인 위경과 비경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수로가 막혔을 때 수로의 막힌 부분을 찾아 막은 물질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한편으로 방광경을 다스리는 것은 물의 압력을 높이는 것과 같다.
수로가 막혔을 때 수압을 높이게 되면 자칫하면 수로의 약한 다른 부분이 터져 오히려 물이 샐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조심해야 한다.

노인이 되면 관절이 뻑뻑해지고, 눈도 뻑뻑해지고, 입에 침도 마른다.
그 이유는 사람은 늙어갈수록 수기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화(老化)의 말라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에 움직이는 부분을 찾아보면 관절이 있고, 눈이 있고, 혀가 있다.
움직이는 것은 경(庚)이고 경은 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데, 수기운이 적어지면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가 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부위를 지나가는 방광경에 뜸이나 침을 놓으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수기운은 음식물로써 보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임(壬)은 즐거움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남녀의 교접시의 즐거움은 방광으로부터 나온다.
소위 성감대라고 불리는 곳은 바로 방광 밑이다.
여자는 이 부분을 쉽게 만질 수 있으며 교접시에도 이 부분이 자극되므로 쾌감을 느끼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는 보통은 쉽게 만질 수 없는데, '전립선 마사지'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항문에 손가락을 깊게 넣으면 닿을 수 있다. 해부학적으로 그 부분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마사지라고 부르지만 그곳이 실상 방광 바로 밑 부분이다.
요즘은 '경락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소도 많은데 성감을 자극하려면 방광경을 마사지해야 하는 것이다.

辛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폐(肺)다.
폐는 천간으로는 신(辛)이다.
신은 껍질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람의 껍질은 피부이니 피부와 관련한 병은 폐경으로 다스린다.

사람은 더우면 피부에 땀이 흐르고 추우면 닭살이 돋는다.
그것은 외부온도와 신체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함인데 감기는 그러한 작용과정에서 오는 병이다.
이를테면 갑자기 추운 곳에 가거나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적응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감기는 폐의 병인 것이다.

의학서에 폐는 기(氣)를 주관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氣)는 우주에 퍼져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접하려면 호흡을 통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다.
이를테면 단전호흡도 숨을 쉬는 것인데 그렇다면 폐를 쓰지 않느냐 하는 정도인 것이다. 기(氣)는 폐가 아

니라 대장과 관련이 있다.

피부호흡이라는 말도 있고, 양서류는 피부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는 이유가 폐는 신(辛)이고 신은 껍질이어서 피부가 되기 때문이다.

丁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마음은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한다든지, 심장이 뛴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다.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심장(心腸)이고, 심장은 천간으로는 정(丁)에 해당한다.
실제로 심장은 놀란다든지 때로는 차분할 때의 마음이나 기분에 따라 박동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심장의 한자가 마음 심(心)자가 아니겠는가.

심장은 생사(生死)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즉, 심장이 뛰면 산 것이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설령 다른 기관이 아직 살아있다고 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인류의 전통적인 생사의 판단의 기준은 심장의 뜀 여부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뇌사(腦死)라고 부르는 죽음이 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의식불명인 상태를 말한다.
또한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인공적으로 심장을 어느 정도 뛰게 할 수도 있다.
심장은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뛰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의식이 없다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으니 뇌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의제(擬制)하는 것이다.
그래서 뇌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판정을 한다.

심장은 화기운이므로 수기운을 싫어한다.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뜨거운 난로와 같은데, 뜨거운 난로에 찬물을 끼얹으면 난로가 퍽하고 흰 연기를 뿜으며 터진다. (옛날에 집에 난로를 피워본 사람은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난로가 차갑게 식는 것이 아니라 그냥 터지는 것이다.
그래서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여름에 덥다고 찬물에 뛰어 들어가면 위험하다. 심장이 갑자기 터지기 쉬운 것이다.
노인들이 겨울에 갑자기 추워졌을 때 아침 일찍 밖에 나가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물론 의학적으로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그렇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양오행 상으로는 같은 이유다.(의사가 음양오행을 이해하면 신의(神醫)가 될 수 있다)

심장은 마음과 관련한 장기인데 이것은 신(神)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神)은 생각의 근원으로서 정(精)과 기(氣)와 함께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丁)에 장애가 일어나면 마음의 병이 일어나고, 망상증 같은 정신병을 겪기도 한다.

참고로 뇌(腦)는 계(癸)인데 뇌의 병은 정신병과 다르다.
치매나 기억력감퇴는 정신병이 아니고 단지 뇌의 병이다.

甲

인체의 오장육부(五臟六腑)중에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담(膽)이다.
담은 천간으로는 갑(甲)이 된다.

해부학적으로 담은 간에 붙어 있는데 크기도 작고, 담즙을 내어 소화기능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딱히 이렇다 할 작용이 크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담이 없이도 사는 사람도 있다.
보통 그런 사람을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담이 없으면 갑(甲)이 없는 것이니 줏대가 없고, 자존심이 약하다.

갑은 의학적으로 보다는 다른 의미로서 쓰여 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갑은 우뚝 선 나무인데, 갑이 약하면 자세가 똑바르지 않고 꾸부정하게 기울여 있다든지, 또는 갑은 머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와 관련한 부분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갑은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데 갑이 약하면 성기가 왜소하다든지 하는 식의 형태적인 부분에서의 활용이 많은 것이다.

역학적으로 분석한다면 갑목은 토를 다스리는데, 이는 토가 낳고, 기르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며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스리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체질(體質)
체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찌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름만 되면 더위를 먹어 축 늘어지는 사람도 있고, 유난히 추위를 타서 겨울이 싫다는 사람도 있다.

체질은 그 자체로 병이라고 볼 수 없다.
살이 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의학적 보고도 있다.

체질은 사주에 그대로 나타난다.
화기운이 강하면 마르게 나타나고, 수기운이 강하면 뚱뚱한 모습을 가지기 쉽다.
마르고 뚱뚱한 것이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니며, 추위를 많이 타거나 더위를 많이 탄다고 병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사주와 체질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화기운이 강한데도 살이 쪘다든지, 수기운이 강한데도 마르고 추위를 많이 탄다면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오행의 기운이 오작동을 하는 것이니 넘치거나 부족해짐에 따라 비로소 병이 되는 것이다.

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서 어느 한가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때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병이 올적에는 사주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주에서 말하는 원인과 의학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양의학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이 보일 수도 있다.

어떤 병은 쉽게 고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병은 오랫동안 몸에 남아서 고통을 줄 수 도 있다.
그러한 경우가 몸에 병을 지니고 사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운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관이 없는 여자의 경우, 결혼할 때는 정관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해에는 정관이 보이지 않는다.(운은 수학공식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지므로)
정관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혼한 여자에게 남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병도 마찬가지로 들어올 때는 운에서 나타나지만 몸에 지니고 사는 경우에 보이지 않는다.

병이 치료가 될 때는 사주에 나타난다.
위에서 말한 정관이 없는 여자가 이혼을 한다면 그때도 정관이 나타나는데, 병도 치료가 될 때는 다시 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진단(診斷)
의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진단이다.(진단이란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을 말한다.)

종종 전에 치료했던 어떤 사람의 질병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여서 치료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려 근육의 문제로 생각하고 치료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인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치료는 되지 않으며,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증세를 가진 병이라도 원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가 들어오면 우선 거동을 살피며 환자를 관찰한다.
겉으로 보기에 움직임이 불편하다든지, 아픈 곳이 눈에 띄면 병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본다.
의사가 눈으로 살핀 곳과 다르게 아픈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각종 장비를 이용한 사진도 찍고, 혈압도 재보고,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낸다.
병의 원인을 찾았으면 그 다음은 일반적인 치료 매뉴얼에 따라 치료를 시작한다.

참고로, 대게 환자는 어디가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하는데, 의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그저 참고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병은 환자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환자는 의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의술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한다.

그런데 의술과 역술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역술인도 손님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역술인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고, 역술인은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고 상담이 끝나면 손님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며 역술인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한다.

음양오행의 관점으로 볼 적에는 의술과 역술은 같다.
사람의 신체도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작동을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인생도 음양오행의 원리에 지배되며 흘러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술인이 손님을 맞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맞는 것과 같다.

손님이 찾아오면 먼저 그의 행색과 안색을 살펴본다.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사정을 들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의 아픈 부위나 거동만을 보고서는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역술인도 손님의 행색이나 안색만으로 그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님으로부터 사정을 들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나서 비로소 사주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 검사를 해서 신체의 병을 진단하는 것은, 역술인이 손님의 고민을 들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사주라는 도구를 통해 인생의 병(삶의 고통)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시중에는 역술인이 마치 신(神) 인양 요술을 부려 사주만 보고서도 이래서 인생이 그렇게 괴롭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아 올바른 사주풀이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는 의사의 오진에 의해 병이 더 위중해질 수도 있듯이, 역술인이 내뱉는 한마디에 손님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삶의 희망을 포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치료불능(治療不能)

병이 들었다고 다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환자의 마음이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병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여 의사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주변의 권유로 마지못해 가는 단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몸을 다스리기는 어려우니 설령 병의 원인을 자신이 잘 안다 해도 치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돈이 너무 많아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돈이 많으면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의료진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최고의 의료진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으니 아무리 의술에 밝은 의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살려거든 무식하고 가난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너무 똑똑하면 의사를 믿지 않으며, 돈이 많으면 최상의 의술만을 찾다가 돈만 쓰고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큰 병원에 가지 못하니, 용하게 치료를 한다는 시골의 도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도사의 치료법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먹으라고 하는데, 무식하면 그저 죽으나 사나 전적으로 그의 처방에 따르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죽을병에서 살아난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위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또한 시골의 용한 도사의 의술이 반드시 치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 역시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었는데 어떤 환자는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병이 하나면 그것을 치료하는 약은 열 가지이니, 사람이 죽는 것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을 찾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암 말기에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니 요양원에 가라고 내몰리는 환자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그런 판정을 받고도 산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약재를 먹으며 치료한 사람들을 주위에서나 TV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것이 세상에는 병이 하나이면 약이 열 가지 이고, 결국 약을 찾아서 살아나는 증거이다.

아이러니(Irony,모순(矛盾))

어떤 노인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암 말기의 환자였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큰 아들을 치료하는데 삼천만원이 들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만 작은 아들도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큰 아들의 치료에 많은 돈을 써 돈이 다 떨어진 노인은 할 수 없이 수소문을 해서 시골에 사는 어떤 도사를 찾아 작은 아들의 치료를 맡겼다.
도사는 치료비로 삼백만원을 요구했고 노인은 치료비를 선불로 주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아들도 죽고 말았다.

노인은 화가 났다.
도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찰에 고발했고, 도사는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1.과연 노인은 작은아들을 큰아들처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까?
2.큰아들이 죽었을 때는 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을까?

대학병원이라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는 못한다.
세상에는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병도 있으며, 병의 원인을 안다 해도 현재의 의료기술의 한계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은 작은 아들이 죽어서 화가 났다고만 할 수는 없다. 큰 아들이 죽었을 때도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큰 아들이 죽었을 때는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아니, 고발해봐야 소용이 없다.
의사가 명백한 잘못(의료사고)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가 아니면, 의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책이 된다. 반면에 도사는 치료에 관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의사나 도사나 모두 치료에 실패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누구는 책임을 져서 형무소에 가야한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도사보다 의사가 더 괘씸할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삼천만원 씩이나 줬는데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사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겨우 삼백만원을 받은 도사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다.
신문이나 TV에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건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그것은 한편으로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기도 한다.

엄마가 배가 아프다는 아이에게 “엄마 손은 약손이야” 하면서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 치료행위임을 말하거나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이고, 엄마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한다.

팔뚝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처벌 받는다.

문신을 그리다가 병균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릴 수 있다거나, 부작용으로 인한 2차적 신체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 받는다.
이것은 치료행위임을 말하거나 인식하는 것과도 관계가 없다.
내가 내 몸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현실적으로 범죄인가 아닌가의 경계에 있는 분야가 마사지다.
마사지도 얼마든지 치료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마사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그것을 건드리면 사회문제가 되므로 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다. 아니, 정책적으로 이슈화를 막고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밥그릇 싸움이다.
그것에 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패러다임에 있다.

과거 6,70년대에는 장발단속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머리길이를 국가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 한국에서의 개인은 자기머리를 기를 자유도 없이 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니 과거의 정당한 행위도 지금은 부정되고 마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 국가의 지시에 국민은 무조건 따르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규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니 과거에 만들어졌던 의료관련 법규도 재평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종의 타협이 이루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손가락을 딴다든지, 익모초를 다려 먹는다는 하는 풍습이 있었다면 그것은 의료법의 단속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서구에서는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양의(洋醫)에서 말하지 않는 풍습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술을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류가 한국에도 전파되면서 이루어낸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에 힘입어 풍습으로 내려오는 수많은 민간요법이라고 불리는 의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성과를 올리는 것도 사실이다.

23.길흉(吉凶)

사주학을 포함한 모든 운명학에서 길흉을 말한다.
그러나 길흉이란 주관적 판단이며, 그 판단의 시점에 따라서도 길인지 흉인지가 달라진다.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이야기가 있다.
옛날 중국의 변방에 늙은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도망쳤다.
주변 사람들은 말을 잃어서 안됐다고 위로 했는데 노인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며칠 후 도망쳤던 말이 다른 여러 마리의 암말을 데리고 찾아왔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말이 생겨서 좋겠다고 하자 노인은 글쎄.. 그게 흉한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얼마 후 노인의 아들이 새로 생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절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안됐다고 하자 노인은 다시 그게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얼마 후 전쟁이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 나가게 되었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절어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새옹지마의 이야기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인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도 있고, 그 나쁜 일이 다시 시간이 흘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세상사, 인생사가 그러할 진데 어찌 길흉을 쉽게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애초에 길흉이 정해져 있다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은 왜 하겠는가?
연애할 적에는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좋았던 길(吉)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면 흉(凶)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 길흉은 단지 평가하는 시점의 문제인 것이다.

자연의 변화에 길흉이란 없다.
단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할 뿐이다.

24.궁합(宮合)

궁합은 글자의 풀이대로 말하면 궁도의 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남자의 년지와 여자의 년지를 비교하고 또 월지와 월지, 일지와 일지, 시지와 시지를 각각 비교해서 합이 드는지 아니면 충이 드는지 또는 원진이 드는지를 따져서 잘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주의 남녀가 있을 경우에

남자

시주	일주	월주	년주
乙	戊	甲	戊
丑	午	寅	午

여자

시주	일주	월주	년주
戊	乙	辛	庚
午	未	巳	申

시지끼리의 궁합은 원진이고, 일지끼리의 궁합은 형/해이고, 일간끼리의 궁합은 합이다.(년지는 운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합이면 어떻게 좋다는 것인지, 원진이면 어떻게 나쁘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또한 대인관계는 육친으로 파악되는데 일주가 다른 경우 육친도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결혼은 인륜지 대사로서 한 두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도 평생을 살면서 다투지 않는 부부는 없다. 반대로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때로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방법으로 평생의 길흉을 판별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남녀의 만남에 관한 운을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좋은 방법이 각자의 배우자 운을 보는 것이다.
남자의 배우자운은 어떠하고, 여자의 배우자운은 어떠한지를 보고 궁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맞는다.

위의 남자의 배우자운을 살펴보면
비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해 여자를 다스리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여자를 다스리는 방법은 명령으로 다스리기 보다는 자비로서 다스리는 타입이다.

여자의 배우자운은 관성이 강하고 비겁이 약해 남자에게 꼼짝 못하는 사주이다.
하지만 식상은 강해 남자에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강하다.
따라서 속으로는 꿍시렁대기는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남녀의 배우자운을 파악하면 만나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나서 잘 살 것인지 못 살 것인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따로 다뤄야 한다.
남자가 돈벌이를 잘하면 별 문제없이 잘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자가 벌던지, 다투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해서 정이 깊어도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안치 않은가.
가정의 불화는 거의 돈 문제이니 결혼해서 잘 살지 못 살지는 그 문제로만 따져 봐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

집안에 여자가 잘 못 들어와 재수가 없어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망한다는 얘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것도 모두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잘못이 아닌 한 근거 없이 그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반대로 남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여자는 많다.
이 부분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여자에게 남자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자의 인생은 남자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던가.

본래 타고난 배우자운이 불길한 경우도 많다.
여자의 경우 상관이 강하면 남자 복이 약해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연애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의 직장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자녀의 공부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주말부부처럼 산다든지, 따로 떨어져 있게 된다든지)

남자도 마찬가지다. 남자의 배우자운이 약하면 좋은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다.
특히 재성이 약하면 아는 여자도 드물고 연애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어렵게 결혼을 해도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다.
이유는 다양하다. 남편이 장남이거나 가풍이 엄해서 부인이 힘들어 할 수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데 남편은 마마보이라 엄마 편을 들어서 부인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묘한 것은 남녀의 각자 배우자운이 아귀가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편이 거칠면 부인은 순하고, 반대로 부인이 거칠면 남편은 순한 식으로 마치 톱니바퀴의 아귀가 맞아 들어가듯 만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격이 둘 다 거칠다든지, 아니면 둘 다 우유부단하면 만나지지도 않을뿐더러 만나서 살다보면 다투고 헤어지기 쉬운 것이다.

싸움도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쉽게 항복하면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그러한 부부가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역술인은 궁합을 볼 때 그렇게 각자의 배우자운으로서 배우자의 성향과 그로인해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일을 예측해주어야 한다.

●여자의 배우자 운1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正財	我	劫財	正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財		劫財
			正官	

천간에 정관이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남편이 늘 곁에 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복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사주는 길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늘 곁에 있다는 것은 여자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기 어렵고 일부종사하기 쉬운 여자다.
(하지만 살다보면 남편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천간의 정관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 정관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혼의 결정권은 부인이 가지는 것이다.)

천간에 겁재가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현찰을 만지는 사주인데, 일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자신이 쓰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부인에게 용돈을 타서 쓰게 된다.

천간에 정재가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집안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는 여자가 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여자의 배우자 운2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偏財	我	正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천간에 정관이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아니하니 남편이 늘 곁에 있지만, 허수아비와 같아 제 역할을 못한다.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남편이 귀찮은 존재이기 쉽다. 하지만 남편이 늘 곁에 있으니 버릴 수는 없다.
여자의 배우자운이 이러하면 남편이 못마땅해도 평생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살다보면 다투고 이혼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여자가 먼저 남자를 버리는 경우는 없다.

편재가 천간에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니 남편이 일을 못해 벌이가 없으면 여자가 나가서 벌게 된다.

역술인이 이러한 여자의 사주를 만났을 때 그러한 것을 이야기 해줘야 하나의 고민이 있을 것인데, 본인에게든 아니면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완곡하게 말을 잘 해야 한다. 역술인은 듣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령 죽음을 앞둔 환자라 할지라도 비관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처럼, 역술인도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여자의 배우자 운3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偏官	我	傷官	
地支		傷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官			
		傷官		

여자는 천간에 상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남편의 운이 약하다.
이상하게 남자와 멀어지게 되어 결혼 후에도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것이 주말부부가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이혼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천간에 편관이 있고 그것이 지장간에 뿌리를 내린다면 바람을 피워 애인까지 두는 경우가 많다.
즉, 남편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애인은 가까이에 있는 형국이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여자의 배우자 운4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食神	我	食神	
地支				食神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傷官	食神	
				食神

식신과 상관이 혼재되어 많은 경우에는 남자를 쥐고 흔드는 여자다.
이 같은 여자는 남자가 다스리기 불가능하고 오히려 남자가 쩔쩔매게 된다.
천간에 식신만 있다면 다행히 남편과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자가 기를 펴고 살 수 없으니 남자의 입장에서는 죽어지내야 하는 경우다.

사주가 이와 같은 여자는 아귀가 맞아야 하므로 남자는 우유부단한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여자는 남자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으며 남자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남자의 배우자 운1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正財	正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財			正官

기본적으로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일을 하니 남자는 가정을 잘 지켜주는 여자가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자로부터 편안함을 얻는다.
(하지만 살다보면 부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천간의 정재가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 정재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혼의 결정권은 남편이 가지는 것이다.)

정재가 천간에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면 편안한 여자를 얻게 되는 배우자운이다.
또한 천간에 정관이 있고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면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갖게 되어 가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남자의 배우자 운2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正財	
地支		偏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正印	
	偏財	偏印		偏印
		偏財		

천간에 정재가 있지만 지장간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부인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반면에 편재는 천간에서 지장간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애인이 더 좋은 것이다.
거기에 인성이 혼잡 되어 있으니 가정이 복잡한 것인데 이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전형적인 유형의 남자다.
이런 사주는 연애시절에는 좋지만 일단 결혼이 되면 부인보다 애인을 더 찾게 되는데 그렇다고 부인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남자의 배우자 운3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比肩	我	劫財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劫財		
	比肩		比肩	劫財

사주에 재성이 없으며 재성을 극하는 비겁은 매우 강하다.
이런 경우는 여자의 운이 매우 희박해서 여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결혼이 되어도 오랫동안 해로하기가 어

렵다. 여자 또한 시댁의 환경이 매우 견디기 힘든 환경이다.

사주에 정재가 없으면 부인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사주는 평생 여자와 인연이 약하다.
남자가 결혼이 늦어지는 유형의 하나다.
힘들게 여자를 얻어도 여자를 지배하려는 성격이 강해 원만한 결혼생활이 어렵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남자의 배우자 운4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正財	
地支				正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財	偏財	
	偏財			
				正財

재성이 강하면 여자에게 휘둘리게 되는데, 성격적으로는 우유부단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모범생이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집안에서도 부인을 잘 도와주며 가정에 충성하는 남편인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우 힘이 든다.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은 국가적으로 보면 좋지만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은 회사로부터는 칭찬받지만 한편으로는 부려먹는 회사의 종이기도 하다.
가정에 충성하는 남편은 부인이나 아이들에게는 친근하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포기해야만 한다.
위 사주는 그러한 유형인 것이다.

또한 년지가 정재이면 부인을 앞세우니 결국 부인이 가장이 되고 가정을 먹여 살리게 된다.
점점 무능해지는 남편이 되어간다.
재벌집 사위로 들어가서 기를 펴지 못하고 데릴사위처럼 살아가는 유형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처복이 있다고도 말하기도 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버니 설령 남자가 놀아도 먹고사는 걱정은 안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자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러한 여자가 만나진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5.직업에 따른 사주의 유형

사주에 직업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이 사주는 대통령사주다' 또는 '이 사주는 재벌사주다', '장군사주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운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만한 상황도 있지만, 적어도 사주만 보고서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며 한 가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사람은 한 우물을 파듯이 한 가지 직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몇 번 직업을 바꾸고 살아간다.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사주에서 바뀌지 않는다. 직업이 달라져도 하는 일에는 큰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몇 년 후 세무사 사무실로 직장을 옮겼다. 그러나 하는 일은 똑같이 경리다. 직장만 바뀌었을 뿐 하는 일은 유사했던 것이다.
사주는 직업을 말하기 보다는 하는 일이 어떠한가를 말해준다.

직업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계속 세분화되어 점점 다양해진다.
조선시대에 전파사는 없었다. 그러나 대장간은 있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대장간에서 일했을 사람이 현대에는 전파사에서 전기기술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주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앞으로 또 어떻게 문명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사주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다.

요즘은 연예인이 되면 성공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다.
사주로서 '연예인'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연예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재능이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모두 연예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기회가(그 기회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왔을 때 그리고 그가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비로소 연예인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예시는 대운을 고려하지 않고 사주원국과 지장간만으로 풀어본 것이다.
관운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대운에서 관운이 들어와 공무원을 할 수도 있으며, 요리에 재능이 없어도 요리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대운이 지나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며, 요리사도 그만 두게 된다. 정확하게 풀이하려면 대운까지 고려해야 하나 모든 사주를 대운과 함께 예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사주원국과 지장간만으로 예를 든 것이다.

1.선생님(초중고 정규직 선생님)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食神	我	正財	正印
地支			正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食神		正印	正財

예전에는 선생님하면 의례히 학교선생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학교선생님은 평생 직장인으로서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도 임시직으로서 계약직이나, '기간제' 라고 불리는 선생님도 있다.
그러한 선생님은 사주에서도 차이가 있다.

위 사주는 정규직 선생님으로 정년이 보장된 선생님의 사주다.
정규직이 되려면 정재와 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장간에도 반드시 정재와 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많으니 식신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선생님(초중고 임시직/계약직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偏財	偏印
地支	食神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偏印	偏財
	食神			

위 사주는 초중고 임시직/계약직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선생님의 사주다.
편재가 있으면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며 계약서를 쓰려면 반드시 편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편재와 편인이 모두 사주에 있다면 비정규직의 계약직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학원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도 같은 유형의 사주다.
또한 지장간에는 적어도 하나의 정인이 있어야 한다.
지장간의 정인은 때때로 일정기간 거의 정규직 같은 선생님을 만들 수 있으며,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아이들과 인연이 많으니 식신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대학교수(강사, 조교)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財	我	正官	正印
地支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食神
	偏印		正官	正財
		偏財		

대학교수는 일단 정관이 있어야 한다.
대학교수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을 어느 정도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문을 탐구하는 자이므로 정인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계약직이 많다. 강사나, 조교가 매우 많지 않은가. 따라서 편인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편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제자가 있어야 하니 식신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공무원(일반 행정직)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財	我	正官	
地支	正印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正官	正財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정관운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안정된 자리이니 정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육체노동보다는 펜대를 굴리며 일을 하니 정인도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5.공무원(경찰, 검찰, 감사원, 세무직)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財	我	傷官	
地支	食神		偏官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食神	
	傷官		正官	正財

경찰, 검찰, 감사원, 세무직의 공무원도 공무(公務)를 보니 정관이 있어야 하고, 남의 뒷조사를 하거나 문서의 조사, 행동의 관찰이 많으니 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때로는 완력도 필요하니 식신이 있어야 한다. 재성은 필수는 아니며, 정재가 있어도 되고 편재가 있어도 된다. 문서를 만질 일이 많으니 정인도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6.군인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我	食神	偏官
地支	偏財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傷官		正官	偏財
	偏官		食神	

군인의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이기는 하나 특히 체력을 요구하고, 칼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식신은 필수이다.

또한 군인은 이동이 많다. 한곳에 오래 머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외딴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관과 상관도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7.의사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丙	我	食神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印			
		丙	癸	
				食神

의사는 반드시 칼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식신은 필수다.
또한 병화(丙火)가 있어야만 치료를 할 수 있으니 병화도 필수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편인으로서 하는 일이니 편인도 있어야 한다.
계수(癸水)는 건강의 문제를 다루니 계수도 있어야 하나 계수는 필수는 아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8.약사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劫財	我	丙	正財
地支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庚		劫財	
	傷官	丙		正財
			偏印	

약사는 의료분야의 일이므로 병화는 필수다.
또한 약이라는 물건을 취급하므로 경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약국도 일종의 장사이므로 약이라는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으므로 겁재가 있다.
하지만 약국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약사라면 겁재는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칼을 만지지는 않으므로 식신은 없어도 된다,
그러나 약에 관해 조사, 연구의 일이 많으므로 상관은 가진다.
또한 때대로 상담을 하므로 편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약사라는 직업은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므로 정재를 가진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9.간호사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偏印	我	丙	食神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癸	
	丙	偏印		
				食神

간호사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니 편인은 필수다.
그러나 간호사라고 모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도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야 하고, 요양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식신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0.연구원(박사, 과학자)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傷官	
地支		傷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傷官	正印		
				傷官
		傷官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학이 아닌 분야도 연구 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연구소에서만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직장내에서도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를 하려면 조사, 관찰 능력이 좋아야하므로 상관은 필수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므로 정인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1.디자이너(설계)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傷官	我		偏印
地支	偏印		偏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傷官	傷官
	偏印		偏財	

디자이너는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므로 상관이 필수다.
디자이너는 옷뿐만이 아니라 건축설계도 디자인에 해당하고 자동차 설계 또는 컴퓨터 그래픽디자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일은 연구를 하는 일과 유사하다. 그래서 연구원의 사주와도 유사하다.
또한 디자인은 이것저것 따지고 까다로운 일이므로 편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기보다 프리랜서형의 일인 경우가 많으며 편재가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2.금융분야(은행, 증권, 보험)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壬	我	劫財	癸
地支	子		亥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壬		偏財	
		癸		劫財

금융분야는 돈을 많이 만지는 일이므로 겁재가 필수다.
또한 수기운이 강해야 회계, 경리의 일을 잘 한다. 따라서 임수 또는 계수 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돈을 만지는 일을 하다보면 작은 돈보다는 큰돈에 욕심을 가지기 쉬우므로 편재가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3.장사(일반 소매업)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庚	我		劫財
地支		劫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劫財			
				劫財
		劫財	庚	

일반적으로 장사라고 하면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고 영업의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물건을 팔고 즉시 현금을 받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겁재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장사할 때의 판매제품은 경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4.유통업(도매업)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辛	庚
地支	申	酉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庚		
			辛	
	庚			庚

유통업은 물건을 들고 뛰는 사주이므로 금이 많아야 한다.
금은 경금이거나 신금을 말하는데 신금보다는 경금이 좀 더 물건에 가깝다.
그리고 현금결제를 즉시 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통의 장사와 조금 다르게 겁재는 없을 수도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5.작가(소설, 드라마, 시나리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傷官
地支		偏印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傷官		偏印	
		偏印		

작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편인은 필수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문서화 해야 하니 정인도 있어야 한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상관의 능력이다.
그리고 가상의 세계를 그려야 하는데 그것은 편재가 천간에만 있는 것이 좋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6.기자(평론가)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傷官
地支	傷官	偏印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傷官
	傷官	偏印	偏印	

기자는 조사, 관찰, 연구의 일이 많다. 또한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상관은 필수다.
또한 이것 저것 따지는 일도 잘한다. 그래서 편인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장력이 좋다면 평론가로도 활동할 수 있고 이것은 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7.운동선수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官	我		食神
地支	傷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食神		偏官
	傷官			

운동선수는 육체적으로 강해야 하므로 식신은 필수다.
그러나 같은 운동이라고 해도 골프의 경우에는 상관이 있는데, 이는 머리 쓰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선수는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할 경우 편관도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8.무당(巫堂)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傷官	我	傷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傷官		
	偏官			傷官
			傷官	

무당의 사주는 조건이 까다로운데, 상관이 아주 강해야 한다.
오로지 상관만 강할수록 순수한 무당이 된다.
순수한 무당이란 어렸을 적부터 귀신이 보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오로지 무당의 업만을 평생 동안 하는 무당을 말한다.
대부분의 무당은 빠르면 20대, 늦어도 40대에 시작하며 본래 다른 일을 하다가 내림굿을 받아 무당의 길로 들어선다. 그리고 짧으면 1,2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순수한 무당일수록 남자와의 인연도 약하다. 그래서 정관이 없어야 좋은 무당이다.
또한 정관이 있으면 세속적이어서 재물을 탐하기 쉬우며 그러다보면 불법의 일을 저지르기도 쉽다.
그리고 비겁이 없어야 순수한 무당이다. 비겁이 강할수록 무당의 일을 오래하기 어렵다.
편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하지만 있으면 더 순수해진다.

무당이라고 모두 신병을 앓는 것은 아니다.
보통 신병을 앓게 되면 내림굿을 하고 무당이 되어 신당을 꾸미고 개업을 하는데, 신병을 앓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내림굿을 안 하고 신당을 꾸미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신병을 앓는 경우는 인성운이다. 그리고 겁재운에서 개업을 한다.

식신이 있는 무당도 많다. 식신은 도를 닦게 만드는데 그래서 도를 닦는 무당도 매우 많다.
퇴마사는 거의 무당출신인데 식신이 강한 무당이 퇴마를 할 수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19.도사(道士)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食神	我	食神	偏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食神		偏官	食神

도사의 사주도 무당의 사주처럼 조건이 까다롭다.
도를 닦는 행위는 식신이므로 도사는 식신이 필수이다. 그리고 순수한 도사일수록 식신이 강하다.
도를 닦다보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인지 아니면 귀신이 붙어서 하는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 어렵다. 이때 사주를 보아서 상관이 있으면 귀신이 붙은 것이고, 상관이 없고 식신만 있다면 스스로의 능력이다.
막상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다고 자신의 수행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다. 귀신과 도사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도사는 편관이 필수다. 편관 없는 도사는 진정한 도의 세계를 경험 할 수 없다.
간혹 정관이 있는 도사도 있는데, 정관이 있으면 세속의 인연을 끊을 수 없으며 세속에 물들어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늘 경계해야 한다.

순수한 도사일수록 일찍이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우며 결혼도 힘들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0.역술인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我	偏官	
地支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偏官	傷官	
				偏印

역술인은 딱히 '이러한 사주가 역술인의 사주다'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카운슬링을 하는 일이므로 편인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느 정도 도(道)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
관성중에는 편관이 필수는 아니나 있으면 좋고, 정관도 때로는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역술인은 세속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1.종교인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傷官	我	丁	偏官
地支	正印	食神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官	丁
	正印	食神		傷官

종교인도 역술인 마찬가지로 사주상의 특징은 그다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옷만 종교인의 옷을 입고 있지 사실은 하나의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속에서 수행하는 종교인은 도사의 사주와 유사하다.

종교인은 신에 대한 믿음과 이를 받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정화(丁火)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丁)은 거의 필수다. 또한 종교인은 신의 세계를 추구하므로 편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도 많다. 그것은 그만큼 세속에 인연이 강한 종교인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도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편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보통은 직장에 다니거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안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주부도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 재성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재성이 약하다.

국가의 정책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종교인도 그러한 사람들의 부류에 해당한다,(특히 불교가 그런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종교인은 재성이 약한 경우가 많다.

22.고장수리(A/S 기사)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財	我	偏印	食神
地支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印		
	食神			正財
			偏印	

고장수리는 전적으로 편인으로 하는 일이므로 편인이 필수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 식신도 필수다.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재를 가지고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3.부동산 중개업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偏印
地支			偏印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印	偏印	
	偏財			正官

부동산 중개업은 계약서를 많이 만지는 직업이다 따라서 편인은 필수다.
또한 부동산은 편재이니 편재도 필수다.
그리고 관청과 관련한 업무이니 정관이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4.부동산 개발업(토지 브로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傷官	我	偏財	
地支			偏印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傷官			
			偏印	正官

부동산 개발업은 땅을 다루기 때문에 편재는 필수다.
또한 땅에 관한 조사, 관찰과 많은 연구를 하므로 상관도 필수다.
그리고 관청의 사무와 관련이 많으므로 정관이 있다.
또한 많은 계약을 이루어 내야 하므로 편인도 필수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5.부동산 개발업(건축업자)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偏財	正印
地支	偏印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傷官	
		偏財	正印	
	偏印			正官

건축업자가 토지 브로커와 다른 점은 정인과 식신이 있다는 것이다.
정인은 제조업이므로 실제로 건축을 한다.
또한 식신은 그러한 기술을 행사하고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6.인터넷쇼핑몰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偏印	
地支				劫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印	
				劫財

인터넷쇼핑몰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매장이다. 따라서 편재가 천간에만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인터넷 쇼핑몰업자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본이다.
또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편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종의 장사이므로 겁재가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7.전산업무(컴퓨터 프로그래머)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食神	我	壬	癸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壬		傷官
				癸
	癸		食神	

전산업무는 수기운이 강하게 지배한다. 따라서 사주에 수기운이 강하다.
또한 전산업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이므로 식신이 필수다.
때로는 상관도 있는데 조용한 곳에서 일을 하는 전산업무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해커의 경우에는 상관이 필수다. 그들은 조사, 관찰을 많이 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8.변호사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印	我	偏財	
地支		正官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正印	
		正官		偏印

변호사의 사주는 딱히 특징은 없다.
다만 국가와 관련한 일을 하므로(소송) 정관이 있어야 하고 공부와 인연이 많으니 정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를 많이 만지니 편인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한 일도 많아 편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9.변리사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傷官	
地支	偏印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傷官	傷官	
	偏印			正官

변리사는 변호사와 다르게 상관을 필수로 가진다.
그 이유는 특허분야의 일은 아이디어에 관한 조사, 관찰, 연구의 일이 많은데 그것이 상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관련의 사무이므로 정관이 있어야 하며, 계약서를 만지니 편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특허란 새로운 분야이므로 편재를 가져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0.사회복지사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偏印
地支			偏印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食神	
		偏財		
			偏印	正官

사회복지사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많으므로 편인이 필수다.
또한 편인은 계약직임을 말하는데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기보다는 계약직이 많다.
또한 그러한 일은 육체적인 수고로움이 따르므로 식신도 필수다.
그리고 국가적인 사무에 해당하므로 정관이 있다.
하지만 안정된 직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편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1.경호원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財	我		食神
地支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食神		偏財
	食神		偏印	

경호원은 용감무쌍하며 체력적으로 매우 강해야 한다. 따라서 식신은 필수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편인이 있어야 하고, 안정된 직장은 아니므로 편재를 가져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2.항공기 조종사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傷官	我	傷官	
地支	傷官			傷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傷官	傷官	
	傷官			傷官

항공기 조종사나 공군의 파일럿은 상관이 유난히 강하다. 특히 상관이 금(金)인 경우가 많다.
상관이 강한 이유는 귀신처럼 멀리 날아다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무당의 사주와 유사하다. 사주만 보고는 무당인지 조종사인지 알기 어렵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3.소방관(119)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財	我	食神	偏印
地支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食神		
			偏印	
		正財		正官

소방관은 국가의 사무이니 정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돌격해서 인명을 구조해야하니 편인과 식신이 필수다.
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니 정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9 구급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긴급환자를 응급조치해야 하므로 식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를 보살펴야 하니 편인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4.전기기술자(조명, 화학분야)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食神	我	偏財	丙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丙	食神	丙	

전기기술자도 기술자이므로 식신은 필수다.
전기는 조명을 다루는 일과 관련이 많다. 또한 조명은 빛이기 때문에 병화(丙火)가 있어야 한다.
전기기술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편재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화학분야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병화를 가지는데, 이때 병화가 화학분야인 이유는 화학약품은 독(毒)이다.
독을 취급하려면 병화가 필수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5.미용사(마사지사)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癸	我	偏印	食神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食神	癸		
		正印	丙	丙
			偏印	

미용사는 돌보는 일이므로 편인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예쁘게 꾸며주는 일도 하므로 정인도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편인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신부화장의 경우에는 정인이 더 중요하다.
또한 미용도 기술이며 육체적인 수고로움이 따르는지라 식신이 필수다.

마사지사의 경우에는 건상을 돌보는 일이므로 계수(癸)가 있어야 하며 때로는, 치료하는 일도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병화(丙)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6.요리사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丁	我	食神	偏印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丁	食神	丁	
				偏印

요리사는 불을 잘 다루어야 좋은 맛을 내므로 정화(丁)는 필수다.
또한 요리도 기술이고 육체적인 수고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식신이 필수다.
기술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따르고, 요리는 봉사하는 일이므로 편인도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7.영양사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丙	我	偏印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丙		
	丁		丁	
				偏印

영양사도 요리사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일한다. 그런데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
영양사는 음식을 직접 만들기보다도 식재료의 유통기간, 칼로리, 양분 등을 따져본다.
(식료품점에서 식재료를 고를 때 성분표를 읽고 따져보는 사람은 병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병화(丙)의 작용이다. 따라서 병은 필수다. 물론 사주에 정화(丁)가 있다면 요리까지도 한다.
그리고 영양사도 자격증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편인이 필요하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8.보양식 제조업(각종 건강원)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癸	我	丁	劫財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癸		劫財
			丁	

보양식은 보통 기력이 떨어질 경우에 먹는 음식으로 그 자체가 주식은 아니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먹는 음식이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므로 계수(癸)가 필수다. 또한 일반적인 장사이므로 겁재가 필요하다.
음식점 중에도 보양식을 전문으로 파는 음식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삼계탕, 장어구이 전문점 등일 경우에는 계수(癸)가 들어간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39.정치인(국회의원)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傷官	我	正官	劫財
地支			偏財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傷官		劫財
	正印			
			偏財	正官

정치인는 국가사무를 보므로 정관은 필수다.
또한 투쟁이 많고 군모술수에 능하니 상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금동원에서 자유로워야 하니 겁재도 있다.
진보당의 국회원의원은 정관대신에 편관만을 가질 수도 있고, 편관과 정관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국회의원은 편관을 가질 수 없다.
보수당의 국회의원이 편관을 가지면 당내에서 진보성향을 가지게 되며 당을 배신할 수도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0.오락실 운영(도박장 개설)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偏財	我	劫財	傷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劫財		正印
	偏財		傷官	

예전에는 오락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게임하는 전자오락실이었으나, 요즘은 오락실이 모두 성인오락실이서 현금을 가지고 가볍게 도박을 한다. 불법적으로 하는 도박장과 금액의 규모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도박장은 불법이므로 상관은 필수다. 또한 상관은 사기를 말하는데 도박은 사기성이 강하다.

그리고 현금을 직접 만지므로 겁재도 필수다.

도박장은 한곳에 오랫동안 영업하는 일이 없으므로 편재가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은 정인이므로 정인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1.도서관 사서(기록원)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傷官	我	正財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傷官	正印		
				正財

실제로 도서관에서 사서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사주상으로는 뚜렷하게 특성이 나타난다.
도서관 사서는 성격이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홀로 조용한 곳에서 일해도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것 때문에 상관이 필수다.
도서관 사서의 직은 비교적 안정된 자리므로 정재가 있다.
그리고 문서를 다루므로 정인이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2.노래방(유흥업소)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壬	我	壬	劫財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劫財	壬	壬

노래방이나 술집 등의 유흥업소는 말 그대로 유흥이 많은 곳인데 유흥은 임수가 많아야 한다. 따라서 임수는 필수다.

또한 장사이니 겁재가 강해야 한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재가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3.연극배우(개그맨)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偏財	我		偏財
地支	偏印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偏財
	偏印	偏印		

배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표현능력을 말하는 편인이 필수다.
그러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지는 못하며 일 때문에 이것저것으로 다니는 일이 많으므로 편재를 가져야만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4.모델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丁	我	丁	偏財
地支			午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丙	
		偏財		偏印
			丁	

모델은 외모가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외모를 드러내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외모가 준수한 것은 정화(丁)로 나타난다. 정화(丁)는 잘 익은 과일과 같아 탐스러운 것이다.
모델이라는 직업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는 어렵다. 오더가 나면 일이 생기는 구조이다. 따라서 편재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편인이 필요하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5.연예인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壬	我	偏財	
地支		食神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壬		
	偏財			偏印
		食神		

연예인의 사주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혹자는 기생이나 무당의 사주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생의 사주도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며, 무당은 독특한 특성이 있으므로 확연히 구별되며 연예인이 될 수 없다.
연기에 깊이 몰입되어 마치 빙의가 되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뛰어난 연기를 한다면, 신(神)끼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예술인이 아니다.
물론 순수 연극을 좋아하는 연기파 배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배우는 오락프로에 나오지 않는다.
요즘은 오락프로에 자주 나오고, 토크쇼에 나와 잡담을 늘어놓고 가벼운 웃음을 주는 경우도 많다.
그저 한자리 차지해서 앉아 있기만 해도 연예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사주를 구성해보면 편재가 필수가 된다.
편재는 임시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락프로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재가 강할수록 많은 오락프로에 출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계약직이다. 과거 80년대까지는 전속배우제도였으나 이제는 전속배우가 없다. 따라서 편인을 가져야만 한다.(전속배우시대였다면 정인을 가져야 한다)
또한 연예인은 언제 어디서나 남과 잘 어울려야만 하므로 유흥이 많아야 한다. 그것은 임수(壬)가 된다.
간혹 연기파를 자처하며 매스컴의 노출을 자제하는 연예인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이니 논외로 한다.
또한 연예인은 일반인의 동경의 대상이니 떠받들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것은 식신의 능력이다.
인기가 많아서 공주나 왕자처럼 떠받들어지는 것은 식신인 것이다. 그러나 식신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식신이 있으면 몸으로 하는 것에 강점이 있으니 춤을 잘 추거나 체력이 강점이 되어 인기를 얻게 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6.외교관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正財	我	傷官	偏官
地支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偏官		
	正財		傷官	正官

외교관은 국가사무를 맡고 있으므로 정관은 필수다.
또한 외국에서 근무하므로 편관과 상관도 필수다.
그리고 직장은 매우 안정적이므로 정재를 가진다.
그리고 부임지가 외국이므로 편재가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7.해외여행 가이드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便財	我	傷官	偏官
地支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偏官		偏印
			傷官	

해외여행가이드는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측면에서는 외교관과 같으나 공무를 수행하지는 않으므로 정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편관은 필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은둔과 같으므로 상관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은 아니고 임시직인 경우가 많으므로 편재를 가진며, 계약직이므로 편인을 가져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48.가정주부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我		正印
地支		正財	正官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印
	食神			
		正財	正官	

가정주부는 전형적인 여인상으로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는 여자다.
그러려면 가정을 잘 지켜야 하니 정인은 필수이며, 자식도 잘 키워야 하니 식신도 있어야 한다.
또한 남편이 있어야 하니 정관이 있어야 하고, 집안에서 살림만하는 것은 정재의 역할이니 정재도 있어야 한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比肩	我	比肩	偏財
地支		比肩	偏印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官		比肩
	比肩		劫財	正財
		比肩	偏印	

위 사주는 딱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주의 유형이다.
역술인에게 찾아와서 “취업도 잘 안되고 기술도 없고,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기술이다.
일단 기술이 있으면 뭐라도 해서 굶지는 않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기술이 없는 사람도 매우 많다.
그러한 경우는 사무직으로 취업을 하면 괜찮은데, 공부를 잘 한 것도 아니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기술은 식신이다. 이것이 보통 ‘생활력’을 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식신이 있으면 웬만하면 기술은 가지고 있고, 체력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한다. 그런데 식신이 없으면 노동을 못하니 사무직이나 판매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취업을 못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위 사주는 식신이 없고, 대신에 비견은 많다.
비견은 재능과는 무관하여, 비견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직업이나 직장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뚜렷한 재능이 없어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평생을 뚜렷한 직업 없이 허송세월하기 쉬운 유형이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天干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偏財	我	正財	
地支		正財		正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偏財		偏財	
		正財		正財

이 경우는 취업에는 문제가 없으나, 한 직장에 오랫동안 있지 못해 안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재성은 자리를 말하므로 앉기는 잘하나 엉덩이가 가벼워 금방 자리를 옮기는 것과 같다.

이런 경우도 뚜렷한 기술이 없는 경우가 많다. 기술이 있다면 한자리에 그래도 상당기간 버틸 수 있고, 본인도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므로 큰 걱정을 않는데 기술이 없으므로 취업을 해도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 정도로 그치기 쉽고,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다.
평생을 잡다한 일로 살아가기 쉬운 유형이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51.애매모호3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偏官	我	正官	
地支	正官	偏官		正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官	偏官
	正官	偏官		正財

사주에 관성이 너무 강하면 평생을 주눅 들어 살기 쉽다.
한편으로는 하는 일도 없이 목소리만 큰 경우도 있다.
인생의 목표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유형이다.
직업의 변동도 잦으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경우가 많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時干	日干	月干	年干
天干	正官	我	正印	比肩
地支	劫財	比肩		劫財
	時支	日支	月支	年支
地藏干	正財			
			正官	正印
	劫財	比肩		劫財

이 사주 역시 비겁이 강한 사주인데, 한편으로는 정관도 있고, 정인도 있다.
반면에 정재는 지장간에 하나뿐이다.
정관과 정인이 있으니 인격도 반듯하고 공부도 많이 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정재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정재가 약하니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니 안타까움이 많다.
좋게 이야기하면 능력은 좋으나 놀고 있는 인재인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상의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사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육친과 간지의 위치는 사주원국과 지장간에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6.취업,입학,연애(결혼),승진,이사(부동산　매매),임신(출산),공부,출산택일 등

사주학적으로는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떤 성품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만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80명이나 되고 그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 어떤 이는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주가 같은 쌍둥이 언니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동생은 아직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쌍둥이조차도 살아가는 모습이 모두 다른 것이다.

사주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가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또는 부자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 할 수 있다. 단지 그것뿐이다.
예를 들어 미술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후대에 위대한 예술가로서 평가를 받는지 또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는지, 또는 평생을 장애인을 돕는 일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지 등 부귀영화가 아닌 다른 관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운(運)이란 사람 앞으로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잡는가, 잡지 않는가에 따라 그의 운명은 달라진다.
보통 그것은 기회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기회는 그것이 호기(好機)인지, 위기(危機)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주만으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주가 말하고 있지 않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인의 사주가 아니며, 사주학적으로 가능한 일을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실제의 사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된다.

1.취업

天干	편재	日干	편재	겁재	정관	
	丙	壬	丙	癸	己	
地支	午	戌	辰	酉	未	
	정재	편관	편관	정인	정관	
	合	破/三刑				
地藏干	丙	辛	乙	庚	丁	
		丁	癸		乙	
	丁	戊	戊	辛	己	

취업은 관운이 들어와도 가능하고, 직장의 운이 들어와도 가능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관이 있는 사주가 있고, 없는 사주도 있으며, 재성이 있는 사주도 있고 없는 사주도 있다. 심지어 정관과 재성이 없는 사주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비겁으로서 따져 보아야 한다.

위 사주는 정관이 없는 사주인데 운에서 정관이 들어오니 어떤 직책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지의 정재가 합(合)이 들어오니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입학

天干	편인	日干	상관	식신	편관	
	甲	丙	己	戊	壬	
地支	午	戌	未	申	辰	子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식신	정관
		沖		三合		
地藏干	丙	辛	丁	戊	乙	壬
		丁	乙	壬	癸	
	丁	戊	己	庚	戊	癸

입학은 정관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간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입학은 학교에서 허가를 해 줘야하니 정인이 합(合)이 걸려야 한다.

위 사주는 삼합으로 정관이 들어오니 입학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일지의 식신이 충(沖)이다.
식신이 충이면 가는 길이 막힘을 뜻하니 자신이 본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운에서 편관이 들어오니 이는 목표가 변경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처음에 본인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지는 못하고 목표를 바꿔서 지방의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할 것이라는 뜻이 된다.

3.연애(결혼)

天干	편관	日干	정인	비견	편관	
	庚	甲	癸	甲	癸	
地支	午	寅	酉	戌	巳	丑
	상관	비견	정관	편재	식신	정재
		刑/亥	三合	怨嗔		
地藏干	丙	戊	庚	辛	己	癸
		丙		丁	庚	辛
	丁	甲	辛	戊	丙	己

연애는 사주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야 한다.
남자는 여자가 재성이므로 재성의 변화를 살펴야 하고, 여자는 남자가 관성이므로 관성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또한 남자는 여자를 얻으려면 주변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비겁의 합이 중요하고, 여자는 행동으로 나서야 하니 식신의 합이 중요하다.

위 사주가 여자이면
지장간에 관성이 많으니 본래 남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을 꾸미고, 애정을 나누게 하는 정인이 없는 사주이다. 따라서 남자는 만나되 좀처럼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운에서 정인이 뿌리를 내렸으니 마침내 애정이 이루어지고 살림도 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삼합으로 정재가 들어온 것은 애정을 나누는 장소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운이면 결혼을 해서 살림집을 가지는 것까지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위 사주가 남자이면
사주에 정재가 없으니 본래 부인감의 여자가 귀한 사주이다.
즉, 여자와 연애는 종종 하나 그 연애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미고, 애정을 나누려면 정인이 있어야 하나 정인이 없는 사주이다.
그런데 운에서 정인이 뿌리를 내렸으니 마침내 애정이 이루어지고 살림도 낼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삼합으로 정재가 들어온 것은 부인감의 여자가 들어왔음을 말한다.

보통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식을 말한다.
언젠가 여자 손님이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운을 찾아봤더니 마땅히 결혼을 할 만한 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사귀는 남자는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미 제작년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인식을 하지 않았으니 혼인식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혼과 결혼식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식을 생각한다.
그런데 결혼식은 평생에 딱 하루에만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결혼식을 몇 번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에 하루에만 일어나는 일이 사주에 나타날 리가 없다.

법적으로 결혼은 사실혼과 법률혼이 있는데, 사주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녀가 살림을 내고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사실혼을 말한다. 따라서 이벤트성 사건인 혼인식이나 법적인 혼인신고는 사주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혼인신고는 관청의 일이니 관운과 편인운을 찾으면 알 수 있기도 하다.)
사주는 현실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로서 해석을 해야 한다.

4.승진

天干	편재	日干	겁재	겁재
	癸	己	戊	戊
地支	酉	酉	午	午
	식신	식신	편인	편인
	怨嗔	怨嗔	三合	三合
地藏干	庚	庚	丙	丙
	辛	辛	丁	丁

정관	겁재
甲	戊
寅	戌
정관	겁재
戊	辛
丙	丁
甲	戊

승진은 남을 지배하는 명령권을 가지는 것이니 그것은 정관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정관이 아니면 남을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출세라는 것은 남의 머리위에 올라가 남을 지배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세속에서는 정관이 으뜸인 것이다.

위 사주는 본래 정관이 없다.
그러하니 성격상 남을 지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더우기 식상이 강하니 권위에 대해서는 저항심도 많은 성격이다.
그러나 살다보면 승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가피하게 승진이 되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운에서 정관이 왔으니 승진의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일지와 시시에 원진운이 걸렸으니 마지못해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합으로 겁재가 들어왔으니 승진이 되면 보수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5.이사(부동산 매매)

天干	편재	日干	정인	비견
	己	乙	壬	乙
地支	卯	酉	午	丑
	비견	편관	식신	편재
		三合	害/怨嗔	
地藏干	甲	庚	丙	癸
				辛
	乙	辛	丁	己

비견	
乙	
丑	巳
편재	상관
癸	己
辛	庚
己	丙

이사나 부동산의 매매는 재성의 변화를 찾아보면 된다.
정재는 특히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제다.
편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 사무실, 시골의 임야 또는 별장을 뜻한다.
그리고 비겁의 운도 봐야 한다. 만약 비겁이 충을 걸면 임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니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의 경우에 이사도 일단 집의 매매가 성립을 해야 하니 비겁이 충을 걸면 성사되지 않는다.

위 사주는 운이 을축(乙丑)인데 이것은 부동산을 나누는 것이니 세를 주거나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합으로 상관이 들어왔으니 자신은 먼 곳으로 떠난다는 뜻이다.

또한 월지 식신이 원진이니 이것은 마지못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남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외국이나 지방으로 떠나는 것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편재로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정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떠나는 이유는 월지의 식신의 운이 害/怨嗔 임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자식의 문제(공부)이거나 몸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이다.

6.임신(출산)

天干	상관	日干	편인	겁재	식신	
	丁	甲	壬	乙	丙	
地支	卯	寅	午	卯	辰	
	겁재	비견	상관	겁재	편재	
	害			害		
地藏干	甲	戊	丙	甲	乙	
		丙			癸	
	乙	甲	丁	乙	戊	

임신과 출산은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여자만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보통의 경우에는 여자의 사주만으로 살펴봐도 족하다.
그렇다고 남자의 운으로 못 보는 것은 아니다. 남자에게도 자식은 식신이므로 식신운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특이한 경우에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부인이 자식을 낳기 어려운 사주일 경우에 남자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다. 그런 한 경우는 드물지만 매우 요긴하게 자식을 낳는 시기를 알 수 있다.

아이는 임신이라는 10개월의 기간을 거쳐야만 세상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임신을 하고 올해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올해 초에 임신해서 올해 말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의 운은 2년의 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 사주는 임신을 하기 어려운 여자다.
그 이유는 아기를 만들려면 생명을 일으키는 계(癸)가 있어야 하는데 사주에 계(계)가 없으며, 또한 화기운이 강해 수기운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의 힘을 일으키기 어렵다.

하지만 병진(丙辰)년의 운에서 진(辰)의 지장간에 (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약하지만 생명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병(丙)은 식신이기 때문에 자식의 일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인 정사(丁巳)년의 해운은 정(丁)과 사(巳)가 상관과 식신이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주는 임신의 기회가 매우 적으니 운이 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임신을 해야 한다.

7.공부

天干	비견	日干	상관	편관	정인	
	辛	辛	壬	丁	戊	
地支	卯	亥	寅	未	午	戌
	편재	상관	정재	편인	편관	정인
	破		三合	合		
地藏干	甲	己	戊	丁	丙	辛
		甲	丙	乙		丁
	乙	壬	甲	己	丁	戊

공부는 식신의 공부와 정인의 공부로 나눌 수 있다.
식신의 공부는 학습(學習)을 말하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서 어린아이와 학창시절의 공부를 말한다. 이때의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정인의 공부는 학문(學文)을 하는 공부이고, 학문이란 마음을 닦는 것에 근본을 두고 있으니 성인이 된 연후에 배우는 공부를 말한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 할지 못할지는 식신만 찾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사주에 식신이 강하고 대운에서 학창시절 식신운이 오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사주에 정인이 많으면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책을 놓지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위 사주는 식신이 없으니 학창시절 딱히 공부를 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에 무오(戊午)년이 되어 정인운(戊)이 들어오고, 삼합으로 술(戌)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또한 정인이니 무오년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공부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물어오면 오(午)는 편관이니 외국관련의 공부가 되는데 년지 편인이 합이 걸렸으니 외국어공부를 하거나, 삼합으로 들어오는 정인의 지장간에 정(丁)이 있으니 요리나 종교에 관한 공부라고 본다.

8.출산택일(出産擇日)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출산택일이라고 말하겠다.
사주로 인간을 운명을 예측할 수 있음에 좋은 사주를 타고난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그렇다면 좋은 사주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관계없다.
어떤 사람은 글 쓰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쉽게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은 돈을 벌기위해 육체적 수고로움을 견뎌야 하며, 싫어도 윗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굴욕도 맛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남의 머리위에 올라 남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출세를 말하는 것이다.
출세는 최소한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수입도 평균이상이다.
그것이 바로 정관이다.
세속에서 정관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에 지배를 받으므로 그 환경을 바탕으로 운을 해석하는 것이지만, 정관이 없다면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해도 가업을 계승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다고 해도 정관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없다.
반대로 정관이 있다면 공부를 못해서 사회적으로 출세를 못한다 하더라도 노가다 십장(什長, 열 명 중의 우두머리, 요즘으로 말하면 작업반장)이라도 한다.

정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리(在)다.
아무리 우뚝 선 큰 나무도 외로운 무인도에 홀로 서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면 그저 독불장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정재다.

아무리 관운이 있어서 배운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재성이 없으면 내가 머물 곳이 없으니, 남이 알아주지 않으며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좋은 학벌을 가졌으면서도 뚜렷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경우에 과거 '고등 놈팽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다. 그런 사람은 보통 재성운에서 직장을 가지는데, 재성이란 여자를 말하기도 하니 여자에게 의지해서 사는 경우도 많다.

정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행동력이다.
생활력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인간은 살다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좌절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와 행동을 가지게 하는 것이 식신이다.

정관, 정재, 식신만 제대로 갖춘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사주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것을 갖춰줘야 한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기회가 와도 그것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우니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결정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보통 불가피한 이유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기왕이면 길일(吉日)을 잡아 아이에게 좋은 사주를 갖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데 실지로는 길일을 잡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수술을 할 테니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데 이미 사주에서 년주와 월주는 결정이 난 상태다.
그런데 년주와 월주가 수기운이 가득하다든지, 또는 화기운이 가득하면 일주와 시주로서 오행의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시주는 태어난 시각이 되는데 의사의 업무시간을 고려하면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수술을 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아무리 좋은 사주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으로는 부모의 사주를 보면 어느 정도 아이의 운명을 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래 해로하기 어렵다면 아이의 사주에는 이미 년주와 월주에 인성이 가득하게 들어와 원만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움을 예측 할 수 있다.

출산택일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따르니, 차선의 방법은 아이의 장래의 직업을 어느 정도 확정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몇 날 몇 시에 태어나면 공무원 사주이고, 몇 날 몇 시면 과학자의 사주이고, 몇 날 몇 시면 운동에 재능이 있으며, 몇 날 몇 시면 돈복이 좋다 등으로 맞추는 것이다.

天干	겁재	日干	편관	정인
	丁	丙	壬	乙
地支	酉	申	午	卯
	정재	편재	겁재	정인
地藏干	庚	戊	丙	甲
		壬		
	辛	庚	丁	乙

위 사주는 정관이 없어 비록 사회적으로 출세는 하기는 어려우나, 년주가 정인이고 시간이 겁재이니 교육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특히 월간이 편관이니 영어전문 학원은 매우 좋다.
따라서 부모에게 자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주임을 알려주고, 자식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잘 지도하도록 이야기 해준다.

27.래정법(來定法)

손님은 자기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를 점쟁이가 먼저 말한다면 점쟁이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고 카운슬링의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래정법이란 손님이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지를 고민을 들어보지 않고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손님의 생년월시를 안다면, 해운이나 월운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먼저 생년월일시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간혹 무당이나 신끼가 있는 점쟁이는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지를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다. 손님으로서는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점쟁이의 말을 맹신하게 되기도 한다.

학문으로 추명을 하는 역술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주학은 다른 점술이 못하는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1.여자

天干	정인	日干	정인	편재	식신	정관
	戊	辛	戊	乙	癸	丙
地支	戌	卯	子	卯	巳	
	정인	편재	식신	편재	정관	
	怨嗔					
地藏干	辛	甲	壬	甲	己	
	丁				庚	
	戊	乙	癸	乙	丙	

위 사주는 먼저 해운이나 월운인 癸巳를 해석하면 월지의 지장간 癸가 식신인데 운에 의해 천간에 투출을 했다.
여자에게 식신은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더구나 癸巳의 巳는 정관이므로 틀림없이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된다. 즉, 남자를 사귀는 운인 것이다.

그런데 癸巳에 의해 사주는 시지 정인이 怨嗔운에 걸렸다.

정인이 원진이면 마지못해 살림을 내거나 애정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손님은 어쩔 수 없이 남자와 만나거나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2.남자

天干	정인	日干	정관	상관	정재	식신
	辛	壬	己	乙	丁	甲
地支	亥	戌	丑	卯	巳	酉
	비견	편관	정관	상관	편재	정인
	沖	怨嗔	三合			
地藏干	己	辛	癸	甲	己	庚
	甲	丁	辛		庚	
	壬	戊	己	乙	丙	辛

위 사주는 일지의 지장간 丁이 丁巳운에서 천간에 투출했다. 따라서 직장이나 여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삼합으로 정인이 들어왔으므로 살림을 꾸미는 문제이니 여자의 문제다.
그리고 한편으로 시지 비견이 충을 맞았다.
남자의 경우에 여자를 얻으려면 비겁이 합을 걸어야 하는데 충을 걸었으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이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하지만 주위에서 반대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결과까지 이야기 하라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3.여자

天干	정인	日干	비견	식신	편재	식신
	癸	甲	甲	丙	戊	丙
地支	酉	辰	午	辰	午	
	정관	편재	상관	편재	상관	
			自刑			
地藏干	庚	乙	丙	乙	丙	
		癸		癸		
	辛	戊	丁	戊	丁	

위 사주는 지장간의 戊가 戊午운에서 천간에 투출했고 그것이 편재이니 새로운 자리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이직을 하는 경우다.
그런데 월지 상관이 自刑이니 떠나는 것이 힘든 것이다.
여자에게 떠나는 것이 힘든 경우는 거리상의 문제가 많으니 새로운 자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야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달의 己未운을 보면

天干	정인	日干	비견	식신	정재	편재
	癸	甲	甲	丙	己	戊
地支	酉	辰	午	辰	未	
	정관	편재	상관	편재	상관	
			合			
地藏干	庚	乙	丙	乙	丁	
		癸		癸	乙	
	辛	戊	丁	戊	己	

운에서 己未월은 정재가 천간과 지장간에 연결이 되었으므로 직장의 문제가 틀림없으며, 월지 상관이 合을 이루었으니 떠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직장의 이직 문제인데 그것은 새로운 직장이 나타났는데 거리가 멀어서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갈 것이다.)

간혹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는 경우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
그런 경우 대게 전반적인 자기의 사주에 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 경우가 역술인에게는 가장 어려운 경우다.
사주만으로는 그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예를 들어 부자 집안에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는지, 아니면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태어났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등등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다.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남한)에만 7,80명이 있고, 그들의 삶은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의사일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심지어 쌍둥이도 사주는 같지만 사는 것이 다르지 않던가.
만약 사주만으로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몇 명을 두었는지, 경제적 형편은 어떤지 등등을 맞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점쟁이가 신끼가 있거나, 무당의 경우 그러한 것을 맞추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그런 경우 직업에 따른 사주의 유형을 분석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신의 여부를 살펴본다.
식신이 강하면 기술자의 사주이니 기술로 살아갈 것이며, 식신이 없다면 사무직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특히 수기운이 강하면 창고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금기운이 강하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경우에 화기운이 강하면 의류나 신발, 악세서리를 유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사주만으로 직업을 맞출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퍼즐조각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나간다면 손님은 역술인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관운, 배우자운, 직장운 등을 말해나가면 된다.

28.혼란스런 손님

역술인은 손님이 말하는 고민에 관해 그 일이 사주상으로 가능한 일인지, 현재 운에서 일어나는 일인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

상담도중에 손님은 자신의 어떤 특이한 문제를 먼저 말하기도 하는데, 역술인이 보기에 그러한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손님이 말하는 고민과 손님의 사주가 일치하며, 현재의 고민이 운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드물게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곧바로 손님이 말한 사주가 틀렸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드물게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운이란 그에게서 일어나는 대외적인 현상과 그의 행동을 보는 것이지, 그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속마음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는 손님의 정신을 분석해봐야 한다.
대게의 경우에는 망상증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마치 실제의 일처럼 역술인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보라고 충고한다. (실지로 병원에서는 그것을 망상증이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본인은 타인에게는 말하지 않다가 역술인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통 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행동을 하다가 특별한 문제에 관해서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경우 사주에 인성에 결함이 있나 확인한다.
대게의 경우 인성에 문제가 있어 그것이 착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운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특성이라고 볼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한 사주가 늘 착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해지면 정말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현상에 관해 그 원인을 따져보면 대게 정(精)에 손상이 온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무당을 찾아가면 귀신이 씌었거나 조상이 탈이 났다고 부적이나 굿을 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치료가 쉽지는 않다.
본인은 그것을 정(精)의 손상에 의한 병이라고 믿지 않으므로 치료방법을 알려줘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29.맺는말

사주학을 10년을 공부한 역술인(易術人)도 사주는 어렵기만 하다.
늘 푸는 방식 그대로 똑같이 풀었는데 누구는 맞는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안 맞는다고 한다.

이 문제는 사주를 공부한 학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다.
심지어 사주공부에 평생을 바친 학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이론이 난해한데다가 근거 또한 명확치가 않아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좋으면 왜 좋은지, 나쁘면 왜 나쁜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이론이 있다 해도 일관성이 없으니 어떤 때는 맞고 또 어떤 때는 틀리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이다.

사주학에는 수많은 이론이 존재한다.
격국과 용신론부터 시작해서 조후론, 병약론, 육친론, 십이신살론, 십이운성론 등등 이것은 대표적인 이론들이고 그 외도 많은 이론들이 존재한다.

왜 사주학에는 이론이 그토록 많이 존재할까?
역설적으로 이론이 많다함은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맞추기가 어려우니 앞으로 또 어떤 이론들이 생겨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도 누군가는 골방에 앉아서 새로운 사주학의 이론을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겠다.

사주학이 학문이라면 반드시 이론이 있어야 하고, 그 이론은 객관적이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냥 믿으라 한다면 과거에는 믿을 수도 있었겠으나 현대의 합리적인 학문으로 무장한 세대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또 그것은 학문하는 자세도 아니다.

이 책은 사주학의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잡다한 이론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사주학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론은 매우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간의 삶의 모습은 계속 달라져 간다.
하지만 사주학의 이론은 이미 명확하다.
문제는 사주학의 이론보다도 그러한 사회가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인간의 모습과 미래를 유추해내는 도구로서 사주학은 앞으로도 더욱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학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더 나은 진보된 이론으로 발전시킬 날이 올 것이다.

이 책은 사주학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는데 치중을 하여서 실제의 많은 사례를 취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그 부분은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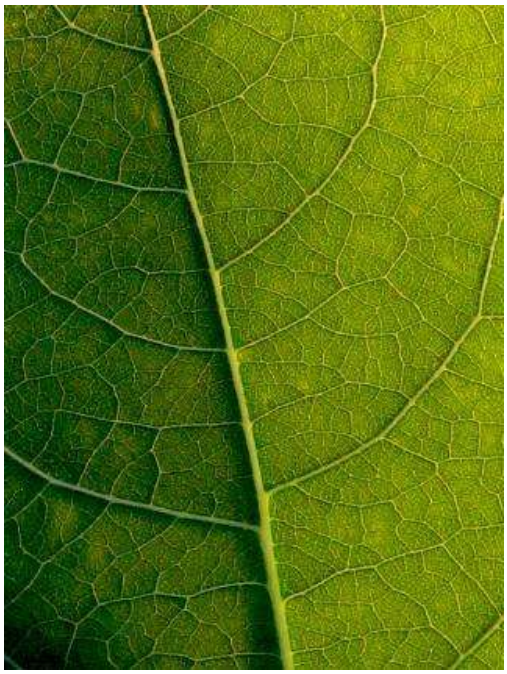
직업적으로 역술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인이나, 사주학에 대한 더욱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인은 홈페이지(http://cafe.daum.net/sewonsaju 다음카페 세원사주학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론은 그러해도 실제의 사례는 수없이 다양해서 이론을 적용시키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방문해서 보다 다양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기법을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는 상관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중에는 종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도덕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말하는 인생의 이야기도 있으며,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말하는 인생의 이야기도 있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그 외에도 인생에 관한 이야기는 무수하게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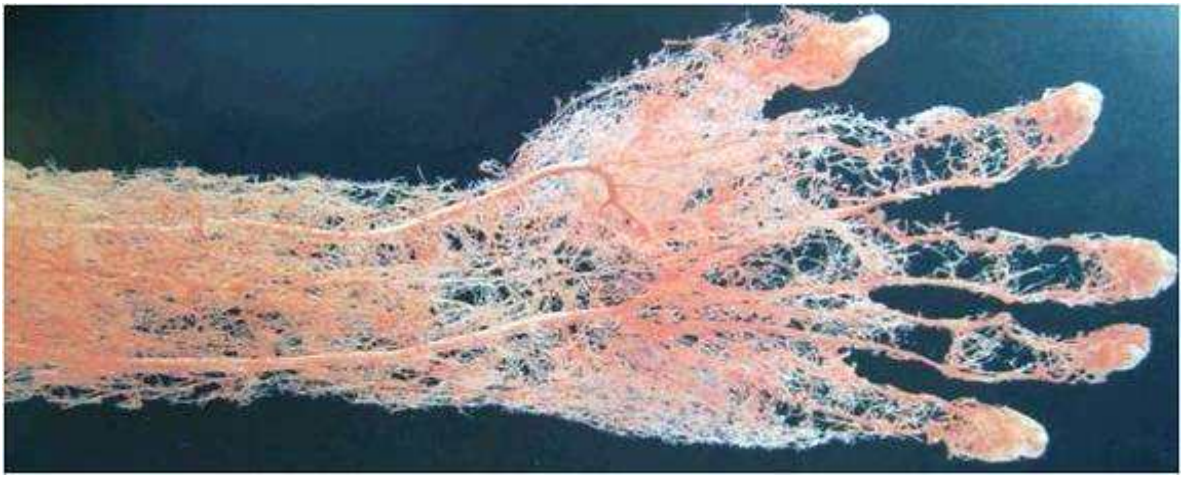
사주학은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생이 무엇인가에 관해 그 누구보다 할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우주의 근본원리에 따라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구조적으로 해석한다면
인생은 나뭇잎의 그물맥과 같다.



인생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행로를 말하는데 그것은 나뭇잎의 그물맥과 같다는 것이다.

나뭇잎의 그물맥은 소통의 구조인데 어느 한곳의 통로가 막혀도 다른 통로로 우회하여 이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양은 생명체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형태가 된다.

사람의 혈관도 이러한 그물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상처가 나서 혈관의 어느 부위가 터지거나 막혀도 근처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혈액과 양분을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물길도 그물맥의 구조다.
물은 처음에 산속의 샘으로부터 시작해서 냇물을 이루고 냇물이 모여 개천이 되고 개천이 모여 강이 되는 모양인데 그러한 모양이 그물맥의 구조인 것이다. 그러면서 땅에 수분을 머금게 하고 작물을 키우는 것이다.

길(道)도 그물맥의 구조다.
길이 '사통팔달(四通八達)'이라는 말도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소통을 말하는 것이다.
자동차로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막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도달할 수 있지 않은가.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이란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항로와 같다고 하지 않던가.
인생도 '길(道)'인 것이다.
길이기 때문에 인생도 그물맥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우주는 음양오행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소통의 구조인 그물맥의 형태는 인생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물맥의 구조는 갈림길이 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갈림길이 있다.

갈림길에 도달하면 사람은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선택의 기로를 '기회'라고 한다.
기회를 잡으면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고, 기회를 잡지 않으면 현재 가던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회를 잡는다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길이 지금까지 가던 길보다 더 험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 즉, 기회를 맞으면 역술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찾아와서 땅값이 올랐는데 지금 집을 비싸게 팔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파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파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있다 파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지금 파는 것이 좋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이고, 더 있다 파는 것은 기다리면 땅값이 더 오르는 경우가 될 것이다.

역술인은 그 동네의 땅값이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 없다.
(그걸 알 수 있다면 역술인들이 모두 부동산 재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주는 그 사람의 인생의 지도와 같아서 사주를 보고서 그 사람이 가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있다.

선택의 기로에는 반드시 운이 들어온다.
하지만 운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하거나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역술인은 다만 그 선택의 기로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운(運)이란 무엇인가?

인생(人生)이란 묘(妙)한 것이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다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사업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한순간에도 망하기도 하며, 남편과 10년을 살아도 아이가 없던 부인이 바람이 나자 바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이 오묘한 것이다.

그렇게 인생을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치킨가게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장사를 잘하던 사람이 IMF가 터지자, 손님이 뚝 끊기고 불과 몇 달도 안 되어 망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치킨가게 주인이 장사를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며, 치킨가게 주인이 IMF를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다.
IMF와 아무런 관계없는 치킨가게 주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로 날벼락을 맞아 망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 일어나지만, 인과의 법칙으로 모든 일을 설명할 수 는 없다.
왜냐하면 인과를 규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일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그것을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運)'이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면 운이 없어서 그랬다 라든지,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나면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한다.

인생이란 그렇게 운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고, 때로는 좋게, 때로는 나쁘게 변화를 맞는 것이다.
(본래 자연의 이치상으로는 변화에는 현상만 있지만, 인간은 그 현상이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개념을 가진다.)

좋은 운이 들어오면 뜻하지 않던 기회가 생겨 좋은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나쁜 운이 들어오면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또한 아기를 바라던 부인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면 임신이 되고, 임신한 부인이 나쁜 운이 들어오면 아이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간 10가지의 성질로 구분할 수 있으니 운(運)도 천간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사람은 운의 지배를 받으며 결코 운을 벗어나지 못하니 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과 같다.
껍질은 천간으로 신(辛)이다. 그래서 운은 신(辛)의 성질을 가진다.

신(辛)은 계(癸)를 간직하고 있고, 계는 생명의 근원이니, 운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다.
껍질이란 나를 보호하는 막이니 때로는 운에 의해 내가 보호받기도 하지만, 운이 깨지면 껍질이 깨지는 것이니 나는 위험에 노출되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운이 다 되었다.' 라고 죽음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운(運)은 그렇게 인생(人生)에서 길흉(吉凶)을 오게 하는 귀신(鬼神)의 조화(造化)와 같으니, 이를 육친으로

표현한다면 상관(傷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은 귀신의 조화라는 의미가 가능해진다.

운은 길흉화복으로 인생을 좌우하고 이것이 상관이어서 관을 다스린다는 것이니, 인간사 출세가 길흉화복의 요체인 것이다.